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서양 사상가가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식물이 빛으로 향하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모든 존재의 본질은 살고자 하는 맹목적 의지이다. 인간은 이러한 의지가 구체화된 욕망덩어리이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새로운 욕망이 다시 고개를 치켜든다. 욕망은 그 본성상 고통이다.

① 맹목적 의지를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는 존재이다.
② 금욕을 통해 영혼의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③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역동적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다.
④ 동정심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존재이다.
⑤ 이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존재이다.

2.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은 정의를 강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ㄴ. 을은 각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ㄷ. 갑은 정의가 경험을 통해, 을은 이성을 통해 파악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현실에서 정의의 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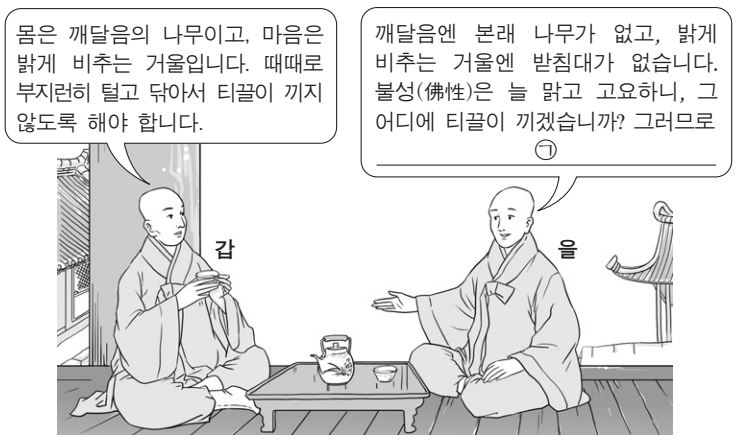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사회사상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독재와 폭력성으로 얼룩진 기존의 사회주의는 비판적 정신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었고, 자본주의도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 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①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구한다.
② 모든 정치적 조직, 규율, 권위의 철폐를 추구한다.
③ 능력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추구한다.
④ 국가 개입을 배제하여 시장 경쟁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생산 수단의 공유를 추구한다.

4. 그림은 중국의 불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우쳐야 합니다.
② 깨달은 후에도 반복하여 수양해야 합니다.
③ 깨달음조차 잊고 세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④ 점진적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전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배우거나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일러 본성[性]이라 하고, 배우면 능해지고 노력하면 완성될 수 있는 힘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러 인위[僞]라고 한다.
(나)	○ ㉠은/는 경건함이 없는 외형적인 사치보다는 차라리 경건함이 있는 검소함이 더 낫다. ○ 윗사람이 ㉠을/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을 리가 없고, 윗사람이 의(義)를 잘 지키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리가 없다.

① 도덕적 생활과 사회적 실천의 기준이다.
② 성인(聖人)이 제정해 놓은 통치의 표준이다.
③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분배적 원리이다.
④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위적 규범이다.
⑤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적 준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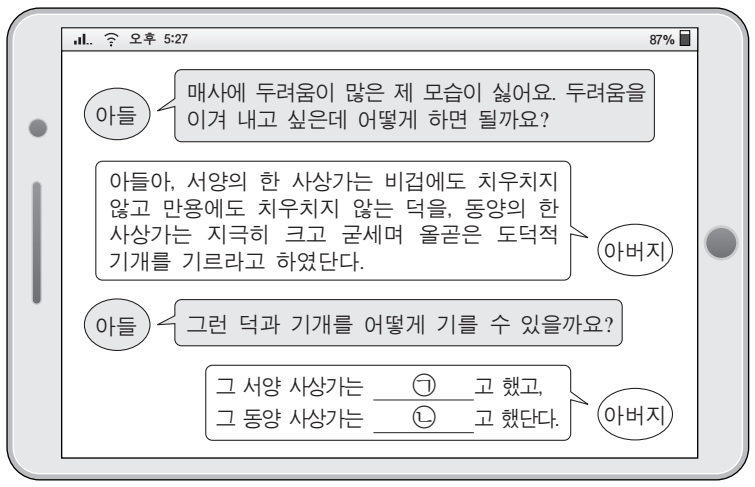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내 생명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니,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게 된다. 선(善)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악(惡)을 저질러 형벌에 가까워지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떳떳함으로 삼으면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하여 수명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① 경험적 인식을 통해 불변적 자아의 영원성을 깨닫는다.
② 이성적 분별을 통해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린다.
③ 모든 감각이나 사유 능력을 발휘하여 사물의 변화에 임한다.
④ 사물의 소박한 본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잘 실현되도록 한다.
⑤ 획일적 평등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인식의 상대성을 초월한다.

7.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의 메신저 대화이다. ㉠, ㉡에 들어갈 아버지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①	두려움을 항상 억제하라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하라
②	두려움을 항상 억제하라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라
③	덕스러운 행위를 습관화하라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하라
④	덕스러운 행위를 습관화하라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라
⑤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라	두려움을 항상 억제하라

8. (가)의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갑, 을의 입장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나)
갑: 서양 문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의 도(道)를 밝혀야 한다. 우리 것[正學]이 융성해지면 저들의 것[洋物]이 사라질 것이다. 을: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事人如天].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일지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워야 한다.	성리학적 신분 질서 유지 외세 배격 Ⅰ Ⅱ 외세 수용 Ⅳ Ⅲ 성리학적 신분 질서 거부

	갑	을		갑	을
①	Ⅰ	Ⅲ	②	Ⅰ	Ⅳ
③	Ⅱ	Ⅲ	④	Ⅱ	Ⅳ
⑤	Ⅳ	Ⅰ			

[9~10] 갑, 을, 병은 조선 시대 유학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성(性)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情)에 해당하는 사단과 칠정 또한 이와 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 을: 정에 대해 '사단이다, 칠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 병: 사단은 인의예지의 근본이므로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확충해야 한다. 사단은 심(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性), 이(理), 덕(德)이라고는 할 수 없다.

9.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사단을 선악이 함께 존재하는 정(情)으로 본다.
② 을은 기(氣)가 발(發)하면 이가 따라 발한다고 본다.
③ 병은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사단이 형성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사덕(四德)을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라고 본다.
⑤ 을, 병은 사단 이외에 또 다른 순선한 정이 있다고 본다.

10. 갑, 을, 병이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문제 상황〉
> 같은 학급의 한 친구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A는 그 친구를 어떤 식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까 봐 아직 망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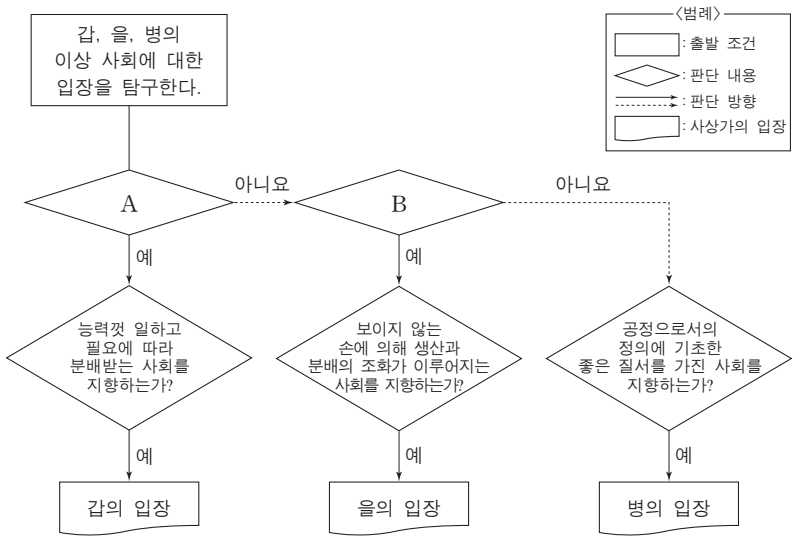
〈보 기〉

ㄱ. 갑: 사단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힘든 친구를 도와주렴.
ㄴ. 을: 탁한 기질을 바로잡아 착한 본성을 발현하여 도와주렴.
ㄷ. 병: 선(善)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친구를 도와주렴.
ㄹ. 갑, 병: 타고난 사덕(四德)을 확충하여 주체적으로 도와주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그림의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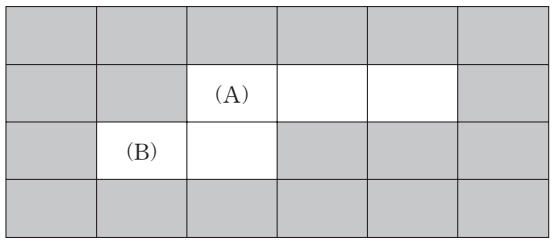


〈보 기〉

ㄱ. A: 개인의 타고난 능력의 발휘를 긍정하는가?
ㄴ. A: 계급 투쟁을 통한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가?
ㄷ. B: 경제 활동에 있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긍정하는가?
ㄹ. B: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주 만물은 신의 양태이며, 인간에게 있어 유일한 최고선은 이성을 통해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오는 평온함, 즉 행복이다.
(나)	 〔가로 열쇠〕 (A):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 중심주의 (B):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래 그러한 성품'. □□지성 〔세로 열쇠〕 (A): …… 개념.

① 경험에 의해 파악되는 필연적 질서이다.
② 이성적 관조를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③ 우주 만물을 창조한 완전한 신 그 자체이다.
④ 인간 의지에 의해 작동되는 유기적 체계이다.
⑤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다.

13.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치지(致知)가 격물에 달려 있다.'고 함은 나의 앎을 극진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인심의 영명함으로 알지 못할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 가운데 이치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나) 격물(格物)의 '격'은 '바로잡는다[正]'는 뜻이다. 격물은 그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 그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즉, 의념[意]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 바르지 못함[惡]을 없애 그 바름[善]을 회복해야 한다.

① 마음과 이치를 별개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앎[知]과 실천[行]을 선후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인간이 도덕 실천의 주체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경전 공부와 사물에 대한 탐구를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양지(良知)를 실현하기 위한 수양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존재이다. 신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완전한 선이다.
을: 신은 신앙의 대상이며, 신의 존재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보편은 신 속에, 개체 속에, 인간 정신 속에 있다.
병: 신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이다. 실재하는 것은 개체뿐이고, 보편은 이름으로만 있다.

● 학생 답안

갑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수용하여 이 세계를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로 구분하였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영원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주어진다고 보았다. 병은 이성과 철학의 공격으로부터 신앙과 신학을 지켜 내기 위해서 ㉢신앙에서 이성을, 신학에서 철학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의 존재 문제와 관련하여 ㉣갑, 을은 신이 존재한다고, 병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갑, 을, 병 모두 종교적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 신의 계시를 중시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대표자와 시민들 간의 입장 불일치와 같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을: 어떤 서양 사상가는 윤리적 행위의 기반을 담론 공동체에서 찾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상가의 견해에 의하면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① 비전문가를 배제하여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② 지도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③ 의사 결정 과정을 일원화하여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④ 정치적 비판을 금지하여 합리적 공론의 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⑤ 열린 토론으로 사회 쟁점에 관해 깊이 있게 심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를 통해 도덕적 판단의 일치에 이를 수 있다.
> 을: 도덕성은 법칙으로부터 유발되는 의무의 관념이 동시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며, 단지 의무에 맞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① 갑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유용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② 을은 감정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본다.
③ 갑은 공감의 능력을, 을은 선의지를 후천적인 것이라고 본다.
④ 갑, 을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본다.

17. 다음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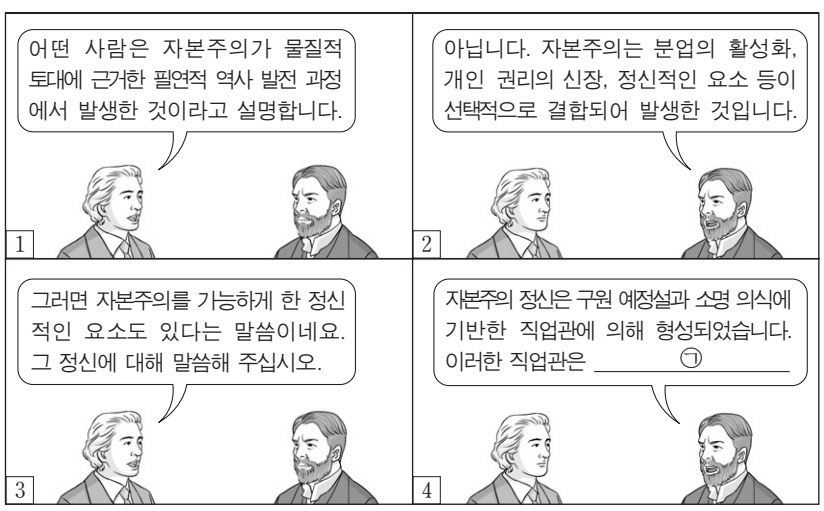
>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칙을 아는 것보다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악행 금지와 규범의 엄격한 준수 같은 최소한의 윤리를 따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주목해야 한다.

〈보 기〉

ㄱ. 도덕적 행위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중시한다.
ㄴ. 덕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맥락을 중시한다.
ㄷ. 행위자의 성품이 아닌 개별 행위의 도덕성에 주목한다.
ㄹ. 도덕 판단에서 구체적 상황보다 추상적 원리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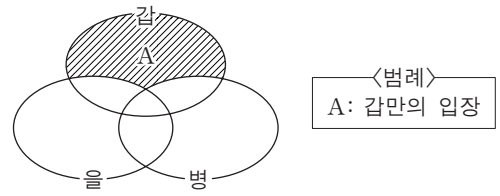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이윤 추구 활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②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공동 소유를 강조하였습니다.
③ 노동을 특정 계급만의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④ 경제적 평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⑤ 절약보다 소비 활동을 중시하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19.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빗금 친 A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며, 참된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마음에 불안과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을: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병: 내적 교양이 뒷받침된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보다 더 수준이 높으므로 쾌락의 양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①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가?
② 행복해지기 위해 공적인 삶을 회피하는가?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의 원리인가?
④ 쾌락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인가?
⑤ 더 많은 쾌락이 보장되면 고통을 수용하는가?

20. 그림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
> **칼 럼**
>
> ㉠
>
> 우리는 흔히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라고 말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말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자유는 서로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중략)… 외부의 강제나 방해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막상 주어지면 사람들은 적극적 자유를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율성과 성찰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아실현을 할 수도 없고 유대감을 상실하여 고독감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외부적 권위에 우리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소극적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① 소극적 자유의 향유를 통해 고독감을 극복하자
②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자유를 제한하자
③ 자율적 성찰을 통해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자
④ 외부적 권위를 수용하여 소극적 자유를 실현하자
⑤ 각자의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농부 엘제아르는 쓸모없는 황무지를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숲으로 가꾸고자 30여 년 동안 나무를 심었다. 두 차례의 전쟁이 지나갔지만 그는 아주 철저하면서도 단순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갔다. 나무 한 그루도 존재하지 않았던 땅은 거대한 숲으로 변했고 숲 속에서는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황무지를 거대한 숲으로 만들어 냈다.

① 신앙을 통해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②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이다.
③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④ 도덕적 당위보다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⑤ 인과 법칙에 따라 결정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2.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相)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진여(眞如)를 본다. 모든 존재와 그 현상은 꿈이고 환상이며, 물거품이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다.

①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탐욕을 버려야 한다.
② 자아의 실체에 대한 믿음으로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
③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윤회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④ 모든 현상의 주체인 마음과 외부의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⑤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자연에 귀의해야 한다.

3.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은 새가 대붕(大鵬)의 비상을 비웃으며 "우리는 힘껏 날아 큰 나무에 오르려고 해도 이르지 못해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9만 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하물며 교외로 나가는 사람도 음식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거늘, 이 작은 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으며 작은 지혜[小知]가 어찌 큰 지혜[大知]를 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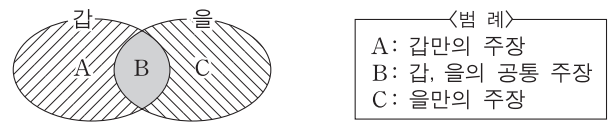
① 자연의 질서에 위계를 부여하는 성인의 역할을 중시한다.
② 자연 친화적 삶을 위해서 이론적 지식의 확충을 중시한다.
③ 차별적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정신의 절대 자유를 추구한다.
④ 경험의 축적을 통해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한다.
⑤ 신인(神人)이나 군자가 되기 위해서 덕성의 함양을 추구한다.

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부르주아는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시켰으며, 투쟁을 통해 얻어진 수많은 자유 대신에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만을 내세웠다. 인격적 가치와 진정한 자유는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다.
(나)	㉠. 그러면 억압과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 그러면 경제적 평등이 실현될 것이다.

	㉠	㉡
①	계급 지배를 타도하라	생산 수단을 공유하라
②	사적 소유를 폐지하라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라
③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라	계급 간 타협을 달성하라
④	혁명으로 국가를 소멸시켜라	계급 간 타협을 달성하라
⑤	의회를 통해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라	생산 수단을 공유하라

5.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정치를 하면서 어찌 백성을 죽이려 하는가? 그대가 선을 원하면 백성은 선해진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된다. 을: 요순의 도가 있어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不忍人之政]를 하지 않으면 천하를 고루 잘 다스릴 수 없다. 어진 제후가 있기는 하지만 성왕의 도를 행하지는 않고 있다.
(나)	

① A: 무력에 의한 통치보다 덕(德)에 의한 통치를 행해야 한다.
② B: 사단(四端)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로 보아야 한다.
③ B: 친소(親疎)의 구분이 없는 무차별적 사랑을 해야 한다.
④ C: 하늘과 인간의 일은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C: 인의를 해치는 군주의 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로부터 윤리 규범에 순응하는 단계를 거쳐서 신에게 귀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 을: 인간은 '현존재'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자이다. 인간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① 인간은 불안을 계기로 참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가?
② 인간의 진정한 삶은 이성의 법칙에 충실히 따르는 것인가?
③ 삶에의 의지를 부정하여 주관적 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가?
④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추구해 주체적 삶을 실현해야 하는가?
⑤ 인간은 윤리 규범을 따름으로써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7. 갑, 을 사상가의 공통된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성(性)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理)여서 온전하게 선하다. 보통 사람들은 사욕에 빠져 그것을 잃지만 성인(聖人)은 사욕의 폐단이 없어서 그 본성을 실현해 낼 수 있다.
> 을: 성(性)은 이(理)가 아니다. 이(理)는 속성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성이 될 수 있겠는가? 성은 마음 안에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嗜好)일 뿐이다.

〈보 기〉

ㄱ.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ㄴ. 선(善)을 실천하면 사단(四端)이 형성될 수 있다.
ㄷ.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修己安人] 해야 한다.
ㄹ. 사욕을 제거하여 천리(天理)인 사덕을 보존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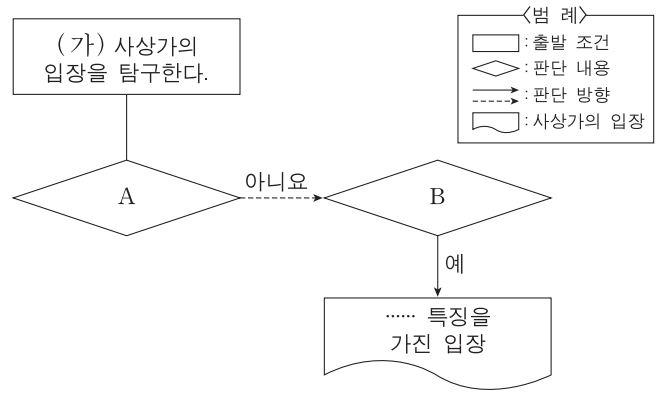
> 갑: 신은 우리가 지닌 모든 선한 것들의 이데아, 바로 그 완전한 선이다. 우리는 신을 온 정신을 다해 사랑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경멸할 때, 지상의 나라에서 천상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 을: 신은 피조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행위와 개념들의 지배자이다. 신의 지혜는 우주를 창조하는 원리이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법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① 갑은 신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이성적 인식의 대상으로 본다.
② 을은 인간 혼자 힘으로도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신을 유일한 실체로, 을은 조화로운 자연 그 자체로 본다.
④ 갑, 을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 신에 의한 구원에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적인 덕과 종교적인 덕이 구분될 수 없다고 본다.

9.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먼저 밖으로부터 감응[感]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 안에서 저절로 이(理)가 발(發)한 것을 측은지심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없이도 효가 발하는 것이니 어찌 이것이 사람의 참된 정(情)이겠습니까?

(나)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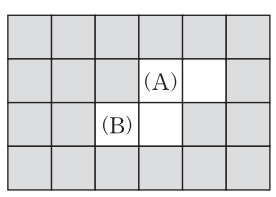
ㄱ. A: 칠정을 바로잡으면 사단으로 발하는가?
ㄴ. A: 측은지심은 칠정에 포함되는 정(情)인가?
ㄷ. B: 칠정은 외부로부터 감응되어 발한 정인가?
ㄹ. B: 측은지심을 기가 발한 것으로 파악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도덕 판단은 내적 감정의 결과이다. 어떤 행위가 시인(是認)의 감정을 유발할 때,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 '선하다' 또는 '옳다'고 말한다. 부인(否認)의 감정을 유발할 때,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 '악하다' 또는 '그르다'고 말한다.

(나)



〔가로 열쇠〕
(A): 이(理)는 보편적이며 기(氣)는 제한적이라는 이이(李珥)의 ○○ 기국론
(B): 부처가 될 수 있는 품성

〔세로 열쇠〕
(A): …… 개념

① 객관적 실재로서의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② 감정의 명령을 따르고 그것의 실현을 도와주는 능력이다.
③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④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로 이끄는 능력이다.
⑤ 행위의 동기를 유발하여 인간을 선한 행위로 이끄는 능력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정의는 감정과 욕구의 제거를 통해 실현되는가?
② 무지로 인한 악한 행동의 가능성을 부정하는가?
③ 선(善)에 대한 참된 기준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가?
④ 선에 관한 지식은 유덕한 행위의 필수적 조건인가?
⑤ 덕(德)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구분되는가?

12. 다음의 사상적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적 관계와 가치에 뿌리를 둔다.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의해 우리가 규정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보 기〉

ㄱ. 자아 형성에 있어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다.
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 의식을 강조한다.
ㄷ. 공동체를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ㄹ. 공동체를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계약의 산물로 간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다음 현대 서양 윤리 사상가의 입장에 대해 서술하시오.

> 배려 윤리는 여성이 도덕에 대해 남성과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 발달은 책임과 권리의 갈등 상황에서 양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책임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는 어떤 사람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권리를 강조하는 정의 윤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학생 답안

이 사상가는 정의 윤리가 인간의 도덕 판단 과정에서 ㉠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 객관적 이성, 보편성, 공정성 등을 강조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이 사상가가 강조하는 배려 윤리는 여성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 공감, 유대감, 보살핌 등을 중시한다. …(중략)… 배려 윤리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는 ㉤ 배려의 관점과 정의의 관점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4~15] 다음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쾌락이 곧 행복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 선(善)입니다.
> 을: 저는 성장 그 자체가 도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최선의 도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입니다.
> 병: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명령은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1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도덕 법칙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② 행위의 결과에 비추어 도덕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③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다.
④ 개인의 행복을 배제한 도덕 이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⑤ 도덕적 명령은 사회적 공감 여부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15. 갑, 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제 상황〉

> 힘든 봉사 활동을 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A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던 이웃집 할머니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A는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거짓 핑계를 대고 집에 갈지,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할머니를 도와 드릴지 망설이고 있다.

〈보 기〉

ㄱ. 동정심을 발휘하여 쉬고 싶은 욕구를 이겨 내렴.
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해 할머니를 도와 드리렴.
ㄷ. 할머니를 돕는 일에 조건이 필요하지 않음을 명심하렴.
ㄹ. 노인 공경은 관습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임을 명심하렴.

	갑	병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ㄷ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자본주의 정신은 부(富)의 축적에 대한 관점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은 부의 축적을 종교적 ·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	부에 대한 기존 관점: 상인(商人)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변화의 요인: ㉠ 부에 대한 변화된 관점: 가난하기를 바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노동을 폄하하는 것이며 신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① 신이 인간의 운명을 예정했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② 현실의 삶을 버리고 금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③ 직업을 통해 얻은 이윤은 개인적 쾌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④ 신을 대리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교회와 성직자를 따라야 한다.
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격물(格物)의 '격'은 '바로잡음[正]'이다. 격물은 인간의 [㉠]을/를 마음의 일[事]에서 발휘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루는 것이다.
○ 사람의 마음은 몸을 주재하며, [㉠]은/는 텅 비고 영험한 마음으로 밝게 지각하는 것이다.

① 현실 문제를 가치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②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상대적 규범 체계이다.
③ 이론적 학습을 통해서 습득(習得)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다.
④ 도덕적 보편성의 근거이며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론 체계이다.
⑤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을 가릴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다.

1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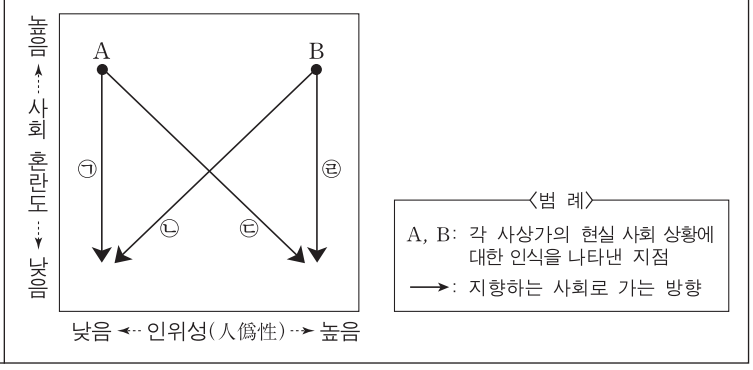
갑: 우주는 운동하는 원자들과 허공으로 구성된다. 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선은 쾌락이다. 참된 쾌락은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의 근심이 없는 상태이다.
을: 우주는 하나의 실체인 동시에 유일한 영혼이다. 이 영혼은 신이며 자연이다.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을 지배하는 신성한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① 갑은 모든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마음의 상태를 강조한다.
② 갑은 쾌락의 적극적 추구보다 고통의 원인 제거를 강조한다.
③ 을은 신이 부여한 능력에 따른 인간의 불평등을 강조한다.
④ 을은 필연성에서 벗어나려는 이성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한다.
⑤ 갑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을은 개인주의적 삶을 강조한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눈이 색(色)을 좋아하고 육체가 편안함을 좋아하는 일 등은 사람의 성정(性情)에서 나오니,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예(禮)와 같은 것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위(僞)에 의한 것이다.
을: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서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무위(無爲)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나)



	갑	을		갑	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0.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 럼

[㉠]

문화적 순수성을 주장하며 세계화 시대의 문화 교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문화 교류와 이주는 항상 지구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실크로드라는 문화 통로는 이탈리아인의 의복 스타일을 변화시켰고, 인도 불교가 중국 문명과 만나 동아시아에서 꽃을 피우는 데 일조하였다. 이런 사례는 문화적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서로 다른 문화적 요인들은 함께 융합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준다. …(후략)…

①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
② 애국심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자
③ 자기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의 문화를 바라보자
④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통합하여 세계를 단일화하자
⑤ 전통과 관습을 폐기하고 외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자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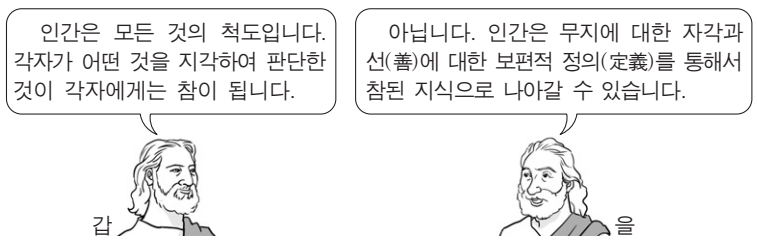
> 물과 불은 생명이 없고, 초목은 생명이 있어도 지각(知覺)이 없으며, 짐승은 지각이 있어도 도의(道義)가 없다. 소는 인간보다 힘이 세고, 말은 인간보다 달리기를 잘하는데, 소나 말이 도리어 사람에게 쓰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들은 능히 모여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능히 모여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도의가 없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타인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해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ㄴ. 정신적 능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ㄷ.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귀의하는 존재이다.
ㄹ.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갑은 도덕 판단의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ㄴ. 을은 누구도 악을 자발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ㄷ. 갑은 이성이, 을은 경험이 참된 앎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유덕한 삶과 행복한 삶은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계층이 각기 자신이 맡은 바를 잘 행할 때 정의롭다. 개인이 정의로울 수 있는 것도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이다.
> 을: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때 정당하다. 자유를 원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인간이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참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기 보존의 욕구 때문이다.

① 갑은 시민의 동의에 따라 통치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이기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③ 갑은 도덕이 국가의 성립 이후에, 을은 이전에 존재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국가가 필요악이므로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4.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 고대 불교 사상가 갑과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 갑 : 고통을 끊으려면 탐욕을 떠나야 한다. 색(色)의 실상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밝지 못하여 탐욕을 떠나지 못하면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
> 을 :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를 찾는 것이 최고이다. 내 마음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닫고, 깨친 뒤에도 오래 비추고 살펴야 한다.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 학생 답안

우주와 인생의 모든 현상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본 갑은 ㉠고통을 인간 세계의 현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으며, ㉡애욕(愛慾)을 없애 열반의 상태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을은 ㉢우리가 본래 불성(佛性)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참선보다는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과 을은 모두 ㉤진리에 대한 무지, 곧 무명(無明)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평화로운 자연상태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수립에 동의한다. 을: 인간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형식인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나)	갑: _____㉠_____. 그러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을: _____㉠_____. 그러면 도덕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보편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정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권리의 포기에 합의하라
② 개인들 간의 가상적 계약을 통해 정부의 수립에 합의하라
③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공적인 결정에 이견 없이 합의하라
④ 공론의 형성 과정을 방해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배제에 합의하라
⑤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하라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7] 갑, 을, 병은 유학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인(仁)은 자기를 이겨 내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
> 을: 인은 마음의 덕(德)이자 인간 본연의 성(性)이며, 하늘의 이치[理]이다. 편벽된 기질을 교정하고[矯] 올바른 기운을 복돋움으로써[養] 본연을 회복할 수 있다.
> 병: 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긴 이후에야 효도라는 이름을 얻듯이 인을 실천하지[行事] 않고서 그 이름을 얻을 수는 없다.

6.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갑은 효제(孝悌)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본다.
② 을은 측은지심을 실마리로 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인을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덕으로 본다.
④ 갑, 병은 선을 좋아하는 성향의 보존을 인의 완성이라고 본다.
⑤ 을, 병은 사단(四端)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본다.

7. 갑, 을, 병의 관점에서 다음 〈사례〉의 A의 행동에 대한 옳은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 례〉

A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동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그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보 기〉

ㄱ. 갑: 가족에 대한 사랑을 타인에게로 확장하여 실천하였다.
ㄴ. 을: 천리(天理)인 본성[性]에 따라 선(善)을 실천하였다.
ㄷ. 병: 타고난 사덕(四德)의 마음을 확충하여 실천하였다.
ㄹ. 갑, 을: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를 헤아려 실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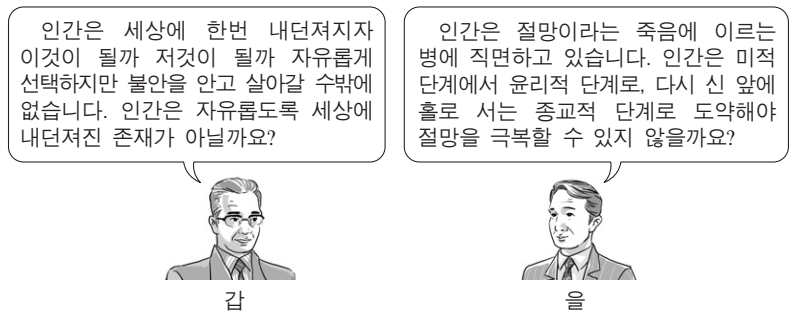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나는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을 선정한 다음 이 규칙과 일치하는 행위를 한다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해.
> 을: 아니야. 나는 개별적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전체 값에 따라 행위의 옳음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 갑: 그렇다면 네가 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일까?
> 을: 내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경우에만 옳은 행위이지.
> 갑: 내 생각에 너는 너의 _____ ㉠ _____

① 거짓말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② 거짓말은 실천 이성이 세운 도덕법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어.
③ 거짓말은 유용성이 이미 검증된 규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어.
④ 거짓말이 그 자체로서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⑤ 거짓말이 낳을 유용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9.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주관적 진리의 극복을 위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가?
②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가?
③ 삶의 의지를 부정해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가?
④ 신의 존재를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는가?
⑤ 인간의 보편적 본질에 대한 추구를 실존의 출발점으로 보는가?

10. 다음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들판에 커다란 가죽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그 덕분에 가죽나무는 도끼에 찍히는 일도 누구에게 해를 당하는 일도 없이 자신의 수명을 다했다. 쓸모 없음[無用]이 곧 쓸모 있음[用]임을 아는 것이 큰 앎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한단 말인가?

① 사물의 용도를 잘 파악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② 자연을 있는 대로 보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가치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덕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④ 자연의 진정한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⑤ 시비 판단의 분별을 넘어선 정신적 절대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다음 조선 시대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이(理)는 감정도 의지도 없고 조작하고 만들어 내는 능력도 없다[無造作]."라고 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본체의 무위(無爲)만을 보고 생성 작용이 드러나는 운행을 알지 못하여 이(理)를 죽은 물건으로 간주한다면, 도(道)에서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보 기〉

ㄱ.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발하여 사단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ㄴ. 사단은 순선(純善)한 정으로, 칠정은 불선(不善)한 정으로 본다.
ㄷ.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여 이(理)가 기를 탄 것으로 본다.
ㄹ. 이는 본연이며 통하고[通], 기는 재료이며 국한된다고[局]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정부가 병에 지폐를 넣어 폐광에 묻고, 개인 기업이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하자. 그러면 사회의 실질 소득과 부(富)가 늘고 더 이상의 실업은 없을 것이다.
> 을: 정부는 불필요한 간섭을 그만두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따른다면 국부(國富)의 낭비 없이 생산적인 근로자가 충분히 고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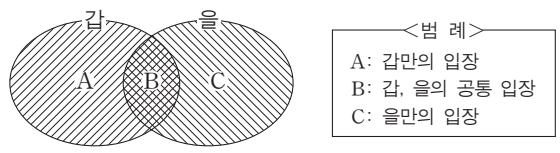
①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한다.
②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분배의 평등을 추구한다.
③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사회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기업의 국유화를 통한 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강조한다.
⑤ 정부의 경제 개입과 시장의 효율성이 양립 가능함을 주장한다.

1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신은 영원하고 가장 완전한 존재이며,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보편은 이데아로서 신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
> 을: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논증될 수 있고, 초월적 진리는 계시와 신앙을 통해 알려진다. 인간의 행복은 최고선인 신과 하나 됨에 있다. 보편은 개체 내에 존재한다.
> 병: 신이 창조한 것은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 아니라 각 개인이다. 보편은 실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개체들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이다.

① 갑은 신이 창조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② 을은 철학과 신학은 구분되지만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병은 신이 창조한 것은 보편이 아니라 개체들만이라고 본다.
④ 을, 병은 신을 이성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⑤ 갑, 을, 병은 인간의 구원이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도덕은 최종적인 목표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도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선이다. 을: 도덕성의 기초는 공감이며, 공감은 우리가 덕을 평가하는 원천이다. 그러므로 공감을 통해 쾌감을 주는 행위가 선이다.
(나)	

〈보 기〉

ㄱ. A: 도덕적 진리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ㄴ. B: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동기라고 본다.
ㄷ. B: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ㄹ. C: 도덕 판단과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원천을 감정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애처롭다. 사람은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을 알지만,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른다.
> 을: 최상의 덕(德)은 행함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하급의 덕은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인(仁)은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최상의 의(義)는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예(禮)는 행하되 응대함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한다.

① 예(禮)의 규범이 중시되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② 인위적인 노력을 통한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③ 선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가?
④ 도(道)의 실현을 위해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하는가?
⑤ 인의(仁義)의 실천을 통해 덕(德)이 실현된다고 보는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그림은 중국 유학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덕에 관한 앎은 도덕적 행위의 결과로 획득된다.
② 마음을 바르게 하는[正] 격물(格物)을 통해 앎을 실현한다.
③ 도덕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일치가 도덕적 삶의 핵심이 된다.
④ 도덕 실천은 외부 사물의 이치[理]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⑤ 지와 행의 본체는 분리되지만 상호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17.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나는 '이성에 따른 자기 지배'라는 적극적 자유보다는 '외부적 강압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 자유는 자유를 그 정반대의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어떤 사상가는 자유가 변증법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고의 인륜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관점을 고려할 때, 나는 그의 사상에 대해 '㉠'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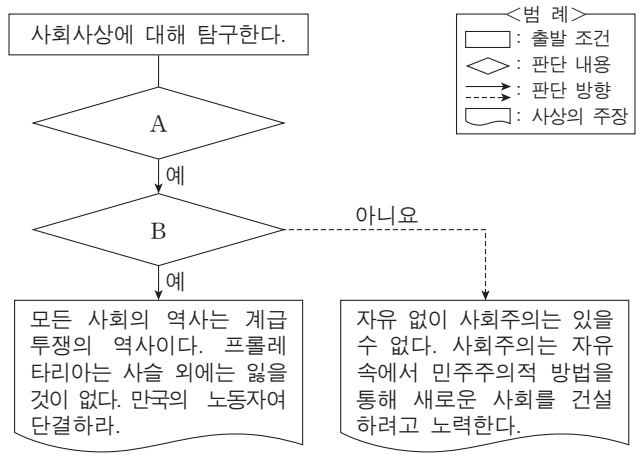
① 자유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자유가 절대정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
③ 자유가 국가에 의해 억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④ 자유가 시민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실현됨을 강조하고 있다.
⑤ 자유가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게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8.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가 저절로 얻어지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 을: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 병: 선천 시대에는 원한으로 인해 상극(相剋)이 지배하지만, 후천 시대에는 원한이 풀리고 모든 존재가 상생(相生)한다.

① 갑은 한울님의 마음이 인간의 본래 마음이라고 보았다.
② 을은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발전[靈肉雙全]을 강조하였다.
③ 병은 현세에서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④ 을, 병은 일상 생활과 분리된 엄격한 종교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⑤ 갑, 을, 병 모두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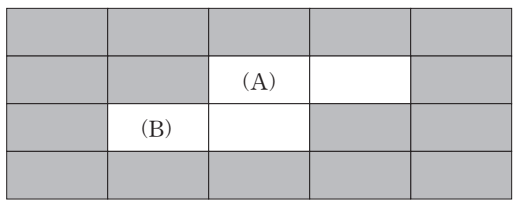
19. 그림의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 사회적 생산 수단의 공유를 긍정하는가?
ㄴ. A: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부정하는가?
ㄷ. B: 평등 실현을 위한 폭력 혁명의 필요성을 긍정하는가?
ㄹ. B: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국가의 소멸을 부정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 사상가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여성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은 타인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의 의무를 기꺼이 지려고 한다.
(나)	 〔가로 열쇠〕 (A): 공자가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한 정신. ○○ 정신 (B): 굳세고 올곧은 도덕적 기개[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한 수양 방법. 맹자의 □□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사회적 맥락과 책임에 기초한 여성 중심적 덕목이다.
② 인간관계에서 친밀함과 동정심을 강조하는 덕목이다.
③ 인간의 도덕 발달을 위해 배려와 더불어 필요한 덕목이다.
④ 판단하기보다는 보살핌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덕목이다.
⑤ 남녀의 도덕적 성숙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유일한 덕목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글의 농부의 행위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 외국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소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가는 농부를 보았다. 그런데 그 농부도 자신의 지게에 볏단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한 그 작가가 물었다. "소달구지를 두고 왜 당신이 볏단을 지고 가시죠?" 농부는 대답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겠소?" 작가는 생각했다. '소의 짐마저 덜어 주려는 마음! 내가 한국에서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야.' 그 작가는 그 후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

① 다른 생명체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이다.
② 자연법칙에 따라 결정된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이다.
③ 유희적 활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④ 타인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존재이다.
⑤ 세속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다.

2. 서양 근대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도덕의 토대는 인간의 공감 능력이다. 도덕적 가치, 즉 선악은 사회적 시인(是認)과 부인(否認)의 산물이다.
> 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쾌락과 고통에 근거해서 찾아야 한다. 쾌락의 양(量)은 과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 병: 도덕적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인간은 감각적 쾌락보다 지적·정신적 쾌락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① 이성의 힘으로 선악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② 옳은 행위는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해서 정당화되는가?
③ 각 행위 결과의 선악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있는가?
④ 사회적 전통과 관습에 의해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정되는가?
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보다 행위자의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가?

3.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덕 교육도 정의와 공정성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	도덕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 교육도 배려와 동정심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① 도덕 교육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② 도덕 교육에서 인정(人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③ 도덕성에 있어 남녀의 성차(性差)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④ 도덕성에 있어 원칙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⑤ 도덕성과 도덕 교육에서 구체적 상황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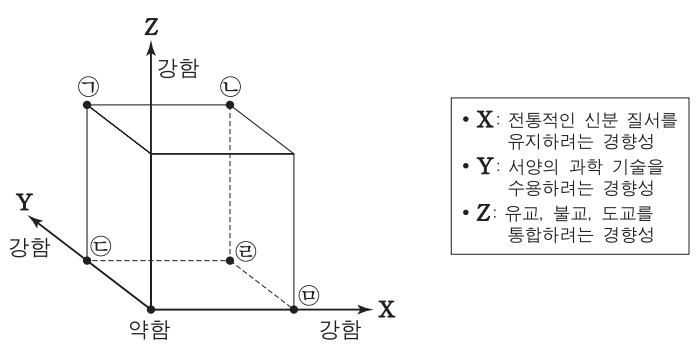
4. 갑, 을은 동서양의 사상가들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색(色)은 무상(無常)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我]가 아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에 집착하게 된다.
> 을: 동물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인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인간에게는 이 의지가 표상에 의해 많이 덮여 있다.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는 식물에게도 나타난다.

① 갑은 모든 것은 변하므로 실체(實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갑은 만물의 관계성을 직관하여 이타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금욕(禁慾)을 통해 영혼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윤회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삶이 욕망과 집착으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본다.

5. 갑, 을은 조선 후기 사상가들이다. 을의 사상에 비해 갑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갑: 언제나 바뀔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기(器)이다. 진실로 때에 맞고 백성에 이로운 것이라면, 비록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행할 수 있다.
> 을: 서양인은 말에 순서가 없고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으며, 다만 제 몸만을 위해 빌 따름이다. 그들의 도가 허무의 학설에 가까운데 어찌 우리의 도와 같다고 하겠는가?



① ㉠ ② ㉡ ③ ㉢ ④ ㉣ 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7] 갑, 을, 병은 유학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端)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이며,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이고,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이다. 사람에게 이 사단(四端)이 있는 것은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 을: 이치[理]가 천지 사이에 있을 때에는 선(善)일 뿐이고, 만물이 생길 때 비로소 본성[性]이라 부르게 되며, 마음[心] 안에 이치가 있게 된다. 이치가 곧 본연지성(本然之性)이고, 이치와 기질[氣]이 결합하여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있게 된다.
> 병: 마음이 곧 이치이다. 어찌 마음 밖에 본성이 있겠으며 본성 밖에 이치가 있겠는가? 또 어찌 이치 밖에 마음이 있겠는가? 마음 밖에서 이치와 본성을 구하면 이는 '옳음[義]이 밖에 존재한다.'는 고자(告子)의 이론이다.

6. 갑, 을, 병 모두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단은 도덕적 교화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다.
② 사단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감정[情]은 아니다.
③ 사람은 누구나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④ 사단이 발(發)하여 인의예지의 덕이 형성된다.
⑤ 인간만이 본연지성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7. 을의 입장에 대해 병이 제기할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마음과 이치는 하나이므로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ㄴ. 마음과 본성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이치는 마음 안[內]뿐만 아니라 마음 밖[外]에도 있다.
ㄹ.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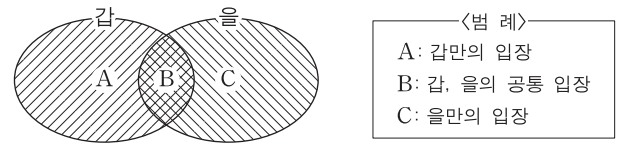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중세 및 근대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또한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법이며, 인간법은 자연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 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개별자뿐이다. 보편자는 단지 이름일 뿐, 실재하지는 않는다. 존재를 설명할 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 병: 면죄부를 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오직 성서'만이 진리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① 갑은 진정한 행복에는 믿음·소망·사랑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을은 신의 존재를 믿었으나 이성적 증명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③ 병은 신자(信者)는 누구나 성서를 통해 신과 만날 수 있다고 본다.
④ 갑, 을은 교회를 통한 구원과 함께 만인 사제주의를 주장한다.
⑤ 갑, 을, 병은 신의 은총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이성(logos)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므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 을: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 우리는 그 우주의 필연적 질서를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神)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다.
(나)	

〈보 기〉

ㄱ. A: 정념에서 벗어나 아파테이아(apatheia)에 도달해야 한다.
ㄴ. B: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ㄷ. B: 신과 자연에 대한 이성적 앎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ㄹ. C: 참된 인식은 우주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사례〉 속 A의 행동을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 선의지는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 ○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사 례〉

A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원리가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후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였다. A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도움을 받은 친구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준 거야. 뭘 바라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야."

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② 친구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③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인 도덕적 명령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④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⑤ 친구를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사람의 본성[性]이 악하다면 예의(禮義)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인위[僞]에서 생기는 것이지,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했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 을: 인의예지[四德]의 근본은 사단(四端)이므로 이것을 확충(擴充)하여야 한다. 사단의 안[裏面]에 사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단의 확충을 통해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 사단은 마음[心]이 될 수는 있지만 본성이나 덕(德)은 아니다.

〈보 기〉

ㄱ. 사단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지 않는다.
ㄴ. 예의는 실천적 행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ㄷ. 자연적인 욕구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지 않는다.
ㄹ. 본성을 확충하면 누구나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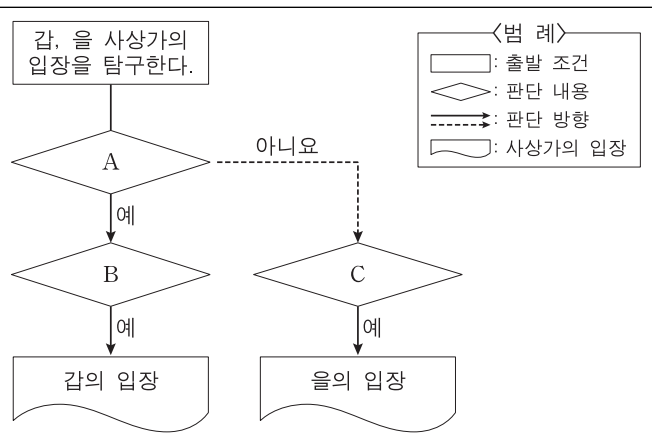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개인의 행동 중에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뿐이다. 그 외의 경우 개인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 을: 개인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환경을 이해한다. 내 가족, 내 나라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는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한다.

(나)



① A: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② B: 독립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를 강조하는가?
③ B: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적 도덕성의 주된 기초인가?
④ C: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선택권이 더 중요한가?
⑤ C: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안내되는가?

13. 다음 사회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생산 성과를 분배할 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 ○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 사회주의 정책의 당면한 경제적 목적은 완전 고용,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의 공평한 분배이다.

〈보 기〉

ㄱ. 독재 정치를 부정하고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ㄴ. 모든 경제 부문에서 전면적인 국유화의 추진을 강조한다.
ㄷ. 급진적인 혁명보다 선거와 정당을 통한 개혁을 강조한다.
ㄹ.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갑, 을은 자본주의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대해 을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갑: 사람과 공장이 놀고 있으며 지출되는 돈보다 저축되는 돈이 더 많은데도 정부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놀고 있는 사람과 공장이 바로 그것에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 을: 인간의 지식은 오류 가능하고 불완전하다. 경기 변동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기 변동에 대처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

① 정부의 개입이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② 의도가 좋더라도 정부의 경제 개입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③ 시장 경제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규제를 낳게 된다.
④ 시장은 인위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생적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
⑤ 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15.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통치자가 작위하지 않으면[無爲] 백성은 저절로 순화되고, 통치자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통치자가 일을 벌이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진다.
> 을: 통치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재정이 궁핍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① 군주의 자격을 도덕적 양심에서 찾고자 하는가?
② 법률과 세력으로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추구해야 하는가?
③ 백성을 무지(無知) 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④ 천명을 받은 성인(聖人)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⑤ 인위(人爲)를 통해 예치(禮治)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이론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관찰과 경험은 소홀히 하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의심스러운 명제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한 전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때 진리가 얻어진다.
> 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근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진리는 그것으로부터 얻어진다.

① 갑은 위대한 사상가의 주장은 비판 없이 수용할 것을 강조한다.
② 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인식의 제1 원리로 본다.
③ 갑은 연역적으로, 을은 귀납적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적 추론이 필요없다고 본다.

17.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절대적 도덕 규범이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이상국가의 수호자의 덕에는 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③ 갑은 보편적인 존재를, 을은 개별적인 존재를 앎의 원천으로 본다.
④ 갑, 을은 인간의 삶에서 도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갑, 을은 도덕이 주관적인 것이거나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선정(禪定)에서 선(禪)은 밖으로 형상을 벗어나는 것이요, 정(定)은 안으로 혼란되지 않는 것이다. 자성(自性)은 그 자체로 깨끗하니,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이 어두우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 을: 중생의 감각적·심리적 기관[六根]은 일심(一心)에서 생겨났지만, 그것은 도리어 자신의 근원을 배반하여 모든 번뇌가 이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 번뇌를 떨쳐버리고 일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우선해야 한다.
② 인과응보의 숙명을 깨닫고 은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③ 분별적 사유를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④ 사고력을 향상시켜서 시비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⑤ 열반의 경지는 글[文字]을 통해 남에게 가르칠 수 있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는 계약자인 개인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그들을 구속하는 최상의 힘을 지닌다.
> 을: 국가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투쟁을 통제할 필요성에 기원을 두며, 이러한 통제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계급에 의해 수행된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① 갑은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의해 저절로 발생한다고 본다.
② 을은 계급 없는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에 실현된다고 본다.
③ 을은 역사발전의 최종단계에서 개인의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다.
④ 갑은 권력 분립을, 을은 권력 집중을 바람직한 통치 구조로 본다.
⑤ 갑, 을은 사회 계약을 통해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실현된다고 본다.

20. 다음 고대 그리스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선(善)이라고 부른다. 목적은 무한히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이 있다. 최고선은 곧 행복이다.
> ○ 중용의 덕은 지나침으로 인한 악덕과 모자람으로 인한 악덕 사이의 중간에 있다는 점에서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정도로, 마땅한 방식 등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① 중용은 산술적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중용의 덕은 행복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③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중용인지 알 수 있다.
④ 중용의 덕을 갖추려면 옳은 행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⑤ 어떤 하나의 행위에서 중용의 덕은 하나이고 악덕은 여럿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고난 생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② 다른 생명의 고통을 더불어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③ 선악의 분별을 넘어서는 절대적 경지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④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⑤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2. 다음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인간이 생명체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희생된 생명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 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이 인류의 생존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도덕의 명령은 인류의 지속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언 명령'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책임 의식을 [㉠]

① 미래와 전 지구적 범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② 행위의 직접적 결과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각 개인의 삶의 개체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④ 기술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인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⑤ 자신의 독립된 자아에 대한 주체 의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3.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으뜸의 덕(德)은 작위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의도도 지니지 않는다[無以爲]. 으뜸의 인(仁)은 작위하는 바는 있지만 아무런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으뜸의 의(義)는 작위하는 바도 있으며 어떤 의도도 지니고 있다[有以爲].
> 을: 누구나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마음[所不忍]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마음에 이르는 것이 인이다. 누구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所不爲]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이르는 것이 의이다.

① 인의가 본래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
② 인의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③ 인의가 소박한 본성이 상실되어 나타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인의가 결과의 실용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⑤ 인의가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성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4.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신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운동에 의한 증명, 원인에 의한 증명, 필연적 존재에 의한 증명, 완전한 존재에 의한 증명, 우주 질서의 창조자로서 지적인 존재에 의한 증명으로 불릴 수 있다.

① 신은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 존재이다.
② 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다.
③ 종교적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성된다.
④ 덕을 쌓아도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⑤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근거인 영원법은 자연법으로부터 나온다.

5. 다음 현대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무지의 베일 속의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특정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할 원칙들로서 모든 합의를 규제하게 된다.

① 가상의 상황에서 보편적 합의를 위해서는 동정심이 필요한가?
②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경제적 재화의 차등 분배보다 선결 과제인가?
③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④ 기회의 균등을 통해 정의의 요건인 결과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가?
⑤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갑, 을은 조선 시대 유학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을 겸하지 않지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성(性)에는 인의예지신 다섯 가지가 있을 뿐이고, 정(情)에는 희로애구애오욕 일곱 가지가 있을 뿐이다. 사단은 선(善)한 정의 별칭일 뿐이다.
> 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다르듯이 정에도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다. 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만 홀로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하겠는가?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하는 것이다.

〈보 기〉

ㄱ. 사덕은 사단의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ㄴ.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인가?
ㄷ. 사단과 칠정은 모두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인가?
ㄹ.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는 감정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쾌락에는 질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그 차이는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다. 쾌락을 향유하는 능력이 적은 사람은 질이 낮은 쾌락을, 품위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질이 높은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 을: 도덕은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해지고 있다면 그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① 갑은 쾌락의 질은 쾌락의 양에 비례한다고 본다.
② 갑은 쾌락의 질적 차이에 근거하여 공리의 원리를 부정한다.
③ 을은 지식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④ 을은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고 불변의 진리를 추구한다.
⑤ 갑, 을은 도덕 판단이 행위의 결과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8. (가), (나)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이다.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격 있는 대표를 뽑아 정책 결정을 일임해야 한다.
> (나) 시민들의 선호는 변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이 중요하다. 민주적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심의를 통한 집단적 의사 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① (가)는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는 정책 결정에서 정당성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③ (가)는 (나)보다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나)는 (가)보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가), (나)는 합리적 공론보다 이미지 정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중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간을 아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간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을: 지혜의 덕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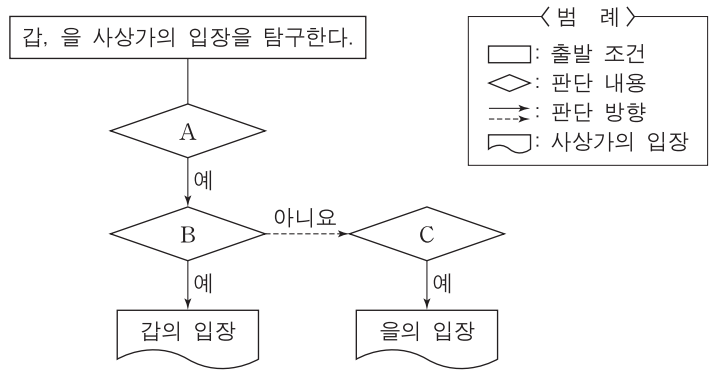
① 갑은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해야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갑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지성적 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 을은 영혼의 탁월함만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덕이 무엇인지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적 삶에는 시민으로서의 훌륭한 삶이 포함된다고 본다.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덕과 악덕은 그것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만 그 차이가 확정될 수 있다. 덕에서 발생하는 호의적인 인상에서는 시인(是認)의 감정을, 악덕에서 발생하는 거북한 인상에서는 부인(否認)의 감정을 느낀다.
> 을: 유용성의 원리는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도덕 규칙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 이 도덕 규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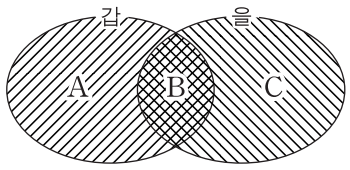
〈보 기〉

ㄱ. A: 도덕에서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는가?
ㄴ. B: 감정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근거인가?
ㄷ. C: 도덕 규칙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가?
ㄹ. C: 도덕 평가에서 관련된 모든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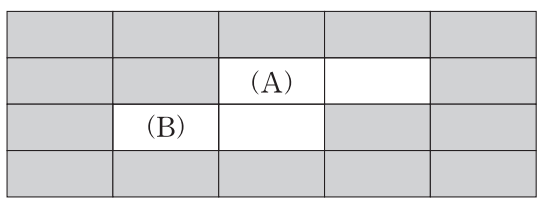
(가)	갑: 치지(致知)와 역행(力行)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輕重)을 구별해야 한다면, 선후를 논할 때는 치지를 우선해야 하고, 경중을 논할 때는 역행을 중시해야 한다. 을: 앎[知]은 실천[行]의 시작이고, 실천은 앎의 완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앎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실천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되고, 실천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앎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된다.
(나)	 〈범 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마음의 안과 밖에 모두 이(理)가 존재한다.
ㄴ. B: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한다.
ㄷ. C: 도덕적 앎[知]은 도덕적 실천[行]과 일치해야 한다.
ㄹ. C: 격물(格物)이란 마음의 일[事]을 바로잡는 것[正]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가) 사상의 관점에서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현실을 고통이라 자각하고 고통의 원인을 잘 알아 끊어 버리며, 열반을 얻을 수 있음을 자각하여 바르게 수행한 사람은 험난한 어려움을 건넌 현명한 성자요, 성인(聖人)의 깃발을 바로 세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나)	 〔가로 열쇠〕 (A): 지나침[過]이나 모자람[不及]이 없으며,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음을 뜻하는 유학의 용어 (B): 맹자가 주장한 덕치의 이상으로서, 패도(覇道)와 대비되는 정치. ○○ 정치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생명의 유한성을 초월하기 위하여 절대자에 귀의하려는 것이다.
② 타인의 입장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미루어 헤아려 보는 것이다.
③ 외물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 것이다.
④ 사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⑤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벗어나 심신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13~14]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저는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시장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 및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을: 저는 실업, 불황, 공황 등의 문제들은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된다고 봅니다.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야 합니다.
병: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1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유 재산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②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
④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 경쟁이 장려되어야 한다
⑤ 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화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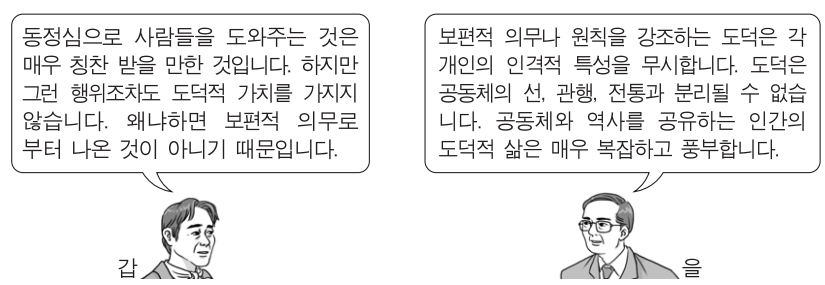
14. 갑이 을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국가의 시장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한다.
ㄴ. 공유제와 국유제의 혼합이 바람직한 제도라는 점을 무시한다.
ㄷ. 시장의 자기 조절을 통한 공익 창출 기능을 낮게 평가한다.
ㄹ.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 시장 경제의 원동력임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② 갑은 행위자의 의지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로 본다.
③ 을은 도덕적 삶에는 행위자의 성품보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본다.
④ 을은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단일한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적 실천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국가는 '모두가 모두에게 늑대'가 되는 죽음과 공포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설립하는 공동체이다.
> 을: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대립을 극복한 최고의 인륜이자,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결합된 절대정신의 구현이다.

① 갑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기심에 의해 행동한다고 본다.
② 갑은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다고 본다.
③ 을은 인륜을 도덕과 법의 변증법적 발전의 최고 형태로 본다.
④ 을은 개인이 국가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 계약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굽은 나무는 도지개를 대고 불에 쬔 뒤 곧게 펴지며, 무딘 쇠붙이는 숫돌에 갈고 난 뒤 날카로워진다. 사람의 본성도 악하니 스승의 가르침[師法]이 있어야 바르게 되며, 예의(禮義)로써 지도해야 잘 다스려진다.
> 을: 오리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여 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면 아픔이 따른다. 본래 긴 것은 잘라서는 안 되고 본래 짧은 것은 늘여서는 안 된다. 인위[人]로써 자연[天]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예의(禮義)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ㄴ. 상벌(賞罰)로써 이기적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ㄷ.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ㄹ. 교화(敎化)를 통해 인간 본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동체와 무관한 존재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상호 간에 빚을 졌으며 도덕적으로 연관된 존재이다. 즉 우리는 가족, 사회, 국가, 그리고 민족의 구성원이자 그 공동의 기억을 떠안은 사람이다.
> (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에게 자유는 강제와 속박이 없을 때 가능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다. 불가침의 권리인 자유는 공동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침해될 수 없다.

① (가)는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본다.
② (가)는 공동체의 선은 개인의 선의 총합이라고 본다.
③ (나)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한다.
④ (나)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시민의 연대와 희생을 중시한다.
⑤ (가), (나)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

19. (가)를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떤 사람은 선(禪)을 숭상하여 교(敎)를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교를 숭상하여 선을 비방한다. 이들은 모두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임을 알지 못한다. 미혹을 깨치는 것이 돈(頓)이요, 평범을 넘어서 성(聖)을 이루는 것이 점(漸)이다.
(나)	㉠. 그러면 단박에 깨닫게 될 것[頓悟]이다. ㉡. 그러면 오랜 습기(習氣)가 제거될 것이다.

	㉠	㉡
①	본성의 참모습을 돌이켜 보라	정혜(定慧)를 함께 수행하라
②	정혜(定慧)를 함께 수행하라	만물이 불변함을 깨우쳐라
③	절대적 지혜를 관조하라	실체인 자아를 성찰하라
④	실체인 자아를 성찰하라	점진적으로 수행하라
⑤	점진적으로 수행하라	일심(一心)을 깨우쳐라

2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수행 평가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 갑: 세상의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정념에서 벗어나라.
> 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성 안에서 의무의 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성이 정해 주는 도덕 법칙의 위엄이 그 이념을 거역하려는 모든 경향성을 압도할 수 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해 보면, ㉠ 갑은 운명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였고, ㉡ 을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중시하였다. ㉢ 갑은 자연의 질서를 극복하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주장하였고, ㉣ 을은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 갑, 을은 도덕적 행위의 토대로 이성을 강조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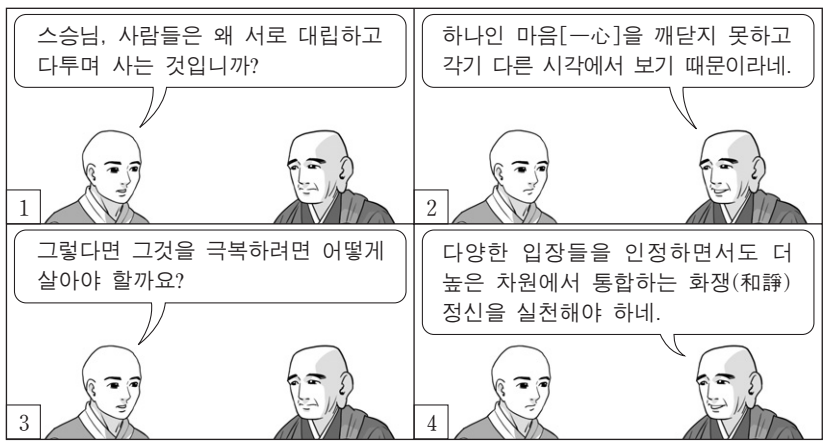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
②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변의 자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③ 사회적 도덕규범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④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절대자와의 합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앎이다. 왜냐하면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이데아로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자 주인이기 때문이다.
> 을: 선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선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고의 선은 행복이며, 행복의 필수 요소는 중용의 덕이다.

① 갑은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제의 덕이 필요 없다고 본다.
③ 을은 용기의 덕을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로 본다.
④ 을은 인간적 덕과 시민적 덕을 동시에 갖출 수는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적 진리의 근원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성인(聖人)은 그 은혜가 만대(萬代)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친소(親疏)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고, 이해(利害)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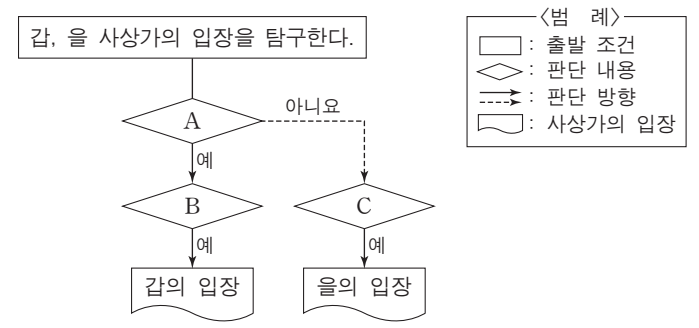
① 군주는 인정(人情)에 따라 상벌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② 성인은 시비(是非) 논변을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③ 군자는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정(仁政)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선비는 예법[禮]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⑤ 인자는 차별 없는 사랑[兼愛]으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言]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 을: 무력을 바탕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覇道)이고, 덕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왕도(王道)이다. 통치자는 이익[利]의 추구보다는 인의(仁義)의 실현에 힘써야 한다.

(나)



① A: 효(孝)를 모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가?
② B: 인간은 선천적으로 양능(良能)을 지닌다고 주장하는가?
③ B: 정명(正名)에 입각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는가?
④ C: 일정한 생업[恒産] 보장을 왕도(王道)의 시작으로 보는가?
⑤ C: 생산 활동을 통한 백성의 경제적 이익[利] 추구를 부정하는가?

5. 서양 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유덕함은 영혼의 훌륭함을 말한다. 따라서 영혼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유덕함이 무엇인지 알면서 부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부덕한 행위는 무지로부터 나온다.
> 을: 유덕함과 부덕함의 구분은 어떤 행동에 대한 만족감과 비난의 소감에 근거한다. 시인(是認)의 대상은 유덕함이 되고, 부인(否認)의 대상은 부덕함이 된다. 이처럼 도덕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① 도덕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② 도덕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에 근거하는가?
③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데 도덕적인 행위가 요구되는가?
④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지식이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가?
⑤ 도덕적 덕과 악덕의 구별이 감각 경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7] 갑, 을, 병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사단(四端)은 단지 이(理)만 말한 것이고 칠정(七情)은 이와 기(氣)를 합하여 말한 것이니, 두 갈래의 정(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을 두 갈래로 보는 것과 이기가 서로 발(發)한다는 설은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 을: 칠정은 이(理)와 무관하게 바깥 사물과 우연히 만나 감응(感應)하여 발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도 칠정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이(理)를 위주로 말하면 이가 발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 병: 어떤 이가 한 그릇의 밥을 발로 차면서 주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의롭다[義]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이 있어, 선을 행하면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죄(罪)가 된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② 을은 본연지성은 발하는 과정에서 선악으로 나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기가 발할 때에는 항상 이가 기를 탄다[乘]고 본다.

7. 을은 부정, 병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사단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行事]으로써 형성되는가?
ㄴ.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단의 확충을 통해서 획득되는가?
ㄷ. 덕(德)은 마음의 이치[理]로서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ㄹ.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향[嗜好]은 인간의 본성[性]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가) 사상의 관점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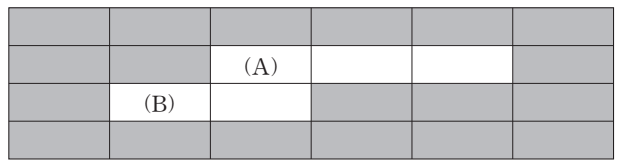
> (가) 민족은 심리적, 문화적, 생태적 유기체이자 혈통, 언어, 지역이라는 공통 요소로 결속된 운명공동체로 규정되어야 한다. 민족은 인류와 함께 영속될 것이므로, 민족 단위 주권국가의 권능을 강화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 (나) 인류는 국적, 인종,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 공통의 윤리 규범을 수립하고 세계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세계공동체는 전 세계를 민주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세계시민에게 징세와 분배를 실행할 권위를 지녀야 한다.

〈 보 기 〉

ㄱ.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다.
ㄴ. 현실을 무시하는 과도한 보편주의를 강요할 수 있다.
ㄷ. 합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 국수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ㄹ.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해 제시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승인되고 불행을 가져오는 행위는 부인된다. 쾌락이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는 행복으로, 고통이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는 불행으로 이어진다. 쾌락의 양은 계산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이다.
(나)	 〔가로 열쇠〕 (A): 도교(道敎) 권선서(勸善書)의 일종으로 일상적인 행위에서 잘한 점[功]과 잘못한 점[過]을 점수로 기록하는 책 (B): 어떤 일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을 일컫는 말. 예) 천부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이다. □□와 의무 〔세로 열쇠〕 (A): …… 개념

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② 행위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자의 동기의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③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데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④ 쾌락의 질(質)을 결정하기 위해 쾌락의 양(量)을 계산하는 척도이다.
⑤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0.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인간과 자연은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으로 우주의 질서를 깨닫고, 정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apatheia)를 추구해야 한다. 을: 인간은 삶의 의지가 가장 완전하게 객관화된 존재이며,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이다. 맹목적 의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고통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
(나)	갑: ____㉠____.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을: ____㉡____. 그러면 삶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	㉡
①	자연법칙에 순응하라	본능적 삶에 충실하라
②	자연법칙에 순응하라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하라
③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라	자연법칙에 순응하라
④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라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하라
⑤	의지를 철저하게 부정하라	본능적 삶에 충실하라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실현된다고 본다.
ㄴ. 을은 보편자가 현실에서 경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ㄷ. 갑, 을은 신학에서 신앙보다 이성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신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 구성된 개념적 존재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의지의 선함이 도덕성을 결정한다. 선의지는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의무의 행위는 정언 명법으로 표현된다. 인간은 정언 명법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따른다. 이런 이유로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을: 의지의 순수한 자기입법이 도덕적 의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무가 개인의 의지에 근거한 주관적 도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관적 도덕은 객관적 법으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인륜으로 종합된다.

① 갑은 선의지에 의한 행위도 불행을 낳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로 본다.
② 갑은 도덕 법칙의 필연성이 도덕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고 본다.
③ 을은 윤리의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윤리의 상대적 특성을 강조한다.
④ 을은 윤리의 역사적 특성이 참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의지의 자율성은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아님을 강조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회 이익의 증진을 의도할 때보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이익이 더 효과적으로 증진된다. 특혜나 제한을 두는 제도가 폐지되면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형성된다.
을: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실제 구매력 있는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보 기〉

ㄱ. 갑은 자유 경쟁 체제가 국부 증진에 기여함을 강조한다.
ㄴ. 을은 완전 고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긍정한다.
ㄷ. 갑, 을은 사적 소유권 보장보다 불평등 해소를 우선시한다.
ㄹ. 갑, 을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나는 자연 상태를 경쟁과 불신 등으로 인한 전쟁 상태로 생각한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며, 단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을: 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회 계약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약에 합의한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의 결과물인 계약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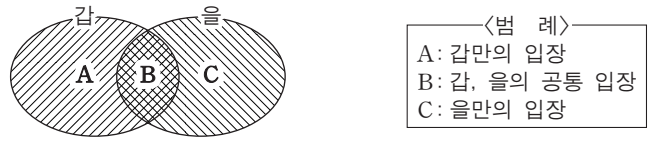
① 갑은 국가의 강제력이 없어도 사회 계약이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
② 갑은 계약에 합의하는 순간 자기 보존 욕구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사회적 우연성이 계약 상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④ 을은 적극적인 이타심에 의해 사회 정의의 원칙이 구성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개인들이 합의한 사회적 규약은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15. (가)의 중국 유학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과 사물이 천지 사이에서 생겨날 때, 이(理)는 동일하지만 품수한 기(氣)는 서로 다르다. 인간은 기의 바름과 통함을, 사물은 기의 치우침과 막힘을 얻었다. 이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이다.
을: 인간은 모두 양지(良知)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是非之心)이다.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性]이고, 내 마음의 본체로서 자연히 대상을 환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



〈보 기〉

ㄱ. A: 인간만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갖고 있다.
ㄴ. B: 인간은 누구나 사단(四端)을 지니고 있다.
ㄷ. C: 인간의 마음[心]이 없이는 어떠한 이치[理]도 없다.
ㄹ. C: 인간은 누구든지 성인(聖人)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민주정치에서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다수결만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 의사 결정은 개인들의 선호를 단순히 종합한 결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합당하고 도덕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자의 선호를 공적 의사로 전환시키는 심의가 필수적이다.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시민들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대화와 논증 절차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① 심의 주체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② 관련된 정보의 공유로 시민들의 이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③ 개인적 관점의 한계를 넘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④ 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변화하지 않도록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⑤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는 공론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양물(洋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道)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 나갈 뿐이다. 우리 것이 융성하면 저들 것이 사라질 것이다.
> 을: 천지만물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음식을 먹는 것은 한울님을 먹는 것이니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 병: 원(圓)은 우주 만유(萬有)의 본원이며,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실재이다.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교법이 비록 천만 가지로 다르나, 실제로 원 이외에 다른 법은 없다.

① 갑은 화이론(華夷論)의 관점에서 외세에 대한 저항을 주장하였다.
② 을은 봉건적 신분질서에 반대하고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③ 병은 정신적 삶과 물질적 삶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을, 병은 후천개벽을 통한 현세에서의 지상낙원 실현을 주장하였다.
⑤ 갑, 을, 병은 유·불·도 삼교(三敎)의 사상적 재통합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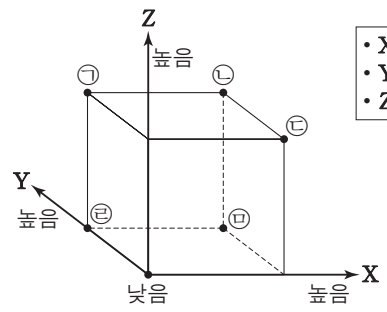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우리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도덕적·정치적 책무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도덕적 연대와 의무를 포함한다. 개인을 무연고적 존재로 이해한다면 이 책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 을: 개성의 자유로운 발달은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문명, 지식,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개인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① 갑은 시민의 좋은 삶은 공동선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② 갑은 사회에 선행(先行)하는 존재로서의 자율적 자아를 옹호한다.
③ 을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행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다수의 여론을 사상의 자유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갑, 을은 국가를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19.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나) 사상에 비해 (가)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사회주의자는 민중 참여에 기초해서 점진적·합법적으로 생산의 계획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독재하에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
> (나) 프롤레타리아의 당면 과제는 부르주아 지배의 타도와 정치권력의 장악을 통한 계급 대립의 종식이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 X: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정도
- Y: 복수정당제와 의회정치를 긍정하는 정도
- Z: 무계급사회 도래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중국 불교 사상가 갑과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갑: 부처는 자성(自性)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자성이 미혹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다. 자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頓悟] 단박에 닦는 것이니[頓修], 점진적 단계는 없다.
>
> 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사람도 이미 여러 생(生)에 걸쳐 깨달음에 의지해 점진적으로 닦아 오다가, 이번 생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한 번에 모두 마친 것일 뿐이다. 요컨대, 돈오와 점수(漸修) 두 가지 문이 있을 뿐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사상적 특징을 비교하면, 갑은 ㉠ 마음으로 가르침[法]을 주고받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 경전이나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을은 ㉢ 습기(習氣)가 있는 상태에서도 돈오는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 돈오 후에는 정혜쌍수(定慧雙修)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 갑, 을은 모두 수행 과정에서 교학(敎學)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수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②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옳은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③ 유일신에게 귀의하여 이상 세계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④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에 의해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⑤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정의로운 국가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춘 통치자, 군인, 생산자의 계급으로 구성되며, 통치자는 사적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 을: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계급도 폐지될 것이다.

① 갑: 지혜의 덕이 이상적인 통치의 필수 조건이 된다.
② 갑: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③ 을: 각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재화가 분배된다.
④ 을: 국가 기능의 확대로 복지가 최대한 보장된다.
⑤ 갑, 을: 생산과 소유에서 절대적 평등이 실현된다.

3. 갑, 을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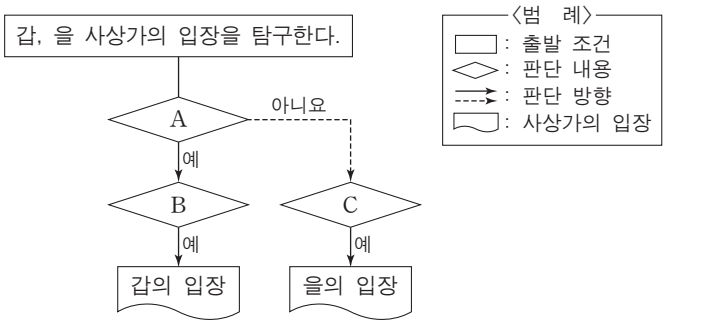
> 갑: 마음[心]은 사람의 신묘하고 밝은 곳이다. 뭇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온갖 일에 대응한다. 성(性)은 마음이 갖추고 있는 이(理)이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다.
> 을: 마음은 곧 이치이다.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인(仁)이라 하고, 마땅함을 얻는 것으로 말하면 의(義)라 하며, 상황에 맞는 것[條理]으로 말하면 이(理)라 한다.

① 마음을 바로잡아야 이치를 확립할 수 있는가?
② 만물의 이치는 선한 마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가?
③ 도덕적 실천이 도덕적 지식을 완성하는 것인가?
④ 앎을 늘려가는 공부가 도덕적 실천보다 더 중요한가?
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해야 천리를 보존할 수 있는가?

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군자(君子)는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요순임금도 어려워했다.
> 을: 성인(聖人)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욕심이 없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순박해진다.

(나)



① A: 친소(親疎)의 구분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② B: 문명(文明)의 발달이 없는 작은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가?
③ B: 형벌(刑罰)은 예악을 바로 세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가?
④ C: 정명(正名)에 근거하여 포악한 군주를 교체해야 하는가?
⑤ C: 시비선악의 분별을 통한 무위(無爲)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가?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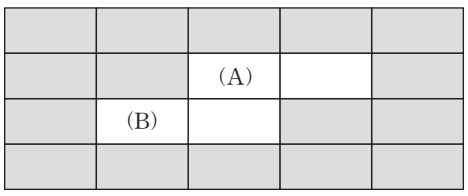
> 갑: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까닭은 분별에 있다. 사회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분별에는 예(禮)가 가장 중요하고, 예에서는 성왕(聖王)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은 우리에게 자기 보존을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보 기〉
ㄱ. 갑은 예치를 국가의 기본적 통치 원리로 삼는다.
ㄴ. 을은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으로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갑, 을은 인간 본성이 교화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인연(因緣)은 무상하고, 인연에 의해 생성된 현상도 무상하다. 현상은 '나'가 아니요, 나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나를 속박하는 이 법(法)을 끊어 버리면 영원한 안식처에 들 것이다.
(나)	 〔가로 열쇠〕 (A):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 제법○○ (B):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운 명나라 왕수인의 호. ○○학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중도(中道)를 추구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는 수행 방법이다.
②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③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마음이다.
④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경지이다.
⑤ 백성의 욕망을 줄이고 그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통치 원리이다.

7.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더 적은 것을 가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한다면 헛된 일이다.
○ 자명하거나 경험에 의해 알려지거나 성경의 권위에 의해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확증되어서는 안 된다.
○ 보편자가 개별자들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면서 그것들과 구별된다면 보편자는 개별자들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다.

〈보 기〉

ㄱ. 현상을 설명할 때는 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ㄴ. 보편자와 달리 개별자는 오직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ㄷ. 신학적 진리와 철학적 진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ㄹ. 실재하는 보편자를 인식해야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9] 갑, 을, 병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의 '단'은 시작을 뜻한다. 백성을 자애롭게 대한 후에 인이라 하고, 자신을 올곧게 한 후에 의라 하며, 손님을 맞아 인사한 후에 예라 하고, 사물을 분별한 후에 지라 한다.
을: 사단의 정(情)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니, 순선하여 악이 없다. 칠정(七情)의 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병: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원인[所以]은 이이다. 이른바 '기가 발함에 이가 탄다.'는 것은 옳다. 다만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8.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갑은 사덕(四德)을 도덕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사단과 칠정에는 모두 악(惡)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사단의 선(善)과 칠정의 선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갑과 을은 인간만이 사단(四端)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을과 병은 본성에 천리(天理)인 사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9. 다음을 주장한 조선 시대 사상가가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밝게 깨달을 수 있다. 만사(萬事)에 두루 통하여 어둡지 않고, 측은·수오·사양·시비를 행할 수 있어서 어느 것이든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양지(良知)이다.

〈보 기〉

ㄱ. 이는 기의 동정(動靜)을 통해 발현되는 도덕 원리이다.
ㄴ. 시비(是非)의 판단기준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ㄷ. 양지는 마음에서 활발하게 드러나는 참된 이치[眞理]이다.
ㄹ. 경(敬)으로 사욕을 제거하여 이의 참모습을 실현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모두 똑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이다. 한 명의 신념을 위해 다수의 신념을 억압해서는 안 되듯이, 다수의 신념을 위해 한 명의 신념을 억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을: 일반에게 승인되고 있는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터놓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①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부인해야 한다.
② 나와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③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④ 하나의 가치만이 옳다는 신념으로 가치의 다원성을 배격해야 한다.
⑤ 다수의 신념을 억압하는 것보다 소수의 신념을 억압하는 것이 옳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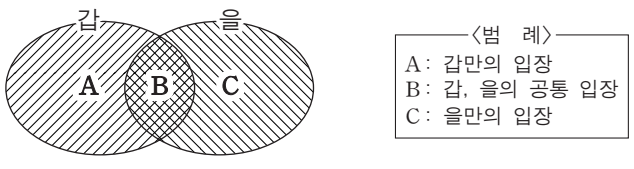
> 갑: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너와는 관계없으며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기만을 바라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을: 쾌락은 선(善)이지만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통은 악이지만 모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두를 올바르게 숙고하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참된 쾌락에 이를 수 있다.

〈보 기〉

ㄱ. 갑은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ㄴ. 을은 심신의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정치 참여보다 내면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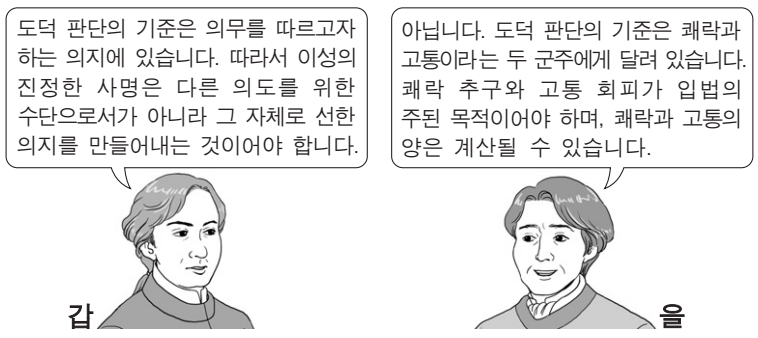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곡자에 의지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깎아내는 것이고, 노끈으로 묶어 견고하게 하는 것은 타고난 덕(德)을 해치는 것이며, 예악(禮樂)을 행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을: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른 후에 인의(仁義)를 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나)	

① A: 인의(仁義)는 사람다움을 해치는 인위적 도덕규범이다.
② A: 일체의 구속을 잊어[坐忘] 지인(至人)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③ B: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④ C: 본성[性]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이다.
⑤ C: 항산(恒産)이 없어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선비라 할 수 있다.

[13~14]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3.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① 갑: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여야 한다.
② 갑: 의무를 따르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③ 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한다.
④ 을: 감각적 쾌락을 배제하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⑤ 갑, 을: 유용성을 도덕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보아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덕은 전통과 서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내면화된 덕은 일반화된 법칙으로부터의 추론 과정을 거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판단력으로 드러난다. 덕의 소유는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덕의 결여는 선의 성취를 방해한다.

①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이 존재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행위의 결과임을 간과하고 있다.
③ 합리적 판단 능력이 도덕의 필수 조건임을 간과하고 있다.
④ 개인의 도덕성 형성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도덕 원리의 이해보다 도덕적 품성 함양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15. 서양 사상가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인륜은 법과 도덕의 개념을 종합시킨 공동체의 윤리로서 가족,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가족은 자연적인 인륜이고,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결합체이며, 국가는 절대 부동의 자기 목적이다.
> 을: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다르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성에 따라 평화와 상호 보존의 상태로 살아가지만, 전쟁 상태에서는 폭력과 상호 파괴의 상태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①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보장을 위한 계약의 산물인가?
② 개인의 자연법적 기본권은 국가 구성원일 때만 주어지는가?
③ 개인은 국가 구성원으로서만 참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가?
④ 국가는 지상의 신에 비유될 수 있는 절대적 도덕공동체인가?
⑤ 개인이 정부에 복종할 의무는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성립하는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혼란한 세상을 구하려면 이단(異端)을 먼저 물리쳐야 하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학(正學)을 밝혀야 하며, 정학을 밝히려면 천리와 인욕을 구별해야 한다.
> 을: 우리 도(道)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울님 성품을 따르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런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
> 병: 동양인은 형이상의 도(道)에 밝고 서양인은 형이하의 기(器)에 밝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① 갑은 성리학적 의리 사상을 내세워 서학(西學)을 반대하였다.
② 을은 인간 존중과 성(誠)·경(敬)·신(信)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③ 병은 민생 안정을 위한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을 주장하였다.
④ 갑, 을은 외세 배척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⑤ 갑, 병은 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제충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17. (가) 사상의 관점에서 (나) 사상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도덕적 행위자는 어떤 일정한 유형의 문화 속에서만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와 문명 덕택으로 그 자신일 수 있다.
> (나) 개인은 자신을 통제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며 모든 외적인 간섭은 위협이다. 개인은 스스로 가치와 목표를 선택하는 독립적 자아로서 좋은 삶을 계획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개인보다 공동체를 좋은 삶의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③ 개인 각자의 도덕적 견해들 사이에서 국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국가는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적 공동체의 역할을 넘어서면 안 된다.
⑤ 공동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일 수 없다.

18.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갑: 인간의 삶 자체는 의지이며, 의지에 의해 욕망이 생겨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통이 생기고, 새로운 욕망이 생기지 않을 때는 지루함이 생겨난다.
> 을: 인간은 세계에 던져진 '현존재(Dasein)'이다. 인간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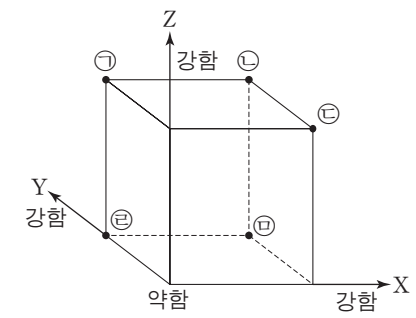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간은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로 인해 고통에 빠진다고 하였고, ㉡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욕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을은 ㉢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고, ㉣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결단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 을은 ㉤ 이성만으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나) 사상에 비해 (가)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윤리, 언어와 함께 시장은 인위적 질서가 아닌 대표적인 자생적 질서이다. 이러한 질서에서의 분배는 개인의 능력이나 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간섭은 정의롭지 못하다.
> (나) 국가는 조세 체계, 금융 정책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 성향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가의 포괄적인 공공 지출은 시장 경제의 불가피한 속성인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행위자는 최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관처럼 모든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린다.
> 을: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에 접근할 때 논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들의 특징을 특수한 관계에서의 배려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보 기〉

ㄱ. 갑은 도덕성 발달은 도덕적 추론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고 본다.
ㄴ. 을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성향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ㄷ. 을은 갑에 비해 관계성을 중시하는 보살핌의 윤리를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인지 능력의 발달보다 정서 함양이 중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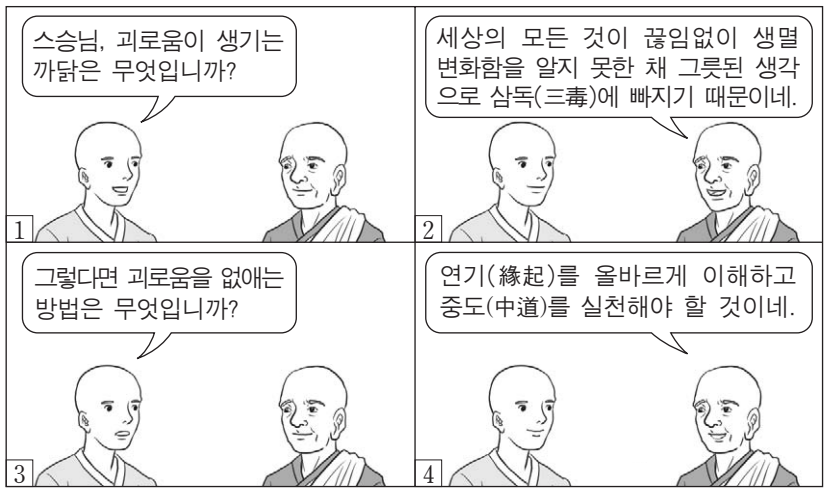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철학적, 예술적 논변을 즐기며 산다.
② 서로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고 하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
③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인생의 윤회를 추구하며 산다.
④ 만물 간의 의존성을 자각하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산다.
⑤ 만물의 실체를 정립하기 위해 대자연의 섭리에 귀의하며 산다.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각 가족의 가장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가족이 사용할 물품들을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러한 마을들이 모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이룬다.
> 을: 각 계층의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조화롭게 맡은 바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한다. 이 국가의 통치자 계층은 지혜의 덕을 지닌 철학자들로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다스린다.

① 갑: 공동으로 노동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이 풍족한 사회이다.
② 갑: 경제적 풍요로 인해 사회 안에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③ 을: 각 계층 간 자유로운 역할 교환으로 조화를 이룬 사회이다.
④ 을: 수호자 중에 선발된 지혜로운 소수가 통치하는 사회이다.
⑤ 갑, 을: 구성원 모두가 물질적 재화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이다.

[3~4]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은 도를 인간의 길흉(吉凶)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본다.
② 을은 도를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무위(無爲)한 것이라고 본다.
③ 병은 도를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춘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본다.
④ 갑, 을은 도가 사라진 것이 시비(是非)의 분별 때문이라고 본다.
⑤ 을, 병은 도를 인의(仁義)의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본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임금이 훌륭한 임금이 된 까닭은 인의(仁義)와 법도(法度)를 바르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인의와 법도는 배워서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인위(人爲)의 결과이다. 본성과 인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①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본성을 확충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② 예법을 통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③ 본성을 따르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임을 부인하고 있다.
④ 본성을 따를 때 도덕적 사회가 구현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⑤ 본성은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부정하고 있다.

5.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행위가 덕스럽거나 사악한 까닭은 그것을 볼 때 쾌나 불쾌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악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해 보라. 당신이 거기서 발견할 것은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로지 정념, 동기, 의지, 사고들뿐이다.

① 정념은 이성이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②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에 있다.
③ 자연적 성향인 공감을 통해 자기중심적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④ 도덕 행위의 추동력은 감정이고 도덕 판단의 근거는 이성이다.
⑤ 감정은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대한 이성적 통찰의 결과물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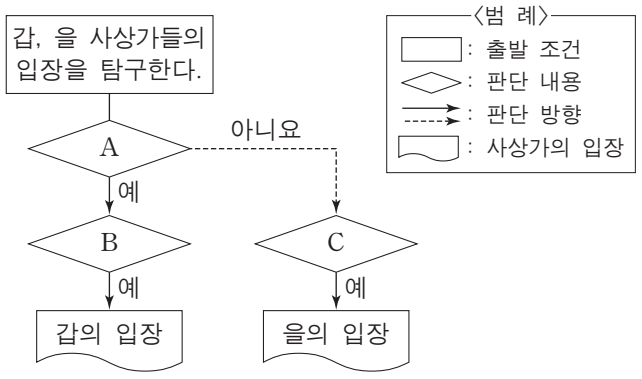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다름의 입장에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지만, 같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 성인(聖人)은 덕(德)에서 나오는 조화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소요(逍遙)한다.

을: 모든 것은 시비(是非)의 정해짐이 없고, 선(善)이 있는 곳에 불선(不善)이 있고, 앎이 있는 곳에 알지 못함이 있다. 성인의 지혜도 아래에서 보면 지혜이지만, 위에서 보면 무명(無明)이다.

(나)



① A: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가?
② B: 백성의 무지(無知)를 덕으로 교화하는 데 힘써야 하는가?
③ B: 수양을 통해 자신이 고집하는 앎[知]을 제거해야 하는가?
④ C: 참된 지혜는 인간의 말과 글[言說]로써 고정될 수 있는가?
⑤ C: 참된 자아를 깨달을 때 무명(無明)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7.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성현이 베푼 가르침은 인욕(人欲)을 제거하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방법 아닌 것이 없다. 인욕이 없고 순수한 천리인 마음은 정성스럽게 효도하는 마음이다.
○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고, 성은 곧 이(理)이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효도의 이치가 있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도의 이치가 없다. 이치는 마음에서 구할 뿐이다.

〈보 기〉

ㄱ. 앎[知]과 실천[行]을 병진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ㄴ. 참된 앎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그 앎을 완성해야 한다.
ㄷ. 앎을 쌓아서 그릇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야 한다.
ㄹ. 사욕을 제거하여 참된 앎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갑은 동양 사상가, 을, 병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성(性)은 마음[心]의 본체이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섭하고 주관하니, 성과 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을: 하늘이 내린 성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인간은 스스로 주인 되는 권한[自主之權]을 지니고 있어, 덕을 행한 공로와 악을 범한 과오가 자신에게 있다.
병: 사람 마음에서 활발하게 드러나는 이치는 두루 통달하고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은 고유한 덕이고 참된 앎[良知]이며, 인(仁)이다.

① 갑: 측은(惻隱)한 마음은 내재된 본성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② 을: 인간만이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③ 병: 마음 밖에 있는 이치는 의미 없는 죽은 이치[死理]이다.
④ 갑, 을: 마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주재 능력을 지닌다.
⑤ 을, 병: 사덕은 하늘이 부여한 성선(性善)의 형이상학적 근거이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이다. 신적 본성의 양태도 필연적으로 신적 본성에서 생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한다. 신 또는 자연이 세계이며, 인간은 무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을: 신은 근원적 통일이거나 본래적인 단순 실체이다. 모나드들은 신의 산물로서 신적 본성에 의해 생겨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피조물의 본질에 따라 유한하다. 모나드들은 서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갑은 신 또는 자연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② 갑은 인간의 정신을 신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로 본다.
③ 을은 실체들의 조화가 신의 예정대로 실현된다고 본다.
④ 을은 궁극적 실체인 모나드들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본다.
⑤ 갑, 을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10.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만약 국가가 시민 사회와 혼동된다면, 개인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단지 임의적인 일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의 구성원이어야만 객관성과 진리, 그리고 인륜성을 지닐 수 있다.

〈보 기〉

ㄱ. 개인의 최고 의무는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ㄴ. 국가는 절대 정신의 구현으로 부동의 목적 그 자체이다.
ㄷ. 개인의 진정한 자유는 인륜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ㄹ.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회의 원리가 결합된 인륜 형태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서학은 태극이 만물의 근본임을 모르고, 기(氣)에 해당하는 물질만을 숭상하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인간의 윤리를 끊는다. 양이(洋夷)는 배척되어야 한다.
> 을: 대한의 유교는 백성을 중시하고 대동을 실현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지리멸렬한 공담만 논해 경제에 몽매하다. 양지(良知)의 확충을 통해 개혁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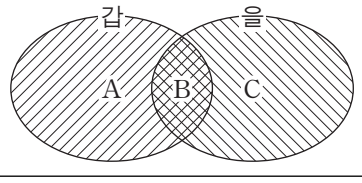
ㄱ. 갑은 이(理)를 위주로 척사(斥邪)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대동 사회를 실현하여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유학의 도덕 정신을 배척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서구의 과학 기술을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기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을: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무에서 행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 경향성으로부터 행해진 행복 추구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

(나)



〈범 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행위가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해도 옳지 않을 수 있다.
ㄴ. B: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
ㄷ. B: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행위는 아니다.
ㄹ. C: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 밖에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주제에 대한 보편적 결론에 도달하려면 공론장이 개방되어야 한다. 공론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해 가능성의 규범을 준수할 때 이상적 대화가 가능한 공동체의 토대가 마련된다.
> 을: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능, 가치관, 심리적 경향 등을 알지 못하는 가상 상황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① 갑은 공론장 운영을 위해 특정 주제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갑은 공론장을 정부가 관장하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기구로 본다.
③ 을은 가상 상황을 상호 배려와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으로 본다.
④ 을은 가상 상황의 개인들이 계약에 합의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합의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어야 한다고 본다.

14.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이(理)와 기(氣)는 서로 의지하여, 이가 발하면 기가 따르고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이의 본체의 무위(無爲)만을 보고, 그 작용이 드러남을 알지 못하여 이를 죽은 물건으로 간주하면 도리에 맞지 않는다.
> 을: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아 하나의 물건[一物]과 같다.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니,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된다. 이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有爲)이니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보 기〉

ㄱ. 슬픔·노여움 등의 칠정(七情)에도 선(善)이 존재하는가?
ㄴ. 이와 기는 사단(四端)과 칠정의 각기 다른 연원인가?
ㄷ. 측은·수오·사양·시비의 감정은 이의 작용으로 생기는가?
ㄹ. 칠정은 기의 능동적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감정인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나)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사회주의의 계획은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전체주의적 계획과 선명히 대조된다. 국가는 대규모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적 소유자도 생산과 복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독점의 심화로 자본가들은 감소하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와 저항은 확대된다. 사적 소유와 사회적 노동 간 모순의 격화로 수탈 체제는 종말을 고한다. 소수에 의한 민중의 수탈이 민중에 의한 소수자의 수탈로 전환된다.

① 국가와 계급이 소멸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는가?
② 다당제와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사회주의가 실현되는가?
③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와 소외를 조장하는가?
④ 이상 사회는 무산 계급의 폭력 혁명과 독재로 실현되는가?
⑤ 자본주의에서 이상 사회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실현되는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을 알아야 한다. 정의나 용기 등은 지혜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해롭거나 유익하게 된다. 덕이란 유익한 것이므로 지혜의 일종이어야만 한다.
> 을: 도덕적인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성에 반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복된 실천을 통해 완성한다.

① 갑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본다.
② 을은 모든 덕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습관화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③ 을은 갑과 달리 의지의 나약이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갑, 을은 덕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인간이 무지로 인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심미적 단계의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에서 결단을 통해 윤리적 단계로 도약한다. 이 단계에서도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절망하게 되어, 결단을 통해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단계로 도약한다.
> 을: 인간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본질을 생각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우며 고독하다.

① 갑은 감각적 향락을 버리는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윤리적 단계에서 인간의 유한성이 온전히 극복된다고 본다.
③ 을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실존이 회복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합리적 사유로써 주관적 견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18.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개인이 세계 시민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누구든 지구상에서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누려야 한다. 또 출생 국가를 떠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국가에 최소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자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여러 민족 또는 인종이 각자의 권리를 갖고서 동등한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자기 민족의 권리가 세계 시민권보다 더욱 중요함을 간과한다
② 세계화 시대에 국경이나 민족의 구분은 무의미함을 강조한다
③ 개인이 국가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세계 시민임을 간과한다
④ 민족적 동포애가 보편적 인류애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⑤ 민족 간 공존을 위해 자민족의 권리를 양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19.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개인이 이기심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자유롭게 경쟁할 때 개인의 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는 공적인 낭비로 가난해지기도 한다. 공공 수입이 비생산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 을: 개인이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을 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문제는 고용의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규모가 작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① 사익의 추구가 공익의 확대로 귀결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② 시장 경제 질서의 자기 교정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③ 시장 경제에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국가의 재분배 조치가 불황기의 효과적 대안임을 간과하고 있다.
⑤ 국가 개입 확대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을 간과하고 있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경쟁 때문에 약탈자가 되고 불신 때문에 침략자가 되며 명예욕 때문에 공격자가 된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 자연법인 이성은 인간에게 내면의 의무를 지울 뿐이므로 자연법의 준수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전쟁 상태에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연적 권리를 갖지만 그것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시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 <u>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의해 자연 상태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고</u>, ㉡ <u>사회 계약 이후에 국가만이 계약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u>. 을은 ㉢ <u>자연법 집행에 관한 개인 간의 분쟁을 중재할 공통 권력의 부재로 인해 자연 상태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고</u>, ㉣ <u>개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권력의 분립이 아닌 집중을 주장한다</u>. 한편 갑, 을은 ㉤ <u>사회 계약이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공통점을 갖는다</u>.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리가 상대적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② 행복이 지식과 무관함을 인식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③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중시하고 사회적 공감을 추구해야 한다.
④ 인간이 만물의 척도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⑤ 참된 앎이 덕 그 자체임을 깨닫고 항상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아름다운 국가'는 가장 완벽한 수호자들이 통치한다. 이들은 모든 지식 중 지혜라고 불리어 마땅한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국가의 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 을: 진리의 빛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광을 먼저 비춘다. 따라서 산업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이 무지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뉴 하모니'를 건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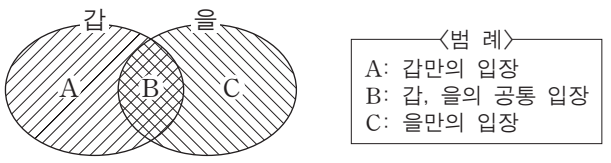
① 갑: 모든 계급의 철폐가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통치한다.
② 갑: 구성원 모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맡은 바 직분을 다한다.
③ 을: 사유 재산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④ 을: 이기적인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자연권을 완전히 보장받는다.
⑤ 갑, 을: 모든 구성원이 생산수단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공유한다.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 최고선인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덕은 영혼의 요소에 따라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으로 나뉜다.
> ○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그러나 심술이나 파렴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① 어떤 감정이나 행위들은 중용의 상태를 가질 수 없다.
② 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욕구가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품성의 덕을 갖출 수 있다.
④ 중용의 덕을 함양해야 삶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⑤ 도덕판단의 기초인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4.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삶[生]도 바라고 의(義)도 바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한 그릇의 밥과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모욕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는다. 현자(賢者)는 이 인의의 본심을 잃지 않을 뿐이다. 을: 예(禮)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스승[師]은 예를 바르게 하는 자이다. 예가 없으면 어떻게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예가 옳은지 알겠는가? 성정을 바로잡아, 정감이 예를 편안히 여기고, 지혜가 스승과 같아진다면 성인(聖人)일 것이다.
(나)	

① A: 군주는 인의의 도덕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② A: 본래 마음 밖에 있는 의를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③ B: 성인과 일반 백성은 모두 동일한 본성[性]을 갖고 태어난다.
④ C: 하늘을 도덕의 근거로 삼아 사회 질서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⑤ C: 식욕(食欲)과 같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

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나는 오직 내가 생각하는 존재, 즉 정신이나 이성으로서의 존재라는 말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는 이제 드디어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바로 생각하는 존재였다.
> 을: 나는 언제나 이른바 '나 자신'이라는 것의 심층에 들어가 보면 개별적 지각들, 즉 사랑과 미움, 고통과 쾌감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여기서 이성은 나의 행동과 정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보 기〉

ㄱ. 갑은 경험과 관찰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인과 법칙이 심리적 성향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제1 원리를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으로 본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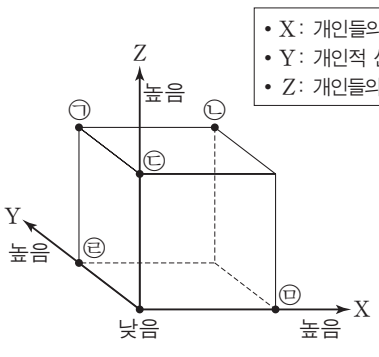
6.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이(理)는 지극히 허(虛)하면서도 지극히 실(實)하다. 그 본체는 무위(無爲)하지만 작용[用]을 갖추고 있어 만물에 드러난다. 솔개가 나는 것은 기(氣)이지만, 날게 하는 것은 이(理)의 묘용(妙用) 아님이 없다.
> 을: 이는 형이상자(形而上者), 기는 형이하자(形而下者)이다. 이는 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고, 기는 이 아니면 근거가 없다.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 오직 기가 발함에 이가 타고, 이는 통(通)하지만 기는 국한[局]된다.
> 병: 이는 마음[心]이고 성(性)이다. 기를 벗어나 성을 말할 수 없다. 사람 마음에서 생동하는 이치는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양지(良知)이다. 선(善)은 저울의 중심이 물건에 따라 바뀌듯이 미리 정할 수 없다.

① 갑은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마음을 이가 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이가 기와 결합해야만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진리(眞理)를 마음이 상황에 맞게 드러내는 이치로 본다.
④ 갑과 을은 치우친 기질 속에도 이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⑤ 을과 병은 기가 이보다 먼저 발하여 모든 감정이 드러난다고 본다.

7.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자유는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개인은 불가침적인 권리를 지니므로 공동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구도 타인을 강제할 수 없다. 도덕과 정치를 결합하려는 시도는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부당하다.
> (나) 자유는 '함께하는 자치'에 달려 있다. 자치를 공유하는 것은 공동선에 대해 동료 시민들과 숙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람직한 품성을 습득해야 한다. 자치에 필수적인 품성을 길러 내는 것이 정치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일당 독재와 무제한적 수탈이 자행되는 모든 곳에서는 민중의 생존과 도덕 수준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UN 인권선언을 준수하면서, 사적 이윤보다 민중의 공익을 강화하는 제도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나) 투자와 구매의 저하는 풍요 속의 빈곤과 실업 증가를 유발한다. 이는 악의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인간의 도덕성에 책임을 돌릴 수 없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도 믿을 수 없으므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① 전면적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되 부분적 사유도 인정해야 한다.
②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③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를 다른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④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⑤ 공익 증진을 위해 자유 경쟁을 통한 사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

9.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선의지에 스스로의 의도를 성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해도, 또한 이 의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는 것이 아예 없다 해도, 선의지는 마치 보석과도 같이 그 자체로 빛나며 스스로의 모든 가치를 그 자체에 간직한다.
> 을: 강렬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근접해 있으며 생산적이고 순수한 것. 쾌락과 고통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쾌락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법. 사적이라면 당신의 목표로 삼고, 공적이라면 널리 전파하라.

① 갑: 선의지는 인간의 일반적인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해야 한다.
② 갑: 무조건적 선은 이성적 존재의 의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③ 을: 개인이 갖는 쾌락과 사회 전체의 선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④ 을: 고급 쾌락들을 경험한 전문가의 식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⑤ 갑, 을: 행위자의 품성을 배제하고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없다.

10. 다음 동양 사상가의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흰기러기는 하얗게 되겠다고 매일 목욕하지 않고, 까마귀는 까맣게 되겠다고 매일 먹물을 칠하지 않는다. 흑백의 우열은 논변할 가치가 없고, 명예를 다툰다고 위신이 서는 것도 아니다. 샘이 말라 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물고기들은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 주면서 삶을 도모하지만, 이는 강과 호수 안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

〈보 기〉

ㄱ. 인간과 동물은 모두가 자신의 덕(德)을 가지고 태어난다.
ㄴ. 누구나 좌망을 통해 도(道)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ㄷ. 자연적 본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양을 해야 한다.
ㄹ.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간에 귀천(貴賤)의 구분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12]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마음의 본체는 성(性)이고,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생각이 일어나면서 바르지 않음이 생긴다. 생각이 머무는 곳이 물(物)이고, 바로잡는 것이 격(格)이다.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옳은 생각을 행해야 마음의 본체가 회복된다.
> 을: 마음은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함에 기(氣)로 형체를 만들고 성 또한 부여하였다. 기질의 차이로 누구나 성이 고유함을 알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理]해야 앎을 지극히 할 수 있다.

11.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① 도덕적 행위[行]는 이치를 탐구해야만 가능한 것인가?
② 이치[理]는 마음이 인식해야 하는 객관적인 대상인가?
③ 사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함양해 나가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④ 도덕적 사고와 행위는 천리인 참된 앎[良知]이 발현된 것인가?
⑤ 도덕적 앎[知]을 얻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 있는가?

1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성(性)은 옳음[義]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자주의 권한[自主之權]을 주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였다. 선과 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고정되지 않는 것은 마음의 권한이니, 금수(禽獸)의 고정된 마음과 다르다.

〈보 기〉

ㄱ. 예(禮)는 공경하는 행위에서 형성되는 덕임을 간과한다.
ㄴ. 기질(氣質)의 욕구를 좇으면서 악이 쌓이게 됨을 간과한다.
ㄷ. 인간의 마음[心]이 도덕 행위를 주재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ㄹ. 인간만이 덕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인 본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특정 지식이 제한된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전체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향상하는 원칙에는 합의한다.
> 을: 일체의 외적 강제력이 배제되고, 상호간 비판에 열려 있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 당사자는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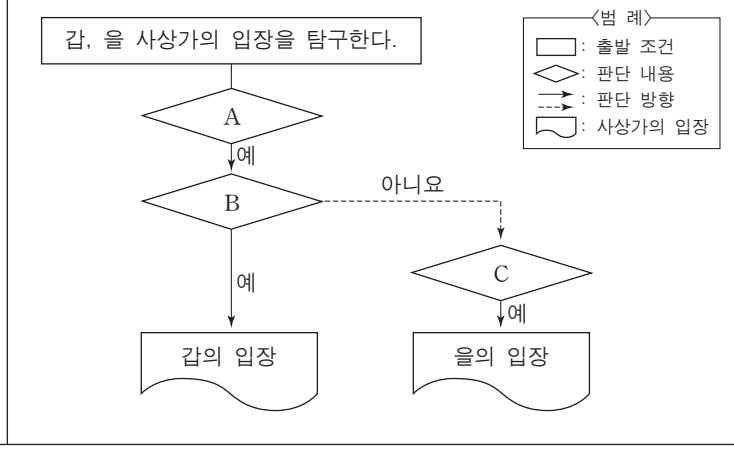
① 갑은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공정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최초 상황의 개인은 서로의 이익을 공평하게 비교한다고 본다.
③ 을은 당사자들의 어떠한 주장에도 이의 제기가 허용된다고 본다.
④ 을은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사회적 갈등 해결은 무관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결과의 정당성이 절차의 공정성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본다.

14.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지만, 쾌락 때문에 더 큰 불쾌가 초래될 경우 우리는 그 쾌락을 포기한다.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간 뒤에 더 큰 쾌락이 따를 경우, 우리는 그 고통을 쾌락보다 낫다고 본다.
> 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오직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기 것으로 하고, 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남의 것으로 돌려라. 그러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



① A: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② B: 자기애를 넘어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삶은 바람직한 것인가?
③ B: 평온한 마음을 누리려면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해야 하는가?
④ C: 최고의 선이란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은둔하여 사는 것인가?
⑤ C: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해야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15.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아담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하였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자기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는 서로 대립하며, 악(惡)은 선(善)이 결여된 상태이다.
> 을: 개체만이 실재하며, 보편자는 사물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있은 뒤에 관념으로서 정신 속에서만 성립한다.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가정해야 한다.
> 병: 성서 해석 권한이 오직 교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권한은 베드로 및 그의 후계자인 교황들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모두 사제이며, 각자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① 갑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보편자는 개별자와는 달리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병은 신의 은총은 오직 교회를 매개로 하여서만 주어진다고 본다.
④ 갑, 을은 병과 달리 신앙을 인간이 홀로 신과 만나는 것이라고 본다.
⑤ 을은 갑, 병과 달리 신의 본질을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국가는 인륜적 전체이며, 자유의 현실태이다. 국가는 인간의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정신이다. 인간이 알건 모르건 국가는 모든 개개인을 자신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 을: 국가는 다수의 계약에 의한 결집체이다. 계약은 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에 불과하며 어떤 힘도 갖지 못한다. 지상의 신(神)인 국가는 외적의 침입과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① 갑은 개인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② 갑은 인륜을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본다.
③ 을은 국가의 성립 이후 구성원들의 이기심이 소멸된다고 본다.
④ 을은 계약 이후에는 도덕규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국가를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인위적 산물로 본다.

1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세계가 정원이라면 국가나 민족은 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꽃인 국가나 민족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세계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국가의 존립 없이 국가 간의 조화와 공존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는 "이성이 인류의 본성이라면 이성의 법칙도 보편적이며, 우주는 일종의 국가이다. 인류는 하나의 국가공동체의 시민이다. 그 밖에 또 다른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인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다른 나라의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한다
② 인류 보편적 가치보다 민족의 번영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자연법이 아니라 각 사회의 실정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④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민족을 토대로 하여 형성됨을 간과한다
⑤ 이성이 세계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본질적 특성임을 간과한다

18.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걸어서 가는 것으로는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괴로움[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끝은 분명히 있으나 오직 바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 지혜로 세간(世間)을 통달하면 피안(彼岸)에 이를 수 있다.

〈 보 기 〉

ㄱ. 우주의 삼라만상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ㄴ. 윤회하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생(生)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ㄷ. 일체는 불변하므로 공(空)하며 누구나 불성(佛性)을 갖는다.
ㄹ. 무명(無明)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한울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니, 한울님인 사람이 천지의 결실인 밥을 먹는 것은 곧 한울님이 한울님을 먹는 것입니다. 밥이 곧 하늘입니다.
> 을: 이웃이 정을 담아 주는 음식이 맛없다고 내색하면 원한을 쌓게 됩니다. 원한은 풀고[解寃] 은혜는 갚아야 하는 법, 반 그릇의 밥을 얻어먹더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병: 길가의 한 그루 소나무가 아름답다고 자기 집에 옮겨 심을 필요가 없으니, 만물은 모두 하나의 원(圓)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이 곧 우주입니다.

① 갑은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자연 애호와 만민 평등을 강조하였다.
② 을은 무속 신앙 및 유교, 불교, 도교까지 아우르는 사상을 제시하였다.
③ 병은 물질 개벽 시대를 이끌어갈 동양의 정신 개벽을 추구하였다.
④ 갑은 을, 병과 달리 현세보다 내세의 지상낙원 실현을 역설하였다.
⑤ 갑, 을, 병은 민족의 주체성 회복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였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신(神)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병에서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 진리이다.
> 을: 죽음은 세계 안의 존재인 현존재(Dasein)에게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며, 죽음에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은 불안 속에서 더욱 철저하게 드러난다.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u>윤리를 따르는 삶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으며</u>, ㉡ <u>자신을 신에게 내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u>. 을은 ㉢ <u>과학적 합리성으로 현존재의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u>, ㉣ <u>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예견해 봄으로써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u>. 한편 갑, 을은 모두 ㉤ <u>인간의 보편적 본질보다는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였다</u>.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메노이케우스에게
> 그동안 잘 지냈는가? 보내 준 편지는 잘 읽었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쾌락에 대해 자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물과 빵은 가장 큰 쾌락을 준다네. 배고픔 때문에 생긴 고통이 사라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진수성찬도 싸구려 음식과 다를 게 없어지지.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보다는 평범한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네. 그러면 비싼 음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혹 그런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미련 없이 평범한 음식에 다시 만족하게 된다네. …(후략)…

① 공적인 삶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② 부를 축적하여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④ 쾌락을 죄악으로 생각하고 신의 뜻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현세의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좇아야 한다.

2.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① 정치 질서는 사회 계약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②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④ 자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⑤ 자연 상태에서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3.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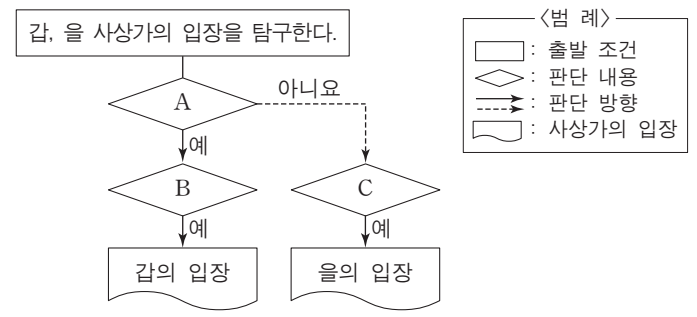
> 인간은 분명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모두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그의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 때문에 그는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된다.

① 이성적인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입법할 것이라고 본다.
② 도덕 법칙의 보편성 여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③ 모든 준칙은 보편성을 가지며 도덕 법칙의 예외는 없다고 본다.
④ 선한 의지와 무관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참된 도(道)에는 이름이 없다. 도는 통나무처럼 소박하지만 천하의 누구도 도를 부릴 수는 없다. 제후와 왕들이 이를 터득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을: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言]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어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바로 서지 않아서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나)



① A: 사람들이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② B: 도(道)를 움직임과 작용이 없는 자연 만물의 법칙으로 보는가?
③ B: 사람들이 충서(忠恕)의 덕을 실천하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④ C: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참된 사랑의 시작으로 보는가?
⑤ C: 인의(仁義)를 버리면 오히려 백성이 도덕적으로 된다고 보는가?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 (가), (나)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인간은 가치관 형성 능력과 함께 정의감을 가진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삶의 주체이며,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려는 존재이다.
(나) 인간은 모두 누군가의 형제이고 사촌이며, 이 마을과 저 부족의 구성원이다. 이런 것들은 각자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각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규정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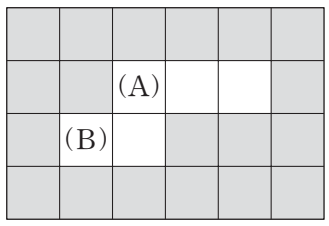
⊙ 학생 답안

(가)와 (나)의 특징을 비교하면, (가)는 ㉠<u>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며</u>, (나)는 ㉡<u>국가가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가능한 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u> 한편 ㉢<u>(가)는 인간을 다른 사람과 독립된 자율적 존재로</u>, (나)는 상호 의존적인 연대적 존재로 본다. 또한 ㉣<u>(가)는 정치 공동체를 개인의 삶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u>, (나)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기반으로 본다. 그러나 ㉤<u>(가)와 (나) 모두 개인적 선과 공동선이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u>

① ㉠ ② ㉡ ③ ㉢ ④ ㉣ 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람과 금수(禽獸)의 차이는 작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버리고 군자는 이 차이를 보존한다. 순(舜) 임금은 사물의 이치에 밝으시며 사람의 도리를 더 잘 아셨으니, 이는 마음속의 인의(仁義)를 따라 행하신 것이지 마음 밖의 인의를 행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나)	 〔가로 열쇠〕 (A):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의미의 동학 용어 (B):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예) 칸트의 '실천 ○○'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의(義)로운 행동을 반복해 얻은 지극히 크고 올곧은 도덕적 기개이다.
② 고통[苦]의 원인으로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혼재된 마음이다.
③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량(善良)한 덕성이다.
④ 무욕(無欲), 무지(無知)한 삶을 위해 요구되는 자연적 품성이다.
⑤ 희로애락(喜怒愛樂) 같은 감정으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본체이다.

7.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한다.
ㄴ.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다.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리의 원리이다.
ㄹ. 측정 및 계량화가 가능한 쾌락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9] 갑, 을은 중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천지 사이의 이치[理]는 사물이 생길 때 성(性)이 되는데, 인의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인(仁)으로써 사랑하고 의(義)로써 미워하고 예(禮)로써 사양하고 지(智)로써 아는 것은 마음[心]이고, 성은 마음의 이치이다.
을: 성(性)은 하나일 뿐이다. 그 형체를 말할 때에는 하늘이고,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때에는 성이며, 한 몸을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마음[心]이다. 마음이 발하여 부모를 만났을 때에는 효, 임금을 만났을 때에는 충이라고 한다.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인간이 사물과 달리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지속적인 수양이 없으면 양지(良知)를 상실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도덕적 앎은 반드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도 이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격물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맹자는 "인의예지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가지와 잎, 꽃과 열매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 할 때 측은지심이 생겨도 가서 구해 주지 않는다면 인(仁)이라 말할 수 없으니, 인의예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보 기〉
ㄱ. 인의예지는 덕이라 할 수 있지만 이치[理]라 할 수는 없다.
ㄴ. 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주지권(自主之權)을 형성할 수 있다.
ㄷ. 사단(四端)의 실천과 덕의 형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ㄹ. 덕(德)은 반복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성도 착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얻은 진리는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을: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이다. 도덕적 선악은 판단되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

① 갑은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토대로 도덕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인간의 이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사회적 유용성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도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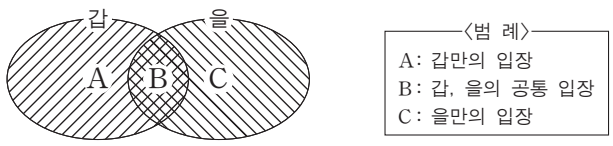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이치[理]에 감정과 의지, 그리고 조작이 없다는 것은 그 본체가 그렇다는 것일 뿐, 그 쓰임[用]의 차원에서 보면 이치는 그 만나는 곳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다. 내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러울 뿐, 이치가 스스로 이를[自到] 수 없음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 을: 기(氣)가 치우치거나 온전하면 이치도 치우치거나 온전한데, 실제로 치우치거나 온전한 것은 기[氣局]뿐이고 이치는 그 두루 미치는 특성[理通] 때문에 손상되지 않는다. 기는 본래 깨끗하지만 그 깨끗함을 상실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에 운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① 갑은 칠정이 사단과 달리 선악 중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기질지성이 교정되면 본연지성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이와 기가 결합한 기질지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본성이 마음에서 발현된 결과를 사단이라고 본다.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자연[天]은 안에 있고, 인위[人]는 밖에 있으며, 덕(德)은 천에 있다. 천과 인의 일을 잘 가려 천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인으로 천을 멸하지 않고, 고의로 명(命)을 망치지 않으며, 명성을 위해 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을: 길흉화복은 천의 일이 아니며, 덕은 선(善)을 쌓는 데 있다. 천과 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군자가 인의(仁義)를 행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랫동안 변화하여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물이 조화하게 된다.
(나)	

〈보 기〉

ㄱ. A: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사단을 갖고 태어난다.
ㄴ. B: 자연적인 본성과 인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ㄷ. B: 예(禮)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ㄹ. C: 인간의 본성이 사회악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갑은 중세,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신의 존재 증명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성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신앙으로 신을 알아야 한다.
> 을: 신앙의 역설이란 한 인간이 개별자로서 보편적인 것 밑에 놓인 다음에, 그 보편적인 것을 통해 보편적인 것 위에 있는 개별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역설은 신 앞에 선 단독자인 인간의 사고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다.

① 갑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와 신 존재 증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갑은 현세적 행복이 내세적 행복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③ 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주체적 결정을 회피한 결과라고 본다.
④ 을은 종교적 단계에서 절망을 극복하고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진리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적 추론의 결과로 본다.

14.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 을: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을은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15.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본래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홀연히 깨닫더라도[頓悟]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기 어렵다. 이는 갓난아이가 어른처럼 모든 기관[諸根]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근력을 충실하게 키워 내지 못하면 어른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보 기〉

ㄱ. 중생이 부처임을 자각하기 위해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
ㄴ. 선종[禪]과 교종[敎]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동일하다.
ㄷ.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해[漸修] 나가야 한다.
ㄹ. 불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릇된 습성[習氣]이 남아 있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갑은 고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각자의 운명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 을: 인간이란 자유롭도록 선고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의 무게를 자신의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다. 인간은 존재 방식에 관한 한 세계에 대한 책임자이자 또한 그 자신에 대한 책임자이다.

〈보 기〉

ㄱ. 갑은 이성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 을은 불안 극복을 위해 신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 지혜롭다고 주장한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인간의 실존은 본질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치의 사회적 의미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상상 속에서 철학적으로 고안될 수 없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의미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Y의 소유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성립한다.

① 가치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한 기본적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②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③ 정의론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④ 가치를 분배할 때에는 사회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⑤ 지배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지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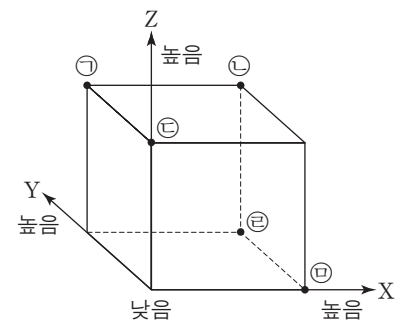
1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감각적 지각을 통해 얻은 것을 본질 그 자체와 관련지으려면 무지의 동굴에서 벗어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참된 실재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실재를 인식한 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 을: 최초의 두 사람이 지은 원죄가 인간의 본성을 변하게 하였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 본성이 우리가 보며 느끼는 대로 부패하게 되었고, 인간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지상의 국가는 이렇게 천상의 국가에서 멀어졌다.

① 갑은 이상 국가에서는 각 계층이 자기 직분을 다해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② 을은 죄에 빠진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여러 덕들 중 최고의 덕을 정의가 아닌 사랑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세계를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로 구분하여 본다.

19.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자본가가 되는 것은 생산에서의 개인적 지위와 더불어 지배계급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다. 자본은 공동의 산물이며 사회 구성원의 공동 활동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본을 움직일 수 없다. 자본은 개인적 힘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다. 그러므로 자본 소유의 계급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
> (나) 자본가는 자본이 이윤과 함께 회수되기를 기대한다. 그는 생산적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그 노동자에게 수입을 안겨 준다. 생산적 노동자는 그 수입으로 비생산적 노동자를 부양한다. 이처럼 자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 X: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도
- Y: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는 정도
- Z: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공유를 중시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20.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의서(醫書)에서는 손발이 마비된 것을 '몸이 불인(不仁)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릇 손발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므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인일 것이다. 지극한 인(仁)을 갖춘 사람에게 천지는 한 몸이고 천지 사이의 만물은 자신의 몸과 같다. 무릇 사람이면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① 천지(天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② 의술(醫術)을 행하여 자기 몸의 건강을 보전할 것을 강조한다.
③ 사회 현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연에서의 소요(逍遙)를 강조한다.
④ 삼라만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고통에서의 해방을 강조한다.
⑤ 현세보다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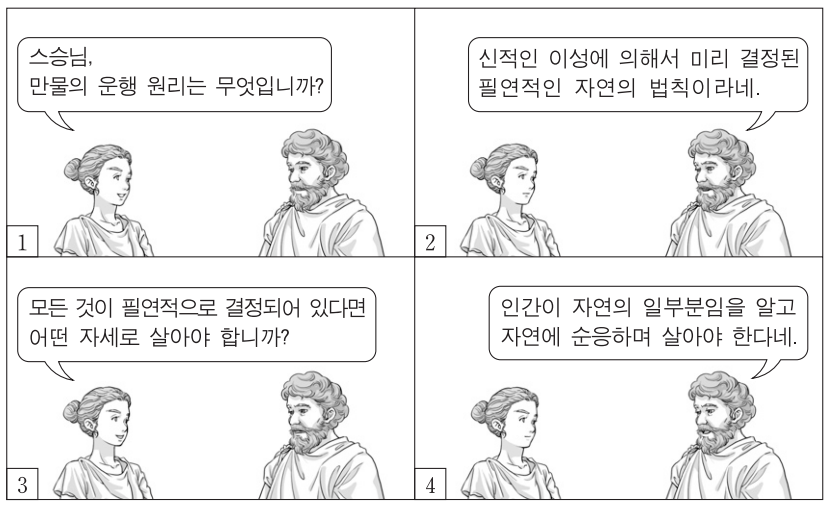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
②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는 의연함을 지녀야 한다.
③ 초자연적인 인격신의 계시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⑤ 타고난 정념을 적절히 발휘하여 운명을 개척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예의를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자포(自暴)] 자이고, 자신이 어질고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는[자기(自棄)] 자이다.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학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방치된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
> 을: 사람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성품[性]으로 타고난다. 하지만 이익이 의로움을 이기면 난세가 되므로, 성인이 예의를 제정해서 직분을 나누었다. 사(士) 이상의 계층이 이익만 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백성과 생업을 경쟁하지 않으니, 백성이 재물에 궁핍하지 않게 되었다.

〈보 기〉

ㄱ. 갑은 사람들이 도덕적 본성을 저버리므로 자포자기한다고 본다.
ㄴ. 갑은 인의가 외적 환경과 인위적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ㄷ. 을은 군주가 예로 다스려야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을은 인간의 본성 안에 예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인간은 말이나 소와 다르게 정신 안에 이성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존재이다. 이성적 동물인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의 본질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에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
> 을: 인간은 이끼나 꽃양배추와 다르게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향적 존재이다. 이 지향 이전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나중에야 비로소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다.

① 갑: 인간은 목적 지향적 활동을 통해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갑: 지나침과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있다.
③ 을: 인간은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를 지향해야 한다.
④ 을: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
⑤ 갑, 을: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대해 책임짐으로써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4.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꽃의 뿌리·줄기·잎·꽃술·향기가 꽃은 아니지만 꽃은 이것들을 떠날 수 없다. 나도 이와 같다. 육체[色]가 나는 아니지만 나는 육체를 떠날 수 없다. 감수[受]·표상[想]·의지[行]·인식[識]이 나는 아니지만 나는 이것들을 떠날 수 없다. 이 다섯 가지[五蘊]를 바르게 통찰해야 나에 대한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보 기〉

ㄱ. 인연생기[緣起]에 의한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ㄴ. 현생의 업(業)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다음 생이 이어진다.
ㄷ. 바른 수행으로 무명(無明)을 실천해야 해탈에 이르게 된다.
ㄹ.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인간의 자아는 무상(無常)하지 않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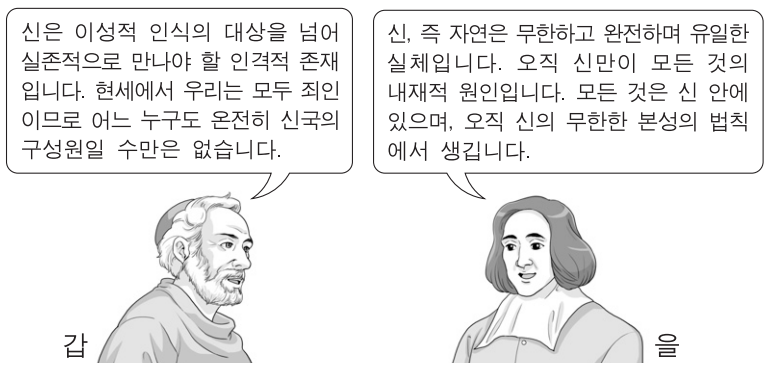
5.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나와 주변 사람들은 약속한 자와 약속받은 자, 채권자와 채무자,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친구와 친구, 동료 시민과 동료 시민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는 나에게 조건부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켜야 할 조건부 의무에는 약속에 대한 성실, 잘못에 대한 보상, 호의에 대한 감사,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선행, 자기 계발,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 등이 있다.

① 어떤 조건부 의무도 다른 조건부 의무에 의해 유보될 수 없다고 본다.
② 상황에 적합한 조건부 의무를 도덕적 직관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특정한 상황에서 의무로 채택된 조건부 의무를 실제적 의무라고 본다.
④ 모든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원론적 도덕 원리는 없다고 본다.
⑤ 조건부 의무들 간에도 상황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은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이성을 통해 현세에서 실현된다고 본다.
③ 을은 지적인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신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신의 은총에 의해 정념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7.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국가가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국가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개입은 전체주의로 향하는 길이 될 뿐이다.
> (나) 국가는 사회주의적 계획에 따라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 국가는 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 의한 경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경제를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① 기회의 평등을 통해 재화의 균등한 몫을 분배해야 하는가?
② 의회 또는 정당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③ 개인은 재산 소유의 권리와 양도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
④ 공공의 이익 추구보다 사적인 이익 추구를 우선해야 하는가?
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가?

8.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위로는 무극과 태극에서, 아래로는 하나하나의 초목과 곤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理)가 있다. 사물 하나를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사물의 도리 한 가지를 빠뜨린다. 모름지기 한 가지를 따라가서 다른 이(理)와 만나야 한다.
> 을: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心]이고, 마음이 드러난 것이 뜻[意]이다. 뜻의 본체가 곧 앎[知]이며, 뜻이 머무는 것이 곧 사물[物]이다. 만약 뜻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사물이니, 그것은 마음에 있다.

① 갑은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해야 천리(天理)에 도달한다고 본다.
② 갑은 기(氣)로 이루어진 본연지성을 이(理)가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마음 밖에 사물이 있으므로 이(理)도 마음 밖에 있다고 본다.
④ 을은 선지후행(先知後行)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과 예의로 양지(良知)를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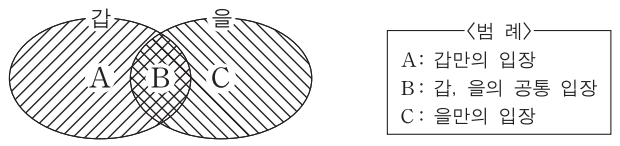
> 갑: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우리가 오직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에서 유래한다.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국가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국가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 을: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와 저항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

〈보 기〉

ㄱ. 갑은 국가에 대한 복종을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의무로 본다.
ㄴ. 을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저항권의 근거로 본다.
ㄷ. 을은 명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만을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ㄹ. 갑, 을은 국가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행복은 이성의 이상(理想)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상상력의 이상이다. 이성의 사명은 선의지를 낳는 것이며, 선의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자격 조건이어야 한다. 을: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나)	

〈보 기〉

ㄱ. A: 준칙에 따르는 모든 명령은 무조건적 의무의 요구이다.
ㄴ. B: 타인을 배제한 개인적 행복을 도덕원리로 삼을 수 없다.
ㄷ. B: 보편적 도덕원리를 통해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ㄹ. C: 도덕원리가 개인의 행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12]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맹자는 성선(性善)의 이치를 드러내어 밝히면서 사단(四端)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사단은 이(理)가 발(發)한 것이라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는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七情)은 기(氣)의 발이다."라고 말했다. 대개 사단은 이가 발하여 선한 것이므로 이의 발이라 한 것이다.
> 을: 성인(聖人)은 사단을 인의예지의 근본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공부를 일으키고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하였다. 만약 사단의 이면(裏面)에 인의예지가 잠복해서 주인이 된다면, 이것은 맹자의 확충 공부가 그 근본을 버리고 그 끝을 잡는 격이 될 것이다.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마음 밖의 사덕(四德)을 통해 사단이 발휘된다고 본다.
② 갑은 사단이 인간의 본성으로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라고 본다.
③ 을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嗜好)가 사덕이라고 본다.
④ 을은 일상에서 사단을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사단의 형성을 위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1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사단과 칠정은 두 변(邊)으로 나눌 수 없다. 만일 나누게 된다면 인성(人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누어 두 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리(天理)는 무위(無爲)이므로 반드시 기(氣)의 기틀을 타야 동(動)하는 것이니, 기가 동하지 않고서 이(理)가 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보 기〉

ㄱ. 스스로 작용하여 만물을 낳는 것이 이(理)임을 간과한다.
ㄴ. 인간의 감정인 칠정은 사단을 겸(兼)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ㄷ.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사단임을 간과한다.
ㄹ. 이는 발하는 까닭[所以]일 뿐 발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영원법은 모든 운동과 행위를 지배하는 신의 지혜이다. 만물은 신으로부터 영원법을 통해 각자의 특정한 본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러한 영원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현실에서 실정법은 이성이 따르라고 명령한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① 인간이 제정한 자연법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② 영원법이 실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작용의 근거라고 본다.
③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는 자연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불변하는 영원법과 가변적인 실정법을 자연법이 매개한다고 본다.

14.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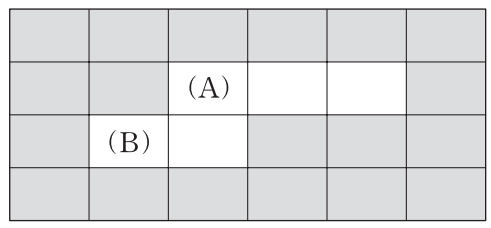
> 갑: 자성(自性)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본래 마음을 알면 곧 해탈이며,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 삼매이며,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 무념이다. 자성을 일거에 깨쳐야 한다.
> 을: 마음은 물과 같아서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부서지고, 물이 맑고 고요하면 그 작용이 완전해진다. 정(定)이 없으면 미치광이요, 혜(慧)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부처가 될 것이다.

〈보 기〉

ㄱ. 갑은 경전 연구에 몰입해야 반야 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을은 참선 수행을 위주로 하여 교학(敎學)에도 힘써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깨달은 후에도 나쁜 습관을 점차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참된 나를 단박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를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목적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정직, 근면, 절제, 정의도 고정된 목적으로 삼아야 할 선(善)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과 진보의 과정이다.
(나)	 〔가로 열쇠〕 (A): '참됨·착함·아름다움'을 아울러 이르는 한자어 (B): 인간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도리를 일컫는 것으로 도덕과 유사한 말. 예) 동양 ○○, 서양 ○○ 〔세로 열쇠〕 (A): …… 개념

① 경험과 관찰보다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② 시공을 초월한 고정된 표준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다.
③ 개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본래적 선으로 추구되는 것이다.
④ 오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어 절대적 확실성을 갖는 것이다.
⑤ 과학적 탐구를 통해 삶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참되게 살려는 자는 욕구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용기와 지혜로써 이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절제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제와 정의를 칭송한다. 사치, 무절제, 자유가 덕이자 행복이다.
> 을: 참되게 살려는 자는 덕이 참된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혼의 모든 성질들은 지혜를 동반하느냐 무지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해롭게도 되기 때문이다. 덕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일종이어야만 한다.

① 갑은 덕이 욕구 충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정신의 탁월성이 지혜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④ 을은 나쁜 행동이 무지와 의지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선이 주관적인 것이므로 공통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본다.

17.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가) 국가는 개인의 삶을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특정한 가치관이나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보장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 (나) 공동의 목표를 배제한 정치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배제된 우리 자신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그 공동체의 목표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① (가)는 국가가 가치의 통일성보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가)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공동체에 있음을 강조한다.
③ (나)는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④ (나)는 좋은 삶의 조건으로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⑤ (가)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나)는 공동선의 실현을 중시한다.

1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도덕적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여성에게서 잘 발휘되는 배려의 도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 을: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의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보 기〉

ㄱ. 갑은 정의 중심의 윤리가 유일한 도덕규범은 아니라고 본다.
ㄴ. 을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여성만이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도덕적인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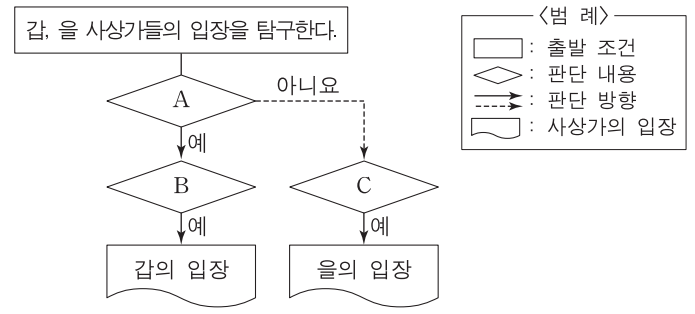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공통의 정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하는 합당한 정의관을 도출할 수 있다.
> 을: 어느 한 시민이 다른 시민보다 우선적으로 공직에 선출될 경우 정치 영역에서 두 사람은 불평등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공직에 선출된 시민의 직위가 그 밖의 영역에서 다른 시민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나)



① A: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② B: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인가?
③ B: 효용의 극대화가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정의관 결정의 원칙인가?
④ C: 사회의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도 되는가?
⑤ C: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유 교환의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20.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몸을 혹사하면 기(氣)가 흐트러지고, 기가 고갈되면 목숨이 다한다. 그러므로 선인(仙人)은 약물과 수련법으로 생명을 기르고 정신을 단련하여, 몸에 병이 생기지 않고 근심거리가 침범치 못하게 한다. 신선(神仙)의 도는 지극히 높고 오묘하지만, 진실로 그 도리를 알면 불로장생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을 거슬러 세속의 생활 습관을 고수하면서, 그 미묘한 이치를 짧은 안목으로 단정하니 안타깝다.

〈보 기〉

ㄱ. 육체와 관계없이 정신을 독립적으로 수양해야 한다.
ㄴ. 양생(養生)을 위해 정신 수련과 의약 연구가 필요하다.
ㄷ. 몸 안의 기를 단련하면 건강과 수명 연장을 도모할 수 있다.
ㄹ. 도에 이르려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의 도덕적 질서를 부정하고 대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②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③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기 위해 양생(養生)의 수련을 해야 한다.
④ 성현이 제정한 예악에서 벗어나 개인적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
⑤ 내세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다. 자신의 본성상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인간만이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를 이루길 원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물질적 필요의 충족만은 아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목적이라면 노예나 짐승의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

① 국가는 구성원의 덕성 함양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② 국가 안에서만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③ 국가와 구성원 간 합의로 정치적 의무가 소멸된다고 본다.
④ 국가는 개인들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명목에 불과하다고 본다.
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훌륭한 삶과 개인의 좋은 삶은 무관하다고 본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물이 생겨나고 본성과 작위[僞]가 합해져 천하가 다스려진다. 하늘은 만물을 생성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땅은 사람들을 살게 하지만 다스리지 못한다. 성인(聖人)은 성정(性情)을 바로잡아 만물을 분별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 을: 하늘과 땅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도 자신을 뒤에 세우지만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지만 자기를 보존하게 된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無爲]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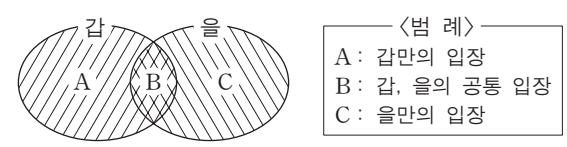
① 갑은 하늘[天]을 인간에게 도덕적 성정을 부여하는 실체라고 본다.
② 갑은 효제(孝悌)를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로 본다.
③ 을은 사물에 대한 지식의 축적만으로 도(道)를 체득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인위적인 예(禮)의 실현을 위해 부쟁(不爭)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인간의 본성[性]은 서로 다르지만 수양을 통해 같아진다고 본다.

4. 사회사상 (가), (나)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가 다수의 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는 생산물을 취득할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권력을 빼앗고자 한다.
> (나)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이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①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② 계획 경제의 틀 아래 산술적으로 균일한 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의회 중심의 정당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해야 한다.
④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해 일체의 사적인 소유를 배제해야 한다.
⑤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5. (가)의 한국 사상가 갑,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사람이 잉태되면 하늘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인 영명한 본체를 부여한다. 동물은 억지로 인간이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사람은 자주의 권한[自主之權]도 부여받아, 선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을: 사람과 만물이 생겨나면 이치 또한 부여받는데, 각각 부여받은 이치를 본성[性]으로 삼는다. 기질의 맑고 탁한 차이로 인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생겨난다. 사람은 기질의 차이에 따라 선을 행하기도 하고 불선을 행하기도 한다.
(나)	

① A: 덕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본성이다.
② A: 예(禮)의 덕은 사양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③ B: 인격을 수양하는 궁극 목적은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④ C: 만물에 부여된 형이상의 본성에도 인의예지가 갖추어져 있다.
⑤ C: 사단(四端)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지니는 선한 감정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7] 갑은 동양 사상가, 을은 한국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마음은 이(理)이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해 하는 이치가 생기는데, 이치는 어린아이의 몸에 있지 않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측은해 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인(仁)이라 하고, 상황에 맞는 이치로 말하면 이라고 한다.
> 을: 마음은 기(氣)이다. 활동하는 것은 기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理)이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乘] 것이다. 이(理)에는 털끝만큼도 수양을 더할 수 없다. 기를 단속하여 본연의 기를 회복해야 한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올바른 도덕 규범이 지선(至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② 을은 이치만 탐구해도 마음의 본체인 성(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선후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도덕적 지식을 알면 선한 행동이 저절로 이어진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사물에 내재된 자연 법칙이 옳은 행위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마음은 이와 기가 합해진 것이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隨] 것이니 순선하여 악이 없다. 그러나 이가 발함에 끝까지 드러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흘러서 악이 된다. 또한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乘] 것이니 선하지 않음이 없다. 하지만 기가 발함에 적절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이(理)를 멸(滅)하면 나아가 악이 된다.

〈보 기〉

ㄱ. 측은해 하는 도덕 감정이 이(理)의 작용임을 간과하고 있다.
ㄴ.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을 사단이라고 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ㄷ.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ㄹ. 기에서 비롯된 사욕만 따르면 악해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도덕적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을 의지 규정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이 그것을 준수하기에는 너무 나약하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강제로 작용한다. 단지 '의무에 적합한' 행위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 을: 도덕 원리는 그 자체 이외의 어떤 증거도 필요 없이 자명한 것이다.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의 행위가 한 관점에서 일견 옳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다른 관점들에서는 그르다면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없다. 특정 상황에서 가장 옳은 행위 수행만이 실제적 의무가 된다.

① 갑: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가 의무에 적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② 갑: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행위의 준칙은 도덕 법칙과 일치될 수 없다.
③ 을: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자명한 하나의 도덕 원리는 없다.
④ 을: 의무들이 상충하는 경우 실제적 의무는 직관에 의해 결정된다.
⑤ 갑, 을: 행위의 결과와 유용성보다 도덕적 의무가 우선한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충동과 욕망이 생길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선 그것이 올바른지 이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신성한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 선한 삶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에 만족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 을: 이성적이고 고상하게 살지 않으면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없다. 또한 쾌락 속에 살지 않고서는 이성적이고 고상하게 살 수 없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의 동요를 방지하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 삶을 만들어 준다.

〈보 기〉

ㄱ. 갑은 우주의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고 본다.
ㄴ. 갑은 인간이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이성적 사고를 토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 이외에는 어떤 안전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 있는 것보다 막강한 권력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공공의 칼에 의해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은 단지 빈말과 허풍에 불과할 뿐이다.
> 을: 모든 사람이 절대 군주에 복종해야 하는 상태보다 타인의 부당한 의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연 상태가 훨씬 낫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사적 재판권을 최고 권력인 입법부에 위임한 시민 사회는 절대 군주제와 양립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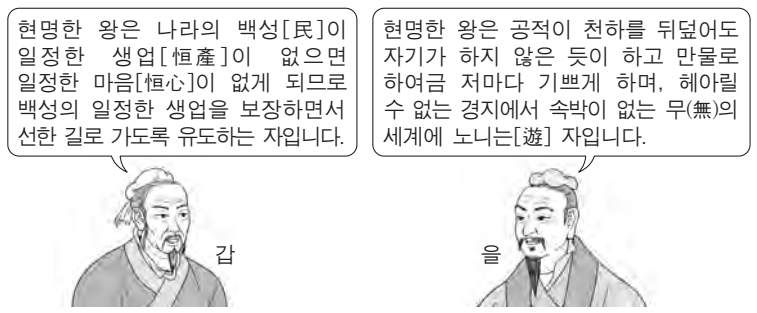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사람들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으며, ㉡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인간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 자연권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 계약의 목적을 위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개인들의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인의(仁義)에 바탕을 둔 도덕 정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ㄴ. 갑은 민심을 잃은 부덕한 통치자를 교체하는 혁명을 인정한다.
ㄷ. 을은 세속적 차별에서 벗어나 제물(齊物)의 경지를 지향한다.
ㄹ. 갑, 을은 법과 제도가 완비되고 문물이 발달된 사회를 추구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갑: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쾌락의 총합이다. 이러한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어떤 것이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의 이익을 증진한다거나 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공동체의 행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누리는 풍부한 쾌락이다. 쾌락의 양에 대비해 그 질을 측정하는 원칙은 쾌락을 경험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선호이다.

① 갑: 입법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복 총합의 증대이다.
② 갑: 개인의 쾌락은 측정 가능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쾌락은 측정할 수 없다.
③ 을: 존엄감을 지닌 인간은 저급한 쾌락보다 고급의 쾌락을 추구한다.
④ 을: 누구의 행복도 증진하지 않는 자기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은 선한 동기보다 좋은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다.

13.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일심(一心)과 두 개의 문[二門] 안에 일체의 불법(佛法)이 포함되어 있다. 진(眞)과 속(俗)은 둘이 아니지만[無二], 하나를 고수하지도 않는다. 둘이 아니므로 곧 일심이다.
을: 돈(頓)과 점(漸) 두 개의 문은 모든 깨달은 자가 걸었던 길이다. 예로부터 그들은 먼저 깨닫고[悟] 뒤에 닦아[修],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다.

〈보 기〉

ㄱ. 갑은 마음과 별개인 현상이 불변의 실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ㄴ. 갑은 일심이 화쟁(和諍)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ㄷ. 을은 깨친 뒤에도 정혜(定慧)를 닦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경전의 이해만으로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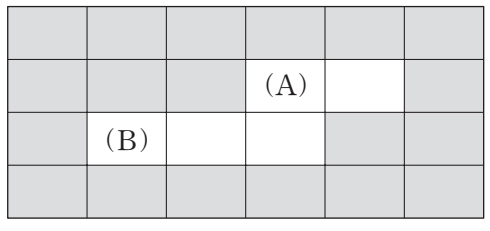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갑: 자연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은 오직 사례에 의해, 적절하고 타당한 실험에 의해 얻을 수 있다. 감각은 실험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험이 자연과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로서 자연의 질서를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을: 자연과학에서 중시하는 탐구는 도덕에서도 중시되어야 한다. 도덕은 결과가 옳은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설로 여겨져야 한다. 실수는 도덕적 죄가 아니라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르침이다. 도덕적 삶은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① 갑은 전통과 권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갑은 귀납법과 실험이 학문 연구의 주된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이론과 지식이 불변의 목적인 도덕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본다.
④ 을은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가설이 진리로 간주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인류의 성장과 진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15.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태양'은 보이는 것들에게 보임의 힘을 주고 그것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좋음[善]'은 인식되는 것들에게 인식됨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한다. ○ 나라 안에 세 부분이 있듯이 모든 개인의 영혼 안에도 세 부분이 있다. 인간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 나라가 올바르게 되는 방식과 같다.
(나)	 〔가로 열쇠〕 (A): 일을 해 나갈 때 차례로 거쳐야 하는 순서와 방법 예) 롤스의 '순수 ○○적 정의' (B): 두 사람 이상이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 예) 재산 ○○○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이성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발휘되는 기개의 고유한 탁월성이다.
② 영혼의 각 부분이 역할을 다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③ 명예와 승리를 좋아하는 영혼의 부분에서 드러나는 고유의 덕이다.
④ 욕망의 유익과 해악을 헤아리고 계산할 줄 아는 영혼의 탁월성이다.
⑤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의 세 부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신학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이다. 모든 실천적 학문의 목적은 그것에로 질서 지워져 있다. 따라서 신학은 모든 학문보다 우위에 있다. 철학은 계시의 진리를 명료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다.
> 을: 신은 오직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최고선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며, 인간의 최고덕도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의 가장 고상한 덕은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① 갑은 지적 덕과 도덕적 덕으로 인간의 궁극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② 갑은 신의 존재는 은총과 계시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신에게 인과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다.
④ 을은 지성적 직관으로 모든 정서를 제거해야 최고선에 이른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신을 인식함으로써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본다.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天心]이다. 서양의 학(學)은 제 몸만을 위하고 하늘을 위하지 않는다. 배우는 자는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守心正氣] 해야 하며,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輔國安民] 해야 한다.
> 을: 이(理)는 선함의 근본이고, 기(氣)는 과불급의 원인이다. 서양은 형기(形氣)를 중시하고 인륜을 저버린다. 유학은 이치를 숭상하고 도리를 중시한다. 올바른 것은 지키고[衛正], 그릇된 것은 배척[斥邪]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신분차별과 오륜(五倫)을 부정하고 평등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ㄴ. 을: 성리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ㄷ. 을: 민족 정체성을 자각하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ㄹ. 갑, 을: 인간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도덕적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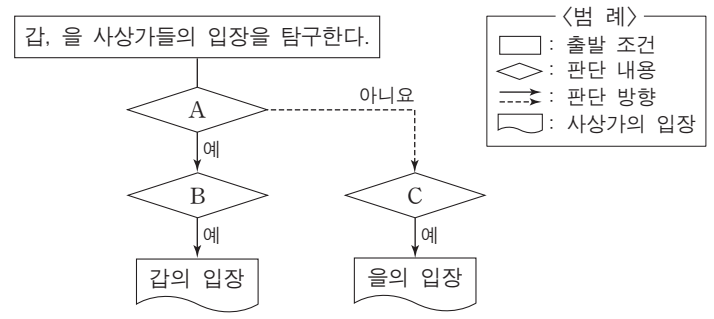
> 갑: 우리는 낯선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다. 우리가 덕의 소유 당사자나 사회에 유용한 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시인(是認)의 감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이 도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공감은 유용한 덕이 지니는 도덕적 특징의 원천이다.
> 을: 우리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짧은 시간일지라도 배려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기초한다. 배려의 관계는 배려의 노력을 수용할 때 완성된다.

① 갑은 사회의 다수에게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유덕하다고 본다.
② 갑은 이성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을은 도덕 행위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배려를 친밀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도덕적 실천에서 타인의 감정 이해와 교류가 중요하다고 본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 갑: 정의는 자신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 을: 정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최초의 취득과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분배는 정의롭다.

(나)



〈보 기〉

ㄱ. A: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ㄴ. B: 약자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한가?
ㄷ. B: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ㄹ. C: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인간은 정신이며, 정신은 곧 자아이다. 자아는 자기와 맺는 관계이며, 이런 관계는 무한과 유한의 종합이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각자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이 병을 극복할 수 없다.
> 을: 인간의 실존은 그의 본질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투쟁, 고통, 죽음, 죄에 대한 책임과 같은 '한계 상황'에서 발견된다. 인간은 그 상황에서 좌절을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자체로 나아갈 때 참된 실존에 도달한다.

① 갑은 합리적 사유를 통해 객관적인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윤리적 삶을 통해 불안과 절망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참된 실존을 찾으려면 타자와의 연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초월자와 단절해야 인간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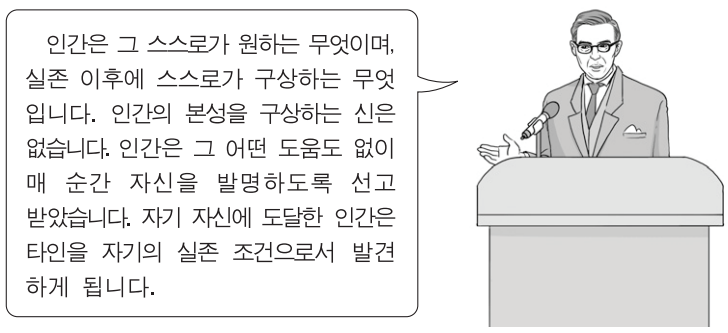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규범의 속박에서 벗어나 타고난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따른다.
② 사회적 삶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설정한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③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감정과 욕망을 배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인 규범을 지킨다.
⑤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다.

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자연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우상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을: 학문의 기초로서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정신을 감각으로부터 떼어 내는 데 가장 쉬운 길을 열어 준다.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참이라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해 준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는 데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인간의 생활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명백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연역적 추론은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에게 자연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주(僭主)는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아첨과 굴종을 하며 산다는 점에서 진짜 노예이며,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실로 가난한 자다. 그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있다. 철인왕은 그와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철인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최선의 이상 국가로 볼 수 있다.

① 철인왕은 이성이 뛰어나지만 참주는 욕망이 우세하다.
② 이상 국가에서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③ 철인왕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④ 이상 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강조된다.
⑤ 철인왕의 지혜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4.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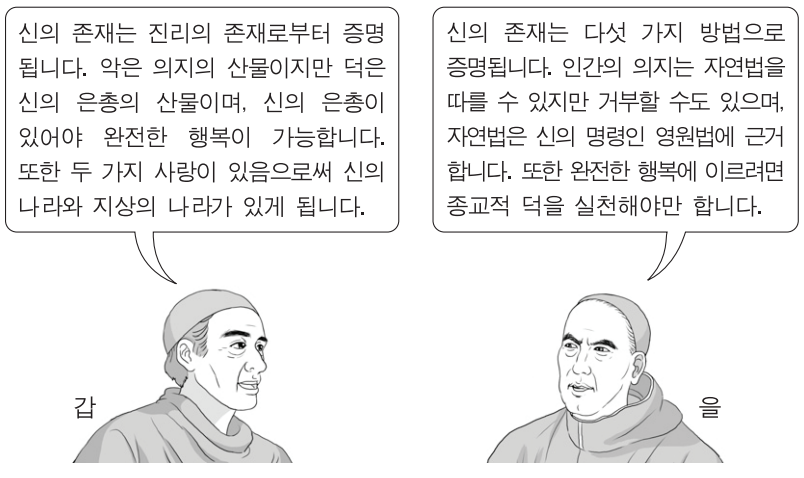
> 성인(聖人)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노닐게 한다. 그는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기교를 장사의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을 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보 기〉

ㄱ.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소요(逍遙)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ㄴ. 시비선악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ㄷ.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해야 한다.
ㄹ.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위해 신독(愼獨)을 실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신의 나라에 속한다.
② 갑: 신은 만물을 창조하였으므로 악도 신의 창조물이다.
③ 을: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명령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다.
④ 을: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해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⑤ 갑, 을: 완전한 행복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필요로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군자의 본성[性]은 비록 그의 뜻이 크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비록 궁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군자의 본성에 속하는 인의예지는 그의 마음[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을: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으면 본성을 높이게 되며,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노력[積]을 높이게 된다. 김매고 밭 가는 일을 쌓아 농부가 되고, 깎고 다듬는 일을 쌓아 장인이 되듯이 예(禮)와 의(義)를 쌓으면 군자가 된다.

① 갑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② 갑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③ 을은 외적인 예와 의를 쌓으면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타고난 도덕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예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7.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모든 법(法)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지속되지도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 ○ 만약 모든 상(相)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 보 기 〉

ㄱ. 분별적 인식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ㄴ. 멸제(滅諦)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ㄷ.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야 한다.
ㄹ.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양지(良知)는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지만, 궁리(窮理)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통달한 데 만족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마음은 본래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그 체(體)는 허령(虛靈)하여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치는 비록 온갖 일에 흩어져 있지만 그 용(用)이 미묘하여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
(나)	㉠ _____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이치를 훤히 깨닫게[豁然貫通]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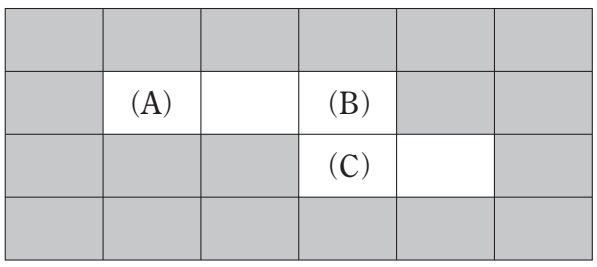
① 본성[性]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
② 참된 앎이 발휘될[致良知] 수 있도록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라.
③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을 갖추도록 궁리를 하라.
④ 앎과 행위가 본래 하나임을 자각하고 일상에서 항상 선행을 하라.
⑤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라.

9.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선생님께
> 선생님은 지난 편지에서 국가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실업이나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오직 자유 경쟁 체제하에서만 실현 가능하며, 이런 경쟁 체제에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형성됩니다. …(후략)…

① 중앙 집권적 계획을 통해 완전 고용에 도달해야 한다.
② 시장 경쟁 체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③ 국가는 시장 질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④ 경제적 자유의 실현보다 경제적 평등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
⑤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다.

10. (가)를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람의 성(性)이 선을 좋아함으로 인해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고, 악을 싫어함으로 인해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사심(四心)이 있음으로 인해 사덕(四德)을 이룰 수 있다.
(나)	 〔가로 열쇠〕 (A): 주희의 사상을 비판하고 심학(心學)을 체계화한 명 대(明代) 사상가의 이름. 호는 양명(陽明) (C): 고려 시대에 천태종을 개창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자(字). 시호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세로 열쇠〕 (B): …… 개념

①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정신과 정의로운 마음이다.
② 사양과 시비의 마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선천적인 덕이다.
③ 덕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싹이나 뿌리에 해당하는 선한 마음이다.
④ 예의를 배우고 익혀 이기적인 본성을 교화할 때 형성되는 덕이다.
⑤ 측은과 수오의 마음을 일상에서 확충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다음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인가?
ㄴ. 사단은 이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정인가?
ㄷ. 이는 순선한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인가?
ㄹ.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하지 않다.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을: 정치적 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에 의해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 대립 및 계급 자체의 존재 조건을 폐지한다.

① 갑: 만인의 계약을 통해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을: 이상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게 된다.
④ 을: 모든 계급의 연대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⑤ 갑, 을: 국가는 폭력 혁명에 의해 필연적으로 소멸될 권력 기구이다.

[13~14]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바라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에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을: 도덕적 감정의 한 가지 원천이 유용성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인(是認)과 호의(好意)를 얻는다는 것이 도출된다. 여기에 도덕성의 기원을 상당한 정도로 설명해 주는 원리가 있다.

13.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도덕의 기본적인 목적이 행복의 실현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② 도덕에 있어서 이성은 감정의 보조자일 뿐임을 모르고 있다.
③ 도덕적 감정은 도덕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④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⑤ 도덕적 행위와 행복의 추구가 양립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14. 갑, 을이 〈문제 상황〉 속 K 군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상황〉
고등학생인 K 군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돌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소년 가장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모아 둔 용돈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K 군은 그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① 갑: 의무 의식을 기부 행위의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② 갑: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향성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③ 을: 기부 행위는 유용성과 무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④ 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기부해야 합니다.
⑤ 갑, 을: 이성의 명령을 직접적인 동기로 삼아 기부해야 합니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나에게는 신과 나의 영혼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을: 우리는 자연적 본성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육체적인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인 욕망은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① 개인의 욕망 충족이 사회적 쾌락 증진으로 이어지게 노력해야 한다.
②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③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⑤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덕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 되는 행복을 성취하게 해 준다. 덕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중용을 목표로 삼는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낀다.
>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① 인간 본성의 목적이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②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강조한다.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임을 강조한다.
④ 행위자의 성품보다 추상적 도덕 원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⑤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항상 중용 상태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17.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나의 스승은 "관(觀)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經)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교관에 지극히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니, 화엄을 전수하더라도 관문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 을: 점수문에 속하는 열등한 수행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필요하다. 망상이 들끓으면 우선 정(定)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본래의 고요함으로 되돌리고, 혜(慧)로 멍한 상태를 다스리면 결국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① 갑은 내적인 교(敎)와 외적인 선(禪)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을 수심(修心)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참선을 통해 악한 본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화두(話頭)를 들고 수행하는 간화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18.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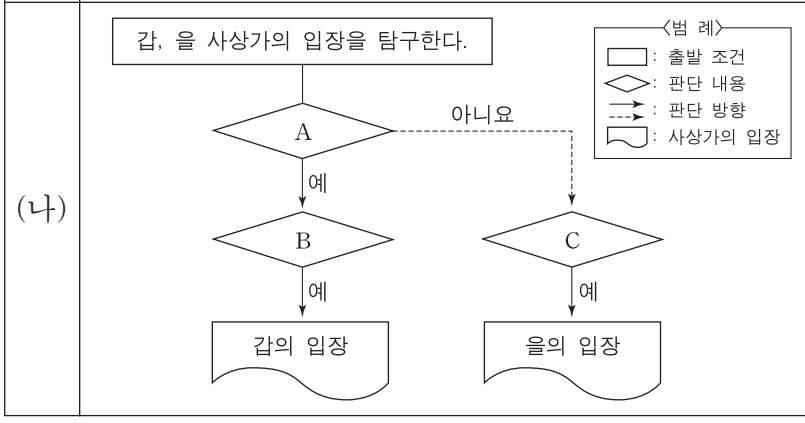
①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니는가?
②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하는가?
③ 정치적 의무의 성립 근거는 개인의 동의에 있는가?
④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인가?
⑤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의인가?

1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초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
을: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한다.

(나)



〈보 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ㄴ. B: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ㄷ. C: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ㄹ. C: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세상을 지배하여 원(寃)과 한(恨)이 쌓여서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므로, 내가 천지도수를 뜯어고쳐서 상생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조화 정부를 세우겠다.
> 을: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과 성인의 심인(心印)인 법신불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영육쌍전(靈肉雙全)을 통해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보 기〉

ㄱ. 갑은 무속과 도교를 배척하고 해원(解寃)을 강조한다.
ㄴ. 을은 시대 변화에 맞춰 정신보다 물질의 개벽(開闢)을 강조한다.
ㄷ. 을은 생활 속에서의 보은·평등·불공의 실천을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신분과 남녀의 차별을 떠난 평등사상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 확인 사항
>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한다.
② 도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감성적인 관점보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④ 도덕 문제 해결에서 타인에 대한 보살핌보다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⑤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인간적 유대를 쌓아 나가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영혼은 앎을 사랑하는 이성적인 부분, 승리를 사랑하는 기개적인 부분, 돈을 사랑하는 욕구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의 탁월한 상태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다.
> 을: 영혼은 이성적 부분, 이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 이성적인 것이 없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성적 부분의 덕은 지성적 덕이고, 이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의 덕은 품성적 덕이다.

① 갑: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철학자가 이상 국가를 통치한다.
② 갑: 절제는 이상 국가에서 생산자 계층 사람만이 갖춰야 하는 덕이다.
③ 을: 최고선(最高善)은 다른 모든 좋음을 포함하는 완전한 선이다.
④ 을: 중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⑤ 갑, 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음에 대한 객관적 앎이 있어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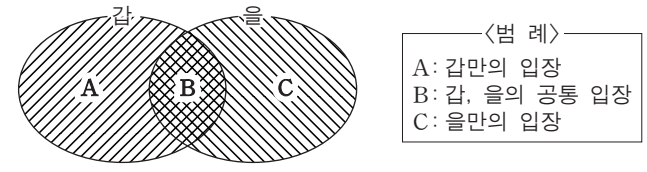
> 갑: 욕망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성의 힘으로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
> 을: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욕망이 헛된 생각에서 생긴 것임을 알고,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① 갑은 덕을 갖추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의 섭리를 파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③ 을은 소수의 친한 사람들과의 우정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곧 쾌락임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덕이 쾌락을 제공하지 못한다 해도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4.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없으면 예악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현명한 임금은 덕으로 정치를 행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신하는 도로써 임금을 섬긴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을: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라는 보존되고 도가 없으면 나라는 위태롭게 된다. 현명한 임금은 군자를 등용하여 법도를 밝힌다. 도는 임금이 밟아야 할 길이고, 군자는 예의를 다스리는 자이다. 사람의 본성[性]은 교화를 거친 후에 선에 부합된다.

(나)



① A: 규범을 부정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종하는 도를 추구해야 한다.
② A: 법령과 형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덕치를 도모해야 한다.
③ B: 욕구를 절제하고 예의를 밝혀 사회적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④ C: 하늘을 인륜의 모범으로 삼아 인의의 도덕을 실현해야 한다.
⑤ C: 선천적인 내면의 본성을 확충하여 예치를 구현해야 한다.

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으뜸가는 선(善)은 물과 같다. 성인(聖人)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는 일이 없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든든하게 한다.
> 을: 도(道)는 오로지 빈[虛] 곳에만 모이는 것이니 이렇게 마음을 비움이 심재(心齋)이다. 성인의 다스림은 밖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르게 한 후에 행동하는 것에 그친다.

〈 보 기 〉
ㄱ. 갑은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무위(無爲)의 덕을 강조한다.
ㄴ. 을은 분별적 지식을 얻는 수행으로서 좌망(坐忘)을 강조한다.
ㄷ. 을은 성인의 다스림을 통한 자연적 본성[性]의 교화를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인위(人爲)를 거부하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性)이고 천리(天理)이며 참된 앎[良知]이다. 마음의 본체는 천하의 이치를 포괄하고 있으면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함이 없다.
> 을: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性)이고 작용은 정(情)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統]하고, 그 밝은 덕은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사에 감응하지 않음이 없다.

〈보 기〉

ㄱ. 천지만물은 선한 마음에서 의미를 지니며 실재하게 되는 것인가?
ㄴ. 도덕적 행위는 먼저 도덕적 지식을 확립해야 가능한 것인가?
ㄷ. 격물(格物) 공부는 마음의 그릇된 의념[意]을 바로잡는 것인가?
ㄹ.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여 본성을 길러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 을: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보 기〉

ㄱ.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 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
ㄷ. 을은 사유 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에게
>
> 배우는 자는 성학(聖學)에 뜻을 두어야 하네. 매 순간 깨어 있고 오롯이 집중하여,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理發氣隨] 순선(純善)한 사단과 기가 발하여 이가 탄 [氣發理乘] 중절(中節)한 칠정을 보존하고 사욕을 버려야 하네. 그러면 무성한 수풀 속에 한 떨기 난초꽃이 종일토록 맑은 향기를 뿜으면서도 스스로 그 향기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네도 어느덧 성현이 되어 자기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네. …(후략)…

① 기쁨·슬픔·노여움 등과 같은 칠정에는 선(善)이 존재할 수 없다.
② 기(氣)를 중시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을 지향해야 한다.
③ 이(理)의 본연인 선을 실현하여 도덕적 인격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④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기에서 나와서 이가 드러난 도덕 감정이다.
⑤ 궁리(窮理) 공부를 멀리하고 경(敬)을 실천하여 본심을 함양해야 한다.

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완전한 행복은 신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신에게 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에 의존해 그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며, 이 참여 활동의 원천은 신학적 덕이다.
> 을: 완전한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랑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다.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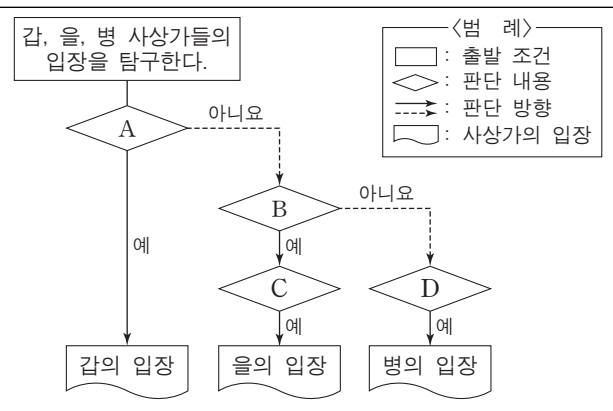
① 갑: 이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② 갑: 인간의 불완전함은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③ 을: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④ 을: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⑤ 갑, 을: 완전한 행복은 의지의 자유를 지닌 신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진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 갑: 충분한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로 생기는 다양한 생산물의 대폭적인 증가가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로 최저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부의 증대를 가져다준다.
> 을: 경제 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유효 수요'를 확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타협을 도모하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야 한다.
> 병: 국가는 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과, 경쟁이 유효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나, 국가 주도로 경제 활동을 계획하면 시장은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나)



〈보 기〉

ㄱ. A: 재화의 사적인 소유와 이윤 추구 활동에 동의하는가?
ㄴ. B: 정부 정책을 통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는가?
ㄷ. C: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에 찬성하는가?
ㄹ. D: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한국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理)와 의(義)이다. 이와 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운 고기가 우리의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 을: 사람의 마음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만사에 두루 통할 수 있다. 이에 측은히 여길 수 있고, 사양할 수 있으니 못하는 바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양지(良知)이며 인(仁)이다.

〈보 기〉

ㄱ. 갑은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후천적 노력은 필요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자기 자신이 도덕적 앎과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
ㄷ. 을은 도덕 행위의 기준은 마음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인간이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모든 쾌락과 고통은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범위이다. 어떤 쾌락이나 고통이 또 다른 쾌락이나 고통과 연결될 때 그 쾌락이나 고통도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산성과 순수성이다.
> 을: 어떤 쾌락에는 만족보다 불만족의 양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쾌락 대신에 다른 쾌락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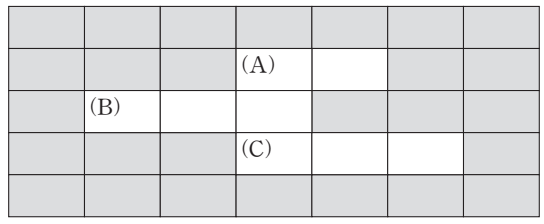
① 최대 행복을 가져올 유덕한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가?
② 행위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이 그 행위자에게 선이 될 수 있는가?
③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활동에서 얻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가?
④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 자체의 옳음에 근거하는가?
⑤ 행위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가?

13.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전제(專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 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①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의미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④ 복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배적 가치는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

14.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이성은 인간이 야수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고 참이나 거짓을 발견한다. 이와 달리 정념과 의욕 및 행위는 참이나 거짓이라고 단언될 수 없고, 이성과 상반되거나 합치될 수도 없다. 이성은 어떤 행동이나 정념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으며, 단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나)	 〔가로 열쇠〕 (A):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를 가리키는 말 (B): 플라톤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을 총칭하는 말 (C): 주자가 주장한 '본성이 곧 이치[理]'임을 뜻하는 말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인간의 정신 안에서 생겨나는 인상(印象)이나 느낌에 기초한다.
② 자연스러운 본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도덕 규칙에서 지각된다.
③ 감각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과 사건에 내재된 객관적 성질이다.
④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만든 이성의 산물이다.
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선험적 원리에서 논리적으로 연역된다.

15.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사람의 본성은 이와 기가 합해진 것이다. 이가 기 속에 있는 것을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하고, 기질 속의 이만을 홀로 가리켜 말한 것을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한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하나의 성이지만, 주(主)로 말한 것이 달라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성이 이미 하나인데, 정에 이발과 기발의 다름이 있다고 한다면, 성을 아는 것이 아니다.
> 을: 사람의 본성은 도의(道義)와 기질(氣質)이 합해진 것이다. 식욕을 추구하는 성향을 기질지성이라 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을 도의지성(道義之性)이라 한다. 짐승도 먹이를 던져 주면 먹으려 한다. 사람과 짐승의 본성을 똑같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똑같이 도의지성이라고 하면 금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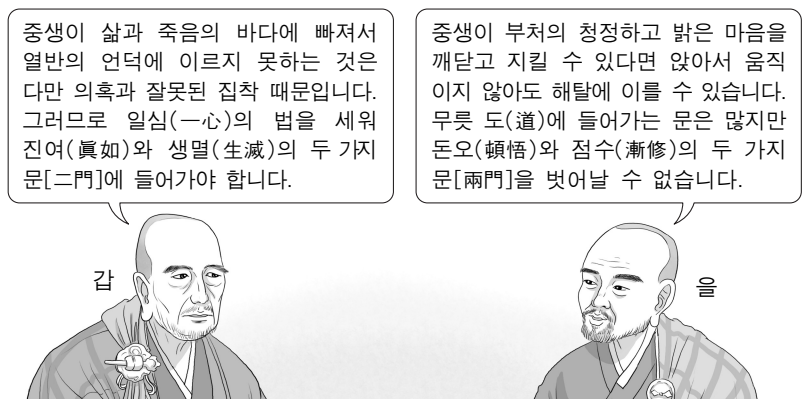
〈보 기〉

ㄱ. 갑은 탁하고 편벽된 기질이 불선(不善)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ㄴ. 을은 인간만이 선천적인 도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사람이 시비 분별의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도덕적인 행위로 인의(仁義)의 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그림은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 진여와 생멸의 두 가지 문은 결국 일심으로 귀결될 수 있다.
② 갑: 일체의 쟁론(爭論)도 일심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③ 을: 깨달음의 수행에는 언제나 정(定)과 혜(慧)가 함께 있어야 한다.
④ 을: 돈오 이후에 점수를 통해 모든 습기(習氣)를 단박에 제거해야 한다.
⑤ 갑, 을: 무아(無我)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

17.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인간의 경향성에 관련되거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시장 가격은 물건의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물건이 아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유일한 가치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①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므로 도덕 법칙은 의무가 될 수 없다.
② 인간은 누구나 실천 이성을 가지므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므로 자유 의지의 법칙이 될 수 없다.
④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⑤ 선의지(善意志)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18.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실천'이란 혼자 축구공을 열심히 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기하는 축구 경기 자체이다. 단순히 혼자 공을 차는 것에는 축구 경기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축적된 내재적인 선이 없다. 이러한 실천이 덕의 척도와 규칙이 된다. 덕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동체에 내재된 선의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참여할 때 유덕한 사람이 된다.

〈보 기〉

ㄱ. 덕은 공동체와 독립된 추상적 도덕 원리를 따를 때 습득된다.
ㄴ. 의무감에서 억지로 행하는 선행은 유덕한 행위가 되기 어렵다.
ㄷ. 존경스러운 인격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ㄹ. 인간의 유덕한 성품보다 도덕 규칙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양이(洋夷)들이 사학(邪學)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에 재앙을 끼치는 것이 양적(洋賊)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정학(正學)을 밝히고 이단(異端)을 배척해야 한다.
> 을: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守心]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正氣], 그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라. 서양의 학(學)에는 ᄒᆞ늘님[天主]의 가르침이 없고, 서양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보 기〉

ㄱ. 갑은 백성의 생업 보장을 전제로 서양 종교의 수용을 주장한다.
ㄴ. 갑은 동양의 도(道)와 서양의 기(器)가 둘이 아님을 주장한다.
ㄷ. 을은 사람이 귀하게 대우받는 만민 평등의 실현을 주장한다.
ㄹ. 갑, 을은 효제(孝悌) 정신의 계승과 국난의 극복을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부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생산의 힘과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은 그만큼 더 값싼 상품이 된다.
> (나)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지 않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최고 형태는 민주주의이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며, ㉡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하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폭력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나)는 ㉢ 자유로운 의회 활동에 기반을 둔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중시하였으며,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역사 발전 단계상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공산 사회로 이행된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고난 자연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禮)에 따라 행동한다.
②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 나간다.
③ 나와 남의 상호 연계성을 자각하고 남의 해탈을 위해 헌신한다.
④ 만물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타고난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한다.
⑤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박하게 생활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지혜는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이다. 지혜는 영혼에서 이성과 관련된 덕이고, 기개와 관련된 덕은 용기, 욕구와 관련된 덕은 절제이다.
> 을 :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심을 유지한다. 실수를 하거나 해를 입어도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기며,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에는 항상 무관심하다.

① 갑 : 진리의 근원인 참된 실재를 현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② 갑 : 이상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다.
③ 을 :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원하지도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④ 을 : 사회 참여를 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⑤ 갑, 을 : 이성에 맞는 욕구 충족도 덕의 함양과 양립할 수 없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 새나 짐승과는 함께 모여 살 수 없으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인(仁)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려야 사람들이 염치를 알게 된다.
> 을 : 사람들도 새나 짐승과 함께 생활하고 만물과 함께 무리지어 나란하니 어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겠는가? 그들은 마치 무지(無知)한 듯 순진무구하여 덕과 떨어지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는다[無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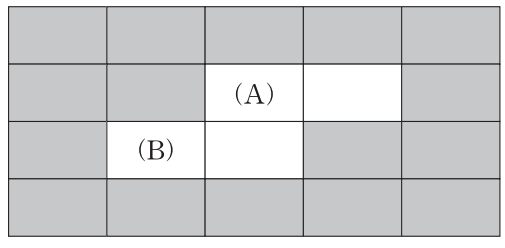
① 갑 : 통치자는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
② 갑 :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꾀해야 한다.
③ 을 :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문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④ 을 : 덕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⑤ 갑, 을 :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4.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 을 :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쾌락과 고통 각각의 총량은 계산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개인 또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① 모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가?
②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하는가?
③ 사회 전체 쾌락의 증대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가?
④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인가?
⑤ 행복은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 고통이 사라질 때 얻어질 수 있는가?

5.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가)	○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法]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곧 진리를 보며, 진리를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본다.
(나)	 [가로 열쇠] (A) : 인위적이거나 강제적 작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예) 노자의 '○○ 자연' 사상 (B) : 외부 사물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 예) 장자의 '□□ 일체' 사상 [세로 열쇠] (A) : …… 개념

①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②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될 만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③ 불멸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된 말이다.
④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라는 말이다.
⑤ 모든 존재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독자적 '나'가 없다는 말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덕은 곧 지식이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나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 정의든 절제든 용기든 모두 다 지식이다. 을: 덕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사람'은 후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반면,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후회할 줄은 아는 사람이다.
(나)	

〈보 기〉

ㄱ. A: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ㄴ. B: 이성과 추론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ㄷ. B: 삶의 목적인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ㄹ. C: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성(自性)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생각마다 반야로써 비추어 보아 법의 모습[法相]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되니 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을 스스로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을: 자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습기(習氣)를 단번에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나가 점차로 익힘으로써 공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점차로 닦는 것[漸修]이라 한다.

〈보 기〉

ㄱ. 갑: 단박에 깨닫기 위해 선(禪) 수행과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ㄴ. 을: 참선(參禪) 수행으로 본성을 자각하면 보살행이 필요 없다.
ㄷ. 을: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 수심(修心)의 방법이다.
ㄹ. 갑, 을: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頓悟]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의 부가 증대될 수 있다.
(나) 모든 생산 부문의 경영 자체를 경쟁하는 개인들에게서 빼앗아 사회 전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 하에 공동 계획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보 기〉

ㄱ. (가): 자유 경쟁 원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한다.
ㄴ. (나): 분업은 숙련공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한다.
ㄷ. (나):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다.
ㄹ. (가), (나): 필요에 따른 분배보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들이 모두 본성[性情]을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暴]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드시 스승[師]과 법도[法]에 따른 교화가 있어야 하며 예의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을: 사람들을 무력으로 복종시키려 하면서 인(仁)을 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패도(覇道)이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왕도(王道)를 실천하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보 기〉

ㄱ. 갑은 예를 기준으로 삼아 욕망[欲]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백성은 먼저 항심을 갖춰야 항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인의(仁義)를 해치는 군주는 추방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법이나 예에 의한 정치를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갑: 행복은 이성에 따르는 삶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덕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현세의 행복일 뿐이고, 영원한 행복은 신을 보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을: 행복은 오직 신앙으로 가능하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영원한 생명인데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의 나라로 가야 한다.

① 갑: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하지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② 갑: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③ 을: 신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선의 결여인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④ 을: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⑤ 갑, 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12]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만약 칠정과 사단을 꼭 두 변(邊)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인성(人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뉘어 두 성이 될 것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천리(天理)는 무위(無爲)인 것으로서 반드시 기(氣)의 기틀을 타야 움직이는[動] 것이니, 기가 움직이지 않고서 이(理)가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을 : 만약 혼합하여 말한다면 칠정이 이와 기를 겸(兼)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그러나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되는 것으로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이름이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主)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11.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것임을 모르고 있다.
ㄴ. 칠정의 연원과 사단의 연원이 다르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ㄷ. 이는 발하는 까닭[所以]일 뿐 발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ㄹ. 기처럼 이도 자발적으로 동정(動靜)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 을과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사심(四心)이 바로 사단이며,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측은(惻隱)을 확충하여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仁)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그러나 확충하지 못하면 인이라는 명칭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① 사덕은 천리가 아니며 사단을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② 사덕은 사단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인가?
③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性]에 내재하는 선한 것인가?
④ 사단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心]이고 사덕의 시작이 되는 것인가?
⑤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에 따라 행동하여 형성되는 것인가?

13.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있을 수 없다. 신은 우리의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 현자(賢者)는 영혼의 흔들림이 거의 없고,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하며,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나)	학생 : 어떻게 해야 현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상가 : _____ ㉠ _____

① 신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인격신의 은총을 받아야 하네.
② 오직 이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념을 버려야 하네.
③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서 벗어나야 하네.
④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거나 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써야 하네.
⑤ 만물의 초월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거나 파악하려고 애써야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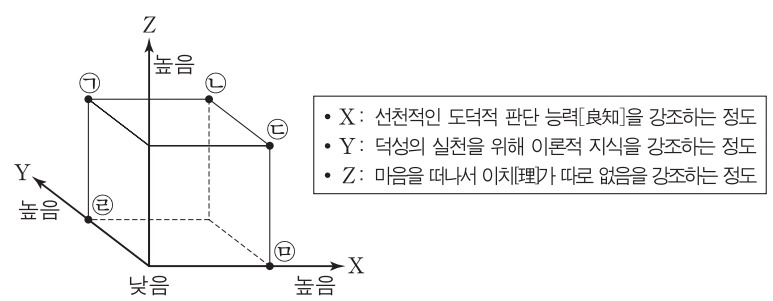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 을 : 덕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천 안에 들어 있는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덕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① 갑 : 지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② 갑 : 행복을 위한 육체적 쾌락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③ 을 : 덕은 전통에서 벗어난 개인의 주체적 삶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④ 을 :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덕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5.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할 수 없다. 궁리란 아는 바로써 모르는 것에 이르며 통달한 바로써 통달하지 못한 것에 이르는 것이다.
> 을 :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致知)이고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 진리는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것을 아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개체로서 개별자인 나 자신이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데 있고 그러한 개별자인 내가 절대자인 신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 을 : 진리를 유용성으로 보는 것을 특정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용성이 노상 강도의 이익에 의해 측정될 수는 없다. 그 가치는 도로로서의 효율성과 그 실제 기능 여부에 의해 측정된다. 진리를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유용성도 마찬가지이다.

① 갑은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② 갑은 실존의 문제는 오직 주체적 결단을 통해 해결된다고 본다.
③ 을은 진리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과 실험이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경험적 탐구로 보편적 도덕 기준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는 경쟁적 이해관계의 타협이나 거래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토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에게만 정책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사 결정 자체보다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간의 대화, 협의, 합의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행위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이며, 순전히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도 있는 투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① 시민들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② 정책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 표현의 기회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③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투표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한다.
④ 투표로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만 정책이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시인(是認)을 얻는다. 공감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한다. 어떤 성질이나 성격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 을 : 행복의 원리가 준칙(準則)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복에 대한 인식은 경험 자료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규칙을 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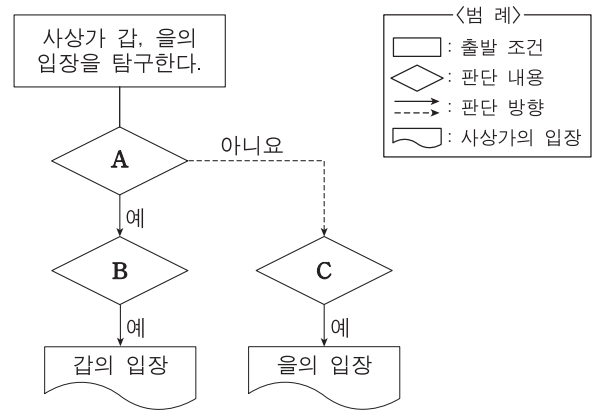
① 갑 : 이성은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② 갑 : 행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도덕적 구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을 :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을 :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⑤ 갑, 을 : 도덕 판단의 근거는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1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분배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 을 : 사회적 기본 가치들 사이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서열적으로 배열된다. 이는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교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



〈보 기〉

ㄱ. A :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ㄴ. B :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ㄷ. B :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ㄹ. C :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인간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이 요구되는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생활 용품에 대한 욕망, 그러한 생활 용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을 제안한다.

〈보 기〉

ㄱ. 시민은 계약 파기를 통해 언제든지 주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
ㄴ.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성립한다.
ㄷ.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므로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ㄹ.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에게
>
>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자네의 편지는 잘 읽었는데, 나의 생각은 자네와 다르다네.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네.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어,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분별[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 분별에는 분수를 지키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분수를 지키는 것에는 예(禮)보다 큰 것이 없네. …(후략)…

① 모든 인위적인 규범을 초월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②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③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본성을 변화시켜 예의와 법도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일체의 욕구를 배제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사람에게는 지식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가르쳐질 수 없다.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덕은 지식이며 행복이다.
> 을 :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어떤 것을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① 갑 :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② 갑 :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 : 부단한 진리 탐구를 통해 객관적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④ 을 :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궁극적인 선은 존재한다.
⑤ 갑, 을 : 감각적 경험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불효자도 효자라고 칭찬하면 기뻐한다. 사람은 본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불효자도 실제로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기뻐하는 것이다.
> ○ 사람들이 선하고자 한다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한다면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天理]이자 마음의 경향성이다.
ㄴ.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선행이나 악행을 할 수 있다.
ㄷ. 선한 행위는 본성에 내재된 사덕(四德)을 실천하는 것이다.
ㄹ. 형구(形軀)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부여된 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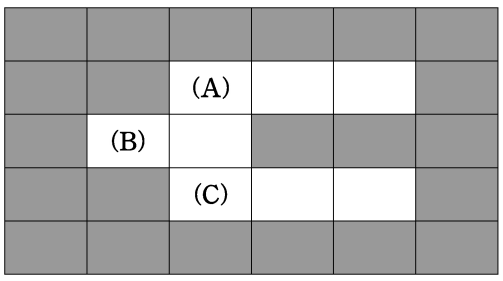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성의 지시를 언제나 간직한다. 이성이 기개를 지배하고, 기개는 이성에 복종하며 협력해야 한다.
> 을 : 용기 있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에 비해 무모하고, 무모한 사람에 비해 비겁해 보인다. 양극단의 두 성향은 대립적이며, 중간의 성향은 양극단의 두 성향과 대립적이다.

① 갑 : 욕구와 관련된 부분의 덕은 행복에 이바지할 수 없다.
② 갑 :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한 중용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③ 을 : 덕 있는 행위는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④ 을 :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하여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⑤ 갑, 을 : 덕을 이성으로 깨달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중생(衆生)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릇된 견해이다. 그것은 다만 허망한 요소들의 집합일 뿐, 거기에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여러 부품이 합해져 있는 것을 세간에서 수레라고 하듯이 오온(五蘊)이 인연에 따라 화합한 것을 잠시 중생이라 부를 따름이다.
(나)	 [가로 열쇠] (A) : 민간 신앙, 불교 및 도교가 결합된 종교의식으로 연등회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국가적인 양대 행사 중 하나 (B) : 공평하고 올바름. 예) '○○ 무역' (C) : 도가와 도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저술로서 "노자"라고도 불리는 경전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자신의 업에 따라 죽어서 다른 세계에 태어남을 뜻하는 말이다.
②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뜻하는 말이다.
③ 중도의 수행 방법으로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길을 뜻하는 말이다.
④ 모든 존재는 더불어 존재하며 인연에 따라 생멸함을 뜻하는 말이다.
⑤ 진리를 깨달아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말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 이성은 자연적 성향을 가진 모든 것을 선(善)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 을 : 신을 열망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至福]을 바라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형성되지만,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함으로써 형성된다.

<보 기>

ㄱ. 갑 :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법에 근거하여 실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ㄴ. 갑 : 믿음·소망·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적 덕을 함양해야 한다.
ㄷ. 을 : 신은 악을 창조하여 자유로운 인간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ㄹ. 갑, 을 : 완전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각각 구분해서 말하면 사단에 있어서의 이(理)는 칠정에 있어서의 기(氣)의 관계와 같다. 사단이 바깥 사물의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도 칠정의 경우와 같다. 다만 사단은 이가 발(發)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 을 :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고,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칠정 밖에 다른 정(情)은 없다. 사단은 다만 선한 정의 다른 이름이니, 사단은 칠정 안에 있는 것이다. 어찌 사단과 칠정의 양변이 있겠는가?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이와 기는 모두 발하는 것이며, ㉡ 인(仁)은 이가 발한 것이지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을은 ㉢ 이는 발하게 하는 까닭일 뿐 스스로 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경건한 마음[敬]을 항상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성인(聖人)은 백성들이 간교한 지혜와 욕심을 품지 않게 하고, 무위(無爲)로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현자를 높이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 을 : 지인(至人)은 만물을 각자의 본성에 맡겨 두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무궁하게 노닐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림이 없다. 소요(逍遙)의 경지는 지인의 마음을 밝혀 놓은 것이다.

<보 기>

ㄱ.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 분별적인 지혜를 쌓아야 하는가?
ㄴ. 인의의 덕을 수양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하는가?
ㄷ.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ㄹ. 인위적인 문명을 거부하고 소박(素樸)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갑 :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달려 있다."라고 한 것은 나의 앎을 다하고자 함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치에 따라 더욱 궁구하여 그 지극함에 이르러야 한다.
> 을 : 만약 '격물'을 '천하 만물 모두를 연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천하의 만물을 어떻게 다 연구한다는 말인가? 지금 초목에 대하여 연구했다고 해도 어떻게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격'은 '바로 잡는다[正]'의 뜻으로, '물'은 '일[事]'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① 갑 :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② 갑 : 도덕적 수양을 통해 탁하고 치우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을 : 마음을 벗어나서는 이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물[事]도 없다.
④ 을 : 경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양지(良知)를 획득할 수 있다.
⑤ 갑, 을 :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해야 이상적 인간이 된다.

1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고립된 자아는 어떠한 합리적 역사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 을 : 보편적 권리는 공동체 의식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배려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①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주체로 살아야 하는가?
② 윤리적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③ 덕의 의미를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하는가?
④ 배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도덕적 덕목인가?
⑤ 윤리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정부에 복종한다. 안전과 보호라는 이익은 정부 제도 수립의 근원적 동기이자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이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에는 결코 이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이 이익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① 안전한 삶은 정치 공동체가 없더라도 항상 쉽게 향유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생겨난다.
③ 국가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도 항구적인 복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④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무관하다.
⑤ 정부에 복종하기로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만 정치적 의무가 있다.

12.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라고 하였다. 일심(一心)이 미혹되어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며, 일심을 깨달아 끝없이 오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자는 부처이다. 그러므로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결사(結社)를 통해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 을 : 모든 존재는 생멸 없이 본래 적정(寂靜)하여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이를 '진여문'이라 한다. 이 일심의 본체는 본래 깨달아 있지만 무명(無明)에 따라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멸문'이라 한다. 이러한 생멸문에서는 여래의 본성이 숨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如來藏)'이라 말한다.

<보 기>

ㄱ. 갑 : 화두를 활용한 선(禪)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ㄴ. 갑 : 참마음의 본체는 지혜이고, 참마음의 작용은 선정이다.
ㄷ. 을 : 일반 백성들도 염불 수행을 통해 극락왕생할 수 있다.
ㄹ. 갑, 을 : 불교계의 종파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① 갑 :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② 갑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③ 을 :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④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
⑤ 갑, 을 :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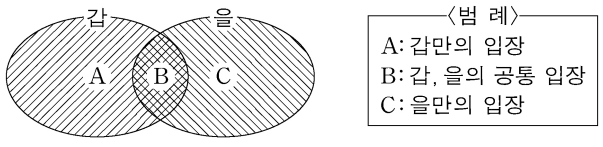
> 갑 : 나는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여 내던져 버리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 을 : 나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인 실체로 이해한다.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보 기>

ㄱ. 갑은 사유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참된 행복이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고 본다.
ㄷ. 을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실체인 신을 자연이 아니라고 본다.
ㄹ. 갑과 을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 유용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감 여부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칙이다. 쾌락의 측정 기준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을 : 준칙이란 주관적 실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하다면 그 원칙은 객관적이다.
(나)	

<보 기>

ㄱ. A :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은 쾌락의 양과 질에 있다.
ㄴ. B :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수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ㄷ. B :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있다.
ㄹ. C :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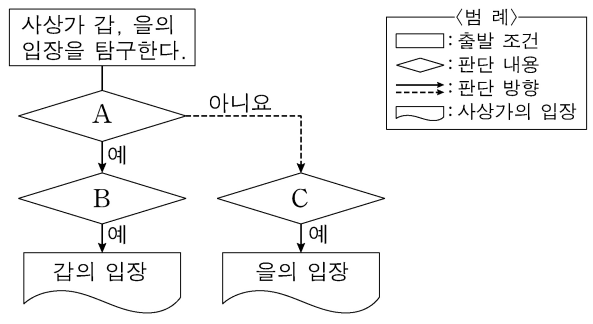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갑 : 쾌락을 누리면서도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는 불가능하다.
② 갑 : 죽음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이다.
③ 을 : 불행은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정념에서 비롯된다.
④ 을 : 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을 통해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⑤ 갑, 을 : 자연의 질서에 대한 순응은 유덕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1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개인의 자연적 재능은 단지 운일 뿐이며,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을 :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 운의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적 재능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그 자신의 소유로 간주한다.
(나)	

<보 기>

ㄱ. A : 다수를 위해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ㄴ. B :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는가?
ㄷ. C : 시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ㄹ. C :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갑 : 절망할 수 있음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다. 그런데 사실 절망은 큰 불행이며 타락이다. 절망의 반대는 신앙이며, 신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을 :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며, 본래적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현존재는 '세계-내-존재'이다.

① 갑 : 인간은 참된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도 절망할 수 있다.
② 갑 :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심미적 실존 단계에 속한다.
③ 을 : 현존재인 인간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자이다.
④ 을 :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실존적 삶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⑤ 갑, 을 : 인간은 독자적 결단을 통해 자신의 참된 실존을 깨닫는다.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갑 :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정신은 쇠약해져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도덕을 훈련함으로써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모든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을 :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이고,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입도식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고 깊이 맹세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의혹을 깨뜨려 없애는 것은 정성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① 갑은 불교 개혁을 통해 불법(佛法)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② 갑은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③ 을은 시천주(侍天主)를 표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④ 을은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서양 과학문명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⑤ 갑, 을은 신분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20.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사적 소유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생산 증진에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에 불과하다. 국가는 계획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고 작은 정부로 회귀해야 한다.

① (가)는 공유 재산과 사유 재산의 양립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② (가)는 모든 재화의 분배 기준으로 능력에 따른 분배를 지향한다.
③ (나)는 복지 정책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정책을 지지한다.
④ (나)는 규제 완화 정책이 민간의 자율적 능력을 침해함을 강조한다.
⑤ (가), (나)는 시장 내의 경쟁이 공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
②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더 많은 욕구 충족을 위해 재산을 많이 모아야 한다.
④ 죽음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므로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⑤ 참된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충족은 멀리해야 한다.

2.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나무가 곧아 먹줄에 맞는다 해도 구부려야 바퀴가 되고, 쇠는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켜야 인간은 비로소 선해진다. 사람들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 기>

ㄱ. 인간은 누구나 노력[僞]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ㄴ. 본성의 선한 단서를 확충하여 도덕적 덕을 실현해야 한다.
ㄷ. 인의(仁義)는 배움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ㄹ. 선왕의 가르침을 익히기보다는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 인간 본성이 지금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 자신의 고유한 선을 찾는 자는 누구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과 우주 전체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을: 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유덕한 사람은 지혜롭고 올바르지만 부덕한 사람은 무지하고 올바르지 못하다. 지혜와 덕과 행복은 일치한다.

① 갑: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② 갑: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념의 원인이다.
③ 을: 모든 사회에 보편타당한 객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을: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⑤ 갑, 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싸움이 끝나도 긍지를 갖거나 잘난 척하려 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 싸움이 끝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하고, 힘을 자랑하지 말라.
> ○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다.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서로 오가지 않는다.

① 도둑은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줄어든다.
② 백성은 생명을 중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③ 통치자는 무력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④ 현자(賢者)를 높이지 않아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성인(聖人)은 사람들의 마음은 비워 주고 욕망은 약하게 해 준다.

5.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선한 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선하고 아름다운 신이 만든 만물은 아름답고 선하다. 신은 선으로서 선한 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신은 세상을 신의 국가와 인간의 국가로 나누었고,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신의 국가의 승리로 귀결된다.

<보 기>

ㄱ.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ㄴ.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신의 피조물이다.
ㄷ.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선 신앙적 체험의 대상이다.
ㄹ.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만으로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정치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正名]에서 시작된다.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고,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 을: 선비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인(仁)이다.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의(義)이다. 인에 머물며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이루어진다.

<보 기>

ㄱ. 갑: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
ㄴ. 갑: 어진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한다.
ㄷ. 을: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ㄹ. 갑, 을: 예(禮)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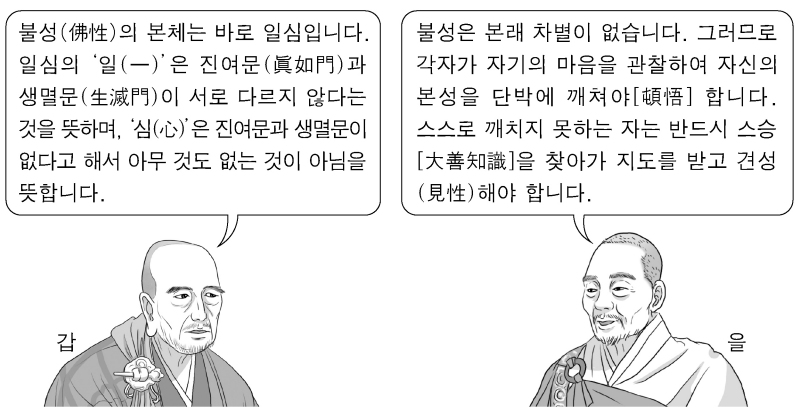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7.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중세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덕은 마땅한 목적을 위해,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에 있는 것이다.
> 을 : 덕 중에서 용기나 지혜는 국가의 한 부분에만 있어도 되지만, 절제는 나라 전체에 걸쳐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덕이 모두 갖추어진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다.
> 병 : 덕에는 지상의 행복을 위한 것과 천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 있고, 법에는 영원법, 신법, 자연법 등이 있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다.

① 갑 : 실천적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② 을 : 용기와 절제는 영혼의 탁월함이 아니라 신체의 탁월함이다.
③ 병 : 진정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지상에서 달성된다.
④ 갑, 병 :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⑤ 갑, 을, 병 : 참된 실재는 현상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 모두에 있다.

8. 그림은 한국 사상가 갑, 중국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 : 일체의 존재와 현상은 마음[心]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② 갑 :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해 유와 무의 실상(實相)을 깨달아야 한다.
③ 을 : 깨달음에 이르려면 문자(文字)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④ 을 : 선(禪)의 수행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⑤ 갑, 을 : 불성은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 : 행복은 하나의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며,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에게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질(質)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결코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을 : 행복은 언제나 쾌적함과 관계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최고의 만족 상태이고,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자연과 자연적 경향성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다. 도덕 법칙 안에서 도덕성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은 없다.

① 갑 :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② 갑 : 삶의 궁극적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는 최대 행복이다.
③ 을 : 실천 이성은 의무를 명령할 때 행복을 위한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
④ 을 :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는 자율의 원리이다.
⑤ 갑, 을 : 개별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10.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하면 곧 나의 앎이 활연히 관통하게 되어 가림이나 막힘이 없게 된다.
> 을 :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양지(良知)라고 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남이 곧 행동이다. 생각이 일어난 곳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생각을 없애야 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① 갑 : 기질이 없이는 하늘이 준 본성이라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
② 갑 : 인간이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을 : 마음 밖에 따로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따로 일[物]이 없다.
④ 을 : 양지를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 곧 치지격물(致知格物)이다.
⑤ 갑, 을 : 어리석은 이는 양지를 온전히 실현해도 성인(聖人)이 될 수 없다.

1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덕은 이성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 덕이 유발하는 어떤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 덕으로 확정된다. 오직 어떤 특성이 우리에게 승인 혹은 부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우리는 그 특성에 덕이 있다 혹은 악덕이 있다고 느낀다.
> 을 : 덕 또는 의무와 관련된 개인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 원리는 쾌락의 양만 고려하여 이익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위를 승인 혹은 부인하는 원리이다.

<보 기>

ㄱ. 갑 : 덕과 악덕은 이성적 논증에 의해서 판별될 수 없다.
ㄴ. 을 :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선 사회의 이익이 있다.
ㄷ. 을 :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경건함의 가치도 계산 가능하다.
ㄹ. 갑, 을 : 승인과 부인의 감정 자체가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2~13]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성(性)에 대해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듯이 정(情)에 대해서도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즉,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다.
> 을 :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면 정이 되는데, 발하는 것은 기고 발하는 까닭은 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으니 어찌 이발(理發)이 있겠는가? 기발(氣發)이 있을 따름이다.

12.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이와 기는 모두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것인가?
ㄴ. 이는 작용이 없으며 만물에 두루 갖추어져 있는가?
ㄷ. 칠정은 선 또는 악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가?
ㄹ. 사단은 이가 마음 밖에서 발하여 드러나는 것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린은 선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선한 것이 공(功)이 되지 않고, 승냥이는 악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악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권능[自主之權]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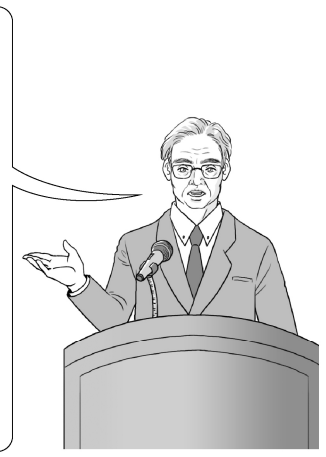
① 인간이 본래 타고난 성(性)이 곧 이치[理]임을 간과한다.
② 사양지심은 예의 실마리가 아닌 예의 시작[始]임을 간과한다.
③ 거경(居敬)의 실천을 통해 이기적 욕망을 없애야 함을 간과한다.
④ 사단(四端)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⑤ 인간이 하늘[天]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음을 간과한다.

14.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생산하는 자연, 즉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의거해서만 존재하고 활동한다. 그러나 생산된 자연은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이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① 인간의 자유는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② 신의 양태인 자연 만물 안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한다.
③ 인간은 신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④ 신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어 존재한다.
⑤ 신의 자유 의지로 산출된 자연은 신이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1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덕은 일반적 규칙들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
③ 삶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 타고난 삶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④ 좋은 삶의 본질적 요소인 역사적 맥락과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⑤ 행위자의 덕성보다 도덕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1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 순일(純一)한 것과 쉼이 없는 것이 정성[誠]이며, 내 마음을 공경함[敬]이 곧 경천(敬天)의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다. 마음을 믿는 것[信]은 곧 한울을 믿는 것이며, 한울을 믿는 것은 곧 마음을 믿는 것이다.
> 을 : 사학(邪學)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들어오면 사람마다 사학을 하게 되니,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인륜을 멸하고 오상(五常)을 해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와 금수(禽獸)의 지경이 되는 것이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사람은 존귀하여 신분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라고 보았으며, ㉡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을은 ㉢ 사람이 예절과 의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금수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 서양의 문물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해(害)가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갑, 을은 모두 ㉤ 유교적 가치만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이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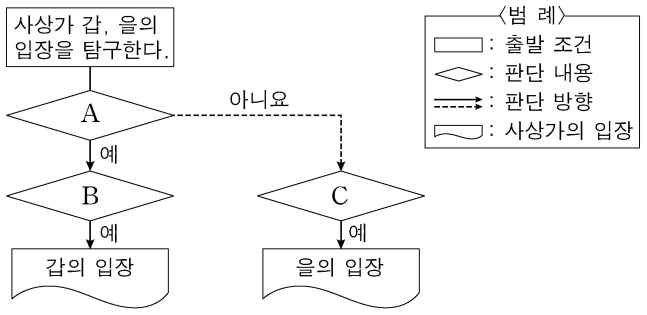
1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을 : 정의로운 분배는 영역 간 가치의 일반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 X는 어떤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X의 의미와 관계없이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



<보 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하는가?
ㄴ. A: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ㄷ. B: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정당한가?
ㄹ. C: 가치의 분배 기준은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다른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은 저절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을 : 정부의 경제 계획은 우리 삶의 일부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통제는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통제한다. 경제 계획은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

<보 기>

ㄱ. 갑 :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ㄴ. 갑 :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ㄷ. 을 :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ㄹ. 갑, 을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시장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 자연권을 향유하며 자기 보존을 위해 경쟁한다. 그러한 경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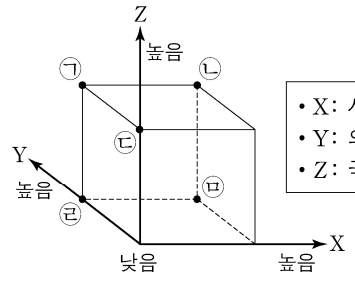
ㄱ. 갑 : 주권은 구성원의 동의하에 군주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ㄴ. 갑 :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ㄷ. 을 :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폭력은 부정의한 것이다.
ㄹ. 갑, 을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기계 장치의 확대와 분업으로 자립성을 상실했다.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품이 되었고, 그들의 임금은 노동이 혐오스러워질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는 계급투쟁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청산할 것을 촉구한다.

(나)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에 비해 노동자는 언제나 빈곤했다. 이에 우리는 노동 착취를 반대하고 빈부 격차를 축소하여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체제를 동반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최고 형태는 민주주의이다.



• X: 사유 재산의 폐지를 강조하는 정도
• Y: 의회 활동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강조하는 정도
• Z: 국가 및 계급 소멸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원상(一圓相)을 진리로 믿고 수행하여 모든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② 유교의 오륜(五倫)을 부정하고 서양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③ 내 마음이 네 마음임[吾心卽汝心]을 깨달아 인간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④ 사물에 대한 분별적 지식을 버리고 소요(逍遙)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⑤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노력해야 한다.

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사물에 있어서의 중간은 각각의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과 2의 산술적 중간은 6이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는 산술적 방식으로 중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관련해서의 중간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다. 하루에 6므나*의 식사는 성인 운동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어린 선수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 * 므나(mna) : 고대 그리스의 무게 단위

<보 기>

ㄱ. 중용이 무엇인지 알면 의지가 나약해도 반드시 중용을 실천한다.
ㄴ.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ㄷ. 중용은 모든 행위에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ㄹ. 지성적 덕에 속하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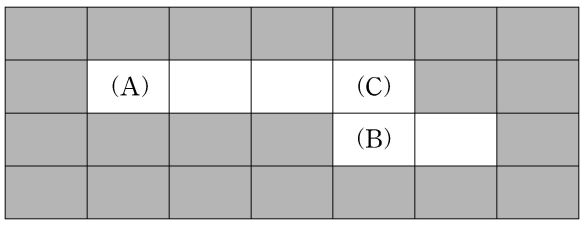
> 갑 : 사람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식일 뿐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
>
> 을 : 사람들 각자의 이익 추구가 자연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낙관일 뿐이다. 이러한 낙관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

<보 기>

ㄱ. 갑 :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원동력은 개인의 이타심에 있다.
ㄴ. 갑 :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ㄷ. 을 :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ㄹ. 갑, 을 :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사익 추구를 허용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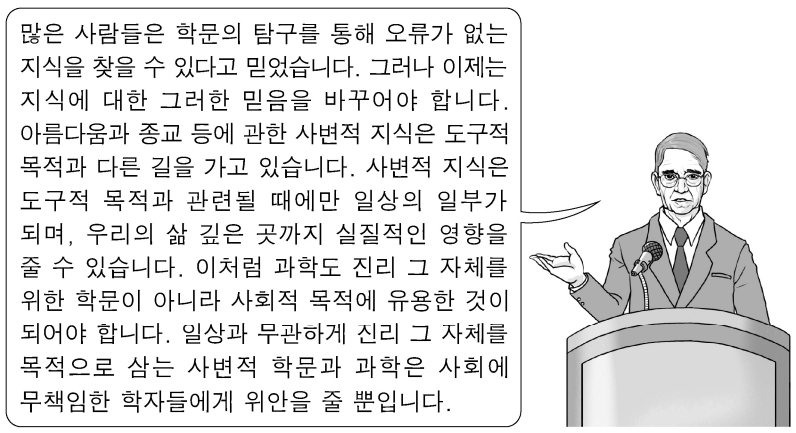
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앎[知]은 실행[行]의 시작이고 실행은 앎의 완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앎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실행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되고, 실행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앎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된다.
(나)	 [가로 열쇠] (A) : 말한 그대로 실천하여 말[言]과 행위[行]가 하나로 같아짐 (B) :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예) 플라톤의 4주덕 : ○○, 용기, 절제, 정의 [세로 열쇠] (C) : … 개념

① 도덕적 인식[知]을 도덕적 실천[行]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경전에 대한 학습에 의존하여 양지(良知)를 최대로 확충하는 것이다.
③ 마음 밖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지극한 데까지 궁구하는 것이다.
④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⑤ 마음의 본체인 성(性)과 그 작용인 정(情)을 통괄하여 주재하는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과학적 지식과 도덕적 지식 모두 삶을 개선할 때 가치를 가진다.
② 과학적인 검증으로 확실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③ 지식은 인간의 환경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④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이론과 지식을 중시해야 한다.
⑤ 학문적인 탐구는 사회의 진보나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입법권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임된 권력이다. 절대 군주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보다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국가 권력을 분할하는 것이 낫다.
> 을 : 입법권은 주권의 파생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권력을 주권의 일부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도 없다.

① 갑 : 인간의 소유권은 절대 군주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② 갑 : 시민은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입법부에 저항할 수 없다.
③ 을 : 통치자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④ 을 : 주권은 시민이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대표되어야만 한다.
⑤ 갑, 을 : 사회 계약 이후에 국가는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이 없다.

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제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 는 것이다.

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②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없다
③ 공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④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⑤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없다

8.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일심(一心)의 법(法)을 세운다는 것은 법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대승(大乘)의 법에는 오직 일심만이 있으며, 일심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 일심의 법을 세워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두 가지 문[二門]에 들어가야 한다.
> 을 : 얼어붙은 연못이 온전히 물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햇볕의 따뜻한 기운을 빌려야 실제로 녹여서 물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도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갑 : 일상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해야 한다.
ㄴ. 갑 : 우둔한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ㄷ. 을 : 점수의 요체는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다.
ㄹ. 갑, 을 :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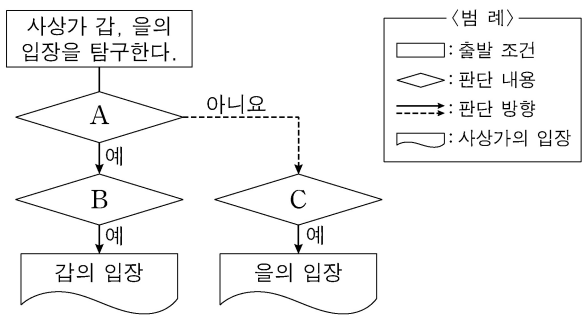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 갑 :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가 행한 노동의 결과를 점유하는 것은 노동자로부터 그의 시간을 빼앗는 것과 동등하다.
> 을 : 노동자가 자본주의하에서 행하는 노동은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는 소외된 노동으로 인해 일하지 않을 때 편안하고 일할 때는 편안하지 못하다.

(나)



<보 기>

ㄱ. A :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가 가능한가?
ㄴ. B :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한가?
ㄷ. B : 노동 투입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인가?
ㄹ. C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0.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 :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ㄴ. 을 : 덕은 지식이며 덕을 갖춘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ㄷ. 을 : 선을 알면서도 그릇된 행위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ㄹ. 갑, 을 : 이성보다 사회의 관습에 따라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갑 : 그림쇠는 동그라미, 곱자는 네모꼴, 먹줄은 곧음, 저울은 공평함의 표준이듯 예(禮)란 올바른 도(道)의 기준이다. 군자는 스승과 법도[師法]를 따르고 예의를 실천하는 자이며 소인은 본성을 좇아 멋대로 행동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이다.

을 :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쇠, 네모꼴을 만드는 곱자, 직선을 긋는 먹줄을 빌어 사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드는 것은 본성을 해친다. 예악에 따라 몸을 굽히고 인의(仁義)를 좇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한다.

① 갑 : 예를 기준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② 갑 : 조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구성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③ 을 : 인의를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타고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④ 을 :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본성을 해치는 예악을 거부해야 한다.
⑤ 갑, 을 : 성(性)을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樸]로 보아야 한다.

1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쾌락에 따라 택하거나 피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혼란이 없는 상태에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

을 : 쾌락의 유혹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념에 이끌리지 말고 자연의 섭리인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① 갑 : 이성적인 인식을 통하여 모든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② 갑 : 모든 고통을 제거하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을 :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여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④ 을 : 인간 본성과 우주의 본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하며 사는 삶을 중시해야 한다.

1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理)는 물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물이 본래 맑은 것은 사람의 성(性)이 본래 선(善)한 것과 같고, 물을 담는 그릇의 깨끗하고 더러움이 똑같지 않은 것은 사람의 기질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움직이는 것은 기(氣)가 발(發)할 때에 이가 타는[乘] 것이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반드시 움직이지만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가 스스로 발하지 않는 것과 같다.

① 기와 달리 이는 무형(無形)의 존재이지만 운동성을 지닌다[有爲].
② 칠정(七情)은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탄 것으로 순선한 감정이다.
③ 이는 보편적인 것으로 두루 통하지만[通] 기는 국한된다[局].
④ 발현하게 하는 까닭[所以]은 기이고 발현하는 것은 이(理)이다.
⑤ 기질을 바로 잡는[矯]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14.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 안에 있는 법이 영원법이고, 영원법이 인간에게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포함하여 공동선을 위한 실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의 일에 추상적인 자연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정법이 필요하다.

① 실정법은 신이 제정한 것이고 실정법의 제정 근거는 영원법이다.
② 자연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다.
③ 신의 의지인 영원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정법도 불변한다.
④ 영원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자연법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
⑤ 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정의롭지 못하므로 정당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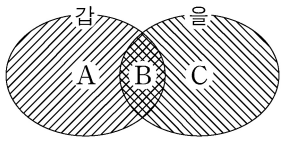
15.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죽음은 부스럼이 사라지거나 종기가 터지는 것과 같고, 삶은 몸에 군살이 붙거나 혹이 달리는 것과 같다. 진인(眞人)은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속세를 벗어나 한가롭게 무위(無爲)의 경지에서 자유로이 노닌다.

을 : 죽음은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이들을 휩쓸어 간다. 오온(五蘊)의 결합인 몸이 아지랑이처럼 무상(無常)한 것임을 알고 몸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면 죽음을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른다.

(나)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ㄴ. B : 자연의 순리대로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해야 한다.
ㄷ. B : 현세의 삶에서 쌓은 업(業)에 의해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
ㄹ. C : 삶과 죽음은 무명(無明)으로 인해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자유의 이념은 나를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나는 선의지를 의식하고, 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의지의 자율성에 알맞게 된다. 선의지는 감각적 욕망을 따르는 악한 의지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그 법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① 자율적이지 않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②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
③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의무는 개인에게 도덕 법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에 어긋난다.
⑤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아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유덕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위인들의 업적을 모범으로 삼는다. '실천'은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의 품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전통의 업적을 배우는 방법이다.
> 을: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에서의 보살핌과 책임에 있다. 정의의 입장이 전제하는 공정성보다 인간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 기>

ㄱ. 갑: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ㄴ. 을: 공정성의 가치와 보살핌의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ㄷ. 을: 배려보다 권리를 도덕성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ㄹ. 갑, 을: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삶의 구체적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8.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대장부는 예(禮)를 충성과 신의가 엷어진 것이며 혼란이 생겨나는 시작이라고 여긴다. 도(道)를 잃게 되면 덕(德)이 나타나고 덕을 잃게 되면 인(仁)이 생긴다. 인을 잃게 되면 의(義)가 나타나고 의를 잃게 되면 예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 을: 대장부는 천하의 가장 넓은 집[仁]에 거처하며,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禮]에 서서, 천하에서 가장 큰 도[義]를 실행한다.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면 백성과 함께 도를 실행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를 홀로 굳게 지킨다.

① 성왕(聖王)의 교화를 거쳐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②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인 마음[四端]을 확충하여야 하는가?
③ 군주가 제정하고 확립한 외면적 사회 규범[禮法]을 따라야 하는가?
④ 정치적으로는 왕도를 추구하고 패도(覇道)를 부정해야 하는가?
⑤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하는가?

1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공감은 인간 본성에서 매우 큰 힘을 지닌 원리이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 우리와 상관없는 이웃이나 사회의 선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 을: 최대 행복의 원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① 갑: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는 감정보다 이성에 근거한다.
② 갑: 인간은 공감 능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승인한다.
③ 을: 개인의 쾌락은 배제하고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④ 을: 질적으로 바람직한 쾌락일수록 고통의 양은 언제나 감소한다.
⑤ 갑, 을: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해야 한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맹자는 사단(四端)의 발(發)을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본래 마음은 이(理)와 기(氣)의 합이지만 이(理)를 위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위주로 말하면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다.
> 을: 맹자는 사단을 논할 때 반드시 성선(性善)을 사단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것은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일[行事]로 말한 것이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공경하면서도 절하여 맞이하지 않는다면 예(禮)라고 할 수 없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사양지심(辭讓之心)을 인간의 마음에 예라는 덕(德)이 내재함을 알게 해 주는 실마리로 보았으며, ㉡ 사욕을 제거하기 위해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수양[主一無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을은 ㉢ 인간이 사양지심을 실천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 덕을 예라고 보았으며, ㉣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부여된 영지(靈知)의 기호를 확충하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사단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파악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고 드뭅니다. 그런데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법입니다.

①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 인식하려고 힘쓴다.
②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초월자인 신의 명령에 복종한다.
③ 모든 것의 창조주인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을 철저히 따른다.
④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유롭게 삶의 목적과 방법을 택한다.
⑤ 신이 부여한 자유 의지를 통해 삶의 필연성을 극복해 나간다.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 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에 걸맞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배려받는 사람 또한 상대방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 의무감에서 남을 돕는 윤리적 배려보다는 욕구와 성향에 따라 남을 돕는 자연적 배려가 도덕적으로 선호된다.

① 배려 윤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유대감을 중시한다.
②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자연적 배려는 이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실천된다.
④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⑤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다.

3.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 을 :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되며, 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한다.

① 구성원의 안전 보장이 사회 계약 체결의 결과임을 모르고 있다.
② 사회 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③ 사회 계약의 안정성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비례함을 모르고 있다.
④ 자기 보존 욕구의 실현이 사회 계약 합의를 위한 토대임을 간과한다.
⑤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앎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앎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
> <문제 상황>
>
> 고등학생 A는 최근 TV 방송을 보다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소식을 들었다. A는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부를 할지 망설이고 있다.

①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② 남을 돕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③ 남을 돕는 행위는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④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함을 알아야 합니다.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천지만물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새의 울음소리 역시 시천주 소리이다. ○ 개벽(開闢)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도(道)의 덕을 세상에 펼쳐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한울이 명하신 바이다.
(나)	제자 : 새로운 개벽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 : ㉠

①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일상에서 수행하라.
② 남녀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미물(微物)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③ 모든 규범을 버리고 자연을 따르면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④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천주교의 교리를 신봉하고 지켜라.
⑤ 유교적 도덕과 신분 질서를 따르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워라.

6.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인간의 행복은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 신의 향유, 그리고 신과의 합일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신의 나라로 갈 수 있다.
> 을 :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벌부를 사게 되면 죄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 사면과 신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① 갑 : 신은 선악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이다.
② 갑 : 인간은 신을 이성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른다.
③ 을 : 인간은 자유 의지만으로도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④ 을 : 성서만이 진리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⑤ 갑, 을 : 개인의 신앙보다 교회의 종교적 권위가 더 중요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7~8]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그것에 탄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 연후에 측은해 하는 마음[惻隱之心]이 발현한다. 그 어린아이를 보고 측은해 하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발한다는 것이요, 측은해 하는 마음의 근본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

을 :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탄 것이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드러날 수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이기적 욕심에 빠지게 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외부의 자극을 받은 것이고, 측은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情)이 움직인 것이다.

7. 다음의 학생이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교사 : 갑, 을은 사단과 칠정을 이나 기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단과 칠정은 각각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갑, 을의 입장에 대해 말해 볼까요?

학생 : _____ ㉠ _____

<보 기>

ㄱ. 갑은 도덕 감정을 일반 감정의 순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ㄴ. 을은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의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측은해 하는 마음을 기가 발하여 드러난 도덕 감정으로 봅니다.
ㄹ. 갑, 을은 사랑[愛]이라는 일반 감정과 측은해 하는 마음이 사실상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확충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면 인의예지라는 이름[名]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측은해 하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사덕을 모든 사람이 지닌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아야 한다.
② 사덕을 사단의 확충 이전에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사단을 사덕이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로 보아야 한다.
④ 사단을 일상에서 선을 실천해야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사단을 사덕의 시작[始]이 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9. 다음 사회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 사회는 포괄적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교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와 구별되며,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다. 안정적인 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 기>

ㄱ. 국가는 다양한 신념체계를 단일한 신념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ㄴ. 국가는 시민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개입해야 한다.
ㄷ.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적 공동체이다.
ㄹ. 국가는 공적 의사 결정에서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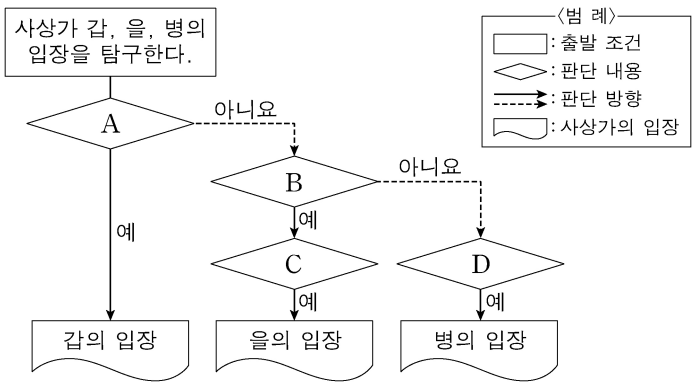
(가)

갑 : 각각의 분배의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정의롭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을 :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병 : 개인들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나)



<보 기>

ㄱ. A :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하는가?
ㄴ. B :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는가?
ㄷ. C :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 있는가?
ㄹ. D :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의 격차도 정당한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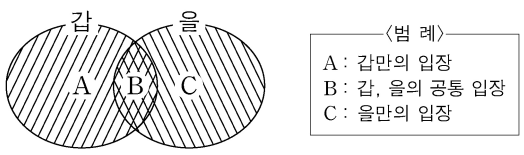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긍정,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완성된 형태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국가를 떠나 살 수 있는 자는 신이거나 짐승뿐이다. 인간은 본래 국가를 필요로 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어떠한 참된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
> 을 : 정부는 시민에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복종의 동기는 구성원들이 정부를 통해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는 이익 관념에 기초한다. 만약 이 이익이 사라지면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① 최선의 삶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②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의감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③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④ 구성원들의 명시적 동의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⑤ 정부의 공공재 제공에 따른 혜택의 향유가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12.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자식과 부모에게는 자식과 부모의 이치[理]가 있고, 신하와 군주에게는 신하와 군주의 이치가 있다.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을 :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효(孝)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 충(忠)의 이치를 군주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 하나하나에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나)	

<보 기>

ㄱ. A :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성(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이다.
ㄴ. B : 양지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ㄷ. B : 양지의 발현을 통해 타고난 성정(性情)을 바로잡는다.
ㄹ. C : 양지는 실천[行]과 서로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 : 절제는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이다.
ㄴ. 갑 : 절제는 개인의 영혼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탁월함이다.
ㄷ. 을 : 절제는 실천적 지혜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는 덕이다.
ㄹ. 갑, 을 : 절제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지인(至人)은 무기(無己)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 본연의 모습을 타고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제어하여 무궁한 세계에 노닌다[遊]. 그러니 도대체 무엇에 의존할 것이 있겠는가!
> 을 : 물질[色]은 무아(無我)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보 기>

ㄱ. 갑은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항상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세계를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인간은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인식의 제1원리를 찾아야 한다.
> 을 :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인간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학문을 혁신할 수 있다.

① 갑은 관찰과 실험을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② 갑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을은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지성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감각적 경험은 객관적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⑤ 갑과 을은 실제적 유용성을 지닌 지식만을 참된 지식으로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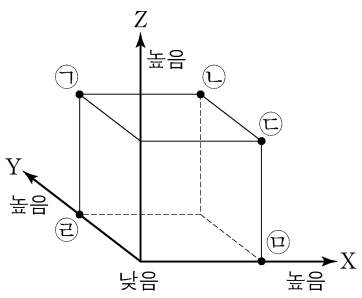
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해라.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렵다는 믿음이 두려운 것이다.
> 을 :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안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대체 불가능한 각자의 고유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① 갑 : 두려움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이다.
② 갑 : 죽음의 공포는 최고의 정신적 쾌락을 누릴 때 극복된다.
③ 을 : 인간만이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
④ 을 : 불안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⑤ 갑, 을 :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17.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 을 : 가장 훌륭한 도(道)가 행해지면 천하는 모두의 것[公]이 된다. 현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유능한 자에게 관직을 주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홀로 남은 노인이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 X : 인륜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 Y : 규모가 작은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도
- Z : 지도자의 적극적 역할[有爲]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가 된다.
> 을 :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보 기>

ㄱ. 갑 :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ㄴ. 을 : 도덕의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ㄷ. 을 : 의무가 문제일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ㄹ. 갑, 을 :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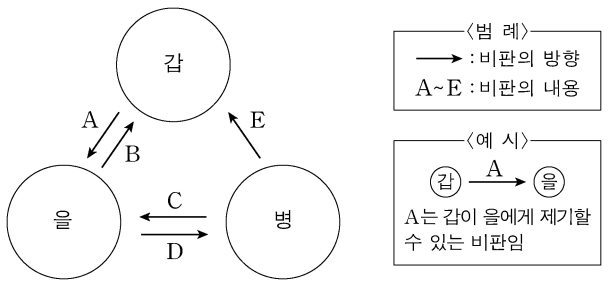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 국가가 시장 질서를 부정하면 인간은 노예의 길로 가게 된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자생적 질서는 위대한 창조와 성장을 실현시킨다.
> 을 : 국가가 소비 성향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업은 증가된다. 유효 수요를 창출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완전 고용에 기여하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다.
> 병 : 사회주의 단계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기존의 소유 관계와 가장 철저하게 단절하는 혁명을 통해 가능하다.

(나)



① A :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함을 무시한다.
② B :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③ C : 시장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켜야 함을 무시한다.
④ D : 경제적 불평등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해소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⑤ E : 국가의 역할은 자유 경쟁의 원리 실현에 있음을 간과한다.

20.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놓아둔 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찾는 것이다.
> 을 : 예(禮)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규범이고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떨치는 길이고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군주가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직을 훼손시키게 된다.

<보 기>

ㄱ.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ㄴ. 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성인이 제정한 것인가?
ㄷ. 통치자의 덕성에 의해 백성을 교화(敎化)하여야 하는가?
ㄹ.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를 추구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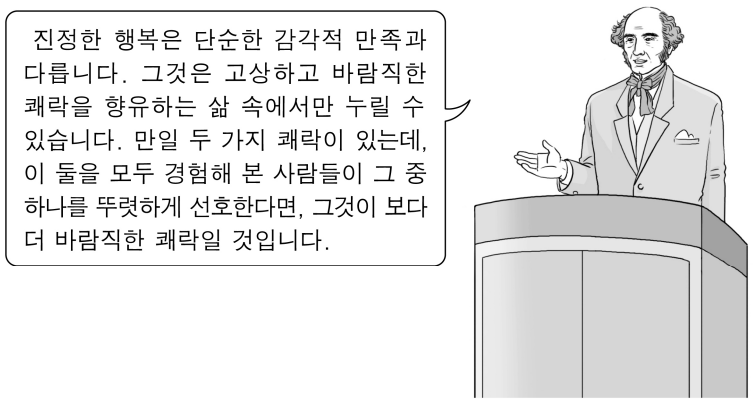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용성을 초월하여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②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해야 한다.
③ 선험적 법칙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무조건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④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⑤ 모든 쾌락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타인의 다양한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2. 근대 한국 사상인 (가)~(다)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선천은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혔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참혹하게 되었다. 이에 만고의 원한을 풀어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우고자 한다.
(나) 공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다시 밝힌 것이 수심정기(守心正氣)이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주문(呪文)을 외우며 한울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다)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진리에 따라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깨닫고, 양성하며, 사용해야 한다.

<보 기>

ㄱ.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ㄴ. 봉건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만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ㄷ. 도학과 과학을 발달시켜 영(靈)과 육(肉)을 온전히 해야 한다.
ㄹ. 신앙과 수행을 위해 사회 변화에 초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성인(聖人)은 아무런 속박이 없이 자연에 노닌다.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갖풀[膠]*로 여기며,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교를 장사하는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고, 깎고 다듬지 않으니 어찌 갖풀이 필요하겠는가!
* 갖풀: 짐승의 뼈나 가죽을 고아 굳혀 만든 풀.

① 무명(無明)에서 비롯되는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②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야 하는가?
③ 의(義)를 쌓아 자연과 하나 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는가?
④ 시비와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가?
⑤ 백성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과 예를 가르쳐야 하는가?

4. (가)를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성(性)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理]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눌 수 있다. ○ 이(理)와 기(氣)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되지 않는다.
(나)	제자: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 ㉠ _____

①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한다.
② 실천한[行] 후에야 앎[知]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③ 인간의 기질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공부를 이어가야 한다.
④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발휘해야 한다.
⑤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항상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5.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신 또는 자연이 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과, 왜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은 동일하다.
을: 네 의견을 철회하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도 사라질 것이다. 느낌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너를 모욕한 자가 판단하는 대로, 또는 네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가 바라는 대로 사물을 이해하지 말라.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라.

① 갑: 자연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신의 속성과 동일하다.
② 갑: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③ 을: 인간의 본성인 이성은 신과 자연을 인식하지 못한다.
④ 을: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은둔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⑤ 갑, 을: 자연 질서가 반드시 필연적이거나 선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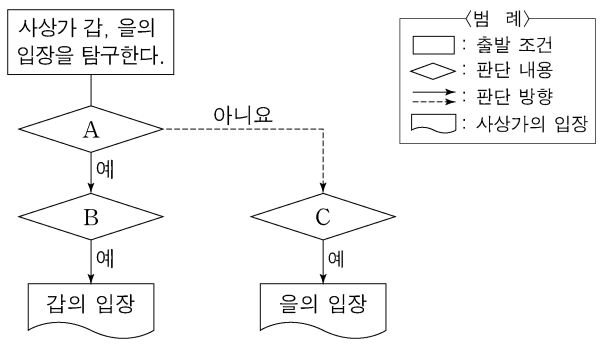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인(仁)은 하늘이 주는 벼슬이며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도 막지 않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
> 을 : 예(禮)는 성인이 작위[僞]를 일으켜 만든 것으로,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이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이 훼손된다. 엄한 명령과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

① 갑 : 인은 친소의 구별이 없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다.
② 갑 : 인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에 측은지심을 형성해야 한다.
③ 을 : 예는 타고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④ 을 : 예는 욕망 조절의 기준이자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⑤ 갑, 을 : 인과 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性)을 교화시킬 수 있다.

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가 전체적으로 조화된 상태가 정의이며, 어떤 부분이 전체에 어긋나는 것은 부정의이다. 을 :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덕은 옳은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피하고 그 중간을 택해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함양된다.
(나)	

<보 기>

ㄱ. A : 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가?
ㄴ. A :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는가?
ㄷ. B : 이성이 욕구를 지배하여 나타나는 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ㄹ. C : 어떤 경우에도 중용 상태에 이를 수 없는 행동이 있는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9]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성(誠)은 하늘의 진실한 이(理)요 마음의 본체이다. 경(敬)으로 주재하여 본심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움과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며 성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할 경지이니, 경으로써 성에 이를 수 있다.
>
> 을 : 성(誠)은 하늘의 길[天道]이요, 경(敬)은 사람의 길[人道]이다. 무릇 마음은 한결같이 몸을 주재하고, 경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성으로 나아가려면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역시 오직 경에 힘쓸 뿐이다.

8.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성은 마음을 집중하고 늘 깨어 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인가?
ㄴ. 경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인가?
ㄷ. 경은 일상에서 물욕이 본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가?
ㄹ. 성과 경은 참된 앎[良知]을 형성하여 성인에 이르는 방법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과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무릇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지만 선하다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악하다고 꾸짖으면 성내고, 도둑은 수치심이 없지만 청렴하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탐욕스럽다고 꾸짖으면 슬퍼하니, 사람의 성(性)은 기호(嗜好)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성(性)은 자연스럽게 생득적 덕을 드러내는 성향임을 모르고 있다.
② 성(性)은 인간만이 지니는 형구(形軀)의 기호일 뿐임을 모르고 있다.
③ 성(性)은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④ 성(性)은 선악의 가치를 수반한 하늘의 이치[天理]임을 모르고 있다.
⑤ 성(性)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임을 모르고 있다.

10.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깨끗함과 더러움[染淨]의 세계는 이미 둘 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마음[心]이라 하는가? 이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은 것이라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어 억지로 '일심(一心)'이라 한 것이다.
>
> 을 : 교(敎)를 닦으면서 관(觀)을 폐하거나 관에 치우쳐 교를 버리는 것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교종의 승려도 선(禪)을 닦아야 하며, 선종의 승려 역시 교리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갑 : 부처의 힘으로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 수행은 삼가야 한다.
② 갑 : 모든 종파의 이론들을 하나인 근원에 의거하여 회통해야 한다.
③ 을 : 능력이 출중한 자는 화두를 드는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한다.
④ 을 : 점차적인 수행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달아야[頓悟] 한다.
⑤ 갑, 을 : 선(禪) 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경전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은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옳은 행위가 되는 부적절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 ○을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도덕 법칙을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의 주장은 형식에 치우쳐,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며, 의무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갑: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갑: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하다.
③ 을: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④ 을: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갑, 을: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이다.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절망은 병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최대의 불행이고,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 병에 걸리고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병은 가장 위험천만한 병이 된다.
>
> 을: 불안에는 현존재를 개별화시키는 특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별화는 현존재를 세상일에 빠져 있는 상태로부터 되돌려놓으면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현존재의 두 가지 존재 가능성으로서 드러내 보여 준다.

<보 기>

ㄱ. 갑: 윤리적 실존은 심미적 실존으로부터 도약하여 전개된다.
ㄴ. 갑: 주관적 진리와 주체성이 없어도 진정한 실존은 가능하다.
ㄷ. 을: 죽음의 불안은 현존재를 본래적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이다.
ㄹ. 갑, 을: 불안한 실존을 인정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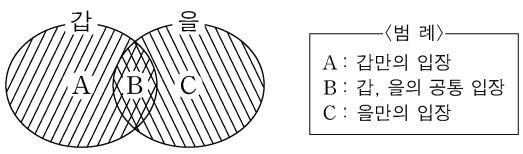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뿐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
> 을: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14.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마음의 바탕[心地]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自性)의 계(戒)이고,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定)이며,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혜(慧)이다. 자성이 문득 깨닫고[頓悟] 문득 닦으면[頓修] 늦고 더딤이 없으므로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 을: 치지격물(致知格物)이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물 하나하나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천리를 사물 하나하나에 온전히 실현하면 사물 하나하나는 그 이(理)를 얻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다.
(나)	

<보 기>

ㄱ. A: 오온(五蘊)으로 이뤄진 '나'가 영원하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ㄴ. B: 평범한 사람은 이론적 학습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ㄷ. B: 이미 마음에 갖춰진 이상적 인간됨을 발현해야 한다.
ㄹ. C: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여 천리에 도달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세속의 나라는 신의 멸시에까지 이르는 자기애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고 후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점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
> 을: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① 갑: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 의지 남용에서 비롯된 실체이다.
② 갑: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③ 을: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된다.
④ 을: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갑, 을: 인간은 이성적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至福)에 이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도덕적 삶의 원천은 인간의 상호 작용을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을 하게 된다.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상대방을 위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러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한다.
> 을 :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나의 현재 관계들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다.

① 갑 : 배려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실천 가능한 것이다.
② 갑 :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다.
③ 을 :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을 :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⑤ 갑, 을 :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현(絃)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 을 :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 양도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① 갑 :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② 갑 :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과 정념은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③ 을 :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다.
④ 을 :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된다.
⑤ 갑, 을 :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자 요구이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 을 :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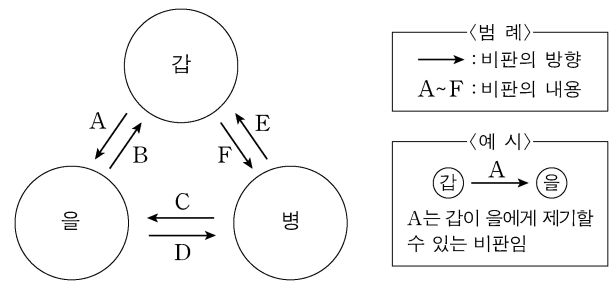
① 갑 :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② 갑 :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③ 을 :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된다.
④ 을 :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⑤ 갑, 을 :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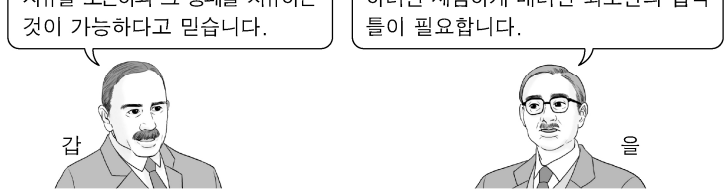
> 갑 :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 을 : 선(善)에 대한 지식은 무지의 자각과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이를 행함으로써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 병 : 비록 선을 알고 있다 하여도 인간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이유는 덕 있는 행위를 습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① A, F :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음을 간과한다.
② B :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③ C : 의지박약 때문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간과한다.
④ D : 덕의 실천은 참된 앎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⑤ E : 선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다.

20.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 : 시장의 자연적 조화 기능으로만 대량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② 갑 : 효율을 저해하는 병폐 치유를 위해 국가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③ 을 :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막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④ 을 : 공유제와 계획경제의 법적 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⑤ 갑, 을 :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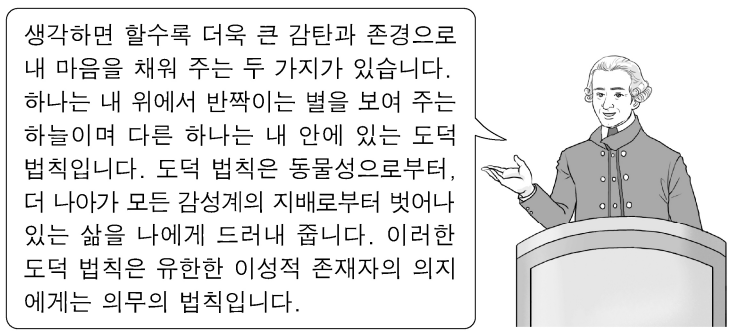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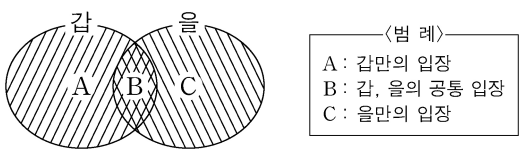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법칙을 따르기 위해 힘쓴다.
②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③ 행복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고 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른다.
④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한다.
⑤ 의무 의식이 아니라 자연적 감정을 행동의 기반으로 삼는다.

2.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군자와 소인의 본성[性]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化性起僞] 때문이다. 인위를 일으키면 예의가 생겨난다. 을 : 군자는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본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마음을 보존한다. 인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써 마음을 보존한다. 어진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
(나)	

<보 기>

ㄱ. A : 군자는 소인과 달리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지 않는다.
ㄴ. B :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ㄷ. B :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같지 않다.
ㄹ. C :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을 :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① 갑 :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② 갑 :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③ 을 :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 분배 결과가 중요하다.
④ 을 :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⑤ 갑, 을 :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된다.

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일원(一圓)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見性)이고, 일원의 본체를 지키는 것은 양성(養性)이며, 일원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率性)이다. 이 공부를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학식과 총명에 관계없이 성불함을 얻으리라.
을 :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며 남에게 온화하고 공손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처럼 하고,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하라.

① 갑 :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갑 : 물질 문명을 완성한 이후에 정신 개벽을 이루어야 한다.
③ 을 : 마음속이 아닌 하늘에 존재하는 한울님[天主]을 섬겨야 한다.
④ 을 :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서 사람들의 원한을 해소해야 한다.
⑤ 갑, 을 : 유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불교와 도가 사상을 통합해야 한다.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신이 하는 일에는 신의 섭리가 담겨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신의 섭리, 즉 자연의 인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하다. 당신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도록 하라.
을 : 신은 최고 존재이며, 무(無)에서 창조한 것들에게 존재를 주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를 건설했다. 지상의 나라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멸시할 때, 천상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① 갑은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정신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인간이 영혼 속의 정념을 따르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인간이 신보다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써 죄를 짓는다고 본다.
④ 을은 믿음이 아닌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으로 지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인간이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한 나라가 용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한 계층에 의해서이다. 이 계층은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용기는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보전하는 것이다.
> 을 :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하며, 반대로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하다. 용기라는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① 갑은 전체를 위한 유익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② 갑은 덕을 갖추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④ 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⑤ 갑, 을은 앎이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을 :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① 갑 :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② 갑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③ 을 :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④ 을 :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⑤ 갑, 을 :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우상(偶像)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얻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公理)를 형성하는 것이다.
> 을 :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은 문제 해결의 도구이다. 과학과 신기술은 가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도구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효과적인 도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보 기>

ㄱ. 갑 : 우상 타파를 위한 최선의 탐구 방법은 삼단 논법이다.
ㄴ. 을 : 실험과 지성적 탐구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ㄷ. 을 : 지식의 유용성보다 자명한 지식의 발견을 중시해야 한다.
ㄹ. 갑, 을 : 자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상 대화의 '스승'은 한국 유교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제자 : 지난번에 선생님께서는 "사단과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사단을 겸(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때 잠깐 언급하셨던 수기(修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스승 : 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뜻을 세워야[立志] 하네. 그 다음은 수렴(收斂)인데, 이것의 핵심은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경(敬)을 지니는 것이라네. 수렴 다음에는 궁리(窮理)와 성실(誠實)에 힘쓰고 기질을 바로잡아야[矯氣質] 하네.

<보 기>

ㄱ.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一邊]이며 칠정에 포함되는 것인가?
ㄴ. 사단이 생성되게 하려면 누구나 기질을 교정해야[矯] 하는가?
ㄷ. 경을 지니는 것[持敬]은 궁리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가?
ㄹ. 경으로 주재하여 사특함을 제거해야 성(誠)에 이를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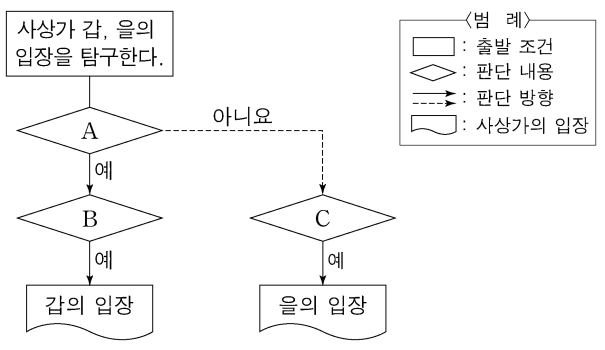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다. 또한 공감은 다른 많은 덕을 유발하며, 이 덕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경향 때문에 우리의 승인을 얻는다.
> 을 :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면 승인하고 감소시키면 부인하는 원리이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이다.

(나)



<보 기>

ㄱ. A :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선할 수 있는가?
ㄴ. A : 도덕은 공감의 원리에 따른 승인과 부인의 감정에 기초해야 하는가?
ㄷ. B : 덕과 부덕은 이성이 아니라 도덕감에 의해 구별되는가?
ㄹ. C : 행위의 도덕성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 법이란 '중생의 마음[衆生心]'을 일컫는다. 대승 가운데 있는 일체의 법은 별도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법 자체가 오직 일심(一心)이다. 그러므로 일심을 대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을 : 부처는 '중생의 마음' 속의 부처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의 근원을 알고자 하면 무명(無明) 속에 있는 자신조차도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깨친[頓悟] 다음에도 습기를 점차 소멸시켜 나가야[漸修] 한다.

① 갑 : 일심의 법에서 보면 생겨남[生]과 사라짐[滅]은 둘이 아니다.
② 갑 : 부처의 가르침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니 화쟁(和諍)해야 한다.
③ 을 : 내 마음이 부처임을 자각하면 더 이상의 수행[修]은 필요 없다.
④ 을 : 혜(慧)는 정(定)을 떠나지 않고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
⑤ 갑, 을 :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지녔으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2.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 : 성인은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② 갑 : 성인은 사람들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돕는다.
③ 을 : 성인은 도(道)의 관점에서 시비와 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한다.
④ 을 : 성인은 각각의 자연적 특성을 가진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⑤ 갑, 을 : 성인은 예(禮)를 가르쳐서 백성의 본성이 실현되도록 한다.

13.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완전 고용은 우리의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근접하는 효율적 수단이므로,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나) 완전 고용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생산의 계획화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계획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보 기>

ㄱ. (가) : 유효 수요의 과잉이 실업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ㄴ. (나) : 공공의 이익 증진이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 중요하다.
ㄷ. (나) : 계획 경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
ㄹ. (가), (나) :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15]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 수는 없다.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게 살 수는 없다.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떨어질 수 없다. 즐거움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 을 : 즐거움에 굴복하여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좋은 일이 더 큰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지금보다 더 좋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즐거움에 굴복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무지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지혜이다.

14.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 :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불안이 생길 수 있다.
ㄴ. 을 : 지혜를 갖추어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ㄷ. 을 : 앎이 없어도 지나친 욕구에 대해 절제의 덕을 지닐 수 있다.
ㄹ. 갑, 을 : 행복을 위해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갑과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두 가지 쾌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쾌락을 높이 평가해서 다른 쪽의 쾌락에 비해 그 양이 적을지라도 선택한다면, 그 쾌락은 질적으로 훨씬 우월한 것이다.
> ○ 우리가 인정하는 자기 포기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그 행복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헌신뿐이다. 이때의 다른 사람들은 인류 전체이든, 인류 범위 내에 있는 개인이든 무방하다.

① 행복을 위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가?
②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자기희생 자체는 선인가?
③ 사회 전체 쾌락의 극대화를 도덕적 행위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④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면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⑤ 쾌락은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색(色)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양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그럴 수 있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니라.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오온(五蘊)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 기>

ㄱ. 오온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ㄴ. 만물은 무상(無常)하며 현실적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
ㄷ.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ㄹ. 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인간의 본질을 구상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을 :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신 또는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으로부터 생겨난다.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똑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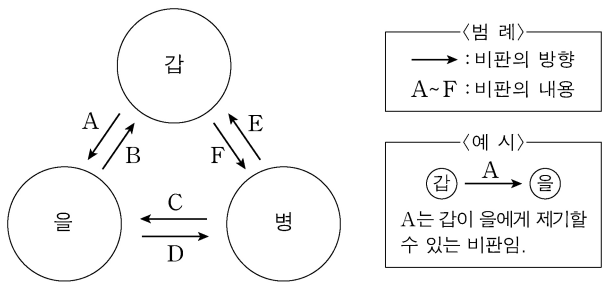
① 인간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
②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③ 보편적 법칙에 대한 순응이 실존 회복의 근거임을 모르고 있다.
④ 행복을 누리려면 이성을 통해 감정을 순화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⑤ 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임을 모르고 있다.

18. (가)의 갑, 을은 유교 사상가들이고, (나)는 유교 경전의 일부 내용이다. ㉠, ㉡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가)	갑 : 사람의 성(性)이 선(善)을 좋아함은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성과 행함[行] 때문에 덕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사단은 심(心)이라고 할 수 있다. 을 : 성(性)은 하늘의 이치[理]이다. 마음[心]은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 마음이 물과 같다면 성은 물이 고요할 때와 같고 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사단은 성이 아니라 정이다.
(나)	㉠ <u>측은지심(惻隱之心)</u>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 <u>인(仁)</u>의 단(端)이다.

① 갑 :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이다.
② 갑 : ㉠을 확충하기 이전에는 마음에 ㉡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을 : ㉠은 ㉡이 마음에 내재함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이다.
④ 을 : ㉠은 마음의 쓰임[用]인 정이고 ㉡은 마음의 본체인 성이다.
⑤ 갑, 을 : ㉠과 달리 ㉡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天理]이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에 따라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을 :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병 :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에서 점차 불평등한 예속 상태로 이행한다. 사람들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자신을 일반 의지에 양도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나)	

① A, F :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침을 부정한다.
② B : 권력 분할보다 집중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최선책임을 부정한다.
③ C :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위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D : 계약 이후에는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을 소유함을 간과한다.
⑤ E :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20. 다음은 어느 현대 서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선생님께
>
> 도덕적 행위에 관한 선생님의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달리 도덕적 행위에서 사람들이 배려자가 되는 것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는 유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무의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와 무관하게 우리의 도덕적 의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입장은 [㉠]고 생각합니다. …(후략).

①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의무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② 도덕 법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③ 배려의 의무가 자연적 배려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함을 강조한다
④ 도덕 교육의 과제가 이성에 의한 추론 능력의 함양임을 간과한다
⑤ 인간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에게
> 자네가 사람의 본성과 인위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기에 편지를 쓰네. 사람이 배울 수도 없고 애쓸 수도 없지만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본성[性]이라고 한다네. 반면 배울 수 있고 애쓰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僞]라고 하네. 이것이 본성과 인위의 분별[性僞之分]이라네. 그러므로 반드시 성인의 교화로 인도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라네. …(후략).

①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②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하여[求放心]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
③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④ 타고난 본성[性]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齊物]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으로 소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투자의 포괄적 사회화, 즉 공적 투자의 창출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 을: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회주의의 약속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경쟁 사회의 사유 재산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기업 시스템이야말로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유 보장 방법이다.

① 갑: 정부는 사유 재산제 철폐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② 갑: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을: 정부 규모를 확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④ 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계획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갑, 을: 정부는 재화의 재분배를 위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해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선의 이데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선의 이데아 때문에 올바른 것이 유익하게 된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
> 을: 이성을 사용하면서 발명과 발견을 중시하지 않아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 형식 논리학의 경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지 않고 기존 지식을 맹신함으로써 우상에 빠졌다.

① 갑: 참된 지식은 이성으로 파악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② 갑: 국가를 통치하는 자에게는 오직 지혜의 덕만이 필요하다.
③ 을: 새로운 지식은 귀납 논리가 아니라 연역 논리로 얻어진다.
④ 을: 인간은 진보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상에 빠진다.
⑤ 갑, 을: 관찰과 실험만이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교학(敎學)과 지관(止觀)을 함께 해야 한다. 교종은 외적인 공부에 치중하고, 선종은 내적인 공부에 치중한다. 따라서 내외겸전(內外兼全)하지 못하는 수행은 참다운 수행의 방법이 아니다.
> 을: 선정[定]은 본체[體]이고 지혜[慧]는 작용[用]이다. 지혜는 본체를 마주하여 나온 작용이므로 선정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작용을 마주하여 나온 본체이므로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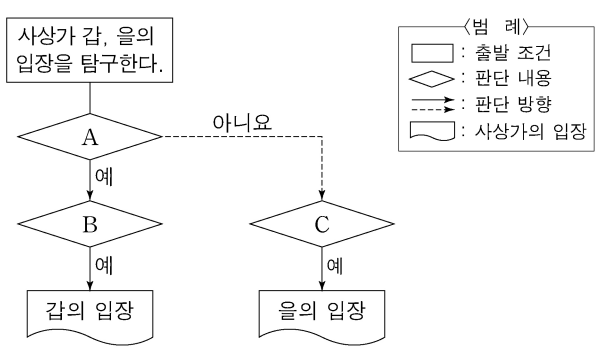
① 갑: 모든 존재는 자성(自性)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다.
② 갑: 경전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참선 수행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③ 을: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보다 우선적으로 닦아 나가야 한다.
④ 을: 선(禪)은 부처의 말씀과 같고 교(敎)는 부처의 마음과 같다.
⑤ 갑, 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無常]을 깨달아야 한다.

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유토피아에서는 필요한 것을 아무런 문제없이 얻는다. 사람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그들은 6시간 일하고 남는 시간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나태하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 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이룩된 공산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될 만큼 생산물이 산출될 것이다. 구성원들의 소질이 다방면으로 사용될 기회가 제공되며 종래와 같은 분업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



<보 기>

ㄱ. A: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 소유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가?
ㄴ. B: 이상 사회에서는 성인의 노동과 지적 활동이 보장되는가?
ㄷ. C: 이상 사회에서는 계급이 사라지고 자아실현이 가능한가?
ㄹ. C: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가상 대화의 '스승'은 동양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서 하늘의 이치[天理]를 보존하는 것이네.
②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고요하게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네.
③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네.
④ 타고난 양심을 지켜 내고 본성을 함양하여 늘 성찰하는 것이네.
⑤ 마음의 바르지 못한 것을 없애서 본래의 바름을 회복하는 것이네.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인간이다. 인간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이다.
> 을 : 존재하는 것에 대해 보편적 정의를 내려 무지를 자각하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 경건한 것이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닌 것처럼 말이다.
> 병 :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각자의 좋음을 추구한다. 인간에게 있어 좋음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고, 여러 탁월성 중에서 최상의 탁월성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

① 갑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모든 악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무지에서만 생긴다고 본다.
③ 병은 실천적 지혜로써 질투에 대한 중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④ 갑은 을과 달리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⑤ 병은 을과 달리 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8.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가) 사람들의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 원한을 해소하고 서로를 살리며[解冤相生], 은혜를 갚는 것이 새로운 안정을 얻는 첫걸음이다.
> (나) 일원상(一圓相)이라는 근원과 삼학(三學)으로써 진리를 얻어, 영혼과 육체를 함께 닦고[靈肉雙全] 도학과 과학을 함께 발전시켜야[理事竝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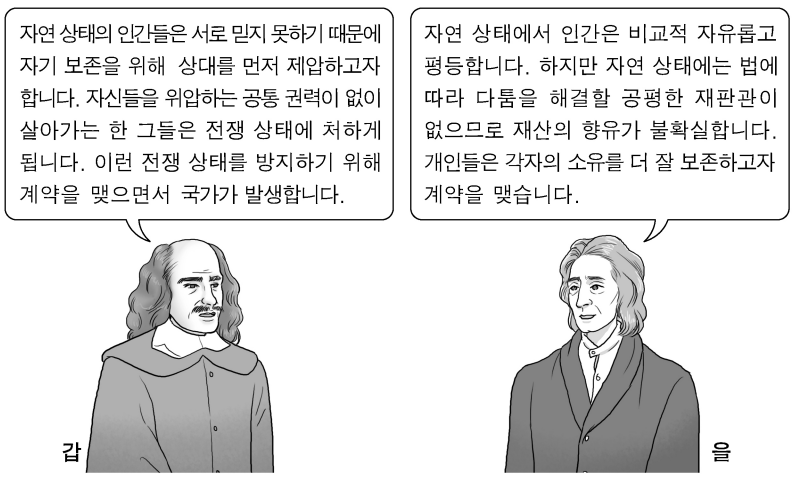
① (가) :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② (가) : 무속과 도가를 재해석하여 시대 혼란에 대응해야 한다.
③ (나) : 종교적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도 병행해야 한다.
④ (나) :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여 불교의 생활화를 지향해야 한다.
⑤ (가), (나) : 성리학적 질서만을 근본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9.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인간의 본성은 없다. 그것을 구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존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해 구상하고 바라는 대로 있게 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리이다.
> 을 :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의한 죽음은 언제나 자기를 삶 가운데로 옮겨 놓는다. 절망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칼이 사상을 죽일 수 없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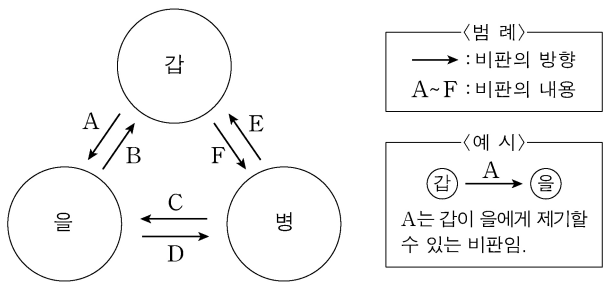
① 갑 :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② 갑 : 인간은 삶의 객관적 목적 실현을 위해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③ 을 : 실존의 최고 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 규범만을 따라야 한다.
④ 을 : 인간은 주체적 결단보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⑤ 갑, 을 : 자신의 실존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해야 한다.

10.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 : 평화와 안전은 자연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장된다.
② 갑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 때문에 이성을 지니지 못한다.
③ 을 :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④ 을 : 인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
⑤ 갑, 을 :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

11.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쾌락에 몰두한 사람이라도 '향락을 위해 자연적 재능을 방치해도 된다.'는 준칙이 법칙이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 을 :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여 비교하라.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그 행위의 좋은 경향을 말해 줄 것이고, 고통 쪽으로 기울면 그 반대의 경향을 말해 줄 것이다. 병 : 쾌락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만 따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나)	

① A, F : 도덕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② B :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방법임을 간과한다.
③ C :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임을 간과한다.
④ D : 행위 관련 당사자들의 쾌락의 양을 고려해야 함을 부정한다.
⑤ E : 쾌락의 추구가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한다.

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대도(大道)가 무너지니 인(仁)과 의(義)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니 큰 거짓이 생겼다.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
을 :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여 주어도 괴롭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 주어도 슬프다. 본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 법이다. 인과 의 또한 괴롭고 슬픈 것으로, 사람이 본디 갖춘 것이 아니다.

<보 기>
ㄱ. 갑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과 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목적 없이 노니는 것[逍遙]이야말로 자유의 경지라고 본다.
ㄷ. 갑, 을은 큰 나라에 많은 백성이 있어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다.
ㄹ. 갑, 을은 아름다움과 추함[美醜]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누구든 신의 나라에 도달할 때 믿음과 소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랑만은 더 크고 강하게 영속하기 때문이다.
을 : 인간은 면죄부가 아니라 신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 신에게 순종할수록 죄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신에게 거역할수록 죄의 세력은 강해진다.

<보 기>
ㄱ. 갑은 악을 신이 창조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ㄴ. 갑은 믿음, 소망, 사랑을 종교적 덕이 아닌 도덕적 덕이라고 본다.
ㄷ. 을은 누구나 성서와 기도를 통해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구원이 은총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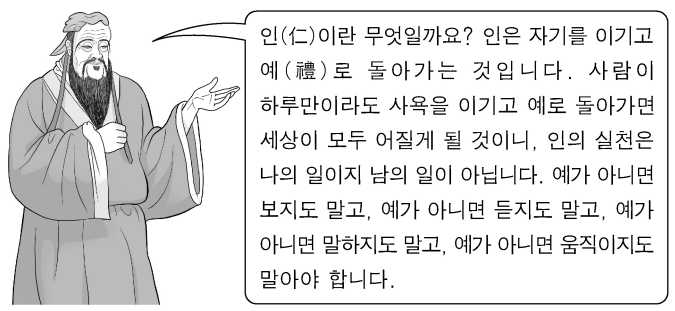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모두 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신의 본성이 일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양태이다.
(나)	제자 : 자유로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 : _____ ㉠ _____ 존재라네.

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음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② 인격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③ 이성을 통해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
④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결정된 삶에서 벗어나는
⑤ 자기 보존의 욕망을 단념함으로써 덕 있는 삶을 추구하는

1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예를 행할 때는 검약하지 말고 가급적 사치스럽게 해야 한다.
②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은 신하를 예로 대해야 한다.
③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한 예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
④ 효는 부모가 살아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항상 예로 모시는 것이다.
⑤ 백성을 예로 대해야 백성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다.

[16~1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기(理氣)의 분별이 있다. 같음 속에 다름이 있으니, 사단은 이(理)를 위주로 칠정은 기(氣)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이들을 나누어 배속시키는 것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 을 : 사단은 기가 발(發)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한다.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발(氣發)이며, 측은의 본(本)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승(理乘)이다.

16.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사단의 정(情)과 칠정의 정은 그 연원이 모두 같은가?
ㄴ.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까닭[所以]은 이(理)인가?
ㄷ. 인과 측은지심은 모두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탄 정인가?
ㄹ. 사단은 칠정을 겸(兼)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명칭은 행사(行事) 이후에 성립한다. 남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 하고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라 한다. 손님과 주인이 공손히 인사한 뒤에야 예라는 명칭이 성립한다.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한 뒤에 지라는 명칭이 세워진다.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낱알이 어찌 복숭아씨와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로따로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①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도덕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② 사단은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緖]임을 모르고 있다.
③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선천적인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④ 사덕은 태어난 순간 마음 안에 갖추어진 본성임을 모르고 있다.
⑤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를 따라 실천하여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전쟁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 을 : 천하에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交利)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갑: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는 달성된다.
② 갑: 소극적 평화를 이루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을: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④ 을: 친소(親疎)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⑤ 갑, 을: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해야 한다.

1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인간 본성은 선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약하다. 본성은 고통의 부재인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 을 : 인간 본성에 따라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라. 부자나 권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위해 너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라. 이성을 통해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ㄴ. 갑 : 공동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ㄷ. 을 : 평온한 삶을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ㄹ. 갑, 을: 행복을 위해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나의 활동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영역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축소될 때, 나는 강제 받고 있거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을 :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노예와는 달리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보 기>

ㄱ. 갑 : 국가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이다.
ㄷ. 을 :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갑, 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님께
>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자유 의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은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 의지를 통해 선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여전히 많은 인간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께서 자유 의지를 주신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신의 은총 속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① 자신의 자유 의지를 남용하지 않고 선을 실천해야 한다.
②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최고 행복에 도달해야 한다.
③ 각자가 중시하는 자신의 가치를 최고선으로 추구해야 한다.
④ 지식이 덕과 동일함을 깨닫고 지식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자신이 자율적으로 입법한 보편적 도덕 법칙만을 실천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사실[苦],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集],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滅],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道]을 말한다. 이 진리를 아직 밝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더욱더 정진하고 참고 견디어 바른 생각과 바른 앎으로 깨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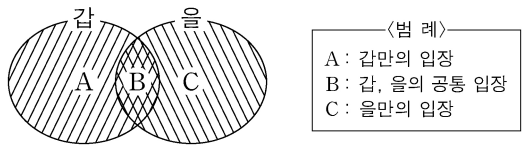
① 욕망을 충족시켜 무명(無明)에 이르러야 괴로움이 소멸된다.
②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③ 괴로움의 발생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도 원인이 있다.
④ 인간의 의도적 행위[業]로 인하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⑤ 팔정도(八正道)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이다.

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람의 성(性)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선배 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가 본심의 완전한 덕이라 하면, 사람의 일은 마음만 들여다보아 그저 이 마음을 비우고 밝게 만들려고만 할 뿐이다. 그러나 [㉠]은/는 실행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니 누구나 그것을 완성하려고 정진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생리적 욕구의 경향성이다.
② 인간의 본성에 깃든 것이 아니라 노력[功]으로 이루는 것이다.
③ 인간의 마음으로서 덕으로 나아가는 시작점[始]이 되는 것이다.
④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능[自主之權]이다.
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天理]가 아닌 마음의 기호(嗜好)이다.

4.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偶像)과 그릇된 관념들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을 : 누구라도 이성을 완전히 사용하기 전에는 많은 선입견으로 인해 진리 인식에서 멀어져 있다. 이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물의 본성을 단 한번이라도 의심해 보는 것이다.
(나)	

<보 기>

ㄱ. A : 연역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
ㄴ. B : 진리를 얻는 과정에서 이성이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
ㄷ. B : 경험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므로 실험을 중시해야 한다.
ㄹ. C : 방법적 회의를 거쳐야만 철학의 제1원리가 도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지인(至人)은 기(氣)의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의 마음 씀은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는다. 응대하되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물과의 대립을 이겨내고 상처받지 않는다.
> 을 : 성인(聖人)은 백성들로 하여금 교활한 지식과 말재간을 버리도록 하여 그들의 이로움을 크게 늘린다. 또한 인의(仁義)를 버리도록 하여 효도와 자애를 회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묘한 재능을 버리도록 하여 세상에서 도적이 사라지게 한다.

① 갑 : 마음을 깨끗이 비워 절대 자유를 누려야 한다.
② 갑 : 절대적 기준에 따라 선악미추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③ 을 : 도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언어로 규정할 수는 있다.
④ 을 :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와 규범이 생겨나 도와 덕이 이루어졌다.
⑤ 갑, 을 : 성인은 예법(禮法)을 제정하여 무위로 다스려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옛날에 어버이의 장례를 모시지 않고 시신을 골짜기에 놓아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나중에 그곳을 지나는데 들짐승들이 시신 주변에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이마에 진땀이 났던 것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속마음[羞惡之心]이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 기>

ㄱ. 도덕적 기운은 마땅하고 떳떳한 행동으로 길러진다.
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義)의 실마리이다.
ㄷ. 인의의 본성을 제외하면 사람은 짐승과 거의 차이가 없다.
ㄹ.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변화시켜야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서양인은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자기 몸만을 위하여 기도할 따름이다. 그들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고 학(學)은 한울님을 위한 것이 아니니, 어찌 우리와 다름이 없겠는가.
> 을 : 서양의 설(說)은 비록 천만 가지 단서가 있더라도,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재물을 교역하고 남녀가 교제하는 것을 방도로 하니, 짐승의 길이로다.
> 병 : 서양인은 형이하(形而下)에 밝아 그 기(器)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고, 동양인은 형이상(形而上)에 밝아 그 도가 천하에 우뚝하니, 이 둘은 병행하여 서로 어긋남이 없도다.

① 갑 :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토대로 내세에서 후천 개벽을 이뤄야 한다.
② 을 : 성리학적 질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만민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③ 병 : 유교적 가치에서 벗어나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추구해야 한다.
④ 갑, 을 :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평안케 해야 한다.
⑤ 을, 병 : 전통적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며, 사회는 일정한 사람의 수중에 입법권을 위임한다. 사람들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고 신탁을 하는 것이다.
> 을 : 사람들은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만 주인이고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① 갑 :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므로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갑 :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을 소유해야 한다.
③ 을 :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④ 을 : 통치자는 일반 의지의 대행자이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⑤ 갑, 을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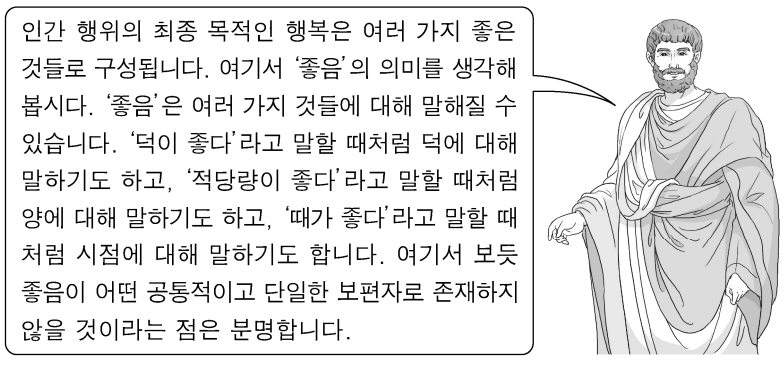
> 높은 차원의 쾌락과 저급한 쾌락, 이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다. 지성을 갖춘 사람이 바보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 기>

ㄱ.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보다 중요하다.
ㄴ. 도덕 원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야 한다.
ㄷ. 질 높은 고상한 쾌락이 질 낮은 저급한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
ㄹ. 두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을 통해 두 쾌락에 정통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모든 좋음의 존재 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하나의 좋음이 있다.
④ 인간 행위가 목적으로 삼는 좋음들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
⑤ 인간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좋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 이(理)와 기(氣)는 본래 서로 결합하여 형체가 되고 서로의 기능이 조화되어 작용하게 된다. 진실로 이가 없는 기가 없고, 기가 없는 이가 없다. 그러나 나아가 말한 바가 다르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 을 : 이의 근원은 하나일 뿐이고, 기의 근원도 하나일 뿐이다. 기가 유행하여 천차만별의 사물이 되고, 이 또한 유행하여 천차만별의 원리가 된다. 그러나 기는 이를 떠나지 않고, 이는 기를 떠나지 않는다.

① 갑은 사단을 도덕 감정으로, 칠정을 일반 감정으로 본다.
② 갑은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주도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본다.
③ 을은 본래부터 사단은 선, 칠정은 악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④ 을은 사단은 칠정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타는 것이라고 본다.

1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이나 걱정에 마음을 빼앗겨 헛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절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결단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 을 : 죽음을 향해 자각적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현존재는 극적으로 고독해지며, 그 과정에서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의 충만하고 고귀한 존재, 즉 진정한 '자기'에 직면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직시는 나 자신을 본래적인 실존으로 도약시킨다.

① 갑 : 신이 곧 자연임을 자각할 때, 참된 실존에 이르게 된다.
② 갑 : 인간은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더라도 결국 절망에 빠진다.
③ 을 : 현존재의 본질 회복을 위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회피해야 한다.
④ 을 :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본래적 실존이 회복된다.
⑤ 갑, 을 : 인간은 실존적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13.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갑 :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축소된다.
② 갑 :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를 향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③ 을 : 법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④ 을 : 자의적 지배가 없는 정당한 간섭보다 어떤 간섭도 없는 지배가 낫다.
⑤ 갑, 을 :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14.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사물에 응대하려면 먼저 궁리(窮理)해야 하지만, 궁리하려면 본래 텅 비고 고요하며 밝고 맑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미세함까지 살필 수 있으며 번잡하고 혼란한 것을 분석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 을 : 이치[理]는 오직 이 마음에서 찾을 뿐이다. 이 마음은 인욕이 없는 깨끗한 천리여서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정성스러운 것이니, 겨울에는 자연히 부모의 추위를 생각하여 따뜻하게 해 드릴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보 기>

ㄱ. 갑 : 심(心)은 성(性)이 발현된 정(情)을 포괄하지 못한다.
ㄴ. 갑 : 도덕적 실천[行]이 선행되어야 도덕적 앎[知]이 가능하다.
ㄷ. 을 : 마음이 드러난 뜻[意]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ㄹ. 갑, 을 :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군자는 의로움을 최상으로 여기고, 학문으로 벗을 모으며, 벗을 통해서 인(仁)의 덕을 행한다. 그는 먹는 데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 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하는 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 신중하다.
> 을 : 군자로서 의로움을 행하려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면 모두를 아울러 사랑할 것[兼愛]이고,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보 기>

ㄱ. 갑 : 인과 예를 회복하여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실현해야 한다.
ㄴ. 갑 :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백성이 편안하도록 다스려야 한다.
ㄷ. 을 :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침략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 사람이 어떤 상실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상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 순간 슬픔은 감소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 을 :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의 삶은 강물처럼 순조롭게 흐르리라.

① 자연 세계 안에는 초월적 신이 내재되어 있는가?
② 자연법칙에 관한 앎은 정념 극복에 기여하는가?
③ 인간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도 자유 의지를 갖는가?
④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 작용하는가?
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앎에서 나오는 정신의 지적 만족인가?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악덕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에는 결코 악덕을 발견하지 못한다. 고찰의 방향을 내 마음에로 전환하고, 부인(否認)의 감정을 발견한 후에야 악덕을 발견하게 된다.
> 을 :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합법칙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분석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실천 이성은 경향성의 속삭임에 매수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의해 강제되면서, 행위할 때마다 의지의 준칙을 순수한 의지에 묶는다.

① 갑 : 공감은 자연적 성향이므로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없다.
② 갑 : 덕과 악덕은 인간의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이다.
③ 을 : 행복을 추구하라는 의무에 일치하는 도덕적 행위만이 정당하다.
④ 을 : 실천 이성을 따를 때 인간은 자신을 도덕 법칙의 예외로 삼지 않는다.
⑤ 갑, 을 : 도덕적 판단에 있어 이성과 감정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18.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점이자 목적이다. 고통의 완전한 결핍은 최고의 쾌락이며, 쾌락의 한계이다. 최고의 쾌락은 평정심으로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이다.
> 을 :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는 행동과 말과 생각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의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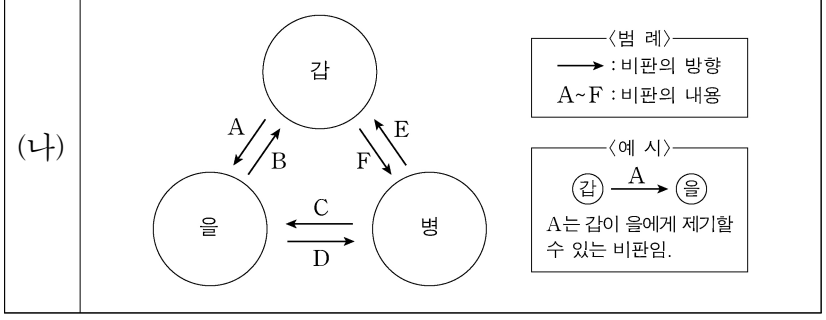
① 개인적 쾌락의 총합이 사회 전체의 쾌락임을 모르고 있다.
②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③ 쾌락을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④ 쾌락은 행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적도 된다는 것을 간과한다.
⑤ 쾌락의 양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갑 :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연적으로 사회에도 이득이 된다.
> 을 : 시장에서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인 낙관일 뿐이다.
> 병 : 시장에서의 경쟁 대신에 계획을 표방하는 사회주의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일 뿐이다.

(나)



① A: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D: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 정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③ C: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인 소유를 허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E: 시장 실패의 해결을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정부 규모가 비대해지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 저하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유토피아는 누구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풍족하게 살아가므로 빈민이 없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 기>

ㄱ. 갑 : 재산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발생시킨다.
ㄴ. 갑 : 이상 사회에서는 풍족한 재화와 높은 도덕성이 공존한다.
ㄷ. 을 :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ㄹ. 갑, 을 :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다음 편지를 쓴 한국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님께
>
> 무릇 도(道)란 어디를 가도 없는 곳이 없고 어느 순간에도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선들 공부를 그만둘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때인들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할 때에는 경을 유지하는 것[持敬]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삼가고 엄숙하고 고요한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사이에 이치를 궁구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혼자 있는 곳에서 살피기를 더욱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후략).

① 도덕규범을 모두 버리고 도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경건한 마음으로 이치를 탐구하고 성찰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③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모든 관념을 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른다.
④ 공부가 지극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종교의 가르침을 탐구한다.
⑤ 마음이 엄숙하고 고요해지도록 분별적인 지식을 제거해 나간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본성과 운명에 따라 할 일을 정해야 욕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덕을 따를 수 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의 본성과 자신의 본성을 검토해야 한다.
> 을 : 본성에 심어진 일차적 선은 쾌락이다. 그런데 쾌락이라고 다 선택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다 피하는 것도 아니다. 이 중 무엇이 득과 실이 되는지를 측정,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① 갑 :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갑 : 불굴의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을 : 쾌락을 누리려면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④ 을 :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욕망과 쾌락도 사라짐을 깨달아야 한다.
⑤ 갑, 을 :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해야 한다.

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공화국 간에는 평화 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평화 조약이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 을 : 평화는 폭력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된다.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이러한 폭력들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① 갑 :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 형태는 세계 평화의 실현과 무관하다.
② 갑 : 평화 연맹은 소속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을 :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④ 을 : 평화 추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쟁의 종식에 두어야 한다.
⑤ 갑, 을 : 단일한 세계 정부를 창설해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색(色)은 물방울 같고 수(受)는 물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식(識)은 허깨비와 같다고 관찰하라.
> ○ 고통[苦],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 고통을 남김없이 다 없앤 상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바른 도(道), 이 네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잠들어 있는 것과 같으니라.

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 고통 없는 경지[涅槃]로 나아가야 한다.
② 고통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도 윤회(輪廻)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③ 고통을 없애려면 여덟 가지 수행 방법[八正道]을 실천해야 한다.
④ 오온(五蘊)의 참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⑤ 연기(緣起)를 바르게 통찰하면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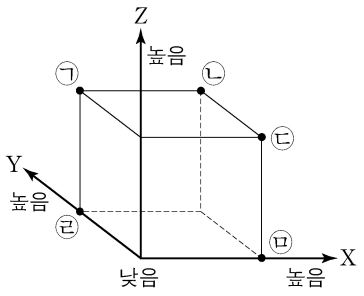
5. 가상 대담을 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을 추구하는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기를 보존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한다.
② 신 또는 자연의 속성을 파악하여 세계의 필연성에서 벗어난다.
③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면서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을 준수한다.
④ 이성을 통해 만물의 궁극적이고 초월적 원인인 신을 인식한다.
⑤ 자유 의지의 남용으로 생긴 악을 극복하기 위해 신에게 귀의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갑 : 국가는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산 수단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 을 : 국가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



- X: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신뢰하는 정도
- Y: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도
- Z: 정부의 규모 및 역할의 축소를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유용성은 우리의 동의와 시인(是認)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의 유용성은 우리 자신의 것만은 아니다. 이처럼 유용성이 항상 자기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도덕의 기원을 대부분 설명해 주는 원리가 놓여 있다.

<보 기>

ㄱ. 도덕적 행위를 직접 유발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ㄴ. 이성적 판단은 도덕적 추론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ㄷ. 공감은 인간의 도덕적 감정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근거이다.
ㄹ. 사회적 유용성은 공감에 의해서 시인의 감정을 일으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갑, 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마음[心]과 이치[理]는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마음이요, 실제적인 것은 성(性)이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곧 깨닫고 느끼는 주체이다.
> 을 : 마음의 본체[體]는 성이요, 성은 곧 이치이다. 천하에 어찌 마음 바깥에 성이 있고, 성 바깥에 이치가 있겠으며, 이치 바깥에 마음이 있겠는가?

<보 기>

ㄱ. 마음에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ㄴ. 성(性)과 마음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ㄷ.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情)을 주재해야 하는가?
ㄹ. 격물치지는 천리의 보존[存天理]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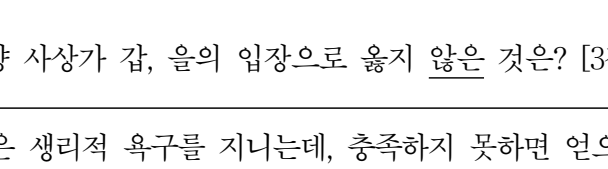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 갑 : 자유란 사적인 형태의 예속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자유는 권력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예속으로 인해 자유가 부정되면 시민들은 공포에 빠진다.
> 을 : 자유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외부의 의도적인 강제로 인해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보 기>

ㄱ. A : 자유를 실현하려면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을 배제해야 하는가?
ㄴ. B : 법의 지배로 인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되는가?
ㄷ. C :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아야 하는가?
ㄹ. C :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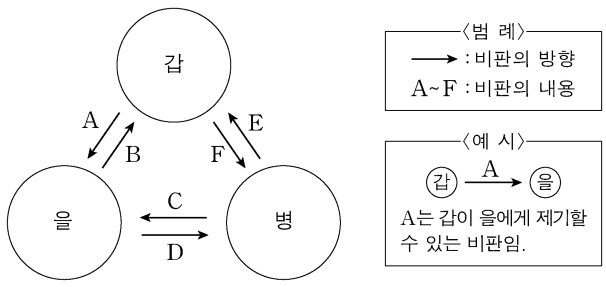
1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지니는데, 충족하지 못하면 얻으려 하고 적절한 제한이 없으면 분쟁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성왕(聖王)은 그 혼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책무를 나눠서 욕구를 조화시키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였다.
> 을 :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함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왕도(王道)를 실천하지 않음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① 갑 :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관직이 분배되어야 한다.
② 갑 : 규범을 제정해서 욕망에 빠지기 쉬운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
③ 을 :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을 군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④ 을 : 군주가 군주답지 못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를 교체해야 한다.
⑤ 갑, 을 : 예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한 후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가)의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을 : 진리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우리는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하여 감각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 진리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 병 : 진리는 경험 속에서 가설로 제안되어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채택되는 유용한 것이다. 진리란 이렇게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나)	

① A : 자연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② B, D :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여 진리를 파악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 상황에 따라 지식의 타당성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E : 진리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한다.
⑤ F :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도구임을 간과한다.

12. 갑,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우리의 도(道)는 유불선과 비슷하지만 실은 그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은 무극대도(無極大道)이다. 이제 커다란 개벽(開闢)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도의 덕을 천하에 펼쳐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한울[天]이 명하신 바이다.
> 을 : 우리의 도를 밝혀 백성을 교화하고 선왕(先王)과 성현의 가르침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며 오상(五常)과 사단(四端)의 마음을 확충해 나가기만 하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환란을 막을 수 있다.

① 유교적 신분 질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② 개벽에 대비하여 모든 규범을 제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서양 사상이나 종교를 철저하게 배척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대도 실현을 위해 사회 변화에 무관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유교의 인륜 도덕이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임을 간과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 유토피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열중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건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긴다. 물자가 풍족하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 을 : 올바른 국가에서는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일을 잘 수행하여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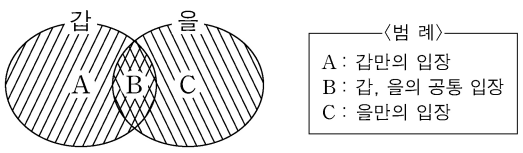
① 갑 : 이상 사회의 사람들은 노동 시간 이외의 여가를 향유한다.
② 갑 : 이상 사회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검소한 삶을 산다.
③ 을 : 이상 사회에서는 좋음의 이데아가 국가 통치의 준거가 된다.
④ 을 : 이상 사회의 각 계층은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룬다.
⑤ 갑, 을 : 이상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노동에 따른 사유 재산을 보장받는다.

14.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 해와 달은 본래부터 밝고, 수목(樹木)은 본래부터 서서 자란다. 자연의 덕을 본받아 행하고, 자연의 도(道)를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애써 인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 을 : 선비[士]가 거처해야 할 곳은 인(仁)이며,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의(義)이다. 인에 거처하고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갖추어진다.

① 언어[言]로 도에 이를 수 있고 인위로 인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② 이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 누구나 따라야 할 도가 존재하는가?
③ 도를 행하면 분별적 지식이 늘어나고 타고난 덕성이 함양되는가?
④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선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⑤ 인의는 인간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禮)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가?

1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공리의 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려 준다. 우리는 공리의 원리를 통해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쾌락을 선택할 수 있다. 을 :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한 행위의 필연성이다. 우리는 행위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다.
(나)	

<보 기>

ㄱ. A : 의무를 동기로 삼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ㄴ. B : 도덕 원리의 의미에는 인간의 평등함이 내포되어 있다.
ㄷ. C :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른 의무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된다.
ㄹ. C : 행위자의 품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갑은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은 중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경전에서 "깨닫기만 하면 된다[一覺了]."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오직 한 마음[一心]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뿐인 본디 맑은 마음이므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 똑같다는 의미이다.
> 을 : 중생은 마음이 미혹되어 자기 자신 밖에서 붓다를 찾는다. 이는 자성(自性)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밖에서 닦지 말고 돈교(頓教)의 이치에 따라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본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

<보 기>

ㄱ.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불성(佛性)이 있다.
ㄷ. 중생도 염불만으로 이상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ㄹ. 깨달은 순간부터 과거 행동의 결과는 모두 사라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선의 이데아에 근거를 둔 절제와 정의는 아름답지만 얻기 힘든 것이다. 반면, 무절제와 불의는 달콤하고 얻기 쉽지만 수치스러운 것이다.
> 을 :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을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며, 인간 본성에 따라 나오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① 갑 : 감각 능력을 키우면 영원불변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갑 :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③ 을 : 지성적 덕과 달리 품성적 덕 중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다.
④ 을 :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알려 주는 품성적 덕이다.
⑤ 갑, 을 :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18.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본연지성은 가리키는 바가 이(理)에 있지 기(氣)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선무악하다. 만일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와 함께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性)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 을 :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결코 두 가지 성(性)이 아니다. 기질 중에서 이(理)만을 가리키면 본연지성이고,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하면 기질지성이다. 성이 이미 하나인데, 정(情)에 어찌 두 근원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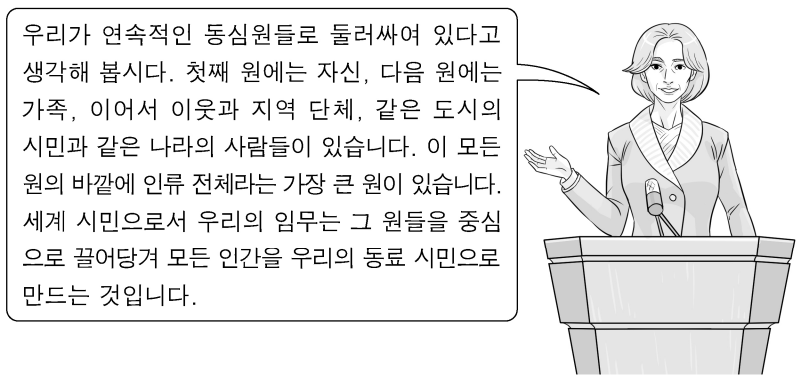
① 갑 : 본연지성은 품부받은 기질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② 갑 : 이와 기는 개념상 구분되지만 그것들의 발현 과정은 서로 다르지 않다.
③ 을 :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
④ 을 : 천리가 기질에 들어와 이루어진 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⑤ 갑, 을 : 이는 기의 근원이므로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다.

19. 갑, 을은 중세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신을 믿는 자는 처음에는 신의 권위를 따르지만, 나중에는 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진리의 빛을 관조할 수 있게 된다.
> 을 : 인간은 감각에서 출발하여 본성적으로 주어진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의 신을 인식할 수 있다.
> 병 :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망은 신앙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① 갑 : 전능한 신은 선의 결핍인 악의 최종적인 존재 근거이다.
② 을 : 도덕적 문제에서는 신의 명령보다 이성의 명령이 우선한다.
③ 병 : 절대자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 결단으로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
④ 갑, 을 : 참된 행복을 위해 신앙뿐 아니라 신의 은총도 필요하다.
⑤ 을, 병 : 이성적 추론과 실존적 자각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② 누구도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③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도덕적 의무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④ 보편적 인류애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 대한 친밀감을 중시해야 한다.
⑤ 어떠한 편견도 타인을 혐오하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자들에게**
>
> **제자들이여! 식(識)이 탐욕을 떠나면 색(色)·수(受)·상(想)·행(行)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매임이 끊어지게 되어 다시는 성장하거나 뻗어나가지 못하게 된단다. 그리하여 식은 행동하지 않고, 그 뒤에는 머무르며, 그 뒤에는 만족할 줄 안단다. 이처럼 해탈하게 되면,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게 되며, 열반을 자각하여 '나의 생은 다하였고 범행(梵行)은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게 된단다. … (후략) ….**

① 탐욕, 성냄, 어리석음[三毒]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② 나와 세계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여덟 가지 바른 수행[八正道]을 통해 불변의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
④ 내세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몸과 입으로 많은 업(業)을 쌓아야 한다.
⑤ 열반의 결과인 무명(無明)에 도달하기 위해 바른 생각에 힘써야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정치적 의사 결정과 제도의 정당성은 단순 다수결 절차를 통해 확보될 수 없다. 그 정당성은 시민들이 상호 간의 대화와 논증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바꿀 수 있어야 확보된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참여자들의 반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 을 : 선출된 의원들은 유권자를 수동적으로 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량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에 대한 경쟁일 뿐이며, 시민의 역할은 선거에서 대표를 택하는 일에 머무른다. 시민은 정치적 영역에서 무책임하고 충동에 빠지기가 쉽다.

<보 기>

ㄱ. 갑 : 대화 참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ㄴ. 갑 : 모든 정책 결정의 과정에 시민이 모두 직접 참여해야 한다.
ㄷ. 을 : 민주주의는 실제로 인민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인의 지배이다.
ㄹ. 갑, 을 : 시민은 항상 합리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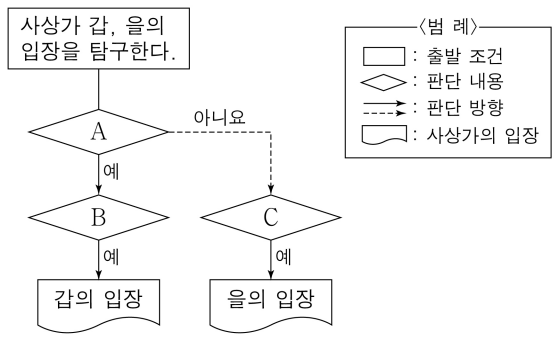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것이요,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 을 : 인간 실존에는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가 있다. 종교적 실존에서 인간은 초월적 신과의 만남을 통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

(나)



<보 기>

ㄱ. A : 보편적 진리는 실존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ㄴ. B : 주체적 결단을 통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ㄷ. C : 절망을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가?
ㄹ. C : 인간은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 입이 맛을 좇고 눈이 색을 좇음은 본성[性]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명(命)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본성이라 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에 인(仁)이 있고 군신 사이에 의(義)가 있음은 모두 명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본성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그것을 명이라 하지 않는다.
> 을 : 사람에게 스승[師]과 법도[法]가 있다면 큰 보배를 가진 것과 같고 그것이 없다면 큰 재앙과 같다.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본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이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積]을 존중하게 된다. 스승과 법도는 노력을 쌓는 데서 얻는 것이지 본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① 군자와 소인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가?
② 인간은 인식 능력 및 실천 능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③ 인간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인과 의의 덕성을 실현해야 하는가?
④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⑤ 소인은 지극히 크고 곧은 도덕적 기운[浩然之氣]을 길러야 하는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인간의 행위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은 점점 상위의 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른다. 이 목적은 최고선이다. 그렇다면 최고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이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 을 :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행복을 향해 전진한다. 그런데 완전한 행복은 인간적 본성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다른 원리가 신에 의해 인간에게 추가되어야 하고, 이 원리를 신학적 덕이라 한다.

① 갑 : 행복이란 자연적 경향성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② 갑 : 덕은 건강과 명예처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③ 을 :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
④ 을 : 인간은 스스로 성취한 덕에 의해 최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⑤ 갑, 을 : 덕은 지식과 일치하고 지식으로서의 덕은 행복과 일치한다.

6.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 : 시비를 명확하게 분별하여 남과 다투지 말아야[不爭] 한다.
② 갑 : 경(敬)의 실천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③ 을 : 만물의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④ 을 : 나라의 규모를 크게 하고 백성의 수를 많게 하여야 한다.
⑤ 갑, 을 :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예법[禮]을 제정해야 한다.

7.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진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을 : 우리가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네 가지 편견이 있다. 그것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다.
> 병 :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① 갑 : 철학의 제1 원리는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이다.
② 을 : 유용한 지식보다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③ 병 : 사회가 아니라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④ 갑, 을 :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⑤ 을, 병 :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을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정의로운 것은 실상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 을 :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① 갑 :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② 갑 :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철학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
③ 을 :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④ 을 :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한다.

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격물(格物)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바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의념[意]이 머무는 곳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서 그 바름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 을 : 격물은 치지(致知)하는 방법이다. 한 사물에서 한 개의 이치[理]를 궁구하면 나의 지식도 한 개를 얻게 되고, 두 사물에서 두 개의 이치를 궁구하면 나의 지식도 두 개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수록 나의 지식도 넓어진다.

① 갑 : 모든 이치는 내 마음과 독립하여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② 갑 :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
③ 을 : 도덕적 앎과 실천은 서로 의존적 관계[相須]임을 자각해야 한다.
④ 을 : 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⑤ 갑, 을 : 격물이란 의념이 머무는 곳[事]을 바로잡는 것[正]이다.

10.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 성에 대해서는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유독 정에 대해서는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는 것인가?
> 을 :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포함하고[兼] 있지 않은 것이지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보 기>

ㄱ.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근거[所以]는 이(理)인가?
ㄴ. 사단과 칠정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도덕 감정인가?
ㄷ. 사단과 칠정은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하는가?
ㄹ.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르는 것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인간은 인상(印象)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성적으로'라는 말은 '자연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하게'라는 뜻이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적 능력이다.
> 을 :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그것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 영원에서 그리고 영원으로 -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이 필연과 동일한 필연으로, 신의 최고의 힘으로부터 무한하게 많은 양태(樣態)의 무한하게 많은 것들이 항상 따라 나올 것이다.

<보 기>

ㄱ. 갑 :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나오는 만족일 뿐이다.
ㄴ. 을 : 자연은 인과적 필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다.
ㄷ. 갑, 을 :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ㄹ. 갑, 을 :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정념의 속박을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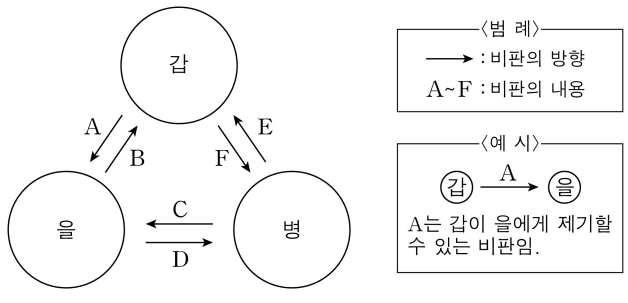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
> 을 :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 병 :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 각자는 신체와 힘을 모두 일반 의지에 맡긴 후 다시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나)



① A :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② B, D :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임을 간과한다.
③ C :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E :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
⑤ F :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13.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왜 일심(一心)이라 부르는가?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은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일(一)이라 하며,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스스로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므로 심(心)이라 한다.
> 을 : 이치[理]에 들어가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은 선정[定]과 지혜[慧]가 아닌 것이 없다. 선정은 자성(自性)의 본체이며 지혜는 자성의 작용으로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① 갑 : 다양한 현상은 마음과 별개로 고정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② 갑 : 모든 종파의 이론들은 하나의 근원에 의해 회통되어야 한다.
③ 을 : 돈오(頓悟)는 습기(習氣)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④ 을 :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을 점수(漸修)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
⑤ 갑, 을 : 무아(無我)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

1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자유는 시민적 자유 내지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는 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권력이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 을 : 자유는 자의적 지배 권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 국가와 동료 시민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 진정한 애국이다.

<보 기>

ㄱ. 갑 :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유를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ㄷ. 을 : 자신이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애국이다.
ㄹ. 갑, 을 : 자유를 실현하려면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서양 물건은 기괴한 기술과 교묘함으로 마음을 타락시키므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인(洋人)으로 인해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재물이 고갈되어 나라꼴이 아니고, 예의를 지키던 자들이 재물에만 몰려 금수로 타락해 간다.
> 을 : 마음이란 내게 있는 본연의 한울[天]이니 본래 한마음이다. 마음은 선천과 후천의 마음이 있고, 기운 또한 선천과 후천의 기운이 있다. 천지의 마음은 신령하고, 천지의 기운은 천지에 가득 차 있으며 우주에 뻗쳐 있다.

① 갑 : 성리학적 질서와 서양의 기술[西器]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② 갑 : 서양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충족해야 한다.
③ 을 : 새 세상이 현세에 도래할 것[後天開闢]이니 준비해야 한다.
④ 을 : 무궁한 한울의 마음과 유한한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르다.
⑤ 갑, 을 : 유교의 인륜을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를 통합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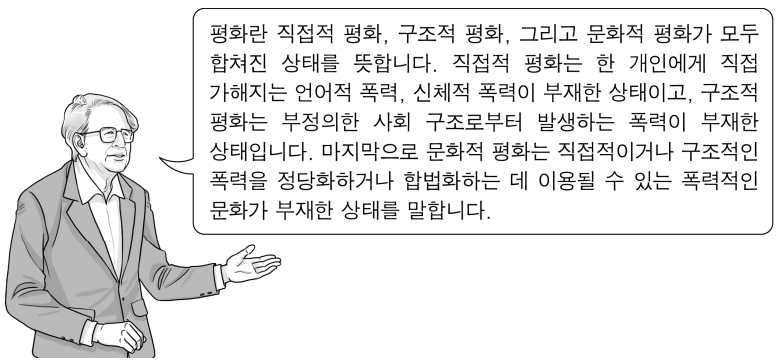
> ○ 사람이 태아로 있을 때 하늘이 그에게 영명(靈明)하며 무형(無形)한 체(體)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이것을 성(性)이라 말한다.
> ○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덕을 좋아하는 감정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 이 성은 비록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근본은 하늘의 명령[天命]이다.

<보 기>

ㄱ. 인간은 사덕(四德)을 실천함으로써 사단을 이룰 수 있다.
ㄴ. 인간은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의 본성도 지니고 있다.
ㄷ.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통해 자유 의지[自主之權]를 형성한다.
ㄹ. 인간의 선행은 자신의 공적이 되고, 악행은 자신의 죄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직접적 폭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다.
②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③ 평화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④ 테러나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이다.
⑤ 직접적 · 구조적 · 문화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이에 반해 자의(恣意)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도덕성 원리에 맞서 있다.
> 을 :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도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중 어떤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

<보 기>

ㄱ. 갑 :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ㄴ. 을 :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다.
ㄷ. 을 :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쾌락을 선호한다.
ㄹ. 갑, 을 :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어떤 살인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악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라. 이때 당신은 어떤 정념, 동기, 의욕, 생각만을 발견할 뿐, 다른 사실은 없다. 당신이 그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 그 악덕은 당신을 피해 달아난다. 당신이 고찰의 방향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한 부인(否認)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는 당신은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① 덕은 모든 관찰자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② 덕은 직접 경험될 수 있고 이성으로도 발견될 수 있다.
③ 덕에 대한 식별은 이성에, 덕의 실천은 감정에 의존한다.
④ 덕은 성품에 관한 특성이 아니라 사물에 내재하는 속성이다.
⑤ 덕은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악덕과 구별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정부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철회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꽃피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이 개선되어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
> 을 : 정부는 조세 체계와 이자율의 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불황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는 완전 고용을 위해 투자의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 정부는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ㄴ. 을 : 정부는 시장의 조절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ㄷ. 을 :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ㄹ. 갑, 을 :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님께
>
>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도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약국의 처방전처럼 적용해야 할 하나의 규칙도 아닙니다. 도덕은 지성적 탐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적인 성과보다는 개선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①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 운명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② 변하지 않는 자연법에만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③ 공동체의 전통적인 가치와 관행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
④ 삶의 현실과 무관하게 초월적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⑤ 지성적 탐구로 삶을 개선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과연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짝을 얻지 못함을 일러 도(道)의 중심축[樞]이라고 한다. 문의 중심축만이 고리의 가운데 걸려 무궁한 변화에 응대한다. 그러므로 옳게 여기는 것도, 그르게 여기는 것도 무궁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살피는 것이 가장 좋다.

① 감각과 마음으로 참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②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인간은 만물과 하나이므로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하다.
④ 도에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덕은 자연스럽게 함양된다.
⑤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는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이 바른 관찰이다. 바르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을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解脫)이라고 한다.

① 올바른 수행을 위해 계율, 선정, 지혜를 모두 없애야 한다.
② 중생의 삶이 고통은 아님을 분별적 인식으로 깨달아야 한다.
③ 오온(五蘊)이 무상함을 깨달아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변치 않는 실체가 존재함을 관찰해야 한다.
⑤ 연기의 원리에 따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순임금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스린 분이다. 자신을 공손히 하고, 현능(賢能)한 이들에게 국정을 맡겼을 뿐이다. 덕으로 다스림은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지만 뭇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
> 을 : 임금이 무위(無爲)하면 만물은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성인(聖人)은 고정적인 마음이 없고, 오직 세상을 위해 마음을 비우기에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백성을 아이처럼 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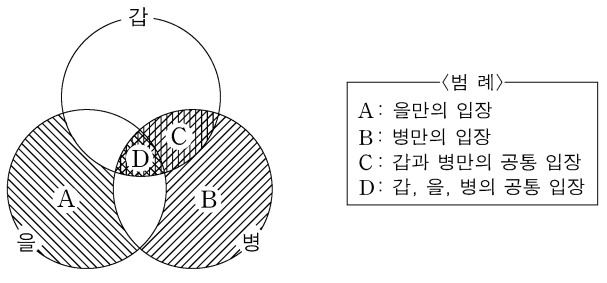
① 갑 :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없이 사랑해야 한다.
② 갑 : 백성이 악행을 부끄러워하도록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③ 을 : 백성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을 : 백성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⑤ 갑, 을 : 백성의 생명을 중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이끌어야 한다.

5.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양이(洋夷)의 재앙이 오늘날 홍수나 맹수의 재앙보다 심합니다. 안으로는 사학(邪學)의 무리를 벌하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온 도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 을 : 동양인은 형이상에 밝아 도(道)가 뛰어나고, 서양인은 형이하에 밝아 기(器)가 최고이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세계를 평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 병 : 시(侍)는 세상 사람들이 안으로 한울님의 신령한 마음을 보존하고 밖으로 한울님의 기운과 하나 되어 변치 않는 것이요, 주(主)는 한울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나)



<보 기>

ㄱ. A :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며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ㄴ. B :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기며 후천 개벽을 지향해야 한다.
ㄷ. C :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양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
ㄹ. D :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신분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각자의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가 고려되는 일정 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의 일곱 가지 조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 을 :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상위 형태의 쾌락은 지성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 도덕적 정서의 쾌락으로 단순 감각 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① 갑 : 도덕 원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
② 갑 : 이해당사자들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할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 을 :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을 :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있다.
⑤ 갑, 을 :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이타심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속한다.

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어떤 정념의 충동에 맞서는 것은 그 반대의 또 다른 정념일 뿐 이성이 될 수 없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한 노예로 남아 있어야 하고,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일 말고 그 어떤 다른 일도 맡을 수 없다.
> 을 : 선의지는 자신의 최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오직 그 자신 혼자만이 남는다 하더라도,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빛날 것이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갑 : 경험과 관찰의 방법은 도덕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갑 :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다.
③ 을 : 도덕 법칙은 필연적 명령이므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을 : 그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욕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 행위의 도덕성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

8.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비록 근기[根]가 낮은 중생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頓教]을 듣고 밖에서 닦는 것을 믿지 않으며, 오직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게 하면 모두 다 당장에 깨닫게 된다.
> 을 :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따라 수양하여 차츰 공(功)이 이루어지면 오랜 동안을 거쳐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다.

① 갑 :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박에 깨우쳐야 한다.
② 갑 : 참선을 통해 내 마음에 불성이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③ 을 : 누구나 깨닫는 찰나에 습기와 번뇌는 일시에 제거된다.
④ 을 : 마음의 작용[慧]을 마음의 본체[定]보다 항상 먼저 닦아야 한다.
⑤ 갑, 을 : 중생의 구제가 아니라 개인의 수행에만 정진해야 한다.

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치지(致知)와 역행(力行) 중 어느 한쪽에만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을 구분해야 한다면 선후를 논할 때는 치지를, 경중을 논할 때는 역행을 중시해야 한다.
> 을 : 누군가 효도와 공경을 안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효도와 공경을 실천한 적이 있어야 한다. 단지 말만 한다고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지(知)와 행(行)은 본래 하나이다.

<보 기>

ㄱ.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ㄴ.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 속의 앎[知]이 확충된다.
ㄷ. 격물과 치지 모두 천리(天理)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법이다.
ㄹ.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인간은 모두 선한 본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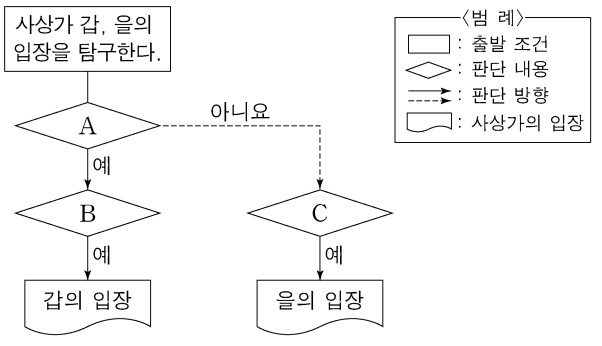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사려 깊고 고귀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덕들은 즐거운 삶의 안으로 자연적으로 들어오며, 즐거운 삶은 덕들과 분리될 수 없다.
> 을 :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덕한 삶이자 강물같이 순조롭게 흐르는 행복한 삶이다.

(나)



<보 기>

ㄱ. A :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ㄴ. B :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한가?
ㄷ. C :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ㄹ. C :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인간의 삶이 덕 있는 삶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고대 중국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사람의 성(性)이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여 양보란 것이 없게 된다.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미워하고 시기함이 있다. 이를 그대로 두면 폭력과 잔혹함이 생겨난다.
> 을 : 사람의 본성을 논하건대, 사람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은 뿌듯하게 기쁘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마음은 위축되어 풀이 죽는다.

① 갑 : 예(禮)는 내면의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외적 규범이다.
② 갑 :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는 인(仁)과 의(義)가 있다.
③ 을 : 자주지권(自主之權)은 인간의 타고난 사덕(四德)에 기초한다.
④ 을 : 형구(形軀)의 기호에 따라 행하면 선하기 어렵고 악하기 쉽다.
⑤ 갑, 을 : 금욕적 수양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1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존재하고 나타난다.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인간 본성이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만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 을 :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오직 혼자의 힘으로 절망을 제거하려 하면,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질 뿐이다. 자신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릴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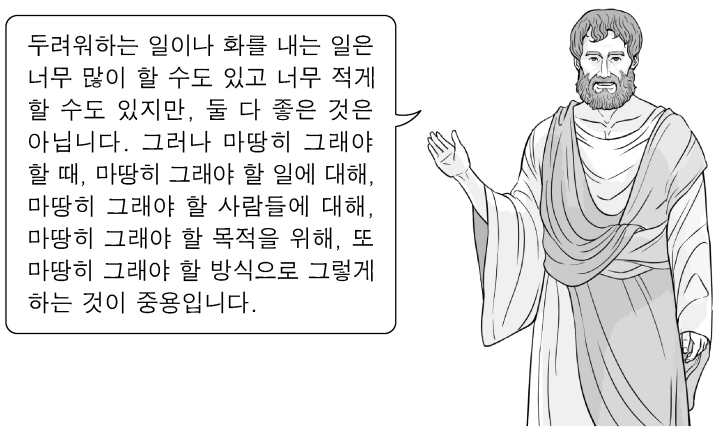
① 갑 :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② 갑 : 인간이 아닌 사물도 정해진 목적이 없이 먼저 실존한다.
③ 을 :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도 참된 실존에 이르지는 못한다.
④ 을 : 실존적 상황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⑤ 갑, 을 :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을 요청해야 한다.

13.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말을 타고 문을 나갈 때,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도덕적 마음이 지도하는 것과 같고, 사람이 말에게 행로를 믿고 맡기는 것은 욕구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오직 기가 발하여 이가 탈 뿐이다.
> 을 :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는다. 사람이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이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다. 사단과 칠정의 구분은 각각 사람과 말을 위주[主]로 말한 것과 같다.

① 도덕 감정은 일반 감정의 일부가 아님을 간과한다.
② 어떤 감정도 이가 직접 발한 것일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③ 도덕 실천은 경건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천지 만물의 성(性)은 이가 기에 들어와 형성됨을 간과한다.
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지만 섞이지도 않음을 간과한다.

14. 그림의 강연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중용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적절히 완화된 품성적 덕이다.
② 중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품성적 덕이다.
③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춰야 할 품성적 덕이다.
④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품성적 덕이다.
⑤ 중용은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계발된 품성적 덕이다.

15.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신 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각각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운동의 원인 소급은 무한할 수 없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제1원동자, 즉 신은 존재해야 한다.
> 을 : 실체는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자신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다. 신을 제외한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 그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① 갑 :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② 갑 :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는 신앙과 조화될 수 없다.
③ 을 : 신은 세계의 필연적 원인으로서 세계의 바깥에 있다.
④ 을 : 신은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한 인격적 존재이다.
⑤ 갑, 을 : 신에 대한 지적 추론만으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실업이나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며,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 을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에게는 가난을 제공할 뿐이다. 낡은 부르주아 사회를 전복하여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보 기>

ㄱ. 갑 :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 자본주의에서 노동에 의한 모든 생산물은 노동자가 소유한다.
ㄷ. 을 : 공산 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계급은 소멸되어야 한다.
ㄹ. 갑, 을 :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 사유재산제를 폐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에서 서로의 입장과 정책을 토의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고, 숙고와 심의를 통해 각자의 선호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을 :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시민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가의 지배를 의미한다. 시민의 역할은 단지 그들을 지배할 대표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갖는 것에 머무른다.

① 갑 : 정책 결정의 정당성은 심의가 아닌 다수결로 보장된다.
② 갑 : 공정한 토론을 위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는 배제해야 한다.
③ 을 : 유권자는 선거 이외에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④ 을 : 민주주의는 정치가들의 권력 획득 경쟁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⑤ 갑, 을 : 정치가와 일반 시민의 정치적 판단 능력은 차이가 없다.

18.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플라톤에 대한 독서가 진리를 찾도록 나를 고무시켰을 때, 천상의 나라에 계신 당신에 관한 비가시적 사실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어떤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자신과 동일한 자로서 존재합니다.
> 을 : 우리는 사슬에 묶여 앞 벽면만 바라보는 동굴 속 죄수와 같다. 죄수들 뒤에 담장이 있고, 담장 위에는 동물 모형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모형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사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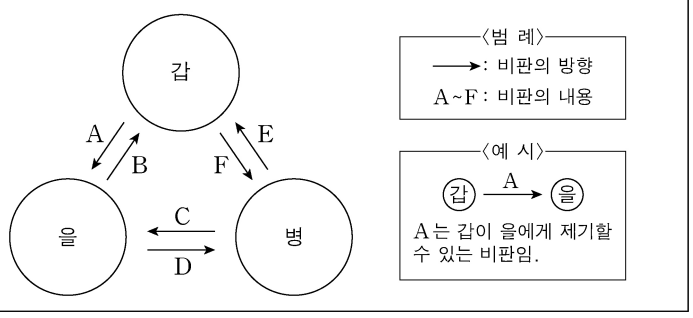
① 갑 :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다.
② 갑 : 인간이 쌓은 덕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③ 을 :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
④ 을 :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할 덕과 국가를 지배해야 할 덕은 같다.
⑤ 갑, 을 :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따르는 무제한의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초래한다.
> 을 :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둔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시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 병 :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는 신탁을 한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

(나)



① A, F : 자연 상태의 인간이 이기적 존재는 아님을 간과한다.
② B : 시민이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보유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간과한다.
④ D :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E :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애국심은 동료 시민을 향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다. 이는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애국심은 보편적 사랑이 아닌 특정 공화국과 시민들에 대한 애착과 태도이다.
> 을 : 애국심이 동일한 과거와 문화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적 전통에 근거한다면, 상이한 소수집단을 배척하는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국심의 근거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서 찾아야 한다.

① 갑 : 애국심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국민적 감정이다.
② 갑 : 애국심은 법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열정이다.
③ 을 : 애국심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할 시민적 책무이다.
④ 을 : 애국심은 민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⑤ 갑, 을 : 애국심은 국가의 역사를 공유하는 연대감에서 비롯된 덕성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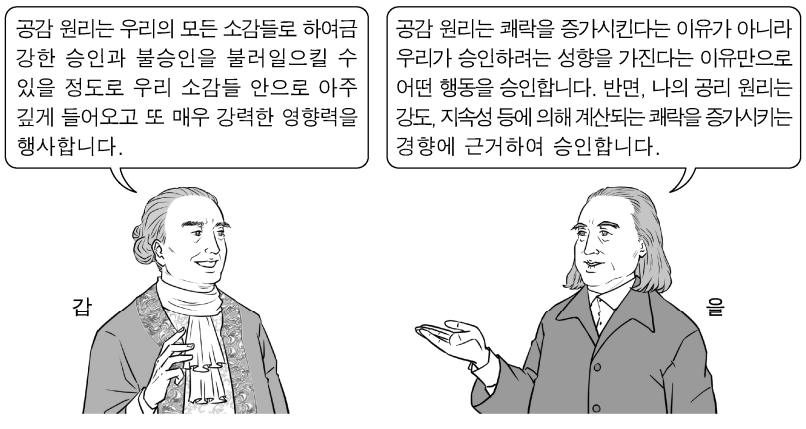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 학생들에게**
>
> **학생 여러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길러 나가야 합니다. 호연지기란 지극히 크고 강한 기개인데, 올곧음으로써 기른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되지요. 그 기개의 됨됨이는 의(義)와 도(道)가 없으면 위축되고 맙니다. 그러니 호연지기를 함양하려면 의와 도에 맞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귀를 누려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빈천(貧賤)에 시달려도 의지가 변함이 없으며, 위세와 무력 앞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①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선천적 본성을 변화시켜야[化性起僞] 한다.
②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계(戒), 정(定), 혜(慧)를 습관화해야 한다.
③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경지[逍遙]에 도달해야 한다.
④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옳은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集義] 한다.
⑤ 친소(親疏)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兼愛] 한다.

2.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 선악 구별은 행위에 적용될 뿐 성품에 적용될 수 없다.
② 갑: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다.
③ 을: 쾌락은 행위의 목적일 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④ 을: 쾌락의 증가는 선이지만 고통의 감소는 선이 아니다.
⑤ 갑, 을: 공감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이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삶이 즐거우려면 우리의 정신에서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몰아내야 한다.
> 을: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최대 행복 원리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갑: 즐거운 삶을 위해 이성적인 숙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갑: 신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린다.
③ 을: 고상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감각 이외의 능력도 필요하다.
④ 을: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⑤ 갑, 을: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열반이란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이 멸하여 모든 번뇌가 영원히 멸한 것이다. 열반을 얻는 도(道)가 곧 팔정도(八正道)이니 닦고 익히며 또 닦고 익혀야 한다.
> 을: 지인(至人)은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의 세계에 노니는[遊] 자이다. 그러므로 세상일을 따라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① 갑: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② 갑: 열반에 이르러도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③ 을: 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만물에 내재하지 않는다.
④ 을: 만물은 본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우열이 있다.
⑤ 갑, 을: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양이 필요하다.

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영명(靈明)뿐이다. 사랑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으며 예의 바를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인간이 타고난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네 가지 알맹이를 인간의 본성 속에 부여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반드시 일을 행한[行事] 이후에 성립한다.

① 사덕(四德)은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도덕 법칙이다.
② 자주지권(自主之權)은 스스로 선(善)을 실천해야 생기는 권능이다.
③ 사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영지(靈知)의 기호이다.
④ 인간은 선한 기호의 본성과 악한 기호의 본성을 함께 타고난다.
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한 마음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도(道)에 들어가는 방법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뿐이다. 돈오돈수(頓悟頓修)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도 과거 여러 생애에 걸쳐 돈오한 이후에 점수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 을 : 수행 방법이 많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갈 때에는 일심(一心)의 진여문(眞如門)에 의하여 지행(止行)을 닦고 생멸문(生滅門)에 의하여 관행(觀行)을 일으킨다. 둘을 함께 운용하면 모든 실천 수행이 여기에 갖추어지게 된다.

① 갑 : 자신의 불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에도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② 갑 : 정(定)을 닦고 혜(慧)를 나중에 닦아야 습기(習氣)가 사라진다.
③ 을 : 일심에서 보면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은 그 근본이 다르다.
④ 을 :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본래 다르지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⑤ 갑, 을 : 마음 밖의 진리를 찾아 깨우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7.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爲者]은 실패하고, 움켜잡는 사람은 잃는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아무것도 함이 없으므로[無爲] 실패함이 없고, 움켜잡음이 없으니 잃음이 없다.
> 을 : 그릇은 옹기장이의 작위[僞]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의(禮義)는 성인의 작위로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① 인격 수양을 위해 후천적 노력이 필요한가?
② 하늘[天]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③ 사람의 귀천과 상하를 구분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④ 성인은 예의를 제정하여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⑤ 이상적인 통치는 백성의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지향하는가?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따라 제시된 논증은, 세계를 인간의 사유에 예속시키고, 인간의 사유를 언어에 예속시킬 뿐이다. 그릇된 논증은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 을 :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철학의 제1원리이다.

① 갑 : 자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② 갑 : 우상 타파를 위해 채택해야 할 학문의 방법은 연역법이다.
③ 을 :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하려 해서는 안 된다.
④ 을 :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갑, 을 :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9.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피리 연주자 같은 기술자의 좋음은 그가 행하는 기능에 있다. 손, 발, 눈 같은 자연적 기관들의 좋음도, 동식물 같은 자연적 존재들의 좋음도 각각의 기능에 있다. 한 사물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 주는 탁월성을 갖추는 것, 그리고 실제로 잘 수행하는 것이 그 사물의 목적이다. 각 기술적 행위나 자연적 기관들에 목적이 있듯, 인간이든 국가든 각각의 존재에는 고유한 목적이 깃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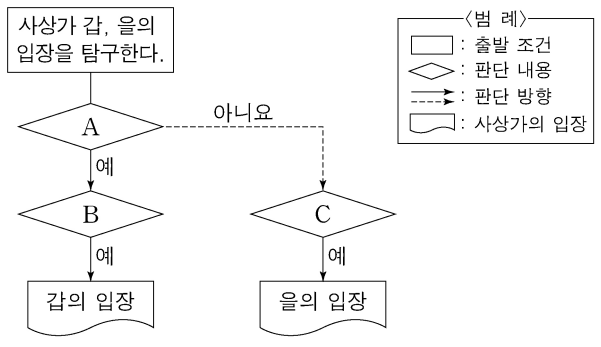
<보 기>
ㄱ. 좋은 삶은 개인과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ㄴ.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ㄷ. 좋음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 선택되지 않는다.
ㄹ. 사물의 좋음과 목적을 알려면 그 사물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서 그 본체가 되는 것이 성(性)이고 그 작용이 되는 것이 정(情)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 을 : 마음에는 모든 이치[理]가 갖추어져 있어서 만사(萬事)가 여기에서 나온다. 마음 밖에 이치는 없고, 마음 밖에 사(事)는 없다.

(나)



<보 기>
ㄱ. A :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일이 격물(格物)인가?
ㄴ. B : 인간 모두가 지닌 천리로서의 본성[本然之性]은 선한가?
ㄷ. B : 마음 밖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는 이(理)를 궁구해야 하는가?
ㄹ. C : 치지(致知)를 위해서는 사욕[人欲]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신은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이자, 인간의 최고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따라 나온다. 즉,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기 때문에, 좋은 삶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 을 :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인 궁극적 행복이다. 자연적 욕구가 안식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최종 목적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적 욕구를 잠재우는 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그 외의 지적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① 갑 : 도덕적 선과 악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에게 있다.
② 갑 :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는 결코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
③ 을 :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은 서로 모순된다.
④ 을 :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다.
⑤ 갑, 을 :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지복(至福)이 완성된다.

12.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정(情)에는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 일곱 가지가 있을 뿐이다. 사단이란 선(善)한 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니, 칠정을 말하면 사단은 그 안에 들어 있다.
> 을 : 칠정과 기(氣)와의 관계는 사단과 이(理)와의 관계와 같다. 칠정과 사단이 발현하는 데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기와 이로 분류하여 소속시킬 수 있다.

① 사단과 칠정의 발생 근원이 각각 따로 있음을 간과한다.
②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이 발현한 정(情)임을 간과한다.
③ 사단은 순선하지만 칠정은 악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관계임을 간과한다.
⑤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으며 기만 스스로 작용함을 간과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국가는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자, 즉 최고 권력자가 진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은 한데 합쳐져야만 한다.

① 각 계층이 각자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이 정의이다.
②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이 허용되는 계층이 있다.
③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 모두에게 공통된 덕이 있다.
④ 국가 전체의 좋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⑤ 절제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상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14.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
> 을 : 인간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나)

① A :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A :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③ B :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④ C :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
⑤ C :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

1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의복·식용(食用)·기용(器用)에 양물(洋物)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찾아내어 궁궐의 뜰에 모아 태워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극히 올바른 우리의 도(道)를 밝혀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와 윤리를 넓혀 나가야 한다.
> 을 : 오랑캐 땅에서도 효제충신의 도는 해와 별처럼 빛나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바뀔 수 없는 도와 바뀔 수 있는 기(器)는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도를 잘 시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도 매우 쉬울 것이다.

<보 기>

ㄱ. 갑 : 화친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충효의 도의를 지켜야 한다.
ㄴ. 을 : 서양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고 외국과 화합해야 한다.
ㄷ. 갑, 을 : 서양의 종교와 도덕으로 유학 정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 만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신분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 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 도덕 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 참된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

①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②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
③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④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인간의 정신은 어떤 것을 의지하도록 이미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 원인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렇게 무한히 진행된다. 신, 즉 자연만이 자기 원인이다.
> 을 : 결정론으로 자신의 자유를 숨기려는 자는 비겁한 자이며, 자신의 실존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었다고 증명하려는 자는 불순하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① 갑 : 모든 일의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갑 :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초월적 원인이다.
③ 을 : 실존이 자신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④ 을 : 인간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 인간은 필연성에서 벗어나 행위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다.

18.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와 간섭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가 충돌할 때,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공화국의 핵심이다. 공화국의 공공선은 지배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것을 의미한다.
> 을 : 자유라는 것은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과 관련된다. 이것은 통제나 간섭의 근원을 묻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와 구분된다.

<보 기>

ㄱ. 갑 :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ㄴ. 갑 : 자유는 천부의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ㄷ. 을 : 선한 의도를 가진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ㄹ. 갑, 을 : 국가의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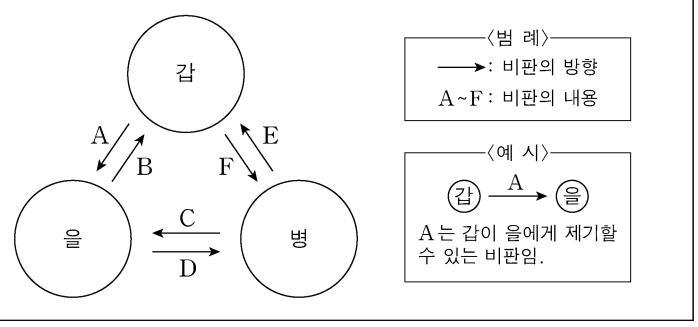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갑 : 경쟁은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를 노예의 길로 안내할 뿐이다.
> 을 : 경쟁에 내맡기면 최선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은 지나친 낙관이다. 이것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병 : 경쟁 대신 연합이 필요하다.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서는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① A :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④ D, F : 자본주의에서도 인간의 자유 실현이 가능함을 간과한다.
⑤ E :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인해 인간은 노예로 전락함을 간과한다.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우리 아테네의 통치 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모범이 되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불리는데, 권력이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 을 :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지지 근거들을 논의한다. 여기서 필요한 공적 이성은 기본적 정의에 관련된 시민들의 숙고와 심의를 특징짓는 능력이다.

① 갑 : 시민은 주권자이지만 공직을 직접 담당할 권한은 없다.
② 갑 : 시민의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정치적 발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을 : 심의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④ 을 :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심의의 절차보다 결론의 내용에 달려 있다.
⑤ 갑, 을 : 정치 참여 권한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님께
>
>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즉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
> **… (중략) …**
>
>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과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즉 이성(logos)을 따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②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과의 합일을 지향해야 한다.
③ 공리의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④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므로 객관적 진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 부르며, 다른 어떤 것은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요, 온화라든가 절제는 도덕적인 덕이다.
> 을 :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보 기>

ㄱ. 갑 :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 갑 :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ㄷ. 을 :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ㄹ. 갑, 을 :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 그림은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 : 사욕을 제거하여 행위 주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② 갑 : 성인(聖人)은 백성과 달리 불변하는 본성인 양지를 지닌다.
③ 을 : 격물(格物)은 이치를 궁구하여 본연지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④ 을 :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에 앎[知]이 실천[行]보다 중요하다.
⑤ 갑, 을 :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無明)을 조건[緣]으로 행(行)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識)이 있으며 식을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名色]이 있고 … (중략) … 생(生)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있다. 이와 같이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① 영원한 본성을 가진 자아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② 무상(無常)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인연(因緣)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현상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④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존재만이 고정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⑤ 인간은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제1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①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는 이유에서 가변적이다.
②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③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
④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현세에서만 가능하다.
⑤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법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이(理)는 기(氣)를 주재하는 장수와 같으며, 기는 이의 주재를 받는 졸병과 같다. 사단(四端)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며,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
> 을 :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는 것과 이와 기를 아울러 말하는 것의 차이에 기인한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6.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 : 이는 순선하기에 기가 따르지 않아도 사단으로 드러난다.
ㄴ. 갑 : 사단은 선한 이치[理]이고 칠정은 선악이 섞인 감정이다.
ㄷ. 을 :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은 동일한 연원에서 유래한다.
ㄹ. 갑, 을 : 마음과 몸을 주재하는 공부로서 경(敬)을 실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하늘[天]이 나에게 성(性)을 부여할 때 선(善)을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사람의 성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함은 마치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하늘이 이 성을 부여하였으니, 온갖 탐욕과 음란과 학살을 행하더라도 이 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① 사덕(四德)은 성에 내재한 사단을 파악하는 단서임을 간과한다.
② 사덕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③ 형구(形軀)의 기호가 천부적으로 사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④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⑤ 영지(靈知)의 기호를 지닌 인간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8.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고 바로 최상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법(法)에는 단박에 깨달음만 있을 뿐 점차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 을 : 자기의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렵다. 얼음 연못이 전부 물인 것을 알지만 볕의 기운을 빌려야 녹여지는 것처럼 깨달음을 바탕으로 훈습(薰習)하고 닦아야 한다.

① 갑 : 경전 공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본성의 자각에 이를 수 없다.
② 갑 : 마음의 직관을 통해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을 : 마음이 아닌 오직 말과 글로만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
④ 을 : 오랫동안 쌓아 온 습기를 제거한 후에만 단박에 깨칠 수 있다.
⑤ 갑, 을 : 선정[定]과 지혜[慧]를 통해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 을 : 조건부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있다. 예를 들면, 약속한 자와 약속받은 자,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조건부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 의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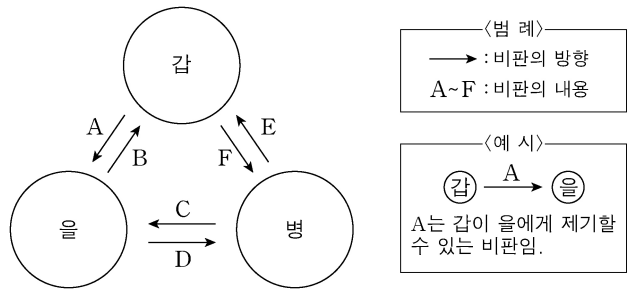
① 갑 :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② 갑 :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자율적이다.
③ 을 :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실제 의무가 된다.
④ 을 :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불변한다.
⑤ 갑, 을 : 인간이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가 존재한다.

10.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갑 : 강화(講和)가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종교가 들어올 것이고,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둔다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들은 금수가 될 것이니 사학을 배척해야[斥邪] 한다.
> 을 :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고[守心正氣]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
> 병 : 동양의 삼강과 오상, 효제충신은 오랑캐의 땅에서도 버릴 수 없는 도(道)이다. 예악과 형정, 복식과 기용은 수시로 변하는 기(器)이므로 서양의 것이라도 백성에게 이롭다면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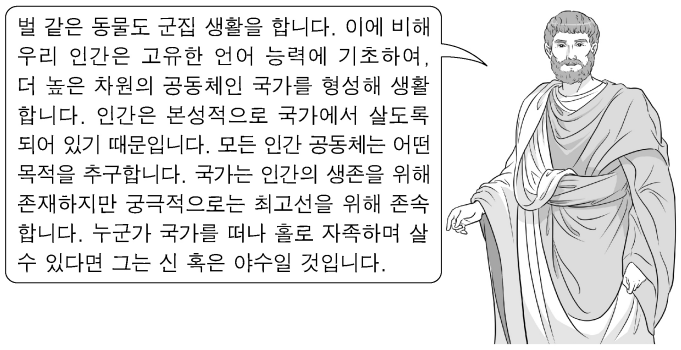
(나)



① A : 만민 평등사상을 고취하여 외세에 대응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D : 고유 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유교적 가치를 배척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닫고 새 세상을 열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E : 서양의 정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 성리학적 가치와 서양의 기술은 조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 공동체들 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
②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③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은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
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본성이 없지만 행복의 실현을 위해 국가를 결성한다.

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왕자(王者)가 되려면 예(禮)를 높이고 현자(賢者)를 존중해야 한다. 신뢰를 받으면 패자(覇者)가 되며,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위태로워진다. 성왕이 제정한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면[禮治] 조화롭게 살 수 있다.
> 을 : 왕도(王道)는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교육에 힘써 효제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들이 거리에서 짐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①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②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③ 통치자는 하늘이 부여한 예로써 백성을 교화시켜야 하는가?
④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도덕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성(性)에 부합하는가?

1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 을 :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이 좌망(坐忘)이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① 갑은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仁] 본다.
② 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常道]라고 본다.
③ 을은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인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늘이 정해 준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차감한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을 :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 기>

ㄱ.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ㄴ.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니다.
ㄷ. 교양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
ㄹ.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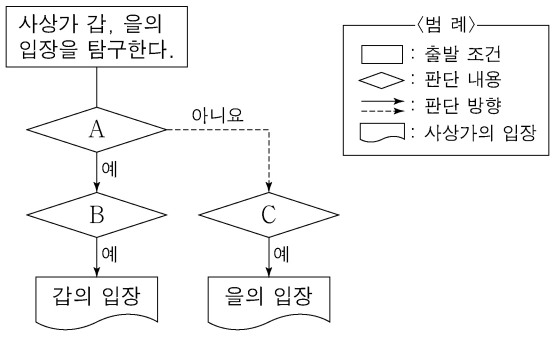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 갑 : 어떤 개념이나 원칙을 근거로 삼아 불가침의 영역을 확보하든지 간에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내 활동이 간섭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의 핵심이다.
> 을 : 노예의 주인이 관대한 사람이더라도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와 노예 상태를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닌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나)



<보 기>

ㄱ. A : 간섭받지 않을 영역과 자유의 영역은 비례하는가?
ㄴ. A :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ㄷ. B : '~로부터의 자유'는 '~할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가?
ㄹ. C :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法治)가 필요한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이상 국가의 세 계층은 역할에 적합한 덕을 가지며,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혜를 갖춘 철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세 계층은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 을 : 이상 국가인 유토피아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계를 걱정할 일이 없다. 유토피아는 사치, 허영, 타락이 없으며 시민들은 덕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① 갑 : 방위자와 생산자는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② 갑 : 통치자는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
③ 을 : 이상 국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평등을 보장한다.
④ 을 : 이상 국가의 시민은 노동하지 않고 교육과 학문에 집중한다.
⑤ 갑, 을 : 이상 국가에서는 일부 구성원의 사유 재산이 허용된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모든 것은 신, 즉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 을 : 이성은 인간이 야수보다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지만,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 하며, 감정에게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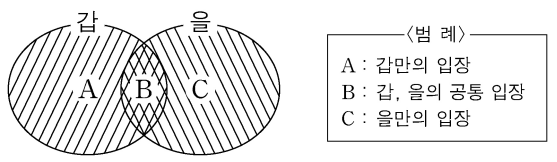
① 갑 :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② 갑 : 신과 달리 인간은 필연적인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을 :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객관적 실재이다.
④ 을 : 이성은 선악 구별의 원천일 뿐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⑤ 갑, 을 :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이성이라기보다 감정이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노동은 본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을 한낱 생존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노동자는 상품만 생산하지 않고 노동자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 을 : 인간은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없다. 타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self-love)에 대한 설득이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푸줏간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 때문이다.

① 갑 :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② 갑 :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상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③ 을 :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④ 을 : 시장 경제 원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갑, 을 : 사적 소유제로 인간 사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사회 계약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 을 : 사회 계약의 목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한다.
(나)	

<보 기>

ㄱ. A :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ㄴ. B :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ㄷ. B :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이다.
ㄹ. C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하고, 절망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절망의 공식이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체적 결단을 통해 무한한 실재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 을 :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말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다.

<보 기>

ㄱ. 갑 : 인간은 신의 존재 없이도 진정한 실존을 찾을 수 있다.
ㄴ. 을 : 인간의 본질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ㄷ. 을 : 인간은 자유를 선택할 때에만 비로소 자유를 부여받게 된다.
ㄹ. 갑, 을 : 인간의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움[義]을 쌓아야 한다.
②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③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인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
④ 연기(緣起)의 원리를 깨달아 뭇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⑤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앎[知]과 실천[行] 공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이는 사람의 두 발이 서로 앞뒤로 번갈아 내디뎌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한쪽 발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 을: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 앎과 실천에 대한 옛사람의 말은 모두 앎 또는 실천 중 어느 한쪽의 공부에 치우침을 보충하고 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두 가지 공부로 분명하게 나누는 것과는 다르다.

① 갑: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야 한다.
② 갑: 앎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하되 선후와 경중(輕重)은 가려야 한다.
③ 을: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
④ 을: 부모를 섬길 때 효의 이치[理]를 부모에게서 구해야 한다.
⑤ 갑과 을: 도덕적 본성[天理]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많은 아름다운 것은 가시적(可視的)이지만 가지적(可知的)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이데아는 가지적이지만 가시적이지는 않다.
> 을: 이성을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에 인간의 최고 행복, 즉 지복(至福)이 놓여 있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 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① 갑: 욕망의 작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② 갑: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③ 을: 자기 보존 욕망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성이 해야 할 역할이다.
④ 을: 자연은 무한한 실체이고 자연 안의 사물들은 유한한 실체이다.
⑤ 갑과 을: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 원인이 있다.

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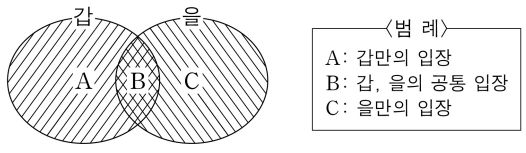
> 갑: 우리의 도(道)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옛적에도 듣지 못하던 가르침이다. 수도(修道)하는 사람은 수심정기(守心正氣)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지켜야 한다.
> 을: 우리는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천주(天主)를 모시고 있다.
ㄴ. 갑: 개벽(開闢)을 앞당기려면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ㄷ. 을: 생활 속에서 평등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인간 존중의 윤리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연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는 삶이다. 보편적인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성이고, 이성은 신과 동일한 것이다. 을: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그가 행해야 할 행위와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나)	

<보 기>

ㄱ. A: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ㄴ. B: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ㄷ. B: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
ㄹ. C: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도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귀한 손님이 대문 앞에 왔을 때 공경하면서도 마중을 나가지 않는다면, 그 공경하는 마음만으로는 예(禮)라 할 수 없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시비(是非)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그 부당하다고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지(智)라 할 수 없다.

① 영지(靈知)의 기호(嗜好)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 부여된 본성이다.
② 인간의 본성을 이치가 아닌 기호(嗜好)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③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를 교정하여 의(義)를 형성해야 한다.
④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을 실천하여 선천적인 성(性)으로서의 예(禮)와 지(智)를 회복해야 한다.
⑤ 인간은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행의 공적은 그 행위자에게 주어질 수 없다.

7.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제도[政]로 인도하고 형벌[刑]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될 것이다.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 을 :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천하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다스릴 수 있다.
> 병 : 예의(禮義)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예는 본성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이며,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펴는 길이며,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① 갑: 군주는 덕에 의한 통치보다 형벌에 의한 통치를 중시해야 한다.
② 을: 왕도 정치를 하려면 사직(社稷)을 백성보다 중시해야 한다.
③ 병 : 외면적 규범인 예(禮)를 통해 인간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④ 갑과 을: 군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저버려도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
⑤ 을과 병 :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려면 사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는 모든 성인(聖人)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은 먼저 깨치고[先悟] 뒤에 닦아 나아갔고[後修], 그 닦음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다[證].
> ○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망념(妄念)은 본래 없고 심성(心性)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먼저 돈오했기 때문에, 악을 끊되 끊었다는 생각이 없고 선을 닦되 선을 닦는다는 생각이 없으니, 이러한 닦음이 참다운 닦음[眞修]이다.

① 마음의 본체가 정(定)이고 마음의 작용이 혜(慧)이다.
② 정혜쌍수(定慧雙修)는 돈오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이다.
③ 참다운 닦음이 되기 위해서는 돈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돈오 이후에도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⑤ 돈오란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임을 단박에 깨치는 것이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척도이다.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
> 을 : 사람들이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보 기>

ㄱ. 갑 :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ㄴ. 을 : 사회적 시인(是認)의 감정은 인간의 공감 능력에 근거한다.
ㄷ. 을 :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단독으로 도덕적 실천의 동기를 유발한다.
ㄹ. 갑과 을 : 덕과 악덕의 구별은 주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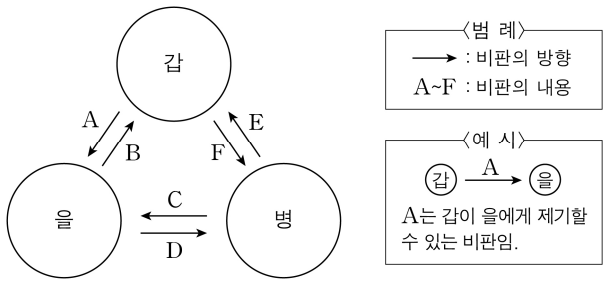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 인간은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를 잃지 않게 된다.
>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런데 각자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시민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 병 : 경쟁심, 불신, 영광에 대한 욕구가 인간들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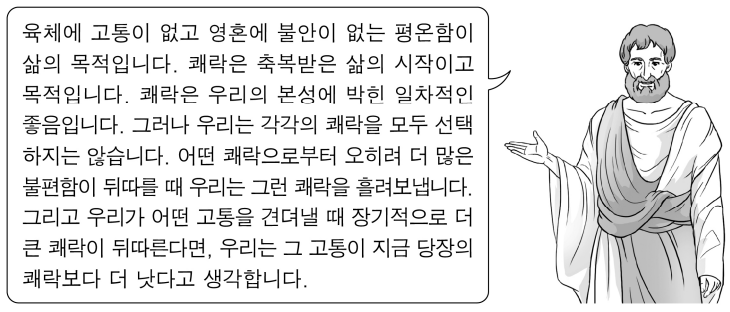
(나)



① A :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은 모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② B, D :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함을 간과한다.
③ C :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④ E :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 계약의 계기가 됨을 간과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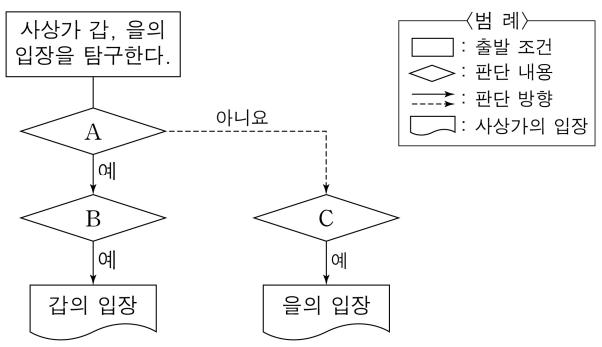


<보 기>

ㄱ. 어떤 욕구가 자연적이라면 그 욕구의 충족은 필수적이다.
ㄴ.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관계는 필요하다.
ㄷ.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를 경계해야 한다.
ㄹ. 어떤 것이 좋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칠정과 사단을 이(理)와 기(氣)에 대응시키면 칠정과 기(氣)의 관계는 사단과 이(理)의 관계와 같다. 칠정과 사단은 발현함에 각각 혈맥이 있고 그 명칭에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다. 을 : 사단을 칠정에 대응시키면 측은지심은 애(愛)에 속하고 수오지심은 오(惡)에 속하니, 칠정 이외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보 기>

ㄱ. A :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에서 발현한 정(情)인가?
ㄴ. A :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ㄷ. B : 칠정 중에서 선하게 드러난 감정은 사덕의 단서[端]로 볼 수 있는가?
ㄹ. C : 이와 기는 각각 주재성과 운동성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ㄴ.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ㄷ.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ㄹ.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 을 :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① 갑 :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갑 :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③ 을 : 인간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④ 을 : 쾌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가치의 차이가 있다.
⑤ 갑과 을 :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1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인간은 자연의 행위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한 만큼만을 행위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 을 : 하나의 목적은 결과가 올바른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단지 가설로서만 여겨져야 한다.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목적은 성장한다. 도덕적 삶은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① 갑 : 삼단 논법이 아니라 참된 귀납법으로 자연을 탐구해야 한다.
② 갑 :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
③ 을 : 이론은 문제 해결 도구로서 유용할 때 가치를 지닌다.
④ 을 : 한 번 문제를 해결한 가설은 문제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참된 가치를 지닌다.
⑤ 갑과 을 : 기존 이론에 안주하지 않고 탐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비구들이여, 괴로움[苦]·괴로움의 원인[集]·괴로움의 소멸[滅]·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道]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가 있느니라.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과거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이니 마땅히 바르게 사유하라. 그러면 그때 지혜[慧], 밝음[明], 깨달음[覺]이 생길 것이다.

<보 기>

ㄱ. 무명(無明)이 소멸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ㄴ. 색(色)은 무상하지만 행(行)과 식(識)은 항상 불변한다.
ㄷ. 팔정도(八正道)를 닦으면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ㄹ.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고, 탐·진·치(貪瞋癡)를 없애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 세상에서 최악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고 친절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 또한 노예이다.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노예조차 자유를 누리지 못하므로 자유는 단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를 의미한다.
> 을 :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한, 개인적 자유의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자유의 영역을 구획할 때 옹호되는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① 갑 : 간섭이 없는 지배는 시민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② 갑 : 합당한 법의 간섭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막지 않는다.
③ 을 : '~을 향한 자유'의 실현 노력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④ 을 :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간섭은 항상 소극적 자유를 실현시킨다.
⑤ 갑과 을 : 자유의 실현을 위해 자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18.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중세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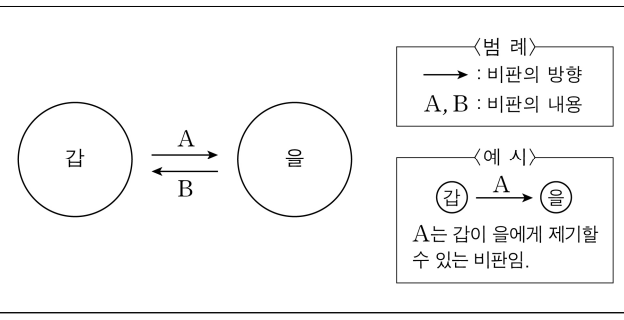
> 갑 :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추론한다.
> 을 :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영양 섭취를 통한 성장이나 감각 활동이 아니라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일 것이다.
> 병 : 신은 인간의 최고선이고,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따라서 좋은 삶은 온 가슴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① 갑 :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은 없다.
② 을 : 행복해지기 위해 최고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③ 병 : 신은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④ 갑과 을 : 자신한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
⑤ 을과 병 : 궁극적으로 좋은 삶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갑 : 정부가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묻고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해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 파급 효과로 실질 소득과 부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 을 :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들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한다. 경쟁은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나)



① A :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A : 자유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원리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③ A :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완전 고용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 법에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기능이 있음을 간과한다.
⑤ B :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모든 역할은 경쟁의 유익한 작동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가)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 (나) 사려 깊은 선호란 시민들이 성찰을 통해 다양한 관점들과 자신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대면시켜 변화시킨 결과물로서의 선호를 뜻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공적인 대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사려 깊음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가) : 민주주의에서 엘리트의 정치적 의사 결정은 대중의 의견을 대표하므로 충동적이지 않다.
② (가) : 민주주의에서 통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나) : 민주주의에서 정책 심의는 선출된 권력의 독점 영역이다.
④ (나) : 민주주의에서 공공선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의 총합이다.
⑤ (가)와 (나) :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엘리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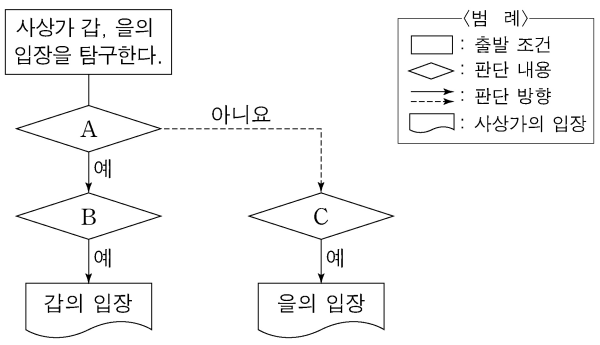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랑스러운 제자 ○○님께**
>
> **지난 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恕)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대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법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타인도 이루게 해 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②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한다.
③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④ 사성제(四聖諦)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私欲]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2.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쾌락에 탐닉하여 쾌락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다.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덕은 일종의 앎이다. 을 : 부나 군중으로부터의 명예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한없는 욕구로부터 생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나)	

<보 기>

ㄱ. A :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가?
ㄴ. B :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한가?
ㄷ. C :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 쾌락의 증대를 보장하는가?
ㄹ. C : 이성은 운명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세상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지배되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신의 섭리에 더 뛰어난 방식으로 순종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 을 :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실체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의 본성이 아니라 자연 질서에서 나온다. 따라서 양태는 실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① 갑 :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면 정당하다.
② 갑 :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
③ 을 :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
④ 을 :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다.
⑤ 갑과 을 :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도(道)는 두루 통(通)하여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따라서 흩어짐은 곧 이룸이며 이룸은 곧 어그러짐이다. 진인(眞人)은 만물이 통하여 하나임을 알아 그 자연스런 쓰임에 맡겨 둔다.
> 을 : 도는 낳고 덕(德)은 기르니,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勢]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自然].

<보 기>

ㄱ. 갑 :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물아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ㄴ. 을 : 제물(齊物)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ㄷ. 을 :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다.
ㄹ. 갑과 을 :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명석판명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을 :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도덕성이 오직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우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구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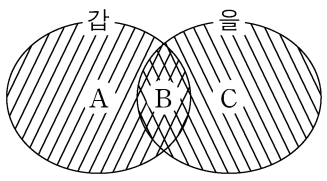
① 갑 :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는 없다.
② 갑 : 방법적 회의는 사유하는 '나'라는 존재의 확실성에서 출발한다.
③ 을 : 유용성은 도덕감의 근원으로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된다.
④ 을 : 이성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 아니지만 정념을 좌우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인간의 이성은 추론적 사유와 진위 판단 능력을 지닌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이(理)의 본연의 본체[體]는 감정이나 의지[情意]도 없고 조작도 없다. 이의 지극히 신묘한 작용[用]은 발(發)하여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 을 : 이는 무형하고 기(氣)는 유형하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는 무위(無爲)하고 기는 유위(有爲)하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6.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 이와 기 중에서 주재성을 지니면서 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
ㄴ. B : 칠정 중에서 선함과 사단 사이에 도덕적 우열을 가릴 수 있다.
ㄷ. B : 이는 본래 하나의 태극(太極)이지만 만물도 각각 동일한 하나의 태극을 지니고 있다.
ㄹ. C : 주된 바[所主]가 이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구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어린 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해 하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측은해 하는 마음만으로는 인(仁)이라 할 수 없다. 욕을 하거나 발로 차면서 밥을 줄 때, 이를 수오(羞惡)하면서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수오하는 마음만으로는 의(義)라 할 수 없다.

① 모든 인간은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을 가지고 태어남을 간과한다.
② 시비지심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지(智)가 형성됨을 간과한다.
③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명령[天命]임을 간과한다.
④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영지의 기호라는 점에서 동일함을 간과한다.
⑤ 선을 지향하는 본성을 통해 자유 의지가 형성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8.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 : 자유는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② 갑 : 비지배의 자유는 비자의적 지배가 부재할 경우에도 성립한다.
③ 을 : 자유의 경계선이 침범되지 않도록 '~을 향한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④ 을 :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로운 제도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 공동체가 외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9.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이다.
> 을 :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족해 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①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간과한다.
③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함을 간과한다.
④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⑤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임을 간과한다.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놓이게 하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 일반 의지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 을 :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① 갑 :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 성립하며 정부를 통해 대표된다.
② 갑 :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③ 을 :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④ 을 :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 불가하다.
⑤ 갑과 을 :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갑 : 우주의 본성을 따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하라. 또한 너의 본성이 네 자신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하라.
> 을 :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신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른다.

① 갑 :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② 갑 :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다.
③ 을 : 악이 선보다 먼저 실재하지 않았다면 선은 없었을 것이다.
④ 을 : 인류의 역사는 신이 주는 선과 인간이 만든 악의 투쟁이다.
⑤ 갑과 을 :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1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선(善) 자체는 인식의 원인으로서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제공한다. 통치자는 선 자체를 본보기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 을 : 모든 선에 공통되는 하나의 선 자체란 있을 수 없다. 건축가가 선 자체를 안다고 자신의 기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선이 중요하다.

① 갑 :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② 갑 : 이성이 파악하는 대상과 감각이 파악하는 대상은 동일하다.
③ 을 : 선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
④ 을 :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근거는 선 자체이다.
⑤ 갑과 을 : 선 자체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

13.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갑 :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法)을 공(空)이라 하며, 가명(假名)이라고도 하며, 중도(中道)라고도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다.
> 을 : 오직 마음만이 존재할 뿐[唯識] 그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無境]. 세속인은 허망한 분별의 잠에 빠져서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그것이 실재하지 않음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모든 사물은 독자적인 고유한 성질[自性]을 가진다고 보고, ㉡ 해탈하기 위해서는 있음[有]이나 없음[無]이라는 두 극단에 치우친 견해에서 벗어나 중도의 진리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을은 ㉢ 모든 현상은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보고, ㉣ 해탈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진리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모든 현상은 다양한 원인[因]과 조건[緣]의 화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관련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 부른다.

<보 기>

ㄱ. 선의지를 함유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ㄴ.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
ㄷ.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ㄹ. 도덕 법칙의 내적 강제에서 생긴 준칙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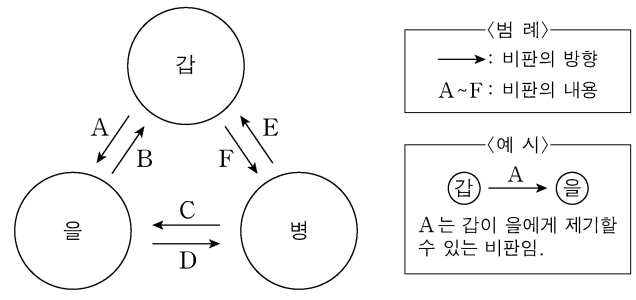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현대 사회사상가 갑과 을, 사회사상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 국가는 부분적으로 조세 정책을 통하거나 이자율을 정하는 것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을 : 경제 활동에서 경쟁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획과 경쟁은 '경쟁에 반하는 계획'이 아니라 '경쟁을 위한 계획'이라는 형태로만 결합될 수 있다.
> 병 : 우리는 자본주의적 계획이나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계획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 두 계획이 생산의 공적 통제와 그 결과의 공정한 분배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나)



① A :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투자의 사회화는 거부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E :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의 규제는 부당함을 간과한다.
③ C : 국가는 사회주의적 계획화를 통해 완전 고용에 힘써야 함을 간과한다.
④ D : 시장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생산 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F :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자성(自性)에는 그름도 어리석음도 어지러움도 없으니 생각마다 반야로 관조하여 법상(法相)을 떠나야 한다. 스스로 자성을 깨쳐 돈오돈수(頓悟頓修)하니 점차(漸次)가 없다.
> 을 : 자성을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무위(無爲)에 이르러야 궁극적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은 뒤에 '소를 기르는 수행[牧牛行]'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① 갑 : 마음 밖의 부처를 단박에 직관하는 것이 돈오이다.
② 갑 :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성(佛性)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③ 을 : 선정[定]과 지혜[慧]를 닦을 때 선후의 구분이 필수적이다.
④ 을 : 오랫동안 누적된 습기(習氣)는 돈오하더라도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⑤ 갑과 을 :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현존재의 참된 모습은 그의 실존에 있다. 실존하는 존재자를 가리키는 '현존재'라는 이 명칭은 책상, 집, 나무와 같이 어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 을 : 도덕적 선과 목적은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할 때에만 존재한다. 악은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한 악이므로, 교정해야 하는 그 결함과 곤란함을 토대로 삼아 상황의 선을 발견하고 계획하고 획득해야 한다.

① 갑 :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자는 인간이다.
② 갑 : 죽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 현존재는 보편적 본질을 완성한다.
③ 을 :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설은 상황이 변해도 항상 유효하다.
④ 을 : 악을 개선하는 지식은 절대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
⑤ 갑과 을 : 이성 중심의 객관적인 합리성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18.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치지(致知)의 치(致)는 최대로 확충함이고, 지(知)는 지식과 같다. 따라서 치지는 나의 지식을 최대로 확충하여 그 지식이 도달하지 않은 곳이 없고자 함이다.
> 을 : 치지는 다른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 의념[意]이 향하는 대상[物]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이다.
ㄴ. 을 : 양지는 분리되어 있는 앎[知]과 실천[行]을 합일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ㄷ. 을 :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인 본심(本心)을 따라야 한다.
ㄹ. 갑과 을 : 격물은 마음 안의 이(理)의 보존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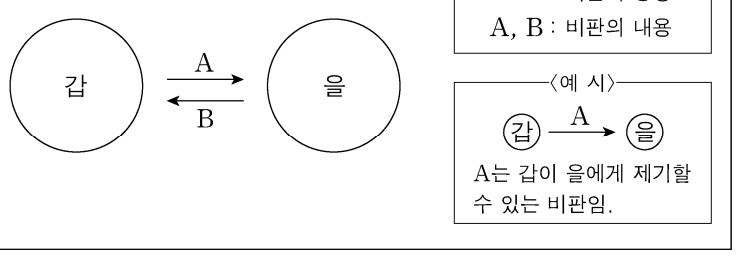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갑 : 서양 물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道)를 밝혀 백성을 교화하고 사단(四端)과 오상(五常)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 것이 흥성하면 저들 것이 사라지고 이쪽 것이 밝혀지면 저들은 달아날 것이다.
> 을 : 동양은 형이상에 밝아서 그 도(道)가 천하에 홀로 존귀하고, 서양은 형이하에 밝아서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일으킬 수 있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듯 쉽다.

(나)



① A : 나라가 혼란할수록 유교의 인륜을 고수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A : 살기 좋은 후천(後天) 세계가 현세에 반드시 도래함을 간과한다.
③ A :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신분을 차별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④ B : 부국강병을 실현하려면 서양의 기를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B :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우리의 도를 변화시켜야 함을 간과한다.

20. 근대 사회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 을 : 인민의 역할은 다름 아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인민'과 '통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① 갑 :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
② 갑 : 국가는 주권자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 설립된다.
③ 을 : 민주주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추구할 이념이다.
④ 을 : 시민이 지배하는 정부를 위해 시민의 승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⑤ 갑과 을 : 국가의 대표자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따라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욕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③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④ 시비선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 탐구에 힘써야 한다.
⑤ 도(道)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물질문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 을: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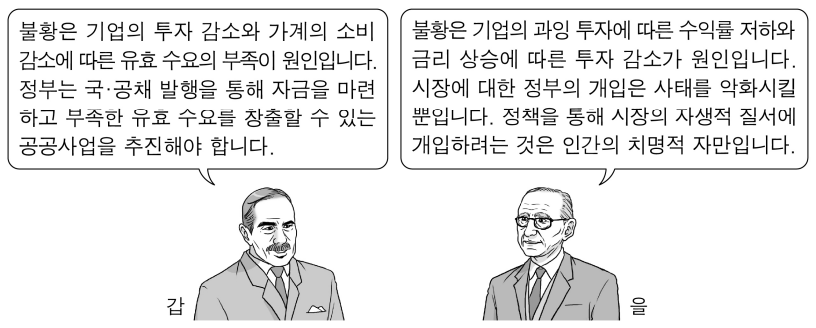
① 갑: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② 갑: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③ 을: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④ 을: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⑤ 갑과 을: 인간은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禮)에 따라 그것을 실행한다. 예에 어긋나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 을: 사람은 본래 욕구를 지니고, 욕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다투게 되며, 그래서 혼란스럽고 곤궁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선왕이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책무를 나누고 욕구를 만족시켰다.

① 갑: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예는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② 갑: 예의 실천에서는 내재된 덕성보다 형식적 절차가 중요하다.
③ 을: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④ 을: 타고난 도덕적 본성은 예법을 통해야만 보존되고 함양된다.
⑤ 갑과 을: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의 궁극적 목표이다.

4.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 정부는 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ㄴ. 을: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 경제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ㄷ. 갑과 을: 정부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의 참여라는 것이 명백하다.

① 인간은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② 신앙과 이성은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③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다.
④ 자연법의 제1원리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⑤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고, 또 그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
> 을 : 건강, 부, 배움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들도 정해진 목표를 표현하는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① 갑 :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한다.
② 갑 :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해야만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을 : 고정된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
④ 을 : 지성적 탐구 과정을 통해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 합리적 추론으로 도출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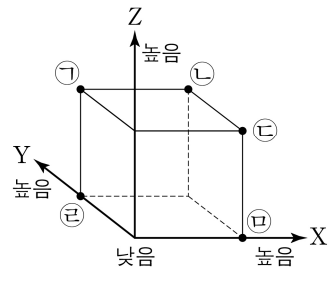
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 없다.
>
> ○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 움직임을 일으킨다.

①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② 이성은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여 정념의 안정에 기여한다.
③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욕할 수 있다.
④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
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8.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갑 :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
> 을 :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는 우상에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다. 이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 X :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도
- Y : 이성적 추론의 출발점으로 자명한 진리를 강조하는 정도
- Z : 개별 경험들로부터 일반적 원리의 도출을 강조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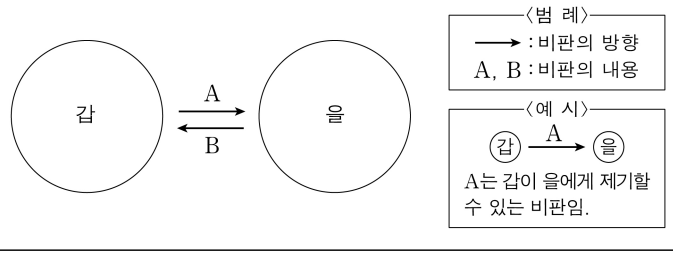
① ㉠ ② ㉡ ③ ㉢ ④ ㉣ ⑤ ㉤

9.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 인의를 가로막고 혹세무민하는 사설(邪說)이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서양처럼 참혹한 경우는 없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 정학(正學)을 밝히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
> 을 : 동양의 도(道)가 내실이 없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태해져 서양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만 있다. 우리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서양의 기(器)를 이용하는 것 역시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울 것이다.

(나)



① A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도가 있음을 간과한다.
② A : 서양 문물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B : 서양에 대항하려면 유교의 근본이념을 버려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 신분 차별을 없애고 남녀를 평등하게 여겨야 함을 간과한다.
⑤ B : 효제충신의 실천과 서양 기술의 활용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그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을 개인들의 총수 또는 공동체와 관련지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
> 을 :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보 기>

ㄱ.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이다.
ㄴ. 공리의 원리는 개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된다.
ㄷ. 쾌락에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질적 차이가 있다.
ㄹ.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초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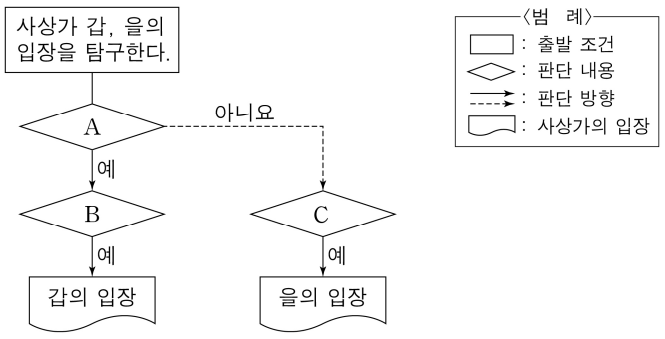
11.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마음[心]에서 얻지 못하면 기(氣)에서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잘 길러야 한다.

을 :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야 한다. 기는 텅 비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도(道)만이 텅 빔에 머무니, 텅 비게 하는 것이 심재(心齋)이다.

(나)



<보 기>

ㄱ. A : 잃었던 마음[放心]을 되찾아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하는가?
ㄴ. B :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도덕적 기개를 키워 나가야 하는가?
ㄷ. C : 마음을 깨끗이 비워 물아일체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ㄹ. C : 기(氣)로써 듣는다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이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서술하시오.

갑 :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문제 상황〉

'초거대 생성형 인공 지능'은 정교한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문제, 허위 정보 생산 등의 위험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 A는 이 인공 지능을 사용할 때 도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학생 답안

갑 사상가는 A에게 '초거대 생성형 인공 지능'을 사용할 때, ㉠ <u>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인 인간을 고려하고</u>, ㉡ <u>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함을 조언할 것이다</u>. 또한 ㉢ <u>의무 의식에 위배되더라도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u>, ㉣ <u>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한 선의지에 따라 사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u>. 그런데 ㉤ <u>의무가 문제시될 때에는 이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u>.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을 :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 낫다.

① 갑 : 비의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도 적극적 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
② 갑 :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③ 을 :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와 무관하다.
④ 을 :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이 평화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 국가 간 전쟁 행위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14.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뜻이 있는 곳이 사물이다. 뜻이 부모 섬김에 있으면 그것이 사물이다. 그래서 마음 외부에 사물이 없다.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明德)을 밝힘'은 단지 성의(誠意)일 뿐이다.

을 : 격물(格物)할 때나 성의, 정심(正心)할 때 모두 거경(居敬)함으로써 수행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각성하고 붙잡아 이 마음이 언제나 보존되어야만 비로소 경을 지킬 수 있다.

<보 기>

ㄱ. 앎으로서의 지(知)와 실천으로서의 행(行)은 본래 하나인가?
ㄴ. 이치에 대한 궁구 없이 치지(致知)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ㄷ. 도덕 법칙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가?
ㄹ. 격물을 통해 천리를 보존하고 삿된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필연은 질서 정연한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분이다.

을 : 자연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① 갑 : 공적인 삶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② 갑 :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③ 을 : 지복은 인격신의 계시를 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④ 을 : 삶에서 유익한 것은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보지 못한 중생들은 무명(無明)에 가려지고 욕망에 묶여 내달리고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이것은 막대기를 허공으로 던지면 어떤 때는 아랫부분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윗부분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다.

<보 기>

ㄱ.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팔정도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ㄴ. 현세와 달리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業)의 영향을 받는다.
ㄷ.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ㄹ.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生)으로 윤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여기에서는 노동 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는 안정적이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 을: 여기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며 빈곤도 없고 낭비도 없다.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집은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바꾼다.

① 갑: 노동은 삶의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 생계 수단일 뿐이다.
② 갑: 기술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③ 을: 화폐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④ 을: 구성원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⑤ 갑과 을: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가 실현된다.

18.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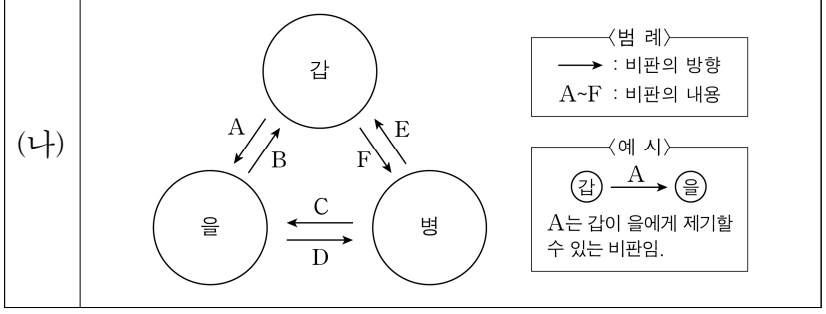
> 갑: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氣)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발(發)한 곳에 있지 않다. 만일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을: 사단은 진실로 기를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기에 가려지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에 이(理)의 발이라고 말한다. 칠정 또한 진실로 이가 탄다. 그러나 기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 말한다.

① 갑: 궁리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② 갑: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③ 을: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다.
④ 을: 정(情)의 연원은 같으므로 일반 감정은 도덕 감정을 포함한다.
⑤ 갑과 을: 인(仁)은 이가 발한 것이지만 측은지심은 기가 발한 것이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갑: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한다.
- 을: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 병: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나)



① A와 F: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② B: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③ C: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임을 간과한다.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간과한다.
⑤ E: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아테네의 정체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통치되는 민주정이다.
> 을: 국민의 역할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의 재선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의회 다수당의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통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갑: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② 갑: 민주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른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을: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방법이다.
④ 을: 시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⑤ 갑과 을: 시민은 정치 현안에 대해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을 법칙 삼아 도(道)를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② 충(忠)과 서(恕)를 실천함으로써 인(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③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④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쳐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集義] 도덕적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을: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며, 법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① 갑: 자기 보존을 위해 권리를 양도함은 정의 발생의 원천이다.
② 갑: 주권자는 시민들과 맺은 사회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을: 시민은 자연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린다.
④ 을: 입법부는 신탁(信託)된 권력이 아니므로 교체가 가능하다.
⑤ 갑과 을: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부여된다.

3.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서양의 도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선비들을 모아 정학(正學)을 연구하여 밝히며, 간사한 소인을 제거하고 도적과 통하는 자를 막아 탐욕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 을: 서양의 학(學)은 한울님을 위한 학문이 아니다. 우리 동방의 학은 내 안의 한울님을 모시는 것이니, 항상 마음을 지키고[守心]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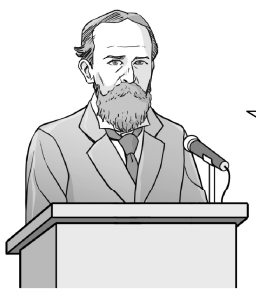
① 모든 규범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속 한울님을 모셔야 하는가?
② 사회가 변하더라도 효제(孝悌)의 정신은 지켜 나가야 하는가?
③ 서양의 종교를 배격하고 신분 귀천의 위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④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開闢]해야 하는가?
⑤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하는가?

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신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물리적인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자연 안의 모든 것들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을 산출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① 인간은 자연의 인과 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자연 안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③ 인간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스스로를 파악할 수도 없다.
④ 인간은 자신이 처한 감정의 지배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⑤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은 인간에게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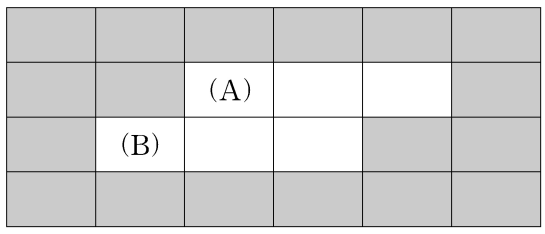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론들은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진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② 신학 교리는 형이상학적 해명 없이도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③ 자연 과학적 개념은 활용될 때보다 이해될 때 더 가치가 있다.
④ 관념들은 경험적 증명을 통과하지 않아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
⑤ 도덕적 지식은 도구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해도 유용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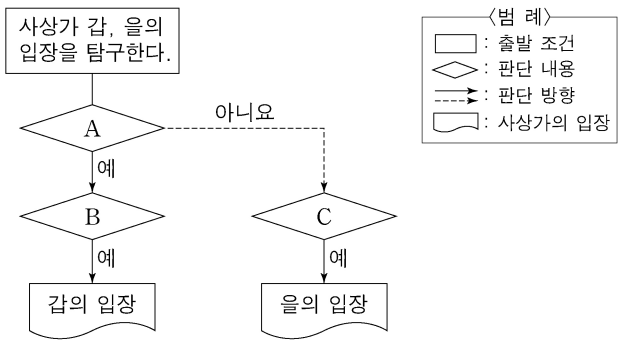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가)를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性)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옳지 못한 재물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떳떳하여 즐겁고, 잘못인 줄 알고도 그것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나)	 [가로 열쇠] (A):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B): 도가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 『노자』라고도 불리는 책 [세로 열쇠] (A): ……개념

①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는 것이다.
②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생리적 욕구이다.
③ 사단(四端)을 자주적으로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④ 인의예지를 확충함으로써 생겨나는 순선한 마음이다.
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이다.

7.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본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아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한다. 그래서 짐승들이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곳을 멀리한다. 을: 군자는 본래 소인과 마찬가지로 영예와 이익을 좋아하고 치욕과 손해를 싫어하는 이기적 본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본성에 따르지 않고 도리[道]를 추구한다.
(나)	

<보 기>

ㄱ. A: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동일지라도 악할 수 있는가?
ㄴ. B: 백성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ㄷ. C: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예(禮)로써 가능한가?
ㄹ. C: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예를 배우면 교화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다투지 않는[不爭] 덕은 하늘의 도[天道]에 부합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서 싸우지 않는다. 이처럼 성인(聖人)의 도는 일은 하되 다투지 않는 것이다.
을: 평화는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중요하다.

<보 기>

ㄱ. 갑: 전쟁은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ㄴ. 을: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지닌 부당성을 은폐한다.
ㄷ. 갑과 을: 진정한 평화는 무력이 없는 상태만으로도 달성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돈과 명성만을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테네인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묻고 검토하고 논박할 것이다. 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을: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다. 쾌락의 시작은 지혜다. 지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또 역으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① 갑: 도덕적 진리의 탐구가 도덕성 함양에 필수는 아니다.
② 갑: 하나의 덕은 하나의 정의(定義)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③ 을: 몸의 고통이 있어도 영혼의 고통이 없다면 참된 쾌락이다.
④ 을: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으므로 선택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⑤ 갑과 을: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1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과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다. 이것은 덕에 따르는 삶과 동일하다. 덕에 따르는 삶은,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하는 삶이다.
을: 목적은 좋음의 성격을 지닌다. 좋음은 이성을 위한 원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좋음을 행하고 나쁨을 피하라."가 된다.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의 질서는 여러 자연적 성향들의 질서와 상응한다.

<보 기>

ㄱ. 갑: 유덕한 자일지라도 사건들의 우연적 진행을 바랄 수 있다.
ㄴ. 갑: 유덕한 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이다.
ㄷ. 을: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
ㄹ. 갑과 을: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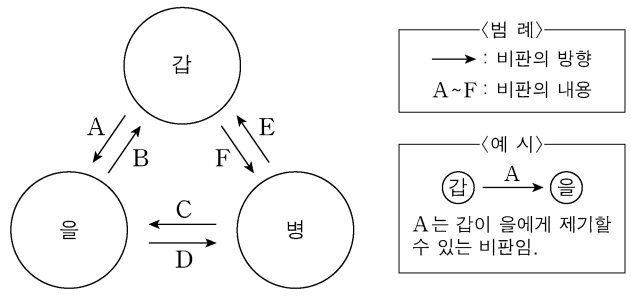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유효 수요의 창출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 통제는 전통적인 정부 기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을 :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자유가 아닌 노예의 길이다. 그러나 자유 경쟁 시스템은 큰 부를 이루려는 누군가의 시도를 아무도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병 :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한 계급의 다른 계급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품의 제조와 획득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된 표현이다.

(나)



① A: 투자의 사회화가 정부 실패의 해법이 아닌 원인임을 간과한다.
② B와 E: 실업은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되는 문제임을 간과한다.
③ C: 계급 간 대립 관계에서는 착취가 발생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④ D: 재화의 이상적 분배는 경쟁의 효율적 작동에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개인의 자유 실현과 사유 재산제가 양립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갑: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덕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이다.

⊙ 학생 답안

갑은 동정심에 근거한 행위는 ㉠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 의무에 맞는 행위라 할지라도 참된 윤리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을은 공감이 ㉢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 우리는 우리와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에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갑과 을은 모두 ㉤ 이성이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꽃을 보지 않았을 때 나의 마음[心]은 꽃과 함께 적막하지만, 꽃을 보면 그 꽃의 색깔이 마음에서 일시에 명백해지니, 꽃이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을 : 마음이 발(發)하지 않았을 때 본성은 오히려 형체와 그림자가 없는 듯하지만, 이미 발하면 밖으로 드러난 감정으로 인해 그 본성이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갑 : 도덕적 실천과 분리된 도덕적 앎은 참된 앎이 아니다.
② 갑 : 양지를 발휘하여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실현해야 한다.
③ 을 : 이치는 본성에 내재한 원리이지만 마음에 실재하지는 않는다.
④ 을 : 경중(輕重)을 따질 경우 도덕적 실천이 앎보다 중요하다.
⑤ 갑과 을 : 격물(格物) 공부를 통해 도덕적 앎을 완성해야 한다.

14.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며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따라서 나의 활동에 어느 누군가가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을 : 자유는 노예 상태의 반대이다. 주인의 간섭이 없다고 해도 노예가 여전히 주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대한 해악이다.

<보 기>

ㄱ. 갑 : 시민의 덕성 함양을 위한 국가의 강제는 간섭에 속한다.
ㄴ. 갑 : 불간섭의 영역이 축소될수록 자유의 영역은 확대된다.
ㄷ. 을 : 법이 자의적 의지의 도구가 될 때 시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ㄹ. 갑과 을 :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교(敎)는 밖의 문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고, 선(禪)은 안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교와 선은 서로 떠나지 않으니 참된 수행은 정(定)과 혜(慧)를 두루 갖추는 것이다.
을 : 먼저 곧장 깨친다는 것[頓悟]은 마치 해가 쨍하고 비추듯이 모든 법(法)을 단번에 밝게 하는 것과 같고, 이후 닦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아서 차츰 빛나게 하는 것과 같다.

<보 기>

ㄱ. 갑 : 깨달음을 위해 교와 관(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
ㄴ. 을 : 모든 현상은 마음 밖의 진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ㄷ. 을 : 습기(習氣)를 없애기 위해 정과 혜로써 수행해야 한다.
ㄹ. 갑과 을 :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 구제에 힘써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르니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다.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인데, 기가 발하여 치우치면 바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선(不善)으로 흐른다.
> 을 :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것만을 별도로 지칭할 뿐이다. 칠정은 사단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 사단은 칠정이 아니라거나 칠정은 사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①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性)이 발하여 생기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② 이는 무위(無爲)하므로 발할 수도 주재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③ 칠정은 기가 발할 때 이가 타서[乘] 표출된 감정임을 간과한다.
④ 사단은 이가 맑은 기를 타서 드러난 순선한 감정임을 간과한다.
⑤ 기가 발하지 않아도 선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앎의 대상들 중 최고이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① 품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②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③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④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⑤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만일 천지 본연의 올바름[正]에 올라타고서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무한한 세계에서 노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고[無己], 신령스러운 사람은 공적을 내세움이 없고[無功], 성인(聖人)은 세속적 명예에 개의치 않고[無名] 살아간다.

<보 기>

ㄱ. 심재(心齋)로써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
ㄴ. 어떠한 얽매임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야[忘] 한다.
ㄷ. 세속을 벗어나 천명(天命)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ㄹ. 참된 지혜로써 만물의 우열을 판별하고 명예를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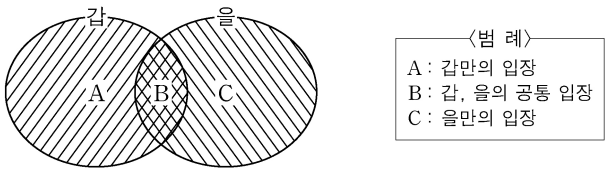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 갑 :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다음, 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표하고서는,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처벌한다.
> 을 :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정의는 자기 자신과 관련되며, 자신 안의 이성, 기개, 욕구가 남의 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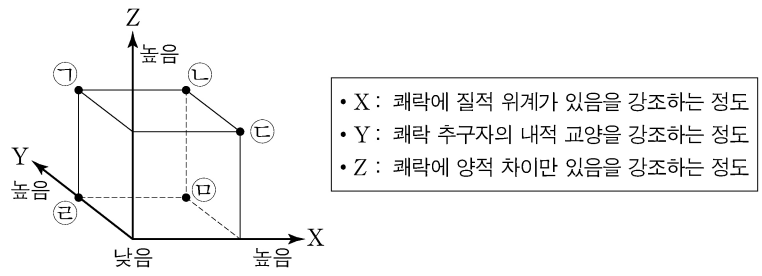
<보 기>

ㄱ. A :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ㄴ. A :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
ㄷ. B :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ㄹ. C :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보다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 을 :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효제(孝悌)와 충서(忠恕)를 실천하고자 한다.
②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자 한다.
③ 깨달음[菩提]을 추구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
④ 문명을 배격하고 무위자연의 도(道)를 따르고자 한다.
⑤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국가는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관련된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 을: 국가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경쟁은 권력의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계획은 사람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치명적 자만이다.

<보 기>

ㄱ. 갑: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해 경제 활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ㄴ. 갑: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ㄷ. 을: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완전 고용을 위해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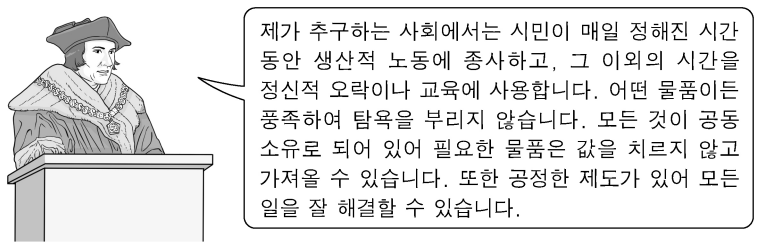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도(道)는 흘러 넘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도는 말이 없고,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도는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만물을 거느리는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

① 도는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하는가?
② 도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 운행의 원리인가?
③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해야 하는가?
④ 도 자체는 사물이므로 인간의 언어로써 규정될 수 있는가?
⑤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인가?

4. 그림의 강연자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개인의 재산 증식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② 국가에 이바지한 업적에 따라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한다.
③ 구성원은 물질적 재화의 부족 때문에 검소하게 살아간다.
④ 일부 시민에게는 종사하는 일에 따라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
⑤ 여가 시간에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허용한다.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신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이 태어날 때는 황금을 섞고,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농부들이나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대개는 자신들을 닮은 자손들을 낳지만, 때로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그리고 은의 자손에서 황금의 자손이, 그 밖의 모든 자손이 서로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때가 있다.

① 누구나 타고난 소질을 잘 발휘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② 통치자는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
③ 방위자는 교육을 통해 용기의 덕을 쌓고 두려움에 대해 분별한다.
④ 생산자가 가진 덕을 다른 두 계층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⑤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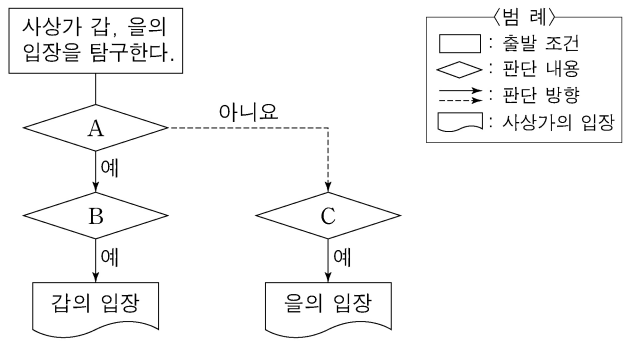
6.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학문의 길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이치를 궁구하는 핵심에는 무엇보다 독서가 있다. 경전과 역사책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을 : 학문의 길은 마음의 본체에서 공부하고 돌이켜 내 마음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경전은 마음의 본체를 대략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니, 마치 초상화를 그려 그 인물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

(나)



<보 기>

ㄱ. A :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인간도 양지를 지니고 태어나는가?
ㄴ. B : 내 마음의 본체인 성(性)이 곧 도덕적 행위의 근거인가?
ㄷ. B : 경전 공부를 통한 앎[知]이 도덕적 실천[行]보다 중요한가?
ㄹ. C : 격물(格物)은 사욕을 제거하여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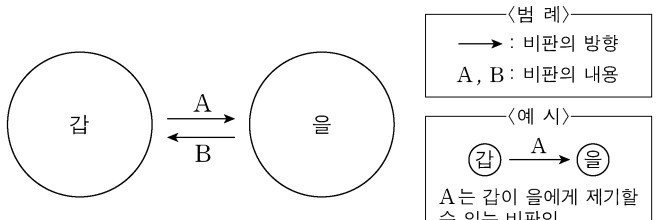
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모든 좋은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면서, 쾌락에서 모든 선택과 회피를 시작하고 쾌락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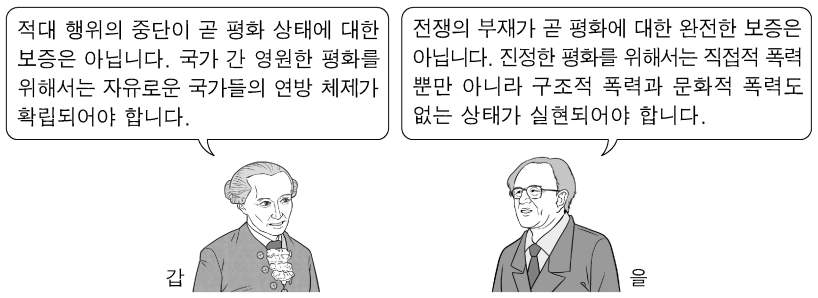
을 :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무엇을 행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잣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옥좌에 매여 있다.

(나)



① A :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간과한다.
② A :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A : 사회적 쾌락이 개인의 쾌락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⑤ B :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함을 간과한다.

8.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 : 평화 연맹은 그 소속 국가의 자유를 국제법에 따라 보호한다.
ㄴ. 을 : 목표로서의 평화뿐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
ㄷ. 갑과 을 : 폭력은 평화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하늘은 백성이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듣고 보며, 하늘은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좋아하고 싫어한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왕도(王道)를 시행해야 한다.

을 :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요(堯) 임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桀) 임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도를 따라서 어기지 않는다면 하늘도 화를 입히지 못한다. 하늘의 운행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이다.

<보 기>

ㄱ. 갑 :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니 민심이 곧 천심이다.
ㄴ. 을 : 하늘은 성인(聖人)의 도를 따르는 무위(無爲)한 존재이다.
ㄷ. 을 : 하늘은 예(禮)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ㄹ. 갑과 을 :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바라라. 즉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을 : 행복한 삶은 최고선인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신에 관해서, 신을 향해서, 신을 위해서 향유하는 것이다. 오직 이런 향유만이 행복이다.

① 갑 : 행복한 자는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한다.
② 갑 : 행복한 자는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③ 을 : 행복은 지금 이 지상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을 : 행복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역시 향유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 행복은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합일하는 데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인간에게 정해진 본질은 없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인간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을: 관념, 의미, 개념, 이론, 체계는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재조직하고, 난점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러한 도구들의 가치는 그런 일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간을 선택의 순간마다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로 보고, ㉡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통해 불성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을은 ㉢ 인간을 끊임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가는 존재로 보고, ㉣ 인간은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 사회가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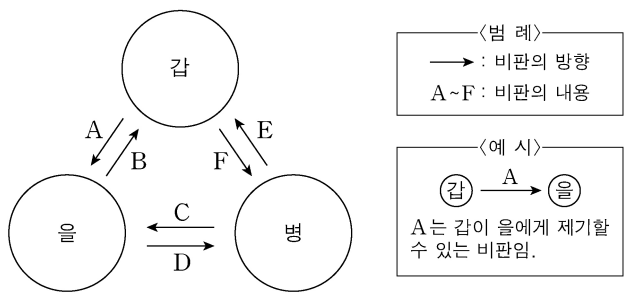
① ㉠ ② ㉡ ③ ㉢ ④ ㉣ ⑤ ㉤

1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인격이다.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각자의 각자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져든다.
을: 국가는 계급과 함께 출현한 계급 사회의 산물로 지배 계급이 그들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이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
병: 국가는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이다. 개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나)



① A: 국가는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함을 간과한다.
② B와 D: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것임을 간과한다.
③ C: 사유 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함을 간과한다.
④ E: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됨을 간과한다.

1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연법은 신의 영원한 창조 계획에 기초한다. 자연법의 질서는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따른다. 모든 각각의 실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인간 역시 자기 보존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
을: 각각의 것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그것들은 신의 힘, 즉 신의 본질을 특정하게 표현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사물도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① 갑: 자기 보존은 자연적 본성의 요구일 뿐이므로 선이 될 수는 없다.
② 갑: 자기 보존 성향과 달리 사회적 삶의 성향은 비자연적 성향이다.
③ 을: 자기 보존을 위한 각자의 욕망은 신이 지닌 본성을 나타낸다.
④ 을: 자기 보존은 동물과 달리 인간의 경우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다.
⑤ 갑과 을: 자기 보존에 성공한 사례는 신의 의도적 계획에 따른 것이다.

14.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기(氣)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理)가 아니면 발하게 할 까닭이 없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 것이다. 기는 유위(有爲)하고 이는 무위(無爲)하다.
을: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기를 타는 것이다. 이가 동정(動靜)을 지니기에 기도 동정을 지닌다.

<보 기>

ㄱ. 갑: 칠정 가운데 선한 감정을 키우면 사덕으로 자라난다.
ㄴ. 을: 사단은 순선한 성이고 칠정은 선악이 함께 있는 정이다.
ㄷ. 을: 이는 기를 주재하고 명령할 뿐 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ㄹ. 갑과 을: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섞일 수도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도덕적 구별은 사회의 이익을 촉진 혹은 저하시키는 자질 및 성격의 경향으로부터 발생한다. 관찰자인 우리가 이 자질 및 성격을 시인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이익에 대한 우리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공감으로부터 타인이 속한 사회의 이익에 대해 확장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보 기>

ㄱ. 공감은 타인의 유덕한 품성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원리이다.
ㄴ. 이성은 목적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ㄷ. 도덕은 어떤 행위나 사물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이다.
ㄹ. 이성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랑하는 아들에게
> 아들아!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인간의 본성은 마음의 기호란다. 이것은 채소가 거름을 좋아하는 것과 같으며, 연꽃과 수초가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단다. 원래 본성이란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니, 그 본성을 잘 따르게 되면 인(仁)에 머무를 수 있고 의(義)를 따를 수 있어서 인의가 이루어지게 된단다.

① 영지의 기호를 발휘해 자주지권을 형성해야 한다.
② 수양의 궁극적 목표인 형구의 기호를 완성해야 한다.
③ 본성은 하늘의 이치로 인간 모두가 갖춘 인의예지이다.
④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다.
⑤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덕은 사단의 확충으로 완성된다.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의무의 모든 명령이 이것들의 원리인 바로 그 정언 명령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결과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따르는 법칙의 보편성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자연'이라 불리는 것을 구성하므로, 정언 명령은 "네 행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마치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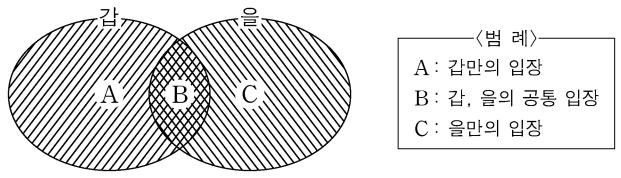
① 정언 명령은 여러 가지 정식(定式)들로 표현될 수 없다.
②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③ 정언 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
④ 정언 명령은 옳은 행위만, 가언 명령은 그른 행위만 명령한다.
⑤ 정언 명령은 하지 말 것만 명령할 뿐 해야 할 것은 명령하지 않는다.

18. 다음을 주장한 동양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 모든 사물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조건[緣]이 있다. 하지만 자성(自性)은 여러 생성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성은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空)인 것이다.
> ○ 어떤 사물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사물이 공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사물이 공하지 않다면, 생멸(生滅)은 존재하지 않고 사성제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① 만물의 자성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영원히 존재한다.
② 만물에 대한 참된 인식을 통해 자성을 완성해야 한다.
③ 만물은 상호 의존적이지만 각 사물은 불변하는 실체이다.
④ 만물의 있음이 아니라 없음에 집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⑤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공 아닌 것이 없다.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덕이 이롭다면 덕은 앎이어야 한다.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앎이나 무지가 더해져 이롭거나 해롭게 되기 때문이다. 을 : 자제력 없는 사람은 좋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유덕한 사람도 부덕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유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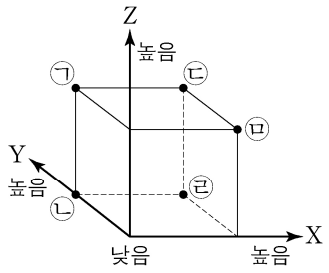
<보 기>

ㄱ. A : 비겁한 행위란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ㄴ. A : 좋음에 대한 앎을 가진 자들 모두가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다.
ㄷ. B :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이다.
ㄹ. C :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갑,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갑 : 강화(講和)가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이 교역 속에 섞여 들어올 것이다. 장차 집집마다 사학을 하고 사람마다 사학을 하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사람은 짐승이 될 것이다.
> 을 :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인의예지의 도(道)를 실천하기 어렵다.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는 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타인에게 온화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다.



• X : 만인이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정도
• Y : 후천 개벽이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정도
• Z :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한다.
② 이성적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
③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
④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므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 을 :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전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① 갑 :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② 갑 :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③ 을 : 용기는 기개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④ 을 :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⑤ 갑과 을 :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무욕(無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 을 :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먼저 남을 세워 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남의 바람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 준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는 인(仁)을 행하는 방법이다.

① 갑 :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② 갑 : 도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지닌다.
③ 을 :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서와 상충한다.
④ 을 : 군주는 재화 분배의 형평보다 재화의 부족을 근심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어떤 것의 좋음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기능은 자신의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된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인간의 좋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며 최고의 좋음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인간의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
② 인간의 좋음 중 자족적 좋음이자 완전한 좋음은 행복뿐이다.
③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④ 품성적 덕은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 주는 앎이다.
⑤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5.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 사람은 본래 반야(般若)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므로 고승(高僧)의 인도로써 마음의 실상을 몸소 깨달아야 한다.
> ○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①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인 정토(淨土)는 내 마음에 있다.
②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은 없다.
③ 단박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
④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할 수 없으니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⑤ 경전 공부를 위주로 선(禪)을 병행해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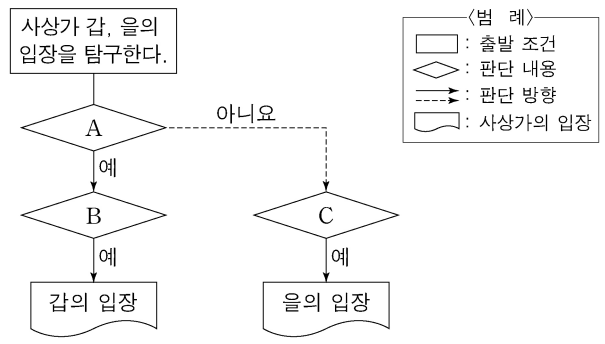
6.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왕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면서 모두 의로움보다 이로움만 찾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을: 요임금과 우임금은 본성을 고치고 수양한 후 성인의 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본래 소인이라 군자가 권세로 통솔하지 않으면 소인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으니 그들이 어찌 예의를 알겠습니까?

(나)



<보 기>

ㄱ. A: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나는가?
ㄴ. B: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는가?
ㄷ. C: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ㄹ. C: 인(仁)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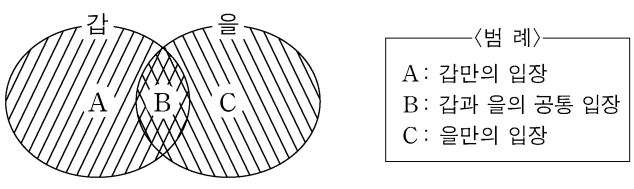
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

(나)



<보 기>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랑하는 ○○에게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성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단다. 지금까지 선했던 사람도 현재 타락하거나 선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 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던 사람도 현재 선해지기 시작한다면 선한 사람이란다.

① 행복의 실현 여부가 행동의 목적이자 궁극적 가치 기준이다.
②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도 상황에 따라 가치를 상실한다.
③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은 지식의 근간이 될 수 없다.
④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속적 성품에 근거한다.
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

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절제란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란 신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랑이며, 정의란 신에게만 헌신하는 사랑이며, 지혜란 신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다.

을: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 원리 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 목적을 향하게 된다.

① 갑: 인간은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
② 갑: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③ 을: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④ 을: 삶의 궁극 목적은 신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다.

10.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효도와 공경을 행했을 때에 비로소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효도와 공경의 말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앎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하겠는가?

을: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사물을 탐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있으나 사람이 궁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앎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① 사람의 마음에 천리(天理)가 존재하는가?
②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이치가 내재하는가?
③ 소인은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가?
④ 욕구의 절제와 본성의 보존은 격물(格物)과 무관한 것인가?
⑤ 치지(致知)는 사물에 깃든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형체가 없지만 신령스럽고 밝은 본체를 하늘이 부여해 주니, 이 때문에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거슬러 악을 행한다면 어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보 기>

ㄱ.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실체적 이치이다.
ㄴ. 사람은 이법적(理法的)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
ㄷ. 인간은 선을 택해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타고난다.
ㄹ. 예(禮)라는 성(性)은 사양지심이 발현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홀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 을: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① 갑: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
② 갑: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 데 이성은 무능력하다.
③ 을: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④ 을: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지만 조건 없이 선한 것은 아니다.
⑤ 갑과 을: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이다.

13.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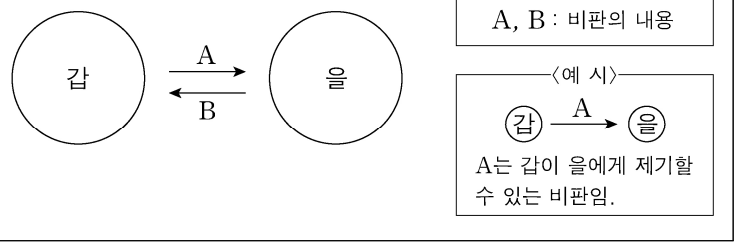
> 갑: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님이 감응한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守心正氣]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님이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님이 반드시 즐거워한다.
> 을: 강화(講和)가 성립되면 사교(邪敎)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섞여 들어와 온 나라에 퍼질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들은 금수가 될 것이다.

① 갑: 천인합일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② 갑: 새로운 세상이 내세(來世)에 열린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③ 을: 절의(節義)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 질서를 철폐해야 한다.
④ 을: 서양의 종교는 배척하되 물질문명[器]은 받아들여야 한다.
⑤ 갑과 을: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야 한다.

14.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국가는 과세와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효 수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을: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계획 경제는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획 경제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나)



① A: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A: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에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③ B: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됨을 간과한다.
④ B: 계획 경제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불가피함을 간과한다.
⑤ B: 자유방임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함을 간과한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 을: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게 신속히 달려가라. 네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며, 우주의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네가 무엇의 일부인지 상기하기 위함이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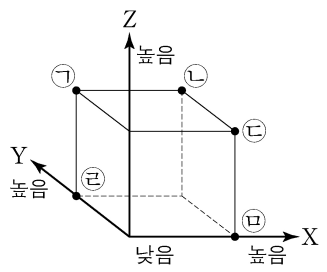
ㄱ. 갑: 신과 운명에 대한 순응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ㄴ. 갑: 정의는 상호 피해 방지를 통해 고통 제거에 기여한다.
ㄷ. 을: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난다.
ㄹ. 갑과 을: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하나는 기(氣)가 주가 되고 하나는 이(理)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에도 기가 없지 않지만 이의 발(發)이라 하고, 칠정에도 이가 없지 않지만 기의 발이라 합니다.
> 을 : 기가 유행하면서 그 본연을 잃고 치우치거나 혼탁한 것은 기의 국한됨이고, 기의 맑음과 혼탁함 가운데서도 그 본연이 손상되지 않음은 이의 통함입니다.



- X : 칠정이 사단을 포함함을 강조하는 정도
- Y : 도덕 본성의 능동적 움직임을 강조하는 정도
- Z : 수오지심이 기가 발현된 감정임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은 곧 자연이다.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하며, 이를 통해 덕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①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
②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이다.
③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
④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있다.
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여섯 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 을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 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① 갑 : 생산이 풍족하지 못하므로 모두 검소하게 살아간다.
② 갑 :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된다.
③ 을 : 역사의 최종 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④ 을 :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된다.
⑤ 갑과 을 :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1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 을 :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ㄴ. 갑 :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ㄷ. 을 :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ㄹ. 갑과 을 :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저는 어떤 정부 형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세 가지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실천,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사상과 의견과 감정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뜻을 같이하는 타인들과 함께 화합할 연대의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①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② 개인적 삶의 기호는 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는 민주 정부 아래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④ 개인이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없다.
⑤ 개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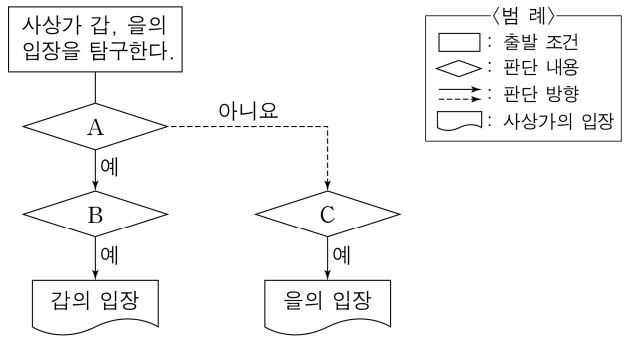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心齋] 만물을 평등하게 관조해야 한다.
②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③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나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
④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본성을 변화[化性]시켜야 한다.
⑤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 을 : 개선론이란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 지성을 장려한다.
(나)	

<보 기>

ㄱ. A : 미리 정해진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가?
ㄴ. B :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
ㄷ. B :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ㄹ. C : 도덕적 인간은 선해지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천하에 도가 행해지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을 : 도는 늘 무위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왕이 그것을 잘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자라난다.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장차 이름 없는 질박함[樸]으로 진정시킬 것이다.

① 갑 : 예는 사회 제도를 제외한 개인적 행위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② 갑 : 인자(仁者)는 타인을 사랑할 뿐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③ 을 : 통치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분에 맞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
④ 을 :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현자(賢者)를 숭상해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을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게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역시 오직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① 갑 : 도덕적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갑 :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 :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
④ 을 :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⑤ 갑과 을 :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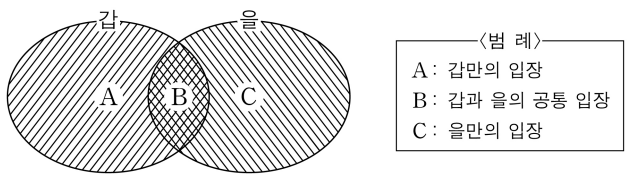
5.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연(因緣)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空) 아닌 것이 없다.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생멸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을 : 식(識)의 전변(轉變)은 모두 허망한 분별이다. 그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唯識]이다.

① 갑 :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므로 생성과 소멸은 실재한다.
② 갑 : 중도는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무에 속한 극단도 아니다.
③ 을 :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세계는 모두 의식과 독립적이다.
④ 을 :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식을 제거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구체적 사물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므로 서로 구별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 가서 물속에 비친 상(像)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 을 :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에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
(나)	

<보 기>

ㄱ. A :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ㄴ. B :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ㄷ. B :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ㄹ. C :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식탁 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맛있는 요리가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을 : 한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할 때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 기>

ㄱ. 갑 : 참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
ㄴ. 을 : 많은 불만족을 동반하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쾌락이 있다.
ㄷ. 갑과 을 : 쾌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성(性)은 마음의 본체가 되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하여 없는 곳이 없다.
을 :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 마음이 텅 비고 신령하여 밝게 지각하는 것을 이른바 본연의 양지(良知)라고 한다. 이러한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意]이라고 한다.

① 갑 : 성은 마음의 본체이므로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② 갑 :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③ 을 :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④ 을 : 치지는 양지를 각각의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 마음을 벗어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는 없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생겨났지만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을 :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보 기>

ㄱ. 갑 :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을 :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
ㄷ. 을 :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신은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는 실체의 양태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

① 신적 본성은 자연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②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된다.
③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④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 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사랑하는 제자에게
>
> 자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보내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람의 마음속에 덩어리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 맹자께서 "생명[生]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의 의가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또한 『예기』에서 "봄과 가을에는 예악(禮樂)을 가르친다."라고 하였는데, 예가 마음속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배우겠는가? 이처럼 인의예지의 이름은 반드시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념하시게.

①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발휘해야 선악을 택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② 인간의 욕구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삶의 추동력이 될 수 없다.
③ 영지(靈知)의 기호는 상황에 따라 선이나 악으로 흐를 수 있다.
④ 수오지심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가 성립될 수 있다.
⑤ 인간의 자유 의지[自主之權]로 인해 행위의 공과(功過)가 생겨난다.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선의지는, 우둔한 머리와 결단력 없음과 같은 타고난 결함으로 인해 또는 질병과 가난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적 목적을 관철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는 최대한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의지로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이 가치에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덜어낼 수 없다.

①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②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③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한다.
④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
⑤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정언 명령에 합치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갑 : 자유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
> 을 : 자유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늘릴 수밖에 없다.

① 갑 : 선의의 이타적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② 갑 :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에 비례한다.
③ 을 :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 보장된다.
④ 을 : 자유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⑤ 갑과 을 :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一]라고 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법(法)은 진실하며 허공과 다르므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心]이라 한다.
> 을 :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定]과 지혜[慧]를 떠나지 않는다. 본체[體]는 작용[用]에 의존하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고,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보 기>

ㄱ. 갑 : 다양한 종파 간 갈등을 화해하여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
ㄴ. 을 :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혜 아닌 선정만이 요구된다.
ㄷ. 을 : 부처의 마음[禪]은 마음으로 전하므로 스승[祖師]이 필요하다.
ㄹ. 갑과 을 : 깨달음을 위해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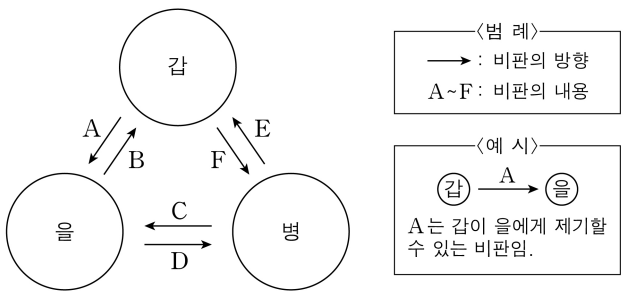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 정부 기능의 확대는 소비 성향 및 투자 유인의 조절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 을 : 정부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직접 간섭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의 임무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 병 :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 그들은 이것과 함께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다.

(나)



① A :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② B :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유효 수요 창출이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③ C와 E :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영속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D : 대규모 실업은 고용 시장에 대한 방임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
⑤ F : 노동자의 소외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기인함을 간과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만일 신이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한다면, 그 최고선을 구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이다. 지상에서 선한 생활에 따르는 평화를 누릴 때에도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천상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불행에 불과하다.
> 을 :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는 행복은 오직 신성(神性)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복은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것으로 이끌어 주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종교적 덕이라 부른다.

① 갑 : 자신의 힘만으로 참된 선을 실현하면 지복에 이를 수 있다.
② 갑 : 선의 원천은 신이지만 자유 의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
③ 을 : 도덕 활동과 지적 활동만으로는 초자연적 행복에 이를 수 없다.
④ 을 : 믿음·소망·사랑의 덕은 자연적 본성만으로도 성취 가능하다.
⑤ 갑과 을 : 신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없다.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품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낯선 사람들의 행복은 공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①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② 이성 단독으로 두려움의 정념을 통제하여 정서 안정에 기여한다.
③ 쾌락에 반응하는 자연적 본성은 인간의 도덕 원리가 될 수 없다.
④ 품성에 대한 평가는 그 품성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다.
⑤ 개인의 승인 감정만으로도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는 데 충분하다.

1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에도 세 부분이 있다. 철학자는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는 생업에 힘쓴다. 이 세 부류 모두에 절제가 있어야 정의로운 국가이다.
> 을 : 초승달 모양의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지만 누구나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로우며,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보 기>

ㄱ. 갑 :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다.
ㄴ. 갑 :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ㄷ. 을 : 국가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 이상 국가에서는 시민들 간에 신분의 구분이 없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9.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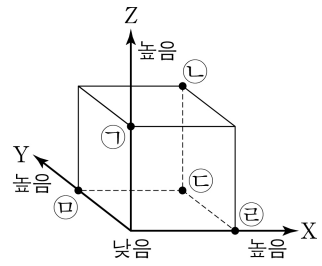
<보 기>

ㄱ. 갑 : 사단은 이(理)가 발함에 기가 올라타고[乘] 있는 것이다.
ㄴ. 을 :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도덕 감정[四端]이 드러날 수 있다.
ㄷ. 을 : 기의 국한성[氣局]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理通] 때문이다.
ㄹ. 갑과 을 : 이와 기는 구체적 사물에서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가), (나)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道)라 하고,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器)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시대에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록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守心正氣] 후 물으니,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라고 하셨다.



• X : 후천개벽(後天開闢)을 강조하는 정도
• Y : 신흥 종교로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정도
• Z : 유교적 신분 질서의 변혁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
② 만물의 근본 원리인 도를 따라 무위자연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③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兼愛] 한다.
④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떠나야 한다.
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求放心] 본성을 잘 길러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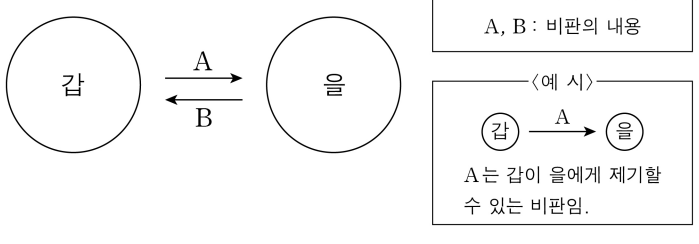
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정부의 기능 확대는 현재 경제 형태들의 근본적 파괴를 피할 수 있는 실행 수단이다. 정부는 도로 건설, 주택 건축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을 : 정부의 경제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반면에 개인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자유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① A :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A : 민주적 방식의 국가 경제 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함을 간과한다.
③ A :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투자 정책을 세워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B :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 규제가 허용됨을 간과한다.

3.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절제는 품성적인 덕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절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즐거움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을 :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발견되는 덕으로, 쾌락의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① 개인의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②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③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④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⑤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4.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그가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을 : 어떤 사람이 비겁한 자이거나 영웅인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인간이 세계 속에 실존한 이후의 일이다.

① 갑 :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지식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갑 :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 가치는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
③ 을 : 인간 본질을 결정하는 외적 존재를 통해 실존을 자각해야 한다.
④ 을 : 실존적 불안 극복을 위해 관습적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⑤ 갑과 을 : 현실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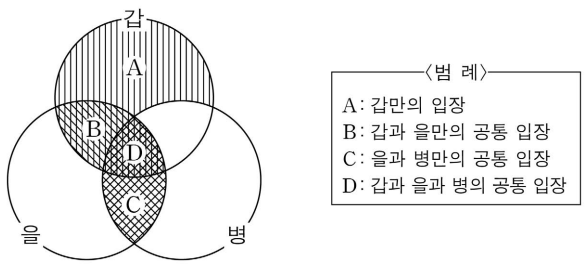
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정서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용의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서를 능동이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동이라고 이해한다.

①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②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③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④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과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 쾌락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는 것도 항상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고통의 제거를 넘어서는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을 :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입법자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것의 강도, 지속성,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병 : 쾌락은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나)	

<보 기>

ㄱ. A : 사려 깊음과 정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
ㄴ. B :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
ㄷ. C : 도덕적 이상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ㄹ. D :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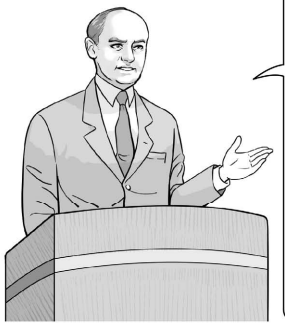
갑 : 이(理)가 발하여 사단이 되는데, 여기서 발하는 바탕[資]은 기(氣)이지만 실제 그렇게 발하게 하는 것은 이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말[馬]을 이끄는 주인이므로, 가는 것은 말이지만 말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인 것과 같다.
을 :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궤도를 잃는 것처럼,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다만 성(性)이 발한 이후에 이를 위주로, 기를 위주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와 기가 서로 발하는 것은 아니다.

<보 기>

ㄱ. 갑 : 정(情)은 그 연원[所從來]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
ㄴ. 갑 : 칠정은 기가 이의 주재를 벗어나면 결코 선이 될 수 없다.
ㄷ. 을 : 사단은 반드시 성이 발해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用]이다.
ㄹ. 갑과 을 : 이는 기가 발하게 하는 원인과 근거[所以然]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주의는 어원상 '국민'과 '통치'의 합성어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통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선과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의 주된 역할은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 기구를 통하여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① 국민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을 행사한다.
② 민주주의는 정치적 절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③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일반 시민은 소수 정치인보다 합리적이다.
④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한다.
⑤ 정치 엘리트는 국민 여론으로 형성된 정책의 집행자 역할만을 한다.

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도(道)와 의(義)를 짝으로 삼는다. 이것은 의가 쌓여서[集義]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을 : 좌망(坐忘)은 자신의 육신과 총명(聰明)을 모두 무너뜨려서 그 형체와 지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와 하나로 융합된 상태이다.

<보 기>

ㄱ. 갑 : 대인(大人)도 삶이 궁핍해지면 양지(良知)를 잃게 된다.
ㄴ. 갑 : 천명을 받은 군주는 민심을 잃어도 결코 쫓아내서는 안 된다.
ㄷ. 을 :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心齋]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사회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우리는 자유를 절대적 의미에서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옹호해야 할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을 : 우리의 권리는 역사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에 관습과 법이 인정할 때만 권리가 된다. 법의 지배하에서는 누구도 자의적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① 개인이 지닌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② 비자의적 권력의 존재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③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④ 법의 지배하에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⑤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정형화된 삶의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이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 을 :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보다 친숙한 사람에게 더욱 잘 공감한다. 그래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이 요구된다.

<보 기>

ㄱ. 갑 : 일반적 진리는 추론 없이 경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ㄴ. 을 : 공감도 편향될 수 있으므로 반성과 교정을 필요로 한다.
ㄷ. 을 : 이성은 감정과 병행하여 정념을 실행하는 의지를 촉발한다.
ㄹ. 갑과 을 : 지식의 확장에는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이 요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다. 평화 조약에 의해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히 종식되지는 않는다.
> 을 :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며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보 기>

ㄱ. 갑 :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 평화 연맹에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
ㄴ. 을 :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한다.
ㄷ. 을 :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신(臣)이 임금님께 삼가 아뢰옵니다.
>
> 마음속 측은지심을 이끌어 기르면 어진 정치를 행할 수 있으니, 측은지심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실에 비유하면 측은지심은 실뭉치와 같고 이것을 풀어내면 효제(孝悌)를 할 수 있으니, 어느 것이 근본이고 말단이겠습니까? 맹자가 직접 사단을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풀이했으니, '단(端)'이 '시작[始]'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뜻을 생각하시어 부디 어진 정치를 베풀어 주시길 간청하옵니다.

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덕이 측은지심의 근본이다.
② 형구(形軀)의 기호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인간만이 지닌 성(性)은 기질에 따라 선악의 향방이 변할 수 있다.
④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로 부여된 천명(天命)이다.
⑤ 시비지심을 시작으로 삼아 확충하면 성으로서 지(智)를 형성할 수 있다.

14.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모든 사람은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실천 이성에 부여된 제1 원리는 선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선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다.'가 그 원리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제1 계명은 '선은 행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악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①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성향이 없다.
②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③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④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참된 행복에 도달한다.
⑤ 인간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그러한 법은 영원법에 부합할 수 있다.

15.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치지(致知)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끝까지 확충하는 것이다. 만약 치지하지 못하면 악을 미워해야 함을 알면서도 미워함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 을 : 치지란 모든 사물 각각의 이치[理]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지하면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니, 그 불선(不善)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① 갑 : 마음의 천리를 깨달아 객관적 사물이 지닌 이치를 알 수 있다.
② 갑 : 마음을 바로 잡으면[格物] 양지는 별도의 학습 없이 획득된다.
③ 을 : 성선(性善)은 측은지심의 실마리[緖]인 인(仁)을 통해 확증된다.
④ 을 : 개별적인 도덕 실천보다 궁리(窮理)를 통한 앎을 중시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진정한 앎[眞知]을 실현하는 수양인 치지를 이루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동양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唯識]이다. '식'에서 떠나지 않는 법(法)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양극단을 벗어나 중도(中道)에 부합한다.
> 을 : 모든 것이 공(空)하지 않다면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다. 인(因)과 연(緣)에서 생겨나는 일체 법은 공이고 가명(假名)이며 중도에 부합한다.

<보 기>

ㄱ. 갑 : 영원불변의 나를 상정하는 자아의식은 자성(自性)을 지닌다.
ㄴ. 갑 : 세속의 오염된 의식을 전환하여 맑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
ㄷ. 을 : 인연의 화합에 의해 생겨난 사물은 임시적으로 존재한다.
ㄹ. 갑과 을 :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듦으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18.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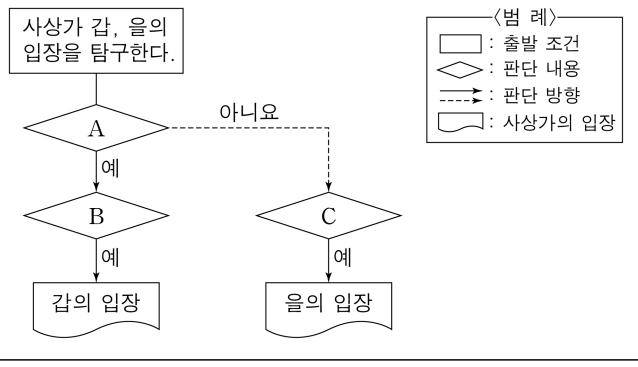
> (가) 서양 외적[洋賊]을 치자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 선 사람이고, 서양 외적과 화친하자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 선 사람이다. 전자는 나라 안 문물제도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는 사람들을 짐승의 영역에 밀어 넣을 것이다.
> (나) 우리의 도(道)는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고 한울님의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守心正氣]이다. 한울님의 성품을 따르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것[無爲而化]이다.

① (가) : 민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 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② (가) : 서양의 물건은 풍속을 해치므로 서양과의 교역을 단절해야 한다.
③ (나) : 현세의 고통을 인내하고 사후(死後)의 극락세계를 기다려야 한다.
④ (나) : 보국안민을 위해 동양의 학문과 서양의 종교를 융합해야 한다.
⑤ (가)와 (나) : 성리학적 신분 질서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세운 인격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을 : 국가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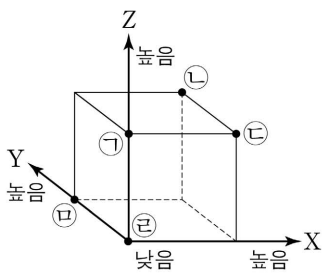
<보 기>

ㄱ. A :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가?
ㄴ. B :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가?
ㄷ. B :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가?
ㄹ. C :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 조직인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갑 : 모든 법(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여래의 좌(坐)이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는 것이 여래의 선(禪)이다. 근본 바탕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본체가 뚜렷이 밝음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견성성불(見性成佛)이며 여래의 지견(知見)이다.
> 을 : 한마음[一心]은 부처가 체득한 것이므로 이 마음을 일컬어 불성(佛性)이라 부른다. 이는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괄하는데, 마치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모이듯 한맛[一味]으로 돌아가게 한다.



- X :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중시하는 정도
- Y :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중시하는 정도
- Z : 화쟁을 통한 경전 해석을 중시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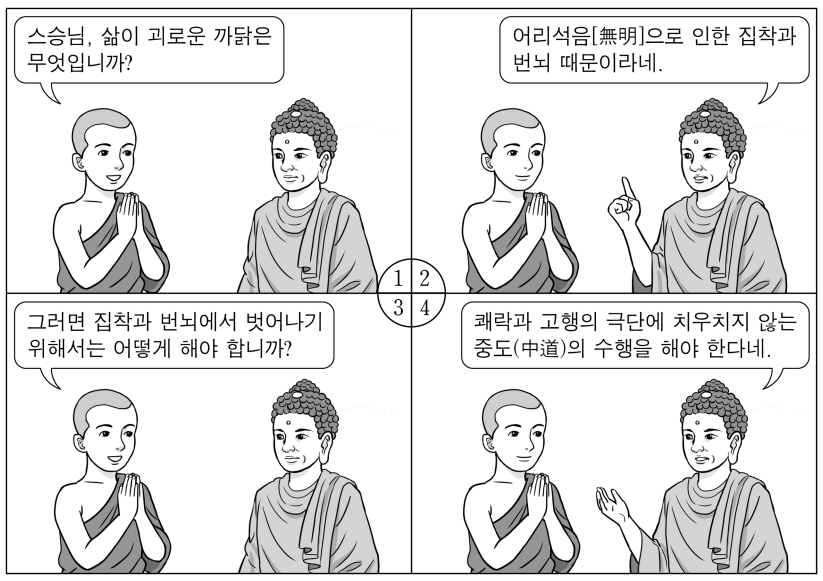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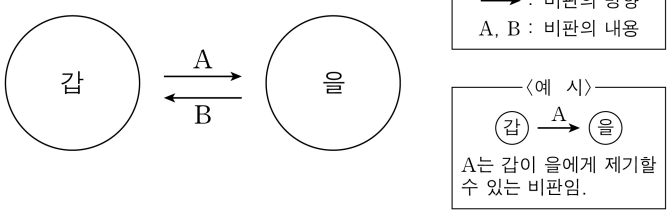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윤회(輪廻)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팔정도(八正道)를 닦아야 한다.
② 대장부가 되기 위해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集義]해야 한다.
③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④ 소박한 삶을 위해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⑤ 모든 사람을 친소(親疏)의 구별이 없이 두루 사랑[兼愛]해야 한다.

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실업은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의 결과이다. 이러한 실업 문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철회와 자생적 질서의 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을 : 실업은 과소 소비와 과소 투자로 인한 총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유효 수요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① A : 시장 실패 시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함을 간과한다.
② A : 자유방임주의가 효율적 자원 배분을 보장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③ B : 자유로운 경쟁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촉진함을 간과한다.
④ B :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가 경기 회복에 효과적임을 간과한다.
⑤ B :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장 전체를 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쾌락은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쾌락은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을 :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들 중에 하등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① 갑 : 신(神)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② 갑 : 서로 피해를 주고받지 않기 위한 협정으로서 정의는 불필요하다.
③ 을 :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동기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
④ 을 : 자기희생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선하다.
⑤ 갑과 을 : 정신적 쾌락의 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육체적 쾌락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선유(先儒)들이 성(性)을 말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고, 지금 사람들은 또 더러 착오를 범하고 있다. 살아 있을 때는 성이라고 하고 죽으면 혼(魂)이라고 하니, 실제로 성과 혼은 다르며, 성은 마음[大體]에 대한 온전한 명칭이 아니다. 성이란 기호(嗜好)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서화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기호를 가지고 성이라 하는 사례이다.

①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으면 어떠한 기호도 실현할 수 없다.
② 영지(靈知)의 기호는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③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한 정도에 의해 선행과 악행이 정해진다.
④ 형구(形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
⑤ 신독(愼獨)의 수양은 반드시 본연의 인(仁)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개체, 즉 유한하고 특정한 사물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이다.

① 선악을 인식한 모든 개체는 수동적 정서에 전혀 예속되지 않는다.
②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는 개체는 없다.
③ 신은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활동하므로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④ 인과 관계를 완전히 인식해야 자연의 내재적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⑤ 사유 능력을 지닌 개체는 실체와 분리되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 :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사랑[愛]은 그 기원[所從來]이 같다.
ㄴ. 을 : 기질의 성(性)과 본연의 성은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다.
ㄷ. 을 : 천명(天命)의 성은 불변하므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ㄹ. 갑과 을 : 마음[心]은 사단과 사덕(四德)을 모두 포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나는 정치적 자유를 '~로부터의 자유'와 '~을 향한 자유'로 구분한다. 전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며, 개인의 선택을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함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 기>

ㄱ.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보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ㄴ. 적극적 자유는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위축될 수밖에 없다.
ㄷ. 소극적 자유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한 간섭으로 침해될 수 있다.
ㄹ.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국가 개입은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다. 현악기에서 한 현의 움직임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감정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 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감정에 걸맞은 움직임을 일으킨다.
을 : 공감과 반감의 원리는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를 충분한 이유로 내세운다. 이것은 행복의 증대라는 외재적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원리이다. 윤리는 이해 당사자의 편에서 행위가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① 갑 : 타인의 정념을 관찰하여 활성화된 마음에서 공감이 일어난다.
② 갑 : 도덕감에 의해 파악되는 선악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실재한다.
③ 을 : 쾌락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지만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다.
④ 을 : 최대 행복의 원리의 적용 범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는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따라야 한다.
을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결국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피난처를 선택하게 된다.

① 갑 :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② 갑 :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을 : 시민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교체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④ 을 : 사회 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소유권을 갖는다.
⑤ 갑과 을 :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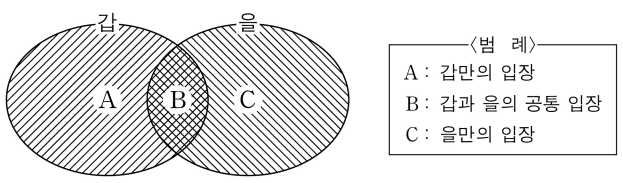
10.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도(道)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信]이 한결같은지 헤아려라. 정성[誠]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헤아려라. 공경[敬]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한울님 우러르는 마음을 늦추지 마라.
(나) 천도(天道)의 참됨은 사덕(四德)이요, 인도(人道)의 변치 않는 길은 오륜(五倫)이다.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이단이다. 난세를 구하는 길은 이단을 물리치는 것보다 우선될 것이 없다.

① (가) : 시천주(侍天主)를 위해 민간 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② (가) :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 유교적 신분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
③ (나) : 천도와 인도의 합일을 위해 유불도(儒佛道)를 융합해야 한다.
④ (나) : 올바른 학문[正學]은 수호하고 서양의 기술은 수용해야 한다.
⑤ (가)와 (나) : 도를 굳건히 지켜 주체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 사람의 마음에는 이치[理]로서 성(性)이 내재하며, 사물 또한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완전한 앎에 이르러야 한다. 을 :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善)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앎을 지극히 하여 그 선을 실천하면 앎이 완전해지니, 이것이 곧 앎과 실천의 합일[知行合一]이다.
(나)	

<보 기>

ㄱ. A: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구현해야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
ㄴ. B: 잃어버린 마음을 선한 행위를 통해 찾을 수 있다[求放心].
ㄷ. B: 완전한 앎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격물(格物)이 필요하다.
ㄹ. C: 양지를 잘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養性]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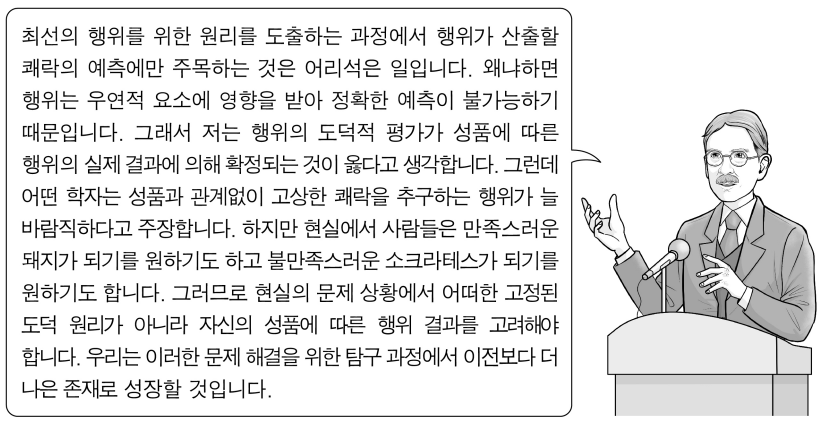
갑 : 인(仁)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음으로 하고, 의(義)를 지닌 사람은 함이 있음으로 하며, 예(禮)를 지닌 사람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도록 한다. 큰 도(道)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을 : 인과 의를 잊고 예와 악(樂)을 잊으며, 감각 작용을 물리치고 육체마저 떠나서 완전히 통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큰 도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지[坐忘]에 도달할 수 있다.

<보 기>

ㄱ. 갑 : 예법(禮法)이 아니라 인의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ㄴ. 갑 : 만물의 근원인 도는 언어로 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ㄷ. 을 :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진인(眞人)이 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 타고난 본성을 유지해야 자연과의 합일이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쾌락의 예측 결과가 행위에 대한 도덕 평가의 유일한 근거이다.
② 행위와 성품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③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옳다.
④ 최선의 행위는 탐구 과정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에서 도출해야 한다.
⑤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는 예상과 상이해도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을,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이성이 의지를 반드시 규정한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은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① 정언 명령에 따르는 의무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② 이성적 존재자는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객관적 법칙을 의욕한다.
③ 의지는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에 따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④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이다.
⑤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법칙 준수를 위해 경향성을 배제해야 한다.

1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천하의 해악은 두루 사랑[兼愛]하지 않으므로 생긴다. 두루 사랑하지 않으므로 제후들은 전쟁을 벌인다.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두루 사랑하는 방법뿐이다.
을 :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화의 구축 활동에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제거가 반드시 요구된다.

<보 기>

ㄱ. 갑 : 어진 사람은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한다.
ㄴ. 갑 : 의로움의 실현은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ㄷ. 을 :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ㄹ. 갑과 을 :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가), (나)는 중국 불교 사상이다.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하늘의 달이 진리라면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달을 보는 데에 손가락을 거쳐서 볼 필요가 없듯이 직접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본성을 직관하면[見性]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나) 하나의 생각은 삼천의 세계를 포함[一念三千]하므로 생각에 따라 중생이 되기도 부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마음을 집중하고 일체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관(止觀)의 수행을 해야 한다.

<보 기>

ㄱ. (가) : 점진적 수행 없이도 단박에 불성(佛性)을 깨칠 수 있다.
ㄴ. (가) : 돈오를 통해서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임을 알 수 있다.
ㄷ. (나) :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해석이 중요하다.
ㄹ. (가)와 (나) : 현상은 공(空)하나 그 이면의 법칙성은 실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비이성적 피조물은 신법을 알지 못하고 자연이 부여한 경향성만 지닐 뿐이다. 반면에 인간은 비이성적 피조물과 달리 본성적으로 주어진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성을 통한 신 존재 증명과 같은 철학적 탐구 외에도 신의 계시라는 가르침이 존재한다. 인간은 신의 계시, 즉 신법을 통해서도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① 신(神) 존재의 철학적 증명과 신과의 합일은 동시에 실현된다.
② 비이성적 피조물의 자기 보존 성향에 따른 행동은 항상 옳다.
③ 신의 계시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至福]으로 인도할 수 없다.
④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의 원천은 신의 섭리인 영원법이어야 한다.
⑤ 내세의 완전한 삶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18.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가 폐지된다면,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 (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해 버렸다.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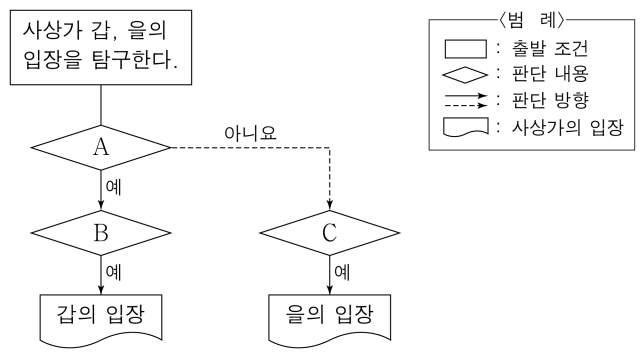
① (가) :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노동자의 소외는 지속될 수 있다.
② (가) : 계급이 철폐된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허용된다.
③ (나) :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제 전복이 필수적이다.
④ (나) : 사회주의 공공 정책을 통해 대중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⑤ (가)와 (나) : 개인의 자유 보장 없이 사회주의 이상은 실현 가능하다.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정의의 형상 자체의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국가는 서로 닮아 있다. 이 국가가 정의로운 까닭은 국가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가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을 :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품성 상태이다. 정의는 중간에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중용이며, 부정의는 지나침과 부족함의 양극단에 관계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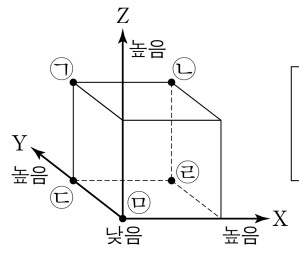
<보 기>

ㄱ. A: 용기 있는 사람이 절제의 덕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가?
ㄴ. B: 철학자는 이성이 욕구를 다스려 나타난 덕을 지녀야 하는가?
ㄷ. C: 실천적 지혜가 정의의 덕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ㄹ. C: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갑 : 사람들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인(仁)이고,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데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의(義)이다.
> 을 : 사람들 중에 스승과 법도에 의해 교화되어 예의에 따르는 사람은 군자(君子)가 되고, 타고난 성정(性情)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예의를 어기는 사람은 소인(小人)이 된다.



- X : 사단(四端)의 확충(擴充)을 중시하는 정도
- Y : 교육을 통한 본성 변화[化性]를 중시하는 정도
- Z : 하늘과 인간의 구분[天人之分]을 중시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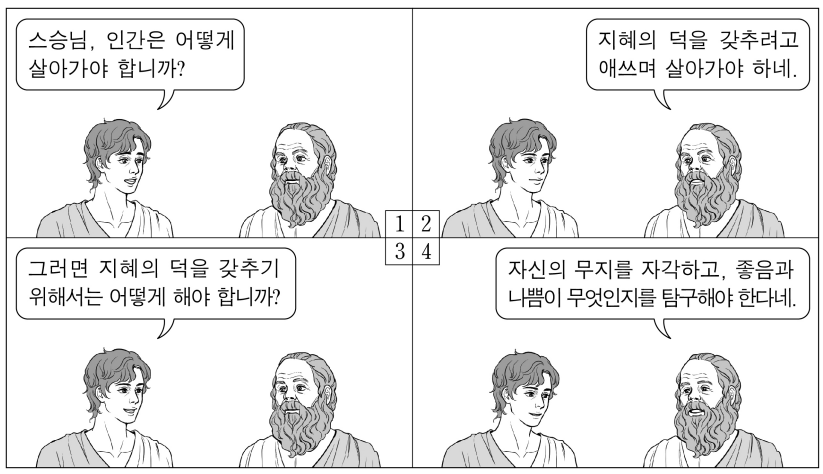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과 사회보다 우주의 근원에 대해 철저하게 탐구해야 한다.
②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
③ 이성을 배제하고 신의 의지에 의탁하여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④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므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⑤ 자신의 영혼을 돌보면서 보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가운데가 텅 빈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이 무한하다.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으니[不仁]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聖人)도 편애하지 않으니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 을: 샘물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맨흙 위에 나오게 되자 서로 입김을 불어넣어 주고 상대방을 침의 거품으로 적셔 주는 것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相忘]만 못하다. 진인(眞人)은 덕을 지니고 조화된 마음으로 천하에 순응한다.

<보 기>

ㄱ. 갑: 무지하고 무욕한 사람이 되어야 소박한 덕을 회복할 수 있다.
ㄴ. 갑: 만물 간 위계를 확립하여 부쟁(不爭)을 실현할 수 있다.
ㄷ. 을: 모든 분별을 앉아서 잊되[坐忘] 참된 나를 되찾아야 한다.
ㄹ. 갑과 을: 사회적 분란을 막기 위해 예법(禮法)을 고수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 탐냄[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을 모두 버려라. 올바로 알고 온전히 깨달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청정한 삶을 살게 된다.
> ○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지, 남에게 귀의하지 마라. 자신을 광명으로 삼고 법을 광명으로 삼지, 남을 광명으로 삼지 마라.

① 연기(緣起)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경계의 대상일 수 있다.
② 올바른 견해[正見]를 얻기 위해 쾌고의 양극단을 지향해야 한다.
③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열반(涅槃)에 이를 수 있다.
④ 자아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기 위해 무명(無明)에 도달해야 한다.
⑤ 현생에서 업(業)을 지은 자는 이번 생에서만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4.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성장 자체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나 한계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 을: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은 없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① 갑: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언제나 유용한 절대적 지식이 있다.
② 갑: 정직과 근면의 덕은 그 자체로 도덕적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을: 인류의 궁극적 목적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규정한다.
④ 을: 인간의 불안한 상황은 참된 실존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편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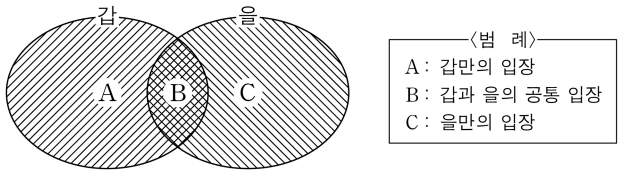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품성적 덕은 단지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하는 품성이다.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곧 이성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덕이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천적 지혜 하나만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들을 가진 것이다.

①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② 품성적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③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자신의 좋음일 뿐 타인의 좋음은 아니다.
④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⑤ 유덕한 활동은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될 뿐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동굴의 죄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통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연못에 비친 상(像), 동식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본 다음, 마침내 태양 자체를 보게 된다. 을 : 악덕과 덕은 단순히 이성 또는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악덕과 덕의 차이는 이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소감에 의해 식별된다.
(나)	

<보 기>

ㄱ. A : 이성은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
ㄴ. B : 영혼의 비이성적 능력은 이성적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다.
ㄷ. B : 선은 사람들의 심적 반응에서 나온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다.
ㄹ. C : 오직 인간의 경험과 관찰만이 지식의 궁극적 원천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 : 기가 발할 때 이의 주재로 나타나는 감정은 선할 수 있다.
ㄴ. 을 : 성(誠)으로써 기질을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
ㄷ. 을 : 측은지심은 사랑[愛]을 포함[兼]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다.
ㄹ. 갑과 을 : 본연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공산주의의 목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 의해 다수의 임금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다. 폭력적 혁명과 계급 폐지를 거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난다.
(나) 사회주의의 목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① (가) : 공장제 수공업을 유지함으로써 노동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② (가) : 계급 자체가 소멸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어야 한다.
③ (나) : 모든 정치 조직을 철폐하여 시장 경쟁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④ (나) : 사회적 안전과 복지의 토대 위에 개인의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
⑤ (가)와 (나) : 노동 착취 해소를 위해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9.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자신의 성품은 그릇됨도, 어지러움도,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하여, 자신의 성품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頓悟頓修]. 선정은 지혜의 본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을 :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치더라도 오래된 습기(習氣)는 끝내 제거해 끊기 어렵다. 만약 지혜로써 노력하여 그 습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안식과 평정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① 갑 : 자신의 고유한 독자성을 파악해 본래 마음을 곧바로 보아야 한다.
② 갑 : 깨달음의 출발점을 마음의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
③ 을 : 문자화된 부처의 말은 허상이므로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없다.
④ 을 : 내면의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성(佛性)을 갖출 수 없다.
⑤ 갑과 을 : 선정과 지혜는 서로를 떠나지 않으므로 함께 닦아야 한다.

10.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플라톤 학파의 책을 읽고 무형의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으며, 신이 만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이 참으로 실재(實在)하며 항상 동일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을 :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이것은 감각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운동하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의 제1원인, 즉 부동(不動)의 원동자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① 갑 : 이성을 통한 신의 존재 증명만으로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② 갑 :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모두 지혜의 덕의 다른 표현이다.
③ 을 : 신의 창조 계획은 동식물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
④ 을 : 선을 추구하라는 계율은 자연법의 다른 계율로부터 도출된다.
⑤ 갑과 을 : 신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잘못된 의지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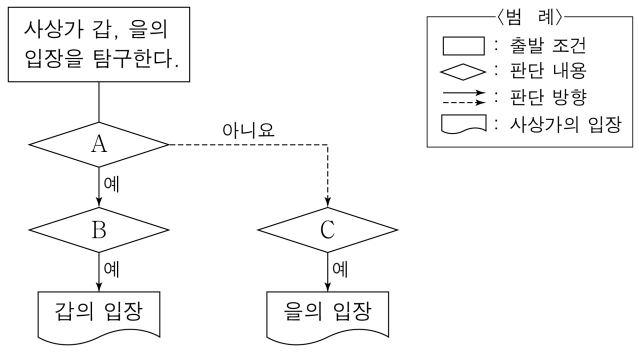
11.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동일한 종류에 속하면서 동일한 이성을 공유하는 생명들의 완성 형식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만물로 이루어진 우주도 하나이고,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신도 하나이고, 모든 지적 생명체들에게 공통된 이성도 하나이고, 법도 하나이다.

을 : 우리 인간은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선이다. 따라서 이성은 각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 유지에 애쓸 것을 요구한다.

(나)



<보 기>

ㄱ. A :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ㄴ. B :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음은 불행의 확실한 징표인가?
ㄷ. C : 자연법칙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가?
ㄹ. C : 자기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선이 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굽은 나무는 반드시 틀을 대어서 불에 쬔 뒤에야 곧게 되고, 무딘 쇠붙이도 반드시 숫돌에 갈고 닦은 뒤에야 날카로워진다. 이처럼 본성이 악한 사람도 예의(禮義)의 지도를 받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을 : 버드나무의 본성을 훼손한 뒤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훼손한 뒤에야 인의(仁義)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인의를 해치도록 이끄는 것이다.

① 갑 :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자연법칙[天]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다.
② 갑 : 인간은 성정(性情)이 이기적이어서 구성원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
③ 을 :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왕도(王道)의 근본이다.
④ 을 :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면 본심을 잃어도 대장부가 된다.
⑤ 갑과 을 : 소인도 스승의 교화를 통해 양능(良能)을 습득할 수 있다.

1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어떤 욕구는 자연적이고, 어떤 욕구는 공허하다. 또한 자연적 욕구 중에서 어떤 것은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단지 자연적이기만 하다.

을 : 쾌락이 아닌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① 갑 : 고통 자체는 자연적이지만 고통의 원인은 비자연적인 것도 있다.
② 갑 : 모든 쾌락은 본질적으로 선이고 쾌락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다.
③ 을 : 타인을 위한 자기 선의 희생은 고통스러워도 그 자체로 선이다.
④ 을 :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욕구 충족만으로 교양의 증진이 가능하다.
⑤ 갑과 을 : 고통이 부재한 상태 그 자체는 쾌락으로 볼 수 없다.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선의지는 자기가 성취하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목적 달성에 유익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 유익이나 무익은 선의지의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의무 및 도덕성의 원리를 인간 본성의 특수한 성질에서 끌어내서는 안 된다.

①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에 있다.
②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일 뿐 무제약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다.
③ 선의지의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에 근거할 수 없다.
④ 선의지의 의욕은 곧바로 객관적 법칙에 복종할 뿐 준칙을 갖지 않는다.
⑤ 선의지는 경향성에 의해 방해받으면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15.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지(知)와 행(行)의 공부는 서로 나란히 짝하여 이르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두 발이 서로 번갈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점차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을 : 지와 행을 사람들이 둘로 나눠 보기에 한 생각[一念]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불선해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금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지행합일을 말하는 이유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행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① 갑 : 궁리(窮理)와 역행(力行)은 경중으로 보면 궁리가 더 중요하다.
② 갑 : 격물(格物)은 의념이 향하는 대상[事]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③ 을 : 치지(致知)는 마음의 본체를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이다.
④ 을 : 양지(良知)는 선악을 판단할 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⑤ 갑과 을 : 인욕을 없애 외부 사물에 내재한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능력이 평등하고 동일한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 양이 충분치 못해 타인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킨다. 이처럼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진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① 갑 :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하여 형성된다.
② 갑 : 주권자는 계약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인공적 인격이다.
③ 을 : 자연법은 국가 수립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다.
④ 을 : 입법부는 신탁(信託)된 권력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다.
⑤ 갑과 을 : 공통 권력이 존재해야만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17.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친애하는 ○○에게
>
> 건강하다는 서신을 받으니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의 논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본성적으로 "나는 회와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나는 부패한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나는 음악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개구리 소리를 싫어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예들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은 기호(嗜好)를 본성[性]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도 성선(性善)의 이치를 논하며 기호로써 그 의미를 밝혔던 것입니다. 제 견해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 선생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① 인간은 하늘이 내린 명령[天命]에 근거한 본성을 동물과 공유한다.
② 의(義)를 꾸준히 실천한 이후에야 비로소 선한 마음이 형성된다.
③ 홀로 있을 때에도 이법적 실체[天]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④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도 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악으로 기울 수 있다.
⑤ 도의적인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人欲]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우리는 독재에 대한 항거 또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 과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민 교육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보 기>

ㄱ. 애국심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 열정이다.
ㄴ.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이다.
ㄷ. 애국심은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승적 사랑이다.
ㄹ. 애국심은 동일한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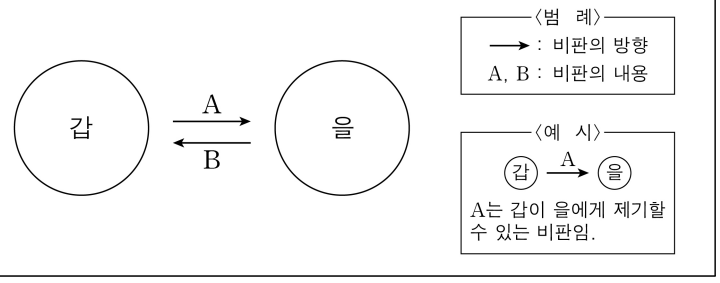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갑 : 공적 이성은 질서 정연한 입헌적 민주주의 사회의 개념을 구성한다. 정치적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공적 이성에 따라, 사적 이익에 입각한 고정된 의견에서 벗어나,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를 실현한다.
> 을 : 시민은 단지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만을 갖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엘리트들이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일 뿐이다.

(나)



① A : 시민의 역할은 정치 대표자의 선출 과정에만 국한됨을 간과한다.
② A : 공정한 심의는 소수 전문가의 의사에만 의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B : 시민 전체의 의견에 근거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④ B : 선출된 정치권력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B : 시민은 정치 문제에서 판단력과 책임감이 취약함을 간과한다.

20.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동양인은 형이상(形而上)에 밝기 때문에 그 도(道)가 천하에 홀로 우뚝하며, 서양인은 형이하(形而下)에 밝기 때문에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오대주를 평정하지 못할 것도 없다.
> (나) 우리의 도는 비록 천도(天道)이나 학(學)은 곧 동양의 학이다. 그런데 서양의 학은 우리의 도와 같은 듯하지만 다르다. 그들은 천주(天主)의 가르침에 따른다면서도 군대를 보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교당을 세운다.

<보 기>

ㄱ. (가) : 유교적 가치[正德]는 서양의 물질문명[器]과 병행될 수 있다.
ㄴ. (나) :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誠)과 경(敬)을 실천해야 한다.
ㄷ. (나) :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ㄹ. (가)와 (나) : 억울함이 해소된 후천(後天) 세계는 죽음 이후에 실현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